

#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 하위문화(sub-culture)와 한국어문학 : 하위문화를 바라보는 n 개의 시선

일시: 2019년 7월 9일(화) 오후 1:00 - 6: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자유 주제 발표 110호

주최: 이화어문학회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하위문화 (sub-culture)와 한국어문학 : 하위문화를 바라보는 n 개의 시선 ”

▶ 일시 : 2019 년 7 월 9 일 (화 ) 오후 1:00 - 6: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 호 , 자유 주제 발표 110 호

▶ 진행 순서

|  |   |
|--|---|
| [1:00 - 1:05] 회원 등록 및 접수   |   |
| [1:05 - 1:10] 개회 및 회장 인사 (111 호 ) * 회장 : 정끝별 (이화여대 )   |   |
| <b>기획 주제 발표 (111호 )</b><br>사회: 이지영 (이화여대 )   | <b>자유 주제 발표 (110호 )</b><br>사회: 진선영 (이화여대 )  |
| [1:10 - 1:40] 이정은 (연세대 )<br>“하위문화에 따른 한국어 사용에 대하여 ”  | [1:10 - 1:40] 황미경 (한기대 )<br>“경남 부산방언의 단모음 실현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br>토론: 손달임 (한기대 )                                |
| [1:40 - 2:10] 신희경 (성신여대 )<br>“『담낭전 』의 존재 양상과 의의 연구 ”   | [1:40 - 2:10] 김용태 (성균관대 )<br>“북촌시단의 여성 인식에 대하여 - 옥수 조면호를 중심으로 ”<br>토론 : 김현미 (한신대 )                            |
| [2:30 - 3:00] 안득용 (고려대 )<br>“맛의 추억과 그 기록 :『屠門大嚼 』을 중심으로 ”                                    |   |
| 중간 휴식 (20분 )   | 중간 휴식 (20분 )  |
| [3:00 - 3:30] 김윤정 (이화여대 )<br>“LGBT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 (postbody)의 상상력과 젠더테크놀로지 ”                   | [2:30 - 3:00] 이연순 (성신여대 )<br>“성재 (惺齋 ) 금난수 (琴蘭秀 )의 생애와 교유<br>양상 고찰-『성재집 』과 『성재일기 』를 중심으로 ”<br>토론 : 노요한 (고려대 ) |
| [3:30 - 4:00] 양윤의 (고려대 )<br>“박상룡 소설에 드러난 ‘신(神)’과 ‘법(法)’의 문제 「퇴약별 』 연작 (민음사 , 1971)을 중심으로 ”   | [3:00 - 3:30] 김영경 (서강대 )<br>“전후 한국사회와 염상섭의 세대의식 ”<br>토론 : 정보람 (이화여대 )   |
| [4:00 - 4:30] 황지영 (이화여대 )<br>“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신체 정치 : 애니메이션 <사이코 패스 (psycho-pass)>를 중심으로 >”       | [3:30 - 4:00] 허난희 (이화여대 )<br>“<소년세계 >의 젠더 연구 ”<br>토론 : 한혜진 (덕성여대 )  |
| 중간 휴식 (20 분 )  |   |
| [4:00 - 4:30] 백소연 (가톨릭대 )<br>“김명화 작품에 나타난 전쟁 기억의 재현 양상- 「침향 」、「냉면」을 중심으로”<br>토론 : 신영미 (경기대 ) |   |
| [4:30 - 5:30] 기획 주제 종합토론 (111 호 )  |   |
| 토론자 : 이향 (조지메이슨대 ) , 탁원정 (이화여대), 안나미 (성균관대 ) , 강지희 (한예종 ) , 김개영 (목포대 ) , 임선숙 (단국대 )          |   |
| 좌장: 김수연 (이화여대 )  |   |
| [6:00~] 저녁 식사  |   |



# <기획주제발표>

# 목 차

“하위문화에 따른 한국어 사용에 대하여”

이정은(연세대) ..... 별지

“『담낭전』의 존재 양상과 의의 연구”

신희경(성신여대) ..... 3

“맛의 추억과 그 기록 : 『屠門大嚼』을 중심으로”

안득용(고려대) ..... 23

“LGBT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postbody)의 상상력과 젠더테크놀로지”

김윤정(이화여대) ..... 39

“박상룡 소설에 드러난 ‘신(神)’과 ‘법(法)’의 문제”

양윤의(고려대) ..... 55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신체정치 :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psycho-pass)>를 중심으로>”

황지영(이화여대) ..... 73

# <자유주제발표>

# 목 차

## “경남 부산방언의 단모음 실현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황미경(한기대) ..... 89

토론 : 손달임(한기대)

## “북촌시단의 여성 인식에 대하여-옥수 조면호를 중심으로”

김용태(성균관대) ..... 105

토론 : 김현미(한신대)

##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의 생애와 교유 양상 고찰-『성재집』과 『성재일기』를 중심으로”

이연순(성신여대) ..... 113

토론 : 노요한(고려대)

## “전후 한국사회의 염강섭의 세대의식”

김영경(서강대) ..... 141

## “<소년세계>의 젠더연구”

허난희(이화여대) ..... 151

토론 : 한혜진(덕성여대)

## “김명화 희곡에 나타난 전쟁 재현 양상의 변화”

백소연(가톨릭대) ..... 163

토론 : 신영미(경기대)<제목 차례>

“하위문화에 따른 한국어 사용에 대하여”

이정은(연세대)

※ 별지 참조



# <담낭전> 의 존재 양상과 의의 연구

신희경(성신여대)

## 목차

1. 서론
2. <담낭전> 이본 분석
3. <담낭전> 문답의 특징과 형성 배경
4. <담낭전>의 문학사적 의의
5.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한글 문답체 소설인 <담낭전>을 분석함으로써 조선후기 문답체 소설의 특징 안에서 한글 문답체 소설이 보여주는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담낭전>은 담낭이라는 소년과 고을 태수가 문답 형식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이다. <담낭전>같이 등장 인물의 문답이 주된 모티프가 되는 소설을 문답체 소설이라고 하는데 문답체 소설은 대부분 지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다른 두 인물이 등장하고 이들의 대화를 통해 어느 쪽이 긍정되는가에 따라 작품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답체 소설은 지식과 사상을 표출하여 시비를 가리는, 문식 있는 부류들의 읽을 거리였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문답체 소설은 조선후기에 『삼한습유』, 『제일기언』, 『요로원야화기』, 『옥선몽』 등의 한문 소설에서 서사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장면과 관련된 지식을 열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한문 문답체 소설에 나타나는 지식의 양상은 지식 정보의 유통과 관계가 있다는 점과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소설이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조선후기 소설 동력으로 기능하였다고 연구된 바 있다.<sup>1)</sup>

지식이 나열되는 현상은 조선후기 한문 소설 뿐 아니라 우화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 한글 소설에서도 나타나며 <명행정의록>과 <위씨오세삼난형행록> 등의 한글 장편소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문소설에서는 고차원적이고 관념적인 지식들이 사상의 성격을 띠고 서술되는 데 비해 한글소설에서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혹은 상식들이 서술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두껍전>과 <녹처사연회> 등 우화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sup>2)</sup>

1) 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김경미, 「조선 후기 한문소설의 의논적 대화 양상과 그 의미: <정생전> <삼한습유> <옥선몽> 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8, 고소설학회, 1999. ; 서경희, 「<옥선몽>연구 : 19세기 소설의 정체성과 소설론의 향방」,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4.; 전성운, 「19세기 장편 한문소설과 청말 재학소설의 지식 제시 방식-<옥선몽>과 <경화연>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2008.; 김경미, 「지식 형성과 사유의 장으로서의 소설의 가능성-<삼한습유>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2) 장예준, 「19세기 소설의 '지식'구성의 한 양상과 '지식'의 성격-<두껍전>에 나타난 '지식' 향유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문답이 지식과 결합하는 양상과 성격 등으로 조선후기 문답체 소설이 가진 문학사적인 의의와 방향이 갖춰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담낭전>은 다른 문답체 소설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담낭전> 연구 논문은 세 편 뿐이다.<sup>3)</sup> 선행 연구들은 <담낭전>이 가진 구성과 문체적 특질, 설화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담낭전>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담낭전>의 이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본만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담낭전>은 두 종류의 국문 필사본이 전한다<sup>4)</sup>고 파악하고 이대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이대본은 <담낭전>이 가진 문체적 특질이나 구성을 잘 보여주는 이본이다. 그러나 이대본 <담낭전>은 <담낭전> 이본의 한 종일 뿐이어서 이대본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존재 양상을 보이는 <담낭전> 일반의 성격을 온전히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더욱이 <담낭전>의 문답은 앞서 언급한 한글 문답체 소설이 보여주는 지식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어서 문답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담낭전>의 다양한 이본을 분석하고 작품 안에서 전개되는 문답을 조선후기 지식의 향유와 이의 공유라는 저변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2. <담낭전> 이본 분석

<담낭전>은 본 연구자가 확인하고 입수한 바에 의하면 8종의 이본이 존재하는데 <담낭전> 이본들은 제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낭(담랑)”과 관련된 작품 중에서 ‘담낭전(담랑전)’이라는 표제를 가진 이본은 4종이며 <고담낭전>이 3종이다. 또한, 제목에 담낭이 드러나지 않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담낭(담랑)”인 작품도 있는데 이 중에는 표제가 ‘담낭전’인 이본이 있는가 하면 표제는 ‘담낭전’이 아니지만 내제는 ‘담낭전’인 경우도 있고 ‘담낭전’이라는 표제와 내제를 가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담낭’을 주인공으로 한 것들도 있다. 또한, 주인공이 담낭은 아니지만 지위가 높은 어른과 총명한 아이가 문답하는 내용이 주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도 있다.<sup>5)</sup> 이처럼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담낭전>의 연구를 위해서는 <담낭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담낭전>의 이본과 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작품을 <담낭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첫째, 주인공은 총명한 어린 아이 담낭이다.
- 둘째, 고을의 관리가 담낭의 총명함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 셋째, 문답의 결과 관리가 담낭의 총명함을 인정한다.
- 넷째, 등장인물의 문답이 전체 작품 분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가진 작품군을 <담낭전>이라고 할 때 이에 부합하는 이본은 다음과 같다.<sup>6)</sup>

3) 이민호, 「談囊傳 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장인수, 「담낭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3.; 조도현, 「담낭전의 문학적 특질과 의의」, 『인문학 연구』 96,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4.

4) 조도현, 위의 논문, 410쪽.

5) 대표적인 작품으로 <공부조동자문답>이 있다.

6) 위의 이본들 중 (가)~(다)와 (아)는 『고전소설이본목록』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에 언급되어 있는데 ⑧의 경우 강문중본2가 목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본인 것으로 추측되며 ④~⑦는 학계에 알려지지 않아 처음 언급되는 이본이다. 이본의 명칭은 기존의 작명을 기준으로 하고 처음 소개되는 이본은 소장자를 기

- (가) 이대본 『담낭던』
- (나) 단국대본 1<담낭전>
- (다) 단국대본 2 <담랑전>
- (라) 단국대본 3 <고담낭전>
- (마) 단국대본 4 『고담낭전단』
- (바) 김광순본 「고담낭전」
- (사) 강문종본 1 『담낭전나라』
- (아) 강문종본 2 『담화스기』

(가) 이대본 『한국고대소설총서』 27)에 수록되어 있으며 내제는 <담낭던단권>이다. 총 50쪽으로 각 쪽 11행이고 각 행은 19~21자, 총 11,000 여 字이며 배경은 “대송 정화년간”, 주인공은 고성도의 아들 담낭이다.

(나) 단국대본1은 표제 ‘향산별곡’ 안에 <향산별곡>, <금강산완상록> 등 8편의 작품과 함께 필사되어 있다.<sup>8)</sup> 총34쪽으로 각 쪽 10행이고 각 행은 20~22자, 총 7,400여 字이며 배경은 “빅제 적”, 주인공은 고전의 아들 담낭이다.

(다) 단국대본 2는 표제 ‘童子問答’ 안에 <공부즈동즈문답>, <정수경전> 등과 함께 필사되어 있다.<sup>9)</sup> 총 18쪽으로 각 쪽 14행이고 각 행은 25~27자, 총 6,100 여 字이며 배경은 “넷 적”, 주인공은 공정의 아들 담랑이다.

(라) 단국대본 3은 ‘당태종전’이라는 표제 안에 「은중경」, 「춘양전」, 「감응편」과 함께 ‘고담낭전’이라는 제목으로 필사되어 있다.

(마) 단국대본 4는 ‘고담낭전’이 표제이며 내제는 ‘고담낭전’으로 단권이다. 총 23쪽으로 각쪽 10행으로 총 6,200 여 字이며 배경은 “석”, 주인공은 고전의 아들 담낭이다.

(바) 김광순본은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69<sup>10)</sup>에 수록되어 있으며 내제는 ‘고담낭전’이다. 총26쪽으로 각 쪽 11~14행이고 각 행은 20~22자, 총 7,200여 字이며 배경은 판독 불가하며 주인공은 고전의 아들 담낭이다.

(사) 강문종본 1은 ‘담낭전나라’는 표제에 내제는 ‘담낭전’이며 단권이다. 총 58쪽으로 각 장 10행이고 각 행은 18~20자, 총 11,020여 字이며 배경은 “딴명시절”, 주인공은 고전의 아들 담낭이다.

(아) 강문종본 2는 ‘담화스기’라는 표제에 내제는 ‘담화스기 권지단’이며 단권이다. 총 69쪽으로 각 장 8~10행이고 각 행은 15~18자, 총 11,500여 字이며 배경은 “딴명 말”, 주인공은 고전의 아들 담낭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낭전>은 총명한 아이 담낭과 고을 태수의 문답을 주요 서사로 하는 작품이기에 ① 담낭의 존재 ② 담낭의 총명함에 대한 태수의 질문과 담낭의 대답 ③ 태수가 담낭의 총명을 인정(상급)을 기본 구조로 한다. 단국대본1은 <담낭전> 이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사구조를 가진 작품이며 단국대본2와 4, 김광순본, 강문종본은 단국대본1을 기본 구조로 하면서 세부 내용이 확장되어 있다. 이대본은 기본구조에서 ③의 부분이 태수의 딸과 혼인하고 응서문답을 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있

준으로 하였다.

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고대소설총서』 2, 通文官, 1959.

8) 본 논문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구기호 R35P4)

9) 본 논문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구기호 R35P5)

10) 김광순 편, 『한국고소설전집』 69, 박이정, 2004.

다. 강문중본2는 ③의 부분에서 상급이 양가로 확대된다. 주요 이본의 서사단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담낭전> 주요 이본의 서사단락

|                       | 단국대본1                             | 이대본  | 강문중본2  |
|-----------------------|-----------------------------------|--|--|
| ① 담낭의 존재              | ① 백제 적에 고전이 담낭이라는 총명한 아들을 두다.     | ① 대송 정화년간 하람 땅 고성도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팔세 아들 담낭을 두다 | ① 대명 말의 고전이 중년에 아들 담낭을 얻다.                                   |
| ② 태수의 질문과 담낭의 대답      | ②-1 담낭이 총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본관이 담낭을 부른다. | ②-1 하람 태수 두연년이 예단을 갖추어 담낭을 찾아가다            | ②-1 담낭이 총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태수가 담낭을 부른다.                            |
|                       | ②-2 담낭과 본관이 문답하다.                 | ②-2 태수와 담낭이 문답하다.                          | ②-2 태수와 담낭이 문답하다.  |
| ③ 태수가 담낭의 총명을 인정 (상급) | ③ 담낭의 총명함을 찬찬하고 금백과 지필묵을 상급하다.    | ③-1 태수가 벼슬을 권하나 담낭이 거절하다                   | ③-1 태수가 벼슬을 권하나 담낭이 거절하다                                     |
|                       |                                   | ③-2 태수가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청하고 태수의 딸과 담낭이 혼인하다. | ⑥ 태수가 황제에게 담낭을 추천하여 한림학사가 되다.<br>⑦ 아버지는 병부상서, 장인은 이부상서에 명하다. |
|                       |                                   | ④ 용서간이 된 태수와 담낭이 인명부를 놓고 파자문답, 재치문답하다.     | ④ 흥촌의 현광무가 재질이 뛰어난 딸을 두다                                     |
|                       |                                   | ⑤ 담낭이 용서문답에서 이기고 본가로 돌아오다                  | ⑤ 담낭이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현광무가 청혼하고 담낭과 현소저가 혼인하다.                   |
|                       |                                   | ⑥ 육남매 각각 성취하고 부부 동일 동시에 승천하다.              | ⑧ 부모 치상하고 담낭 부부 일시에 승천하다.                                    |
| ④ 평                   | ④ 평                               |  | ⑨ 평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낭전>은 기본 서사구조를 가진 단국대본1계열, 기본 서사구조에 용

서문답이 추가된 이대본 계열, 제3의 인물로 장인이 등장하고 혼인과 상급이 가족으로 확대되는 강문종본2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단국대본2, 단국대본3, 단국대본4, 김광순본, 강문종본1은 단국대본1 계열<sup>11)</sup>인데 이 중에서 강문종본1은 <담낭전>의 기본적인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풍부한 서사화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정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단국대본1과 강문종본1 서사단락 비교

|                      | 단국대본1                             | 강문종본1  |
|----------------------|-----------------------------------|--|
| ① 담낭의 존재             | ① 백제 적에 고전이 담낭이라는 총명한 아들을 두다.     | ① 대명시절 노선동에 사는 고전이 사십이 넘어 아이 얻기를 원하다             |
|                      |                                   | ② 부부가 발원축원하여 총명한 자식을 낳다.                         |
|                      |                                   | ③ 구세 때에 담낭의 소문이 원근에 자자하여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로 유여해지다. |
| ② 태수의 질문과 담낭의 대답     | ②-1 담낭이 총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본관이 담낭을 부르다. | ②-1 십세에 고을 태수 금언전이 담낭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데려오다.       |
|                      | ②-2 담낭과 본관이 문답하다.                 | ②-2 태수와 담낭이 문답하다.                                |
| ③ 태수가 담낭의 총명을 인정(상급) | ③ 담낭의 총명함을 칭찬하고 금백과 지필묵을 상급하다.    | ③-1 태수가 벼슬을 권하나 담낭이 거절하다                         |
|                      |                                   | ③-2 태수가 담낭에게 봉물과 음식을 대접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당부하다.         |
|                      |                                   | ④ 동네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다.                         |
|                      | ④ 평                               | ⑤ 일변문답한 말을 전서하고 이름을 담낭전이라 한다.                    |

이렇게 본다면 각 이본의 내용 비교는 이대본, 강문종본1, 강문종본2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① 담낭의 존재 ② 담낭의 총명함에 대한 태수의 질문과 담낭의 대답 ③ 태수가 담낭의 총명을 인정(상급) 의 <담낭전> 기본 구조가 세 이본에서 어떻게 같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대본은 담낭의 출생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아버지 고성도가 도인이며 칠십세에 담낭을 낳았다는 설정으로 담낭의 비범함을 보여준다. 비범함에 더한 담낭의 총명함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11) 단국대본2, 단국대본3, 단국대본4, 김광순본, 강문종본1종은 문답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문답의 내용이 당태종 일화로 끝나며 후일담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계열이라고 본다.

그 아희 나희 팔세되미 구변은 소진 갖고 총명은 관노 갖고 디혜는 안연 갖티야 일남력고하고 문일디십혀여 고금벽디와 데왕의 흥망을 물을 써시 업논지라<sup>12)</sup>

담낭의 총명함이 이와 같음을 알고 태수 두연년이 “네단을 갖추워” 담낭을 칭한다. 이후 문답을 하는데 문답 후에 태수는 “마음이 쾌락”하여 담낭에게 “네 일즉 총명하고 디혜가 유족하니”, “슈신제가도 할련이와 나라(을)위혀여 도덕에 참여하고 큰일홈을 어드라”며 벼슬을 권한다. 그러나 담낭은 문답에서 언급한 충신과 영웅 등을 언급하며 그 보다 못하기에 벼슬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성주째옵서 쇼자를 사랑하시논 은혜는 빅골 난망이옵거니와 쇼자는 하방농부의 후예라 초야에 잇서 일즉 빈운 거시 업삽고 문견이 업사오니 엇지 소임을 당호오리샤 말삼 담짜와 주면이 낭짜로 일홈을 지엿스오니 이르길을 넷말 주면이라 호오니 네말이나 호올 짜름이요 벼살을 엇지 감당호오릿가<sup>13)</sup>

이는 위정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비판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대본의 가장 큰 특징은 문답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원인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대본에서는 담낭이 벼슬을 사양하자 태수는 자신의 딸과 혼인하기를 청하고 담낭은 이를 수락한다. 문답의 결과로 담낭과 태수의 딸이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그령 혼일이 다 〃 르미 혼구을 갖초와 본광예 들어가니 던안형을 미설하고 삼반관속과 성외 성닉 빅성덜이 남녀노쇼업시 좌우에 결단하고 그 가운데 기싱과 관비 등이 처복단장하고 신부를 옹의하고 풍악을 좌우에 버려서서 오음륙물을 갖초와 그 찰난흔 구경은 엇지 다 총량호리요 신부 신낭이 고빅석예 나아가 출네을 필흔 후에 신방의 들어가니 밤이 삼경이라 동상화축예 원양침 널여노코 비취금 폐쳐 덮고 쇼곤 〃 〃 호며 동침지정어 지미잇게 자던 가보더라<sup>14)</sup>

그리고 혼인 후 다른 문답이 이어지는데 이 문답은 인명부와 재산을 두고 하는 내기<sup>15)</sup>라는 점에서 혼인 이전의 문답과는 차이를 보인다.

당인이 쏘 문왈 네가 글짜을 다 아논야 디왈 슈인자는 아나이다 당인이 왈 실경예 살람 달닌게 무슨 자며 이어닌 열너히든 거 무슨 자며 나물 처짜예 혼글시 더흔게 무슨 자며 알으루예 등터진 계 무슨자나 사위 디 왈 실경예 랄람은 하날턴 짜요 이어닌 열너히는 찰영 짜요 나물 처흔 글시는 국화국 짜요 알으우예 등터진 자는 안이비 짜로소이다. <sup>16)</sup>

당인이 왈 오날 아춤예 외앗 낭계셔 미앙이그 썰어지논고로 그거슬 리덕션이라 호얏다 사위 디 왈 어젯 나제 될 안에 복상낭계셔 제비그 우논 고로 그거슬 도연명이라 호얏논이다. 당인이 쏘 문왈 알예 혼 사람이 목예다 쉼예 짓출 쫓고 가기로 그거슬 향우라고 호얏다. 사위 디 왈 오날

12) 이대본 1쪽. (이대본은 『한국고대소설총서』의 쪽수를 기준으로 한다.)

13) 이대본 40쪽.

14) 이대본 44~45쪽.

15) 승부에 니기하고 니가 지면 인명부 주마 사위 디왈 제가 지면 살남 들이지오(이대본 45쪽)

16) 이대본 45쪽.

엇던 사름이 방에 솜이를 차고 가기로 그거슬 띄공이라 헛나이다.<sup>17)</sup>

“용서간이 농담을 한다” 로 시작되는 용서간의 대화는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 전의 문답과 달리 파자 문답과 재치 문답으로 구성된다. 혼인 이전의 문답이 담낭의 총명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혼인 이후의 문답은 대결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태수가 가진 인명부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담낭이 문답 이전 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성취는 결말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각설 이적에 담낭의 나히 년고당성 하여 상하 화목 하고 부창부슈하여 금슬우지에 종고낙지라 어언지간에 룡남민를 나아셔 각각 성취하여 현손삭지 보고 능사를 필하고 팔십일세에 우연 득병하여 부 " 동일동시에 승되빅운하고 지우데향하니 가도? 창성하고 자손(이) 계 " 승 " 하여 세 " 진 " 하더라<sup>18)</sup>

이대본은 문답의 결과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 담낭이 보여주는 단계적 지위상승의 모습을 영웅 소설적 결말<sup>19)</sup>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강문종본1은 다른 이본들에 비해 담낭의 출생과 성장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영웅 소설의 양상과 유사하다. “스십이 지너도록 일점 혈육이 업”던 고전은 “귀흔 즈식”을 얻기 위해 “택일하여 목욕지게하고”, “제물을 진설하고 분향빅빅하여 축원”한다. “과연 그 달부터 티기잇셔 십식만에” 태어난 담낭은 “얼고 리 빅옥 갖고 골격이 단단”하며 총명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러한 담낭의 총명함은 나이가 들수록 일취월장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삼세되미 물 소리 분명하고 쏘 음성이 귀범하기로 이웃 스름 다 탄복하여 장준보오기로 아더니 육세되미 동서남북과 일니삼스오륙칠팔구십미천만역조를 다 말하고 칠세되미 남네유별을 말하고 팔세되미 부모 본양하는 말과 어른 성기는 법을 말하고 구세되미 나달과 절슈와 육십갑조를 무불통지하여 말하니 가위 성이지지라-중략-십세되미 룡덕과 룡횡과 룡예지술과 천문지리와 인스지도을 다 말하는지라<sup>20)</sup>

더욱이 “가세 빈흔하기로 글 흔 즈 가로출디 업”지만 “총명하고 기묘”하여 소문을 듣고 구경오는 사람마다 빈 손으로 오지 않아 그 덕으로 “가산이 점점 유여”해지기 까지 한다. 결국 이러한 소문을 듣고 부사 금언전이 사람을 보내어 담낭을 데려오는 것이다. 이처럼 강문종본은 주인공의 비범한 출생과 성장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영웅 소설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강문종본1의 또 다른 특징은 판소리에서 볼 수 있는 사설치레<sup>21)</sup>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담낭이 머리 비셔 쌍상토하고 복건스며 오익발 눈지복의 돌씩 씹고 익역커며 올은역커 닉음신다운 것과 쓸거슬 차고 귀보선의 통횡전을 자바미고 날줄자 당혜신고 반즈 농 뒤셔우고 토인을

17) 이대본 47~48쪽.

18) 이대본 50쪽.

19) <담낭전>의 영웅소설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민호도 논의한 바 있다. (이민호, 앞의 논문)

20) 강문종본1 2a~2b쪽. (이하 띄어쓰기 필자)

21) 사설치레는 길게 늘어 놓는 언어 표현 형태를 통해 다양한 형상을 꾸며서 치러내는 양태를 의미하는데 열거와 반복을 통해 그 대상을 구상적으로 보여준다.(박영주, 판소리 사설치레 연구, 성대 박사논문, 1992. 22~33 쪽 참조.)

쉴어 삼문을 지니 동천의 선뜻을 너좌괴만의 들너가니 방안 거동 웅장하다 인물 병풍 둘러치고 좌우로 우의 보료 노코 뒤의 안석놓고 안진 광장 엄숙하고도 거룩하시다 좌우의 통인 통인 중방 시우하여거늘<sup>22)</sup>

위의 예문에서는 담낭의 모습과 담낭이 도착한 관아를 사설치레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부사의 부름을 받고 예를 갖추어 의복을 입는 담낭의 모습과 관아의 풍경을 구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설치레의 기능이나 효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문종본1의 서두에서 나타난 담낭의 기이한 출생과 비범한 성장은 작품의 결말에서 이인적 면모로 연결된다. 문답 후에 부사는 담낭에게 “종일 문답의 모을거스 업스니 다시 물을 말도 업다”면서 15세가 되면 벼슬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담낭은 “황희풍과의 나서 시비를 면치 못할”것이라며 벼슬을 사양하며 부사가 주는 음식을 “부모을 싱각하고” 먹지 않는다. 역대 사적과 인간사에 대한 담낭의 지식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데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담낭이 가진 지혜와 이인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강문종본2의 담낭의 아버지는 “성품이 청렴하여 벼슬의 쓰시 업서 몸을 순간의 으지”하는 인물로 “얼골이 관옥고고 괴골이 비범”하다고 묘사되어 있다. 비범한 인물임을 드러내는 정황은 이대본 계열이나 단국대본 계열과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답의 내용 구성은 단국대본1 계열과 유사하다.

그러나 강문종본2는 후일담에서 다른 계열과 차이를 보인다. 강문종본2는 ① 담낭의 존재 ② 태수의 질문과 담낭의 대답 부분은 다른 계열과 유사하지만 ③ 태수가 담낭의 총명을 인정(상급)의 부분이 확대되어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문종본2는 담낭의 혼인 상대로 현소저 가문이 등장한다.

각설 잇씨 담양가 흥촌의 혼명사 잇스되 승명은 현광무라 흥난 사람이 일즉 등과하여 월 임혹사의 이부시랑의 천하여 국사와 도랑이 어린 스람이 닌인니 승품이 강직하여 조정의셔 이 사람을 임으로 못흔는지라 잇 씨 소인의 무리의 석겨 벼살할 쏟시 업서 흥직하고 물너 나와 상호의 여부와 요산요수하여 초자이 놀며 또한 농업을 심써 가산이 유여흔<sup>23)</sup>

담낭과 혼인하는 현소저도 비범한 부모의 만득자로 설정되어있다. 또한, 단국대본1계열의 이본들이 물질적 상급이 나타나는 데 비해 강문종본2의 상급은 양가 아버지가 벼슬을 제수 받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세 계열은 동일한 주인공과 일정한 서사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등장 인물과 사건 전개에 있어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국대본1를 제외한 나머지 이본에서 필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대본은 “계해 납월년일남포는셔” 단국대본2은 『童子問答』의 필사기가 “을축년유월이십오일”로 되어 있다. 단국대본3은 “歲在庚申臘月”, 단국대본4는 “기미년이월순칠일밤 끝”으로, 김광순본은 “계스 정월이십륙일”이다. 강문종본1은 “병진정월초오일에 마촌지라”로, 강문종본2 “기유십일월이십일필이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필사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본들의 선후와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강문종본2의 경우 다른 이본에서 함용병서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비해 각자병서와 ‘·’가 함께 쓰이고 있다. 또한, 후기에서 “잇 칙이 분이 담화사기로 티슈 낭을 불러 문답 뿐이기로 낭의 지식이 만고의 엽는 일니기로 그 직조를 기록하노라 종전을 디어시는 사연이 무식하이 늘려볼지어다”<sup>24)</sup>로 볼 때 강문

22) 강문종본1 3a쪽  
23) 강문종본2 24a~24b

중본2는 문답만으로 구성된 다른 작품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담화스기』 필사기의 기유년은 1909년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이대본은 1863년, 단국대본2는 1865년, 단국대본3은 1860년, 단국대본4는 1859년, 김광순본은 1893년, 강문중본1은 1856년에 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5)</sup>

### 3. <담낭전> 문답의 특징과 형성 배경

한 인물은 묻고 다른 한 인물은 대답하는 형식을 가진 문답체는 작가의 철학적 사유와 논변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문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답체의 형식은 조선 후기에 철학적 저술 뿐 아니라 여러 문학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문답체가 문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홍대용의 『의산문답』을 들 수 있다. 虛字와 實翁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논변이 소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도 문답체 서술을 다수 볼 수 있고 이 중에서도 <허생전>은 문답체가 소설 안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문답체가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는 조선 전기의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에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요로원야화기』, 『금화사몽유록』, 『사수몽유록』 등에서도 그 전통을 찾아 볼 수 있거니와 19세기에는 『삼한습유』, 『제일기언』, 『옥선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일기언』의 저자 홍희복은 서문에서 『경화연』이 소설이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고 세상을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천문, 지리, 의약, 잡기 등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 교화하고 흥미와 즐거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답체는 정보의 수집에 용이하며 사상이나 관점을 드러내기 용이한 서술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문답체는 한문소설 뿐 아니라 『삼설기』의 <오호대장기>, <삼사형입황천기>, <녹처사연회> 등과 <두껍전> 등 한글 소설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문답체는 철학적이거나 정보 수집 보다는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유용하게 적용함으로써 문답 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어떠한 경우이든 문답체 소설은 한문 논변 전통의 기법을 차용하여 대화를 연속적으로 엮어냄으로써 일관성을 가지면서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독특한 소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답체 소설의 등장과 유행은 조선 후기의 지식과 정보의 유통 문제와 관련된다. 조선후기 문화 현상으로서의 지식 생성과 유통은 소설을 통해 생산,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식의 저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하층의 독서 향유자들이 각각의 관심사와 지식의 수준에 따라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하면서 문답 내용의 차이를 가져 온다.

그렇다면 <담낭전>의 문답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1]의 서사 단락으로 볼 때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담낭전>은 전체 분량의 대부분이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대본은 50장 중 48장, 강문중본은 총 58장 중 49장이며 가장 간략한 단국대본1도 34장 중 32장이 문답이다. <담낭전>의 질문은 대부분 역사적인 인물로 충신은 누구인가, 효자는 누구인가 등으로 중국 역사와 인물의 사적을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티슈 문왈 역적과 소인은 뉘라흐며 장사와 협직은 뉘라흐뇨 디 왈 진날야 승상 조고와 한

24) 강문중본2 34b~35a쪽.

25) 필사기의 연도를 각각 60년 이전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문답체 소설의 유행 시기로 볼 때 18세기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날아 왕익과 향적의 역적과 조 〃의 역적이 다 디역부도언이와 임군을 허창의 가두고 와후을 죽이고 동군과 궁빙 다 윤시고 왕족과 충신을 다 자바 죽이고 마춤니 턴위를 찬람하여 제 아들 조비을 세워신이 만고 역적은 조 〃 읍고 소인은 진날아 이사와 송날아 진회와 축한적 영피와 삼국적 초건 갓튼 소인은 불과 쥐갓튼 물이요 구의산 심삼변익 보증으로 능히 들어갓신이 아미도 이좌거 갓튼 담크고 쇠만한 소인은 고금의 읍실거시오 장사을 말할진딘 흥문연잔치에 변괘가튼 장사도 업석이와 누워셔 이십장 소 〃며 삼척근 갑옷입고 팔십근 장창을 들고 칙보의 달는 발을 쭈어 올너 싸사이 아미도 용제도 무든타 활연이와 역발산하여 구정을 들어 세번 하웃씨 사당의 들어가고 희생의 픽흔 몸이 칠십여 창을 막고 한 장 육십여원을 버히고 오강의 다달아 오강 정장의 말을 냉소하고 카을 들어 제 열니을 버히여 마동을 준이 만고장사는 셔초픽왕 향우요 협스로 말할진딘 극익 광화와 묘상 우견과 섭정 혐기로디 제날아 망상군과 초날아 춘신군과 조날아 평원군과 우날아 슬능군 갓튼 이 넷사람으로 괴슈라 허는이다<sup>26)</sup>

<담낭진>의 문답은 인물 뿐 아니라 인간의 도와 자연의 이치로 확대된다.

티슈왈 네 살람에 일은 자세일 알건이와 턴디 일월 영척허는 일과 사시 순회허는 법과 풍운 조화허는 법을 능히 알손야 담낭이 디왈 그 일은 네전현인도 측량치 못허온니 쇼동이 빈운 거시 적고 들은 거시 업스온니디강 알외라다 턴원디방이라 허엇스니 하늘은 두렷허공상은 모는 줄만 아옵고 음양 조화를 엇지 다 아올잇가만은 당초에 하늘은 북에 열니고 쌍은 축에 그두허고 살람은 인에 나고 티극이라 허는 별이 하늘에 돌리소지 되야 두 술천에 달녀시니 열두모여 들면이 잇고 그 가온디 자축인묘진스오미신유술히 열두 음양이 잇고 우예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가 턴간에 잇서 ?도을응허고 일월 성신과 우노설과 뇌진벽벽이 십사위에 매려 잇고 팔괘음양 조화지법이 업기로 하늘이 돌지 못하더니 건곤이 비합하여 세번?산허니 건곤감니진손간티 팔남익을 나셔 팔방으로 보닐시 당자진은 정동으로 보닉고 사네틱은 정서로 보닉고 전은 셔북간으로 보닉고 곤은 셔람간으로 보닉고 오자간은 동북간으로 보닉고 룩네손은 동남간으로 보닉고 니는 정남으로 보닉고 감은 정북으로 보닉고 룩갑륙명과 풍익우사를 차지허여셔로 미려 돌계허니 건은 먼저 셔으로 틱는 셔탐간으로 밀고 곤은 정남으로 밀고 리는 동남간으로 밀고 손은정동으로 밀고 진은 동북간으로 밀고 간은 정북으로밀고 감은 셔북(간)으로 밀(어)려 도라가니<sup>27)</sup>

세 이본에 나타난 문답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    | 답                       |     |
|------|-------------------------|-----|
|      | 강문종본1                   | 이대본 |
| 삼강오륜 | ○                       | x   |
| 태고   |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수인씨, 유소씨 | x   |
| 삼황   | 복희, 황제씨, 신농씨            | x   |
| 오제   | 소호, 전욱, 제곡, 제요, 제순      | x   |

26) 강문종본1 7a~8a쪽.

27) 이대본 27~29쪽. (강문종본1의 경우 16a부터~19a까지 이러한 문답으로 되어 있다.)

|      |   |  |
|------|---|--|
| 성인   | 요, 순, 우왕, 탕왕, 문왕, 주공, 공자, 맹자                  | 공자   |
| 현인   | 공부자 제자 삼천인의 신통육예 제 칠십인, 송나라 칠현                | x  |
| 칠십이인 | 만자, 징자, 자사, 자유, 자색, 자로, 염유, 민자건, 자공, 공서화, 남궁괄 | x  |
| 칠현   | 주염제, 정명도, 정이천, 주부자, 장횡거, 소강절, 사마온공            | x  |
| 성왕   | 요, 순, 문, 무                                    | 요, 순, 하우, 은왕, 성왕, 탕왕, 문왕, 무왕                 |
| 폭군   | 하, 길, 상, 주, 진시황                               | x  |
| 충신   | 비간, 주공, 소공, 이윤, 부열, 왕축, 예양, 관운장, 육수부, 문천상     | 용방, 비간, 관우                                   |
| 효자   | 제순, 문왕, 무왕, 증자, 반자건, 맹종, 왕상, 곽자               | 맹종, 왕상, 곽거, 강시, 순임금                          |
| 영웅   | 한신, 팽월, 공명, 진시황                               | 남궁철, 번쾌, 팽월, 자룡, 장비, 마초, 이적, 설인귀, 악비, 장백, 한신 |
| 문장   | 굴원, 왕발, 사마천, 한퇴지, 이태백, 두자미                    | 조맹부, 소동파, 이장길, 한창여, 송지문, 하지장, 왕우군, 도연명, 이태백  |
| 역적   | 조고, 왕맥, 항적, 조조                                | 난신-항우, 왕망, 조조                                |
| 소인   | 이사, 진희, 영패, 초건, 이좌거                           | 여포, 손빈, 이좌거                                  |
| 장사   | 번쾌, 항우  | 치우, 오자서, 염파, 마완, 초패왕                         |
| 협사   | 곽희  | 곽자의, 팽월, 뇌진                                  |
| 괴수   | 맹상군, 춘신군, 평원군, 슬능군                            | x  |
| 모사   | 장자방   | x  |
| 도술   | 제갈량   | 석가여래, 제갈량                                    |
| 지혜   | 위증  | 위징   |
| 궁량   | 오상궁   | x  |
| 검술   | 운장, 조운, 위증                                    | 위징의 선생, 왕승, 조자룡, 관우                          |
| 활법   | 무왕, 유궁후예                                      | 당뇌, 조자룡, 곽자의                                 |
| 병법   | 강태공   | 헌원씨, 제갈량, 이적, 강태공                            |
| 학술   | 공부자, 정명도, 정이천, 주회암                            | x  |
| 복술   | 강절, 엄군평, 진희, 곽박, 주역, 이순풍, 보사, 흥계관             | 이흥계  |
| 의술   | 편작  | 화타, 편작, 장중경, 이동원, 유하간, 주단계, 이시진              |
| 지리   | 신안, 도안  | x  |
| 처사   | 소부, 허유, 도연명, 엄자능, 황산곡                         | x  |

|                    |                        |   |
|--------------------|------------------------|---|
| 부자                 | 도주, 왕애, 석송             | 도주공, 의돈, 왕개, 석송   |
| 거문고                | 순임금, 백아, 사마상여          | (음술)순임금, 백아   |
| 가무                 | 하우씨, 왕소군, 손빈           | x   |
| 열녀                 | 태사, 맹모 장씨, 아황, 여영, 회영예 | x   |
| 미색                 | 월나라 서씨, 왕소군, 우미인, 양귀비  | (천하절색)우미인, 자란, 맹학, 총용부인, 역대 제왕의 총첩, 속향, 계섬원, 적경흥, 가춘운, 진채봉, 서시, 설도, 양귀비 |
| 망국지색               | 매희, 달기                 | (간사한 계집)말희, 달기, 포사, 여희, 무후소   |
| 요순을 성군이<br>라 하는 이유 | 인의예지효제충신으로<br>려서       | 다스<br>x   |
| 하걸을 폭군이<br>라 하는 이유 | 인의예지효제충신으로<br>리지 못하여   | 다스<br>x   |
| 구변                 | 소진, 장의, 범수, 최탁, 곽철     | 범수, 채택, 소진  |
| 순덕자                | 문왕                     | (어진 임금)삼황오제, 우탕문무   |
| 역덕자                | 진시황                    | x   |
| 선치수령               | 소부, 두모                 | x   |
| 천지일월성신             | o                      | (천지조화지법)  |
| 사시순환지도             | o                      | o   |
| 우로상설지이             | o                      | o   |
| 풍뇌변화지술             | o                      | o   |
| 간해산액지이             | o                      | o   |
| 초목금수지도             | o                      | o   |
| 사방은 어찌하<br>여 생기나   | o                      | o   |
| 죽는 것에 노<br>소 없는 이유 | o                      | (어린 자식과 장성한 자식이 죽는 사람의<br>이치)   |
| 지부사적의<br>근거        | o                      | o   |
| 호걸                 | x                      | 두목지, 이태백, 진시황   |
| 명필                 | x                      | 왕희지, 종요, 채옹, 이사   |
| 의량                 | x                      | 장자방   |
| 산법                 | x                      | 소하  |
| 아성                 | x                      | 인지, 증자, 자사, 맹자  |
| 현인                 | x                      | 민손, 염경, 엄옹, 재여, 자로  |
| 점술                 | x                      | 주회암, 원천강, 정명도, 소강절  |
| 술법                 | x                      | 왕손군, 안량, 문추, 손빈   |
| 잡술                 | x                      | 손오공   |
| 농업                 | x                      | 신농, 후직  |
| 화공                 | x                      | 모연수, 오도자  |
| 상객                 | x                      | 장거, 여문  |
| 신선                 | x                      | 팽조, 악전, 마고, 서왕모, 동박삭  |
| 선술                 | x                      | 동봉, 길현  |
| 인물                 | x                      | 진평, 두목지   |
| 화초                 | x                      | 국화, 목화  |
| 플                  | x                      | 금광초   |

|                               |   |                         |
|-------------------------------|---|-------------------------|
| 비조                            | x | 백학, 청란, 앵무, 공작, 원앙새, 봉황 |
| 나무                            | x | 굴나무, 송죽                 |
| 주수                            | x | 기린                      |
| 어진 부인                         | x | 태임, 태사                  |
| 명군과 망국지<br>군의 차이              | x | o                       |
| 명관과 탐관의<br>차이                 | x | o                       |
| 가도창성의<br>방법                   | x | o                       |
| 사람의 생사와<br>수요장단, 부귀<br>빈천의 이치 | x | o                       |
| 자식 있는 사람<br>과 자식 없는<br>사람의 이치 | x | o                       |
| 도덕                            | x |                         |
| 천지조화지법의<br>사적                 |   | x                       |

위 표는 두 이본이 공유하는 서사단락 즉 이대본의 있는 답량의 결혼 이전까지의 문답을 정리한 것으로 강문중본의 문답은 52개, 이대본은 54개, 가장 적은 것은 단국대본1로 41개이다.

삼강오륜과 중국의 역사를 첫 질문으로 하는 것은 <담낭전> 문답이 전체적으로 공맹의 교리에 입각한 유교적 도덕 강목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인물 문답의 경우 어떤 인물을 질문의 답으로 했는가는 각 이본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강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대본과 단국대본1의 경우 소설에 등장하는 숙향, 계섬월, 적경홍, 손오공과 같은 허구적 인물을 언급하기도 하며 작품의 시대배경과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대본의 시대 배경은 송나라 정화연간(1111~1118)이며 단국대본1은 백제( ~660)이다. 그런데 두 이본에는 원나라와 명나라 때의 저작인 중국 4 대 기서와 전등신화, 조선시대 저작인 구운몽의 등장인물이 거론되는가 하면 단국대본1에는 성삼문이 문장가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담낭전>은 문답의 항목과 세부적인 서술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교적 도덕 강목을 기준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담낭전>의 문답은 유교적 도덕 강목을 열거하는 관념적인 문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서사 전개과정 중에 장면과 연관된 지식을 열거하면서 의론적 성향을 드러내는 한문 문답체 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담낭전>은 한글로 된 문답체 소설이면서도 한글로 쓰여진 우화소설과 달리 일상적 지식이나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는 전략적 지식과는 다른 성격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답체 소설은 조선후기에 『삼한습유』, 『요로원야화기』, 『옥선몽』 등의 한문 소설에서 서사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장면과 관련된 지식을 열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한글 소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조선 후기 지식의 구성과 향유의 양상은 소설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설시조, 민요 등과 함께 <초당문답가>, <초당자 신부문답><sup>28)</sup> 등의 가사를 비롯한 다양한 시가문학으로도 구현되

28) <초당자신부문답>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문답 형식으로 여자의 도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이미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이다. <초당자신부문답>은 천리대 소장본 <취미삼선록> 뒷부분에 부기되어

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담낭전>의 출현과 향유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담낭전>은 다양한 장르에서 유행하던 문답체 서사를 활용하여 습득한 지식과 수집한 정보를 보여주는 형태로 출현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한글 필사본 <담낭전>의 존재는 문답체 문학의 향유층이 한글 소설의 향유층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옥선몽>에는 정몽옥이 시준, 허진인의 후예, 계처사의 딸, 진계와 나누는 대화에서 <담낭전>의 문답과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문 소설의 일부분, 그 중에서도 지식 문답이 한글 소설에서 변용되어 나타나는 정황은 한문으로 교육하던 조선전기의 교육환경이 조선 후기에 교육 담당층이 확대되면서 국문으로 이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의 학습은 경학을 위주로 하는데 조선전기의 관학이 유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념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조선 후기에는 교육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서당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상식의 수단으로 육갑납음, 구구산법, 역대 국호, 왕세계 등을 외우기도 하고 글 대구 맞추기 등을 방계 과목으로 학습했다<sup>29)</sup>는 정황은 <담낭전>의 문답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담낭전』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과 지식은 조선시대 유가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팔역가>와 <오륜가>와 같은 교본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런데 <담낭전>의 지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식 정보를 나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견해<sup>30)</sup>가 지배적이다. 일정정도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어 우주 현상과 사물을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삼한습유>, <옥루몽>, <옥선몽> 등이 고차원적이고 심원한 관념적 지식을 가미<sup>31)</sup>한데 비해 말장난 수준이라고 폄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껍전>에서 보이는 음양오행, 오방, 십간, 십이지, 천문법, 오성, 이십팔수, 길흉화복, 풍수지리, 삼강오륜 등과 표2와 같은 <담낭전>의 문답은 일상적인 수준의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껍전>, <서동지전>에서도 <담낭전>과 유사한 내용이 열거되는데 이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지식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수준의 지식이라고 하면서도 그 연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문답의 내용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논자는 이를 조선시대 잡과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문과 무과와 함께 雜科는 전문직 중인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음양과는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 관련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관리를 선발<sup>32)</sup>하며 역과 시험 과목에는 四書와 <팔세아>가 포함된다.

<팔세아>는 1777년(정조1년)에 검찰과 김진하와 서사관 장재성에 의해 改刊된 (청어)만주어 교재로 팔세의 어린 아이가 황제 앞에 나아가 문답하는 한나라 시절의 이야기이다.

흔 사롬의 아들 여덟살인 제 부모씩 드러 하직하고 먹을 것 업시 무쇼 갓웃 님고 여러 날 녀여 장강성에 다드라 五 千 선빅 뒤히 셔니라. 皇帝보고 무러 니르샤디 저 뒤히 섯는 짜근 아히네 엇던 사롬인다. 八歲兒 갓가이 가 엇자와 니로되 小人이 전일에 皇上이 聖旨 누리오심으로 글 것구라 왓느이다. 皇帝드러시고 2장 웃고 니라냐디 짜근 아히 네 나히 짜그니 무슴 일을

있는데 <취미삼선록>이 18세기에 유통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18세기에 이미 문답체가 여러 장르에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치균, 「초당자 신부 문답」, 『문헌과해석』 35, 문헌과해석사, 2006, 206쪽, 참조)

29) 이동환, 「한국교육풍속사」, 『한국문화사대계』Ⅳ,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769~883쪽 참조.

30) 서경희, 앞의 논문 35쪽.; 김경미「<옥선몽>의 성격과 작가의 소설인식」, 『국어국문학』109, 국어국문학회, 1993, 307쪽.; 장예준, 앞의 논문 120쪽.

31) 장예준, 120쪽.

32) 이수동, 「조선시대 잡과의 음양과 연구-택일 과목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1,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216쪽 참조.

잘 대답할다. 八歲兒 | 갓가이 가 엿조와 니로되 小人이 皇上的 무르시는 일을 잘 대답하리이다. 皇帝 칭각호되 상히 사롬이 아니라 하여 니르샤되 하늘에 머리 잇느냐. 八歲兒 | 대답호되 하늘에 머리 잇느니라. 皇帝 무러 니르샤되 머리잇다 하여 엿지 아는다. 八歲兒 | 대답호되 東 으로 도다 西 로 지느니 그러므로 머리잇다 하여 아느이다.<sup>33)</sup>

황제와 어린 아이가 문답하고 그 결과 총명함을 인정받아 관직을 제수받는 <팔세아>의 구성은 <담낭전>과 상당히 유사한데 <팔세아>가 역과 시험 교재라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청과 청어에 대한 관심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여러 저작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나는데<sup>34)</sup> 이러한 관심이 중인들의 역과 학습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대부에서 중인에게로 지식의 전유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양과의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 등도 문답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담낭전>의 문답은 <옥선몽>의 문답이 전문옥의 지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작가 자신의 박식함을 과시<sup>35)</sup>하는 양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층에서 향유하는 소설 양식에 여러 지식들이 나열되는 현상은 상층문학을 하층에서 적극 수용<sup>36)</sup>하면서 이념 뿐 아니라 문화, 관습, 지식을 전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문학 작품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담낭전>에 나타나는 전유와 변용은 중인들이 가진 지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야기와 지식을 아우르는 작품에 대한 요구<sup>37)</sup>와 함께 중인층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 4. <담낭전>의 문학사적 의의

첫 번째로 문답 소설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문답식 구성을 가진 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위와 시비 사이에서 智力에 의한 논쟁으로 한 쪽의 우위를 입증한다.<sup>38)</sup> 그리고 이러한 문답의 과정과 그 내용, 결과에 따라 작품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작품에서는 견해나 사회적 지위가 상반된 두 인물을 설정하고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는 결과를 위해 문답을 통한 소설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담낭전>의 문답과 이를 수행하는 인물은 종래의 문답체 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담낭전』의 담낭과 관리의 사회적 지위나 나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일반적인 문답 소설과 동일하다. 사회적 지위 역시 담낭은 벼슬 없는 아버지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는데 관리는 그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다. 담낭이 8~10세의 어린 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인물의 나이 차이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인물은 처음부터 대결을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총명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거나 찾아가거나 청하여 만나는 것으로 두 사람은 만남부터 이미 대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즉, 두 인물은 論敵이 아니며 상대의 총명함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공의 의지와 상반되는 인물과 상황이 전개됨으로서 서사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문답체 소설에 비해 <담낭전>은 논적이

33) 조규태, 「‘八歲兒’ 만주어 문어 연구」, 『국어교육연구』13, 국어교육학회, 1981. 28~29쪽.

34) 배우성, 「조선후기 지식인의 한어 인식과 만주어」, 『조선시대사학보』43, 조선시대사학회, 2007, 133~166쪽.

35) 김경미, 「조선후기 한문소설의 의론적 대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8, 한국고소설학회, 118~121쪽 참조.

36) 장예준, 121~125 쪽 참조.

37)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창간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0, 207쪽.

38) 이강엽, 『토의문학의 전통과 우리소설』, 260

아니기 때문에 소설적 긴장감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문답이 진행된다.

질문을 하는 관리는 자신이 질문한 내용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이 궁금하고 잘 모르는 것이나 자신과 견해가 같은가를 시험하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담낭도 알고 있는지 즉, 담낭의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답을 통해 일정한 답과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지식 정도를 시험한다는 의미로 진행되는 것이 <담낭전> 문답의 특징이다.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말하는 사람의 답이 무엇인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담낭전>은 문답체 소설의 한 유형이면서 논적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가 습합되었다는 점이다.

사마천은 『사기』 태사공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은 천지의 음양과 사시, 오류를 드러내고 있음으로 변화에 장점이 있고 『예』인륜을 바로잡고 있으므로 행동하는데 장점이 있고 『서』는 옛 훌륭한 금들의 일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정치를 하는데 장점이 있다<sup>39)</sup>

<담낭전>은 이와 같은 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술된 것을 알 수 있다. <담낭전>에 나타나는 문답의 내용은 경서에 대한 학습<sup>40)</sup>이 선결되어야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글은 천지 분화에 대한 <담낭전>의 내용이다.

혼돈지초의 틱극이란 거시 비로소 판단하올제 하늘은 음양의 말근 기운으로 지시의 둥 " 씨 울너 밀니버 공의 구천이 되어 둥근 슈리박코 모야으로 도술턴의 흑시 달넛드 후옵고 -중략- 턴문도수의 구궁팔괘와 육십갑자라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은 턴간이옵고 조축인묘진스오미신유 술흐은 디지온 즉 턴간과 디지 비합흐은 즉-중략-건폐와 곤폐 세번 응하더니 감니진손간티 육 남익을 나흔니 건곤부모와 합이 팔부조네을 팔방을 말연혀 분할시<sup>41)</sup>

<담낭전>은 하늘과 땅이 음양의 기운으로 생겨났다고 말하는데 이는 주역의 사상과 일치한다. 그런데 천지분화에 대한 인식은 주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남해를 지배하는 제왕은 '倏'이라 하고 북해를 다스리는 제왕은 '忽'이라 하는데 그 중앙에 混沌이 제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마침 남해와 북해의 흠이 혼돈의 나라에서 만나 혼돈이 이 두 제왕을 용승하고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이에 숙과 흠은 의논하여 자신을 용승하게 대접한 혼돈에게 보답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는 눈이 두 개, 귀와 콧구멍이 각각 두 개 그리고 입이 하나로 모두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할 수 있는데 저 혼돈은 몸에 구멍이 없어 흐리멍덩하더니 그에게 구멍을 뚫어 줍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혼돈에게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었다. 그렇게 7일이 지나 일곱 개의 구멍을 다 뚫었을 때 혼돈은

39) 사마천은 『사기』

40) 조선시대 주요 학습서인 경서의 독서 차례는 大學-論語-孟子-中庸-詩經-禮記-書經-易經-春秋 였고 科學를 보기 위해서는 경서를 외우거나 읽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를 익혀야 했다.

41) 강문종본 32~36쪽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42)

혼돈에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 천지분화하였다는 장자의 인식은 주역과 다르다. 그런데 주자학에서 노장은 이단으로 취급되어왔다. 성균관의 생활 규범 중 그 첫째가 ‘노장, 불경, 잡류, 백가자집 등의 이단류를 읽지 말 것’이었으며 선조는 과거를 보는 사람이 노장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금하는 영을 내리기도 하였고 조선 시대 사문난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대상은 대부분 주자의 해석과는 다른 노장의 이론을 적용한 글들이었다. 즉, <담낭전>에 나타나는 문답의 기저에는 주자학의 이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역은 우주론에서 출발하여 인간 생활의 변화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주자학적 자장과는 다른 쪽으로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데 바로 무속 신앙이다. 주역과 무속 신앙은 인간의 인식이 닿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담낭전>에서는 둘 사이의 이러한 공통점을 조합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히는 나지되며 달은 밤이 되옵고 틱을성은 모든 성신을 인도하여 은하슈 동서남북의 논아두고 옥황상제 턴문 구중옥경당의 계시고 또한 모든 선관 제불과 신장승왕을 각 " 소임을 분별하옵고 방우를 질전하옵고 절우와 일조와 시객을 분별하옵시 절우와 일조와 시객을 분정하옵시 우로상설과 외뇌정벽과 풍운조화는 수해용왕을 제수하오고 열두달 삼십 육십일의 동방천제 용왕은 봄을 맛타 기로머리에 모란 화관을 쓰고 몸의 용포의 벽옥띠를 씌고 손의 청옥 홀을 잡고43)

디부에 십왕이 잇서 룡갑을 차지하고 음양을 고로게 비합하여 일왕이 남녘간에 팔십사만 오륙십 칠십구명식 차지하여 닉며 그리며 후되 데일 진광 디왕은 갑자을특별인명모무진기사성식지 차지하옵고 -중략- 데십예명룬디왕은 무오기미경신신유임술계희 성식지 초지하옵고 금목슈화토 오형정기와 음양지리를 음합하여 양은칙골에 혈이 되고 음은 피육에 혈이 되어 오형 정기와 구궁칠정이 되고 사지절릭과 오장륙부7되여 살람을 일워시니 오형상성 상극이 잇서 심기는 성음을 통하고 삼십륙십 사혈에 혈릭과 기운이 서로 통하게 하고 화복길흉과 존비귀천을 마련하여 주는 일이 잇시되 석가여리와 디장보살과 삼십 칠성과 나한보살과 관음보살이 점지하고 인간에 나와 평심 고상으로 지닌게 하고 극낙세계를 도덕 덕근 살람은 복복을 주어 인간에 나와 구뵈하게 하고 슈요 당단을 마련하고 -중략- 팔짜에 양이 과한 살람은 혈이 더 후기로 성정이 급하고 고집이 심하고 음양이 고르고 오형이 온전하여 운기를 타는 살람은 정신이 유족하고 잡병이 업기로 오릭 사닌이다44)

첫 번째 예문에서는 음양의 조화에 의해 생겨난 해와 달, 별에 이어 옥황상제가 등장하며 사시순환은 사해용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지부의 십대왕을 차례로 언급한 후 지부의 십대왕과 오형정기, 음양지리로 길흉화복과 존비귀천이 마련된다고 하였다. 이는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생사를 이해하는 데에 주역의 원리와 무속 신앙을 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역과 무속 신앙은 소설 작품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42) 『장자』 「齊物論」

43) 강문종본 37~38쪽

44) 이대본 32~37쪽

당태종 세민황제 죽었다가 七日만의 다시 환생하오니 황제 주글디의 승상 위증이 편지를 봉하여 봉하신 황제 품의 너허더니 황제 지부의 들어가 판관 한 스름을 초저 위증의 편지를 전하니 그 판관이 편지 바다보고 명주디전을 초저 척의 二十년을 도두워 五十五을 만들어 지부왕을 소이니 지부왕이 판관의 말을 들어 문서를 고감하고 황제를 도로 니여보니라 허슬시 판관이 황제를 다리고 지부 十 왕전을 귀경을 역 "히 하고 八만 四十 지옥을 역 "히 가로치미 제황 스람의 스침지법과 칙만 스을 다 알아 왓쓰오져 지부 중 노의히 다구신니 혹 목도 업스며 혹 팔도 업스며 혹 다리도 업는 귀신이 무슈이 달녀드러 붓들기도 하고 -중략-니 세상의 도로 나가 너의 들을 위하여 슈륙지를 지너주만 하고 세상의 스장범스를 불너 서천서역국의 八만디장경을 니여다가 슈륙지를 지너주어<sup>45)</sup>

이는 악행을 저지른 중국 당태종이 죽어 지옥에 떨어진 후 매일장상의 덕으로 살아나와 이승에서 선행을 펼친다는 세민황제 본풀이의 내용과 일치하는 서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당태종전」에도 나타난다.

황제 수하니 얼마 되시고 심수부를 가져오라 하니 파관이 청명하고 척 싸인 곳의 가 척을 폐본즉 인간 세민황제 즉위헌지 정관 십삼 년의 드러올 희운이미 허싱홀 도리 업는지라 마오의 민망하여 척을 이디로 염왕과 드리면 위정의 부탁을 저버릴 거시오 기세양난하여 양구히 주저하다가 일계를 심각하여 열 십조 위희 두 획을 더 그으니 완연이 이십삼 년이 되는지라<sup>46)</sup>

이처럼 경서에서 출발한 <담낭전>의 서사는 주역에서 무속 신앙과 만나고 이는 다시 소설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 더해 <담낭전>은 영웅 소설, 일사소설이나 야담이 가진 형식과 함께 서술 방식에 판소리 특징이 드러나는 등 다양한 문학 장르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담낭전>은 주자학적 경서의 지식과 무속 신앙 그리고 소설 등의 다양한 문학 장르가 어우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필사본 소설의 전형성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필사본 소설은 필사 과정에서 필사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첨가 부연되기도 하고 삭제되면서 다양한 이본군이 형성된다. 영웅 소설, 판소리, 야담 등 이본에 따라 다양한 장르가 적용된 <담낭전>은 이러한 필사본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본다. 또한 <담낭전>군에 포함되는 작품이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구성 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욱이 다양한 장르가 적용되었음에도 기저에 깔린 주자학적 지식과 소양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식의 습득을 필요로 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욕구를 가진 지식인들의 필사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5. 결론

45) 강문종본 52~55쪽

46) 당태종전

## ‘<담낭전> 의 존재 양상과 의의 연구’에 대한 토론문

탁원정(평택대)

본 발표는 한글 문답체 소설인 <담낭전>의 새로운 이본을 소개하고, 문답체 소설로서 <담낭전>이 지닌 특징과 의의를 드러낸 것이다.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담낭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기에 이번 발표는 고소설 연구에서 <담낭전>을 재환기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토론자는 <담낭전>을 처음 접하는 입장이기에 토론자보다는 독자로서 발표문을 읽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전제 하에 대체로 발표문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한다.

### 1. 새로운 이본을 포함한 <담낭전> 이본군의 향유층은 균일한가?

발표자는 기존의 2종만으로는 다양한 존재 양상을 보이는 <담낭전> 일반의 성격을 온전히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8종의 이본을 소개하고 이를 세 계열로 나누어 섬세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답의 구성이나 서사의 지향 등에서 각 계열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후에 이루어진 <담낭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서는 오히려 이런 다른 성향이 하나로 습합되면서, 2종만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논의와의 변별점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표자는 다양한 구체적 근거를 들어 <담낭전>의 작가층 혹은 필사층을 중인층으로 보았는데, 그 유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sup>47)</sup>에서도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이본의 가세가 이런 기존의 논의를 어떤 점에서 확증하게 하는가를 명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강문중본2 중심)

또한 적극적인 독자로서 중인층이 필사에 가담했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으나, 이들의 필사 동기가 곧 <담낭전> 향유층의 독서 성향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발표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본에 따라 이대본 후반부의 문답은 생략되거나 실제 지식이 아닌 소설 지식이 들어간 이본들도 나타나는데 이런 이본들의 향유층을 창작 혹은 필사층의 성향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실제 “하층에서 향유하는 소설 양식에 여러 지식들이 나열되는 현상은 상층문학을 하층에서 적극 수용하면서 이념 뿐 아니라 문화, 관습, 지식을 전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문학 작품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와 같은 진술에서는 향유층을 하층으로 전제하고 있어 향유층의 성격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47) 장인수, 「<담낭전(談囊傳)>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 2. <담낭전> 속 문답의 성격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가?

발표자는 기존 논의에서 <담낭전> 문답의 질과 그 속의 지식 구성을 저평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담낭전>에서는 기존 한글 소설과는 다른 문답과 지식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논적(論敵)이 아닌 인물 구성이다. 이는 상당히 예리한 분석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 다른 위계 간의 문답이 지니는 전복적 성향이 소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담낭전>은 “유교의 교조인 공자와 무명에 가까운 동자(항탁)의 문답인 <공자동자문답>의 한국적 전승을 보여주는 작품”<sup>48)</sup>이다. 이에 의하면 <담낭전> 문답의 근간에는 상위와 하위의 대결 국면이 존재하고<sup>49)</sup>, 이는 논적(論敵) 여부라는 대화의 성격보다 태수와 담낭이라는 위계적 인물 설정과 긴밀하다. 따라서 <담낭전>의 문답은 그 근간에 민중적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논적(論敵)이 아닌 관계 설정을 통해, ‘속고 속이기 문답’의 변주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지향이 공존하는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별주부전>과 같은 다성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 점에서 기존 한글 소설과는 다른 문답과 지식이 나타난다는 점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한글 소설과는 거리 두기를, 한문 소설과는 친연성을 강조하는 서술은 독자성, 차이를 강조하는 서술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48) 윤주필, 「<孔子童子問答>의 동아시아적 전개 비교론」, 『고소설연구』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377~378쪽.

49) 발표자도 이대본의 후반부에 대해 “혼인 이전의 문답이 담낭의 총명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혼인 이후의 문답은 대결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태수가 가진 인명부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담낭이 문답 이전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대결 국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 맛의 추억과 그 기록 : 『屠門大嚼』을 중심으로

안득용(고려대)

1. 서론
2. 「도문대작」의 구성과 성격
3. 「도문대작」 성립의 배경
4. 논의의 요약

### 1. 서론

許筠(1569-1618)은 1618년 음력 8월 24일 역모죄로 伏誅되었다. 1617년 12월 24일 奇俊格(1594-1624)이 올린 상소에서 허균이 역모의 주모자라고 밝힌 데 따른 처벌이었다. 기준격의 상소가 있던 날부터 역모로 몰려 죽기 전 어느 날, 그 사이에 허균은 『閒情錄』을 증보했다. “남의 고발을 당해 죄인의 몸이 되자 두렵고 놀란 정황에 깊은 시름을 떨쳐버릴 방도가 없었다.”<sup>1)</sup>는 증보의 이유도 밝혔다. 『한정록』의 初本 역시 1610년 千秋使가 되었지만 병을 핑계로 말지 않았다는 이유로 革職된 시기에 엮었으므로, 『한정록』의 彙集과 증보는 신변의 낙척과 관련이 있다.

『한정록』뿐만이 아니다. 1610년 겨울 別試의 文科榜은 공개되자마자 子壻弟姪查頓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sup>2)</sup> 시험관의 아들과 사위, 아우와 조카, 사돈 등이 합격한 문과방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朴承宗, 曹倬, 李爾瞻 등이 각각 아들과 동생과 사돈과 이웃을, 殿試對讀官으로 참여했던 허균 역시 조카 寶와 조카사위 朴弘道를 합격시켰다. 허균만이 처벌을 받아 咸悅縣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함열현에서 그는 자신의 문집 『惺所覆瓿藁』의 초본인 『翁四部覆瓿藁』를 편집하고 『惺叟詩話』를 엮었다. 따라서 『성수시화』 역시 시련의 산물이다. 동 시기에 집필한 저술이 몇 편 더 있는데, 그 중에 이번 논의의 대상인 「屠門大嚼」이 들어있다.

허균뿐만 아니라 시련기나 인생의 전환기 자신의 문집을 편집하거나 숙원이었던 저술을 완성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정체성을 정립해서 밝히며, 지난 삶을 되짚어 봄으로써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柳夢寅(1559-1623)이 『於于野譚』(1620)을 엮고 자신의 문집을 정리한 시기(1621)도 그렇고, 申欽(1566-1628)이 자기서사인 「玄翁自敍」(1617)를 쓴 시기 역시 유배의 막바지였다. 따라서 허균이 자신의 문집과 시화집을 엮은 일은 수궁이 된다.

그런데 「도문대작」은 자신이 맛본 식재료와 음식을 소개하며 품평해놓은 저술이다. 자신이 엮은 저술과도, 여타 문인지식인들이 역경에 대처하기 위해 지은 글과도 성격이 다르다. 허균은 왜 시련기에 식재료와 음식, 그에 대한 맛의 품평을 기록한 「도문대작」을 지은 것일까?

「도문대작」을 다룬 연구는 주로 ‘식품’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식재료와 음식을 중심에 세우거나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다.<sup>3)</sup> 「도문대작」의 구성과 특징, 저술배경, 의미 등을 고찰한 논의는 최근에야 上梓되었는데,<sup>4)</sup> 「도문대작」 자체를 살피면서도 晚明 文化를 아우르는 시야에서 의미를 도출하고 있으므로

1) 허균, 『국역 성소부부고 IV : 閒情錄』, 「범례」, 민족문화추진회, 1989, 24-25면.

2) 『光海君日記』 1610년 11월 3일 기사 참조. 나중에는 이 문과방에 ‘門庭’이 추가되어 子壻弟姪查頓門庭榜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때 합격한 李植을 허균의 문인이라 판단한 결과였다.

3) 식품의 측면에서 「도문대작」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의로는 차경희, 「「屠門大嚼」을 통해 본 조선중기 지역별 산출 식품과 향토음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8,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03, 379-395면이 대표적이다.

4) 안나미, 「허균의 「屠門大嚼」에 대한 고찰」, 『한문학논집』 50, 근역한문학회, 2018, 161-180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다만 「도문대작」 자체의 구성과 성격, 글을 쓸 당시 허균의 삶과 사유, 사유의 역사적 성격 등에 집중해 보면, 기존의 논의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거나 보완할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이 지점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우선, 「도문대작」은 어떤 책이고, 왜 지었는가를 해명하려고 한다. 정확한 해명을 위해 「도문대작」의 구성과 성격, 집필 시기 허균의 삶과 사유, 허균의 사유가 놓인 역사적 흐름 등을 살필 것이다. 해명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양상과 의미를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2. 「도문대작」의 구성과 성격

「도문대작」은 餅餌之類(11/12/16)<sup>5)</sup>, 果實之類(30/30/44), 飛走之類(6/10/11), 海水族之類(40/49/67), 蔬菜之類(25/43/38), 茶·酒·蜂蜜·油·藥飯(5/36/10) 등 여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총117개이고, 표제와 연관이 있거나 부수적으로 언급한 식재료와 음식의 수는 총179개<sup>6)</sup>이며, 식재료의 產地나 특정 음식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거론된 장소는 총192곳이다.<sup>7)</sup> 이로써 볼 때 「도문대작」은 작은 책자이지만 적지 않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지금부터 「도문대작」의 지향, 분류의 범주, 식재료와 음식 소개의 방법, 선별의 기준 등을 통해 전체적인 성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① 『食經』의 곰 고기 찌는 법: 석 되 크기의 곰 고기 한 말을 끓는 물에 넣어 깨끗이 털을 제거하고 반쯤이 못 되게 삶아서 맑은 豆豉汁에 하룻밤 재워놓는다. 수수[秫米] 2되를 물에 닿지 않게 깨끗이 닦아내고 진한 두시즙 2되에 수수를 담가 황적색이 되도록 만들어 밥을 짓는다. 세 치 길이로 자른 파 밑동 1되, 얇게 썬 생강과 굴피 각 2되, 소금 3홀을, 곰 고기와 수수밥에 함께 섞어 시루에 놓고 찌서 익힌다.<sup>8)</sup>
- 2.
3. ② 香瓜 먹는 법: 菜瓜는 양에 상관없이 얇게 썰고 소금을 살짝 뿌려 하룻밤 절여 짜낸 다음 꺼낸다. 절인 간 물에 데쳐서 햇볕에 말린다. 보통 쓰는 식초에 펄펄 끓여 식힌 다음 설탕[砂糖], 채 썬 생강[薑絲], 紫蘇, 蒔蘿, 茴香 등을 고루 섞은 다음 磁器에 담아 한낮 햇볕에 쬐어 말린 다음 저장한다.<sup>9)</sup>
- 4.
5. ③ 곰발바닥 요리: 산촌에는 모두 있다. 제대로 삶지 못하면 제맛을 잃어버린다. 맛으로 보자면 오직 淮陽의 곰발바닥 요리가 가장 좋고, 義州와 熙川이 그 다음이다.<sup>10)</sup>

5) 괄호 안의 숫자는 차례대로 ‘도문대작」 각 범주에서 소개한 식품 표제의 수/표제와 그에 연관된 식품, 그리고 부수적으로 소개한 식품을 모두 더한 수/식품 나는 대표적인 지역의 수(이 경우 동일 장소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식품의 종류가 다른 경우 중복해서 더하였다).’를 각각 가리킨다.

6) 모두 더하면 식품의 수는 총180개이나 餅餌之類와 茶·酒·蜂蜜·油·藥飯의 범주에서 白散子가 반복된다.

7) 상세한 분류와 식재료·음식·명산지에 대한 설명은 차경희, 앞의 논문, 380-394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8) 賈思勰, 『齊民要術譯注』(繆后愉·繆桂龙 譯注), 「蒸熊法第七十七」, 齊魯書社, 2009, 625면, “『食經』, 蒸熊法. 取三升肉熊一斗, 淨治, 煮令不能半熟, 以豉清水漬之一宿. 生秫米二升, 勿近水, 淨拭, 以豉汁濃者二升漬米, 令色黃赤, 炊作飯. 以蔥白長三寸一升, 細切姜橘皮各二升, 鹽三合, 合和之. 着甑中蒸之, 取熟.”

9) 未詳, 『居家必用事類全集』(『明代通俗日用類書集刊4』), 「己集·飲食類」, 西南師範大學出版社 ; 東方出版社, 2011, 251면, “食香瓜兒. 菜瓜不拘多小, 薄切, 使少鹽淹一宿, 瀝起. 用元滷煎湯焯過, 晾乾. 用常醋煎滾候冷, 調砂糖·薑絲·紫蘇·蒔蘿·茴香拌勻, 用磁器盛, 日中曝之, 候乾收貯.”

10) 許筠, 『惺所覆瓿藁』 권26, 「屠門大嚼」, 371면, “熊掌: 山郡皆有之. 烹飪不適, 則失其眞. 味唯淮陽最善之, 義州·熙川又次之.” ○ 본고에서 사용하는 「도문대작」의 대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영인한 『韓國文集叢刊』 74이다. 다만 오탈자로 생각되는 글자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성소부부고』(신암 D1 A1217) 소재 「도문대작」과 원문을

6.

7. ④ 참외: 義州의 참외가 상품이다. 작고 씨가 가늘며 맛은 매우 달보드레하다.<sup>11)</sup>

조선시대 식재료나 음식을 소개하는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類書는 北魏(386-534)의 賈思勰이 쓴 『齊民要術』(6세기 초)과 元나라의 類書인 『居家必用事類全集』이다. 『제민요술』은 농업, 원예, 축산, 농산물 가공, 외국산 품종의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農書의 성격을 띠는데,<sup>12)</sup> 예문 ①처럼 조리법도 다수 수록해 두었다. 가정생활의 백과사전 역할을 하는 생활용 유서 『거가필용사류전집』은 농서의 성격이 강한 『제민요술』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며, 예문 ②에서 보이듯 음식의 저장법을 소개하거나 『제민요술』처럼 조리법을 상세히 소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sup>13)</sup> 이에 반해 「도문대작」에서 발췌한 예문 ③과 ④는 조리법이나 저장법의 소개와는 거리가 멀다. 예문 ③의 경우 잘 삶아야 한다는 지침을 주고 있어서 조리법과 일정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은 역시 '제맛[其眞]'에 있고, 예문 ④도 '달보드레한[甘滑]' 맛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예문 ①과 ②처럼 곰 고기와 (참)외를 각각 소개하고 있지만 「도문대작」의 서술은 식재료와 음식의 '맛'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다르며, 이것이 「도문대작」의 가장 핵심적인 특색이다.

「도문대작」은 '병이지류',<sup>14)</sup> '과실지류', '비주지류', '해수족지류', '소채지류', '茶·酒·蜂蜜·油·藥飯' 등의 여섯 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sup>15)</sup>(조리법과 보관법)을 소개하는 책은 대체로 식재료나 조리법에 따라 분류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디미방』(1670경)과 『山林經濟』(1718경)는 식재료, 『是議全書』(19세기 말)는 조리법, 『閨閣叢書』(1809)와 『林園經濟志』(1827)는 조리법을 綱, 식재료를 目으로 분류의 기준을 세웠다.<sup>16)</sup> 이에 비추어 보면 「도문대작」은 식재료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누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것은 조리에 능통한 요리 전문가가 아닌 허균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분류였다. 아울러 식재료의 특정 분야에 소속시키기 어려운 여섯 번째 범주를 제외하면, 「도문대작」의 각 범주는 표제만 보고도 소속된 식재료와 음식을 알 수 있게 세워졌으므로 직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허균은 그 기준 역시 비교적 엄정하게 적용하였다.<sup>17)</sup>

「도문대작」의 범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조선중기 이전에 출현한 중국과 조선의 유서나 物名類·어휘집을 조감해보면 「도문대작」의 분류 계통 역시 기존의 편찬서들에 맥이 닿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과 연관된 범주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교하였다. 이하 『성소부부고』의 서명과 권수의 표기는 생략한다.

- 11) 許筠, 『屠門大嚼』, 371면, “甜瓜(瓜): 義州爲上. 小而核細, 味甚甘滑.”
- 12) 『제민요술』에 대한 설명은 시노다 오사무, 『중국음식문화사』, 윤서석 외 옮김, 민음사, 1995, 82-93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 13) 『거가필용사류전집』에 대한 소개는 시노다 오사무, 앞의 책, 199-218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 14)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餅, 보리 이외의 곡물 분말로 만들었거나 밀가루 이외의 穀粉으로 만든 음식을 餌라고 하므로, 「도문대작」 '병이'의 범주에는 죽, 떡, 과자, 다식, 엿, 만두, 정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병이'의 개념은 시노다 오사무, 앞의 책, 64면; 李盛雨, 『韓國料理文化史』, 敎文社, 1999, 146면 참조.
- 15)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모든 것이 음식이고, 음식의 재료가 식재료이다. 이 모두를 포괄해서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을 통틀어 식품이라고 한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참조.
- 16) 李盛雨, 앞의 책, 382-383면 참조.
- 17) '비교적'이란 수식을 더한 이유는 '들쭉'이 예외이기 때문이다. 들쭉은 과일이므로 당연히 果實之類에 소속되어야 하지만 餅餌之類의 항목에 들어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허균이 소개하려는 대상은 아래 예문에 보이듯 과일인 '들쭉'과 그것을 가공한 병이류 '들쭉정과' 모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부류 어디에 소속시켜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데 허균은 정과에 무게를 두어 '병이지류'에 넣은 것이다. 許筠, 『屠門大嚼』, 370면, “들쭉(정과): 오직 甲山과 北靑에서만 난다. 정과로 만들었을 때 맛이 가장 좋고, 포도 이하는 들쭉에 미치지 못한다(豆乙粥: 只産於甲山·北靑. 味最合於正果, 蒲桃以下皆不及焉).”

8. ○ 중국 일반 유서

9.

10. · 歐陽詢, 『藝文類聚』(624)-食物部, 百穀部, 果部, 鳥部, 獸部, 鱗介部

11. · 李昉 等, 『太平御覽』(977-983)-飲食部, 獸部, 羽族部, 鱗介部, 果部, 菜部

12. · 祝穆, 『事文類聚』(1246)-穀菜部, 竹筍部, 果實部, 鱗蟲部, 羽蟲部, 食物部

13. · 陳元靚, 『事林廣記』(元)-文藝類: 五穀譯語, 飲食譯語, 飛禽譯語, 走獸譯語, 蟲魚譯語, 草木譯語, 菜果譯語

14. · 彭大翼, 『山堂肆考』(1595)-飲食, 百穀, 蔬菜, 果品, 羽蟲, 鱗蟲

15.

16. ○ 조선 한자어휘집

17.

18. · 崔世珍, 『訓蒙字會』(1527)-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食饌, 服食

19. · 柳希春, 『新增類合』(1576)-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食饌

20.

21. ○ 중국 생활용 유서

22.

23. · 賈思勰, 『齊民要術』-권 제1: 收種, 種谷, 권 제2: 黍稷. 梁秫, 大豆, 小豆, 권 제6: 養牛馬驢騾, 養羊, 養猪, 養鷄, 養鵝鴨, 養魚, 권 제10: 五谷·果蔬·菜茹非中國物產者)

24. · 未詳, 『居家必用事類全集』(元)-「己集」: 諸品茶, 諸品湯, 果食類, 酒麴類, 飲食類(蔬食, 肉食); 「庚集」: 飲食類(燒肉品, 煮肉品, 肉下酒, 肉灌腸紅絲品, 肉下飯品, 肉羹食品, 回回食品, 女眞食品, 濕麪食品, 乾麪食品, 從食品, 素食, 煎酥乳酪品, 造諸粉品, 庖廚雜用)

25. · 劉基(1311-1375), 『多能鄙事』(明)-「飲食類」 권1: 造酒法, 권2: 餅餌米麪食法, 권3: 糖蜜果法, 治蔬菜法, 治壞果物法, 茶湯法<sup>18)</sup>

「도문대작」의 범주 명칭과 일치하는 표제가 보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분류의 양상이다. 일반 유서와 어휘집은 有情物과 無情物의 구도로 분류하고, 다시 육류와 어류, 채소와 과일과 곡식으로 나누고 있다. 생활용 유서의 경우, 식재료와 음식에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식품과 조리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통적 유사성을 보인다. 예컨대 『다능비사』의 “造酒法”, “餅餌米麪食法”, “糖蜜果法”, “茶湯法”, 『거가필용사류전집』의 “諸品茶”, “酒麴類” 등과 같은 표제나 내용의 유사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다만 분류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면 유사한 표제를 표시한 위의 결과에서 보이듯, 일반 유서나 어휘집보다 공통점이 적다. 「도문대작」이 유정물과 무정물 아래에 포괄되는 식재료를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고, 음식에 해당하는 범주가 ‘병이지류(죽·떡·과자·다식·엿·만두·정과)’와 ‘마지막 범주(茶·酒·蜂蜜·油·藥飯)’ 밖에 없는 데서 연유한 결과이다.

동일한 범주더라도 그 공간을 채우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도문대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의 표제에 한 가지 식재료나 음식만을 소개한다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음처럼 동일한 식재료라도 가공법이나 조리법은 물론, 음식의 모양과 담아내는 태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18) 위 목차와 명칭은 심경호, 『한국 한문기초학사 2』, 태학사, 2012, 325-967면과 편찬서의 실제 목차를 아울러 확인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26. 單籠金乳酥(是餅但用獨隔通籠欲氣隔), 曼陀樣夾餅(公廳爐), 巨勝奴(酥蜜寒具), 貴妃紅(加味紅酥), 婆羅門輕高麪(籠蒸), 七返膏(七卷作四花恐是糕子), 金鈴炙(酥攪印脂取眞), 御黃王母飯(徧縷印脂蓋飯面裝雜味), 通花軟牛腸(胎用羊膏髓), 光明蝦炙(生蝦則可用), 生進二十四氣餛飩(花形餛飩料各異凡二十四種), 生進鴨花湯餅(厨典入內下湯), 同心生結脯(先結後風乾), 見風消(油浴餅), 金銀夾花平截(剔蟹細碎卷), 火燄盞口餛(上言花下言體), 冷蟾兒羹(冷蛤蜊), 唐安餽(鬪花), 水晶龍鳳糕(棗米蒸破見花乃進)…<sup>19)</sup>

韋巨源(631-710)의 「燒尾宴食單」 중 일부이다. 이 식단에는 小麥, 밥, 죽, 유제품, 물고기, 羊, 소, 나귀, 돼지, 곰, 토끼, 고양이, 사슴, 새우, 게, 조개, 개구리, 조류<sup>20)</sup> 등으로 만든 58종의 요리가 소개되어 있다. 온갖 미사여구를 부여한 음식의 명칭을 나열해 놓았지만, 주석(괄호의 내용)을 참고해도 요리의 재료와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거나 어렵듯이 짐작만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허균은 「屠門大嚼引」을 통해 何曾의 「食經」과 韋陟의 「食單」에서 그들이 음식을 소개한 방법을 비판한 바 있다. 동일한 식재료라도 “좋은 이름만 (이 음식 저 음식에) 번갈아가며 붙여놓아서 현혹하는 도구로 삼았다”거나, “이름만 바꾸어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다른 명칭으로) 구별”한 태도가 비판의 이유였다.<sup>21)</sup> 즉 名實이 서로 부합하지 않고 번다하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다른 서적에 의지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번다함은 음식 사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sup>22)</sup> 貪食의 혐의를 불식하려는 의도 역시 고려해서 「도문대작」 음식 소개의 원칙을 簡과 素의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만은 예외이다.

27. ⑤ 약밥: 정월대보름에 까마귀에게 먹이는 것은 경주의 오랜 풍속이다. 중국 사람들이 약밥을 좋아해서 본 따 짓고는 高麗飯이라고 이름 붙였다. ○ 서울의 계절음식은 다음과 같다. 봄에는 썩떡[艾糕]·송기떡[松餅]·회화나무잎떡[槐葉餅]·진달래전[杜煎]·배꽃전[梨花煎]이 있다. 여름에는 장미전·수단·떡과자[雙花]·당교자[小饅頭]가 있다. 가을에는 경단·국화떡·곶감밤찰떡[柿栗糯餅]이 있다. 겨울에는 湯餅<sup>23)</sup>이 있다. 煮餅·蒸餅·節餅·月餅·蓼餅·松膏油蜜餅·백설기[舌餅] 등은 사계절 두루 먹는다. 蜜餅은 약과·大桂·中朴桂·紅散子·白散子·氷果·瓜果·蜂蝶果·饅頭果로서 모두 제사와 잔치에 쓰인다. 가는 면으로 만든 국수[絲麪]는 吳同이란 사람이 잘 만들었기에 지금까지도 일컬어진다.<sup>24)</sup>

예문 ⑤는 「도문대작」의 마지막 표제인 약밥[藥飯]의 全文이다. 허균은 식품을 소개할 때 圈(○)을 적절히

19) 陶穀, 『清異錄·饌羞』, 陶宗儀 纂, 『說郛』 권61, 新興書局有限公司, 1972, 953면.

20) 시노다 오사무, 앞의 책, 101-102면 참조.

21) 許筠, 『惺所覆瓿』 권26, 「屠門大嚼引」, 369면, “余嘗見何氏食經及郇公食單. 二公皆窮天下之味, 極其豐侈, 故品類甚夥, 以萬爲計. 諦(諦)看之則只是互作美名, 爲眩耀之具已. 我國雖僻, 環以巨浸, 阻以崇山, 故物產亦富饒, 若用何韋二氏例, 換號而區別之, 殆亦可萬數也.” 대본의 원문은 “締”로, 교토대학 가와이 문고본 『도문대작인』에는 “諦”로 기록되어 있는데, 의미상 “자세하다”는 뜻의 후자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보완하였다.

22) 何曾과 韋陟은 다음 예문에서 보이듯 음식 사치로 알려져 있다. 王世貞, 『弇州四部稿』 권171, “何曾食日萬錢, 子劬日二萬錢. 任愷一食萬錢, 和嶠日三萬錢. 高陽王元雅一食數萬錢, 杜岐公儂日五食, 一食萬錢. 李衛公德裕至一杯羹二萬錢, 韋侍郎陟至厨中棄遺直萬錢. 元丞相載用食物椀器至三千事.” 한편 주석<sup>21)</sup>의 “郇公食單”에서 ‘순공’을 “舒公”의 오자로 보아 ‘韋巨源’의 「燒尾宴食單」이라고 판정한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예문에서 보이듯 탐식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위척’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안나미, 앞의 논문, 170-172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23) 湯餅은 국수, 떡국, 수제비, 만둣국, 밀가루가래떡국 등 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해서 삶은 것 모두를 가리킨다. 이 성우, 앞의 책, 165-167면 참조.

24) 許筠, 「屠門大嚼」, 374면, “藥飯: 十五日飼烏, 東京舊俗. 華人好之, 效而造食, 名曰高麗飯. ○ 都下時食. 春有艾糕·松餅·槐葉餅·杜煎·梨花煎. 夏有薔薇煎·水團·雙花·小饅頭. 秋有瓊糕·菊花餅·柿栗糯餅. 冬有湯餅. 而煮餅·蒸餅·節餅·月餅·蓼餅·松膏油蜜餅·舌餅等味通四時. 而蜜餅則藥果·大桂·中朴桂·紅白散子·氷果·瓜果·蜂蝶果·饅頭果, 皆用於享祀賓讌. 絲麪則有吳同者善造, 故至今稱之.”

사용했는데, 보통 권내의 식재료나 음식과 연관이 있는 사안을 권외에 배치해서 내용을 부연하고 보완한다. 즉 약밥이 정월대보름의 계절 음식이므로, 서울에서 계절 특식으로 먹는 30종의 음식을 권외에 소개한 것이다. 다만 각 계절별로 특별한 음식을 소개하려다가 ‘간소’라는 편집의 지향을 여기게 된 것이다.

다만 권외라고 해도 항상 특별한 식품만 소개하지는 않는다. ‘비주지류’, ‘해수족지류’, ‘소채지류’의 권외에 돼지·노루·평·닭(거위 조목), 민어·조기[石首魚·밴댕이[蘇魚]·낙지[絡締]·준치[眞魚]·병어·變宗(도화새우[桃蝦] 조목), 고사리·고비[蕨薇]·아욱·콩잎[葵藿]·취·미나리[薺芹]·배추·삼주[菘朮]·송이[松蕈]·참버섯[眞菌](거여목[苜蓿] 조목) 등의 품목이 각각 보인다. 이와 같은 식재료들은 “고을마다 있는 동물은 번다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산지가 매우 좋거나 요리사가 매우 훌륭한 경우에만 써서 구별하였다.”, “곳곳마다 모두 맛이 훌륭하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병어와 變宗과 같은 물고기는 맛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좋지 않아서 별도로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곳곳마다 모두 맛이 좋으므로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sup>25)</sup>라는 서술과 함께 소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상은 아닌 것이다. 이를 통해 허균의 식품 선별의 태도 역시 알 수 있는데, 평범한 음식이나 맛은 배제하고 특정한 지역에만 있거나 특별히 맛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그것이다.

‘지식정보(knowledge information)’라는 술어가 통용되고 있지만, 지식과 정보는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는 변별된다. 각각 ‘익힌 것’과 ‘날 것’에 해당된다는 비유에서 보이듯 날 것인 정보를, 사고를 통해 가공하거나 ‘체계화’한 결과가 지식이다. 부연하면 원 자료에 가까운 정보를 수집, 대조, 편집, 번역, 주해, 비판, 종합한 최종의 결과물이 지식이다.<sup>26)</sup> 그렇다면 「도문대작」은 둘 중 무엇을 담고 있는가? 둘 모두를 담고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柑子: 제주에서 난다.”<sup>27)</sup>, “감자[柑]: 감자나무는 굴나무와 비슷하나 가시가 적다. 이 또한 굴처럼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말로는 감즈이다.”<sup>28)</sup> 둘 모두 柑子에 대한 설명으로서 전자는 「도문대작」, 후자는 한자어휘집 중 才譜·物譜로 분류되는<sup>29)</sup> 柳僖(1773-1837)의 『物名攷』에 수록된 설명이다. 이로써 보자면 「도문대작」은 한자어휘집만큼의 가공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거친 정보 역시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문대작」 전체를 대상으로 보아도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단순히 정보만을 그저 모아놓았다는 평가 역시 정확하지는 않다. 일정한 구도 속에서 적절한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했다는 점, 즉 ‘체계’를 갖춘 저술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수집과 편집에 관련된 체계 외에도 「도문대작」에는 ‘정보’를 넘어 ‘지식’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식재료와 음식을 제시하는 방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5) 許筠, 「屠門大嚼」, 371면, “거위: 平安道 義州 사람들이 거위를 잘 써서 구워[魚] 중국에서 한 요리의 맛과 흡사하다. ○ 우리나라에서 나는 돼지·노루·평·닭처럼 고을마다 있는 동물은 번다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산지가 매우 좋거나 요리사가 매우 훌륭한 경우에만 써서 구별하였다(鵝: 義州人善魚之, 恰似天朝之味. ○ 凡地產猪·麋·雉·鷄等物, 邑邑有之者, 不必煩載, 而唯或產者絕好, 或膳者絕佳, 則書以別之).”; 373면, “도화새우: 扶安과 沃溝 등의 고을에서 나는데 색이 복사꽃과 같고 맛이 매우 좋다. ○ 민어·조기[石首魚]·밴댕이[蘇魚]·낙지[絡締]·준치[眞魚]처럼 흔한 물고기들은 서해안에서 나는 것으로서 곳곳마다 모두 맛이 훌륭하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병어와 變宗과 같은 물고기는 맛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좋지 않아서 별도로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桃蝦: 產于扶安·沃溝等邑, 色如桃花, 而味絕好. ○ 魚之賤者如民魚·石首魚·蘇魚·絡締·眞魚, 產于西海者, 處處皆佳, 故不載. 瓶魚·變宗等魚, 味或佳或不佳, 故不別書焉).”; 373면, “거여목: 原州에서 나는 거여목은 은젓가락처럼 희고 맛이 달아 정말 좋다. ○ 고사리와 고비[蕨薇], 아욱과 콩잎[葵藿], 취(염교)와 미나리[薺芹], 배추와 삼주[菘朮], 송이[松蕈], 참버섯[眞菌] 등은 곳곳마다 모두 맛이 좋으므로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苜蓿: 產于原州者, 白如銀筋, 味甘極好. ○ 蕨·薇·葵·藿·薺·芹·菘·朮·松蕈·眞菌, 處處皆佳, 故不別書云).”

26) 피터 버크, 『지식의 사회사 1 : 구텐베르크에서 디드로까지』, 박광식 옮김, 민음사, 2018, 26면, 124면 참조.

27) 許筠, 「屠門大嚼」, 370면, “柑子: 產濟州.”

28) 柳僖, 『物名攷』(『晉州柳氏 西陂柳僖全集 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95면, “柑: 樹似橘而刺少. 亦有數種. 감즈.”

29) 분류는 심경호, 앞의 책, 325면 참조.

28. ⑥ 옛: 開城府의 옛이 상품이며, 全州의 옛이 그 다음이다. 요즘에는 서울의 松針橋<sup>30)</sup>에서도 제대로 만든다.<sup>31)</sup>
- 29.
30. ⑦ 표범 태반: 襄陽의 요리사[膳夫] 한 사람이 표범의 태반을 찌고 익히는 방법을 잘 알아서 맛이 가장 좋다. 다른 고을에서 이것을 요리하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다.<sup>32)</sup>

예문 ⑥과 ⑦은 각각 ‘병이지류’와 ‘비주지류’의 옛과 표범 태반 요리에 대한 설명이다. 몇몇 지역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식재료를 생산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경우, 허균은 그 품등을 비교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예문 ⑥ 이외에 상주의 껍적밤[皮的栗], 밀양의 큰 밤, 지리산의 주먹만 한 밤을 소개하는 경우<sup>33)</sup>를 비롯해서 「도문대작」에서 식재료와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비교’이다. 예문 ⑥을 상대 비교라고 한다면 예문 ⑦은 절대 비교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식재료나 음식인 경우 절대 비교의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붉고 즙이 달달한 보은의 대추가 지닌 압도적인 맛, 전주에서만 만드는 白散子와 안동에서 만드는 茶食의 독보적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이다.<sup>34)</sup>

허균이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정보를 지식으로 가공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방법은 ‘고증’이다.

31. ⑧ 靑魚는 매년 봄 우리나라 西南海에서 많이 났었다. 하지만 先王朝 庚午年 이후로는 전혀 나지 않는다. 듣건대 中國의 靑州 경계에서 많이 난다고 하니, 아마도 物産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 曠醫方에서 말하는 청어는 우리나라의 청어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sup>35)</sup>
32. ⑨ 청어: 네 종이 있다. 北道産은 크고 속이 희며, 敬善道産은 껍질이 검고 안이 붉으며, 湖南産은 조금 작다. 海州에서는 2월이나 돼야 잡는데 맛이 정말 좋다. 예전에는 정말 흔해서 고려 말에는 쌀 한 말[斗]<sup>36)</sup>에 청어를 40마리밖에 주지 않자 牧老[李穡]가 시를 지어 그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파폐해져 온갖 재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청어 역시 드물어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明宗(재위: 1545-1567) 이전에는 그래도 한 말에 50마리는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으니 괴이하게 여길 만하다.<sup>37)</sup>

30) 柳希春, 『眉巖日記』 戊辰 2월 23일, “將至南大門, 著紗帽而入. 自太平館前, 由毛塵, 過司憲府, 經松針橋, 向迎秋門.” 이 기록을 보면 松針橋는 松簷橋인지도 모르겠다.

31) 許筠, 『屠門大嚼』, 369-370면, “飴: 開城府爲上品, 全州次之. 近來京中松針橋亦能造.”

32) 許筠, 『屠門大嚼』, 371면, “豹胎: 襄陽膳夫一人解其烹飪, 味極好. 他邑爲之則穢不可食.”

33) 許筠, 『屠門大嚼』, 370면, “밤: 敬善북도 상주에 작은 밤이 나는데, 껍질이 저절로 떨어져서 속칭 껍적밤[皮的栗]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경상남도 밀양의 큰 밤인데, 맛이 가장 달다. 그리고 지리산에도 주먹만 한 크기의 큰 밤이 있다고 한다(栗: 尙州有小栗, 皮自脫, 俗曰皮的栗也. 其次密陽大栗, 味最甘. 而智異山, 亦有大栗如拳云).”

34) 許筠, 『屠門大嚼』, 370면, “대추: 報恩縣에서 나는 대추가 가장 좋다. 크고 씨가 뽕족하며 색깔은 홍색에 즙이 달아서 다른 지역의 대추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大棗: 產報恩縣者最好. 大而核尖, 色紅津甘, 他皆不逮).”; 369면, “白散子: 俗名은 薄散으로 全州에서만 만든다(白散子: 俗名薄散, 唯全州造之).”; 369면, “茶食: 安東 사람들이 만드는데, 맛이 정말 좋다(茶食: 安東人造之, 味甚好).”

35) 李晬光, 『芝峯類說』 권20, 「禽蟲部·鱗介」, “靑魚每春時多産於我國西南海中. 自先王朝庚午以後絶不産. 而聞中朝靑州之境多産云, 豈物産亦以時變遷歟. 或言醫方所謂靑魚, 非我國之靑魚也.”

36)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惺所覆瓿藁』(신암 D1 A1217)에는 “升”이 “斗”로 수정되어 있다. 李穡의 시 「賦靑魚」의 “斗米靑魚二十餘.”라는 내용에 따라 “斗”로 바로잡는다. 아울러 「도문대작」의 내용을 따르다면 「부청어」의 “二十餘”는 20여 마리가 아니고 20여 손, 즉 40여 마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37) 許筠, 『屠門大嚼』, 371-372면, “靑魚: 有四種. 北道産者, 大而內白, 慶尙道産者, 皮黑內紅, 湖南則稍小. 而海州所

1614년 편찬된 李睟光(1563-1628)의 『芝峯類說』은 고증을 겸한 유서이다.<sup>38)</sup> 일반적으로 유서는 “주제별로 다양한 서적으로부터 기사를 모아 편집한 문헌으로, 辭典의 편찬 방식을 취하면서 事典의 내용을 담은 참고서”<sup>39)</sup>라고 정의된다. 『지봉유설』은 수집된 기사에 辨證과 논의까지 덧붙였다는 점에서 이처럼 평가한 것이다. 예문 ㉔이 『지봉유설』에 보이는 靑魚에 해당하는 기사이다. 청어의 주산지, 산출의 흐름, 명칭 등을 고증하고 있다. 예문 ㉕의 전반부는 청어의 종류와 특색에 대한 설명이고, 후반부는 이색의 시를 활용한 변증이자 논의이다. 『지봉유설』보다 「도문대작」의 고증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이 외에도 「도문대작」에서는 천사배(天賜梨)와 도루목(還木)의 유래와 명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증을 활용하였고,<sup>40)</sup> 수박(西瓜)의 경우에는 그것을 최초로 심은 연도에 대한 고증과 품등의 비교를 겸하고 있다.<sup>41)</sup>

고증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객관적으로 활용하지만, 순위를 결정하는 품등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도문대작」은 ‘맛’이라는 주관성이 짙은 기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sup>42)</sup> 허균의 개인적 취향이 개입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문대작」은 허균이 체험한 맛과 맛의 기억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33. ㉔ 방풍죽: 내 외가는 강릉으로 그 지역에는 防風이 많이 난다. 2월이면 강릉사람들은 이슬을 밟으며 새벽에 防風의 처음 돋아난 새싹을 따서 햇빛을 가려준다. 곱게 찢은 쌀을 삶아서 죽을 만드는데, 반쯤 익게 되면 따놓은 방풍을 넣고 끓어오르기를 기다려 차가운 磁器 주발에 옮겨 담는다. 반쯤 식혀서 방풍죽을 먹으면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해져서 사흘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니, 진정 이 세상 上品의 음식(醍醐)이다. 나는 그 뒤 황해도 수안군(遼山)에 있을 때 방풍죽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강릉의 방풍죽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sup>43)</sup>

34. ㉕ 석이떡: 나는 楓嶽山을 유람할 때 表訓寺에서 묵었다. 주지 스님이 자리를 깔고 음식을 차렸는데 석이떡 한 접시가 있었으니, 바로 귀리(瞿麥)를 곱게 찢어 수없이 체에 친 다음 꿀물을 넣고 석이를 섞어 늦쇠 시루에 찐 것이었다. 그 맛이 정말 훌륭해서 경단(瓊糕)·곶감찰떡(糯柿餅)도 석이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sup>44)</sup>

捉, 二月方至, 味極好. 在昔極賤, 前朝末, 米一斗只給四十尾, 牧老作詩悼之. 謂世亂國荒, 百物凋耗, 故靑魚亦希也. 明廟以上, 亦斗五十, 而今則絕無, 可怪也.”

38) 심경호, 앞의 책, 708면. 『지봉유설』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논의는 안대회, 「李睟光의 『芝峯類說』과 조선 후기 名物考證學의 전통」,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267-289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39) 심경호, 앞의 책, 447면.

40) 許筠, 「屠門大嚼」, 370면, “천사배: 成化 연간(1465-1487) 강릉에 사는 進士 金瑛의 집에서 갑자기 배나무 한 그루가 나더니 주발만 한 배가 열렸는데, 지금까지 많이 열린다. 천사배의 맛은 달고 무르다(天賜梨: 成化年間, 江陵居進士金瑛家忽生一梨, 及結實大如碗, 至今多有之. 味甘而脆.”; 372면, “은어(도루목): 동해에서 난다. 초명은 木魚였는데 고려의 어떤 왕이 그것을 좋아해서 銀魚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많이 먹어 물리자 도루목[還木]이라고 또 바꾸었다(銀魚: 產東海. 初名木魚, 前朝有王好之, 改曰銀魚, 多食而厭之, 又改曰還木).”

41) 許筠, 「屠門大嚼」, 371면, “수박: 高麗의 洪茶丘가 처음으로 開城에 심었으니, 그 해를 고증해보면 洪皓가 江南으로 돌아간 시기보다 빠르다. 忠州의 수박이 최고인데 동아[冬瓜]처럼 생긴 것이 좋고, 原州의 수박이 그 다음이다(西瓜: 前朝洪茶丘始種于開城, 考其年則殆先於洪皓之歸江南也. 忠州爲上, 形如冬瓜者爲佳, 而原州次之).”

42) 다음의 평가와 「도문대작」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서 허균 역시 당시 일반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李睟光, 『芝峯類說』 권19, 「食物部·果」, “我國居昌之柿, 報恩之棗, 密陽之栗, 忠州之西瓜, 淮陽之海松子, 安邊之梨, 最有名. 猶史記所謂安邑之棗北地栗也.”

43) 許筠, 「屠門大嚼」, 369면, “防風粥: 余外家江陵, 土多產防風. 二月, 土人乘露, 曉摘其初芽, 令不見日. 精舂稻米, 煮爲粥, 半熟投之, 候其沸, 移盛于冷瓷碗. 半溫而食之, 甘香滿口, 三日不衰, 眞俗間上品醍醐也. 余後在遼山, 試作之, 不及江粥遠甚.”

44) 許筠, 「屠門大嚼」, 369면, “石茸餅: 余游楓嶽, 宿表訓寺. 主僧設蒲供, 有餅一器, 乃細舂瞿麥, 以篩篩之百匝, 然後

위 예문 ⑩과 ⑪은 ‘병이지류’의 서두에 보이는 ‘방풍죽’과 ‘석이떡’을 소개한 부분이다. ‘감자’의 소개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위 예문에는 모두 방풍죽과 석이떡 만드는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로 식재료와 음식의 보관법, 조리법, 제조법 등을 다루는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 중 「治膳」에서 위 두 조목을 인용한 것이다.<sup>45)</sup> 다음으로, 위 예문은 허균이 직접 경험한 맛의 추억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위 예문 외에 죽실·곶감 부스리기·밤가루로 만든 설기[糕餅]의 추억과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납작 복숭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서술에서도 체험과 추억이 뚜렷하게 보인다.<sup>46)</sup> 이러한 사실과 앞서 예거한 사례로써 보면, 「도문대작」의 구성, 특히 맛에 연관된 부분은 허균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유서는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다. 홍만선이 허균의 체험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한 점에서도 정보와 지식의 객관성을 견지하려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반면 「도문대작」은 유서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지만,<sup>47)</sup> 허균은 이를 통해 맛과 맛의 추억을 전하려는 의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도문대작」이 일반 유서와 결별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도문대작」은 식재료나 음식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먹고 마시는 행위의 윤리성 여부 등의 이론을 따지지 않고, 좋은 식재료와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농사기술이나 좋은 식재료를 선별하는 방법, 요리법을 위주로 구성하지는 않았으므로 대단히 실용적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로써 보면, 「도문대작」은 식품에 관한 이론이나 지식보다, 맛있고 좋은 식품에 대한 정보·지식 및 맛과 맛의 추억을 아울러 담은 저술이다.

### 3. 「도문대작」 성립의 배경

「도문대작」의 서술이 일단락 된 시기는 “辛亥年(1611) 4월 21일 惺惺居士가 쓰다.”<sup>48)</sup>라는 「屠門大嚼引」의 언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1611년 4월 21일 허균은 유배지 함열현(지금의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 있었다. 이때는 그가 조카 허보와 조카사위 박홍도를 별시문과에서 선발했다는 죄목으로 刑杖을 맞고 죄를 심문을 받으면서 義禁府에 42일 동안 갇혀 있다가, 1610년 12월 29일 귀양을 떠나 이듬해 1611년 1월 15일 귀양지 함열현에 도착한 직후였다.<sup>49)</sup> 「도문대작」을 쓰기 하루 전인 20일(四月之念日)에는 「惺叟詩話引」을 썼고, 이틀 후인 23일(四月之念三日)에는 『웅사부부부고』의 첫 번째 편집을 마치고 나서 「翁四部覆瓿藁引」<sup>50)</sup>을 썼다. 두 편의 글에서 그는 시화집과 문집을 엮은 이유를 모두 귀양으로 인해 “할

調蜜水，并雜石茸，蒸之於鑪甑。其味甚佳，雖瓊糕糯柿餅，遠不逮焉。”

45) 洪萬選, 『山林經濟』 권2, 「治膳·粉麪餅飴」, 368면, “石茸餅: 楓岳表訓寺僧, 細舂瞿麥, 以篩篩之百匝, 然後調蜜水, 并雜石茸, 蒸於鑪甑。其味甚佳, 雖瓊糕糯柿餅, 遠不逮焉。『許集』。”; 「治膳·粥飯」, 378-369면, “防風粥: 乘露曉摘防風初芽, 令不見日。精舂稻米煮爲粥, 半熟投之候其沸, 移盛于冷瓷碗。半溫而食之, 甘香滿口, 三日不衰。『許集』。”

46) 許筠, 「屠門大嚼」, 370면, “죽실: 지리산에서 많이 난다. 내가 전라북도 부안[浪州]에 있을 때, 老師 善修의 제자가 선수의 명으로 가지고 왔는데, 곶감 부스리기와 밤 가루를 섞어 설기[糕餅]를 만들어 몇 숟갈 먹고는 종일 배가 불렀으니, 진정 上仙이 먹는 음식이다(竹實: 多產于智異山。余在浪州, 老師善修弟子以其命致之, 和柿屑栗末爲餌, 食數匕, 終日充然, 眞上仙所食也)。”; 371면, “납작 복숭아: 금천과 과천 두 현에서 많이 났지만, 지금은 전혀 나지 않는다. 젊었을 때 안양천 가에 살던 庶族이 많이 심어놓아서 따 보내주었는데, 그 맛이 참 좋았지만 지금은 구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盤桃: 多產于衿果二縣, 今則絶無。少日庶族人居于安養川上, 多種而摘送之, 味甚好, 惜今不可得也)。”

47) 유서의 특징적 성격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식의 匯集, 둘째, 지식의 항목화, 셋째, 지식의 분류, 넷째, 지식에 대한 변증. 이 중 「도문대작」은 특히 ‘지식의 회집’, 즉 經史子集 모든 문헌에서 발췌·전재한다는 유서로서의 성격이 가장 약하다. 유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문용, 「조선 후기 유서 지식의 성격」,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17-20면 참조.

48) 許筠, 「屠門大嚼引」, 369면, “辛亥四月二十一日, 惺惺居士題。”

49) 허경진, 『허균 연보』, 보고서, 2012, 146-157면 참조.

일이 없(無事)”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sup>51)</sup>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쓴 「도문대작」 역시 消日의 결과물로 보아야 하는가? 젊은 시절 채 완수하지 못한 시화집과 자신의 삶을 증명해 줄 문집을 그저 소일거리로 여겼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도문대작」을 쓴 이유 역시 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그의 삶과 사유 속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허균은 1610년 10월 그의 스승 중 한 명인 李達(1539-1612)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당시 쓴 자신의 글, 「閑情錄序」, 「陶山朴氏山莊記」, 「祥原郡王冢記」, 12편의 論, 「故全羅道兵馬節度使贈兵曹判書李公誅. 并引」, 「勅建顯靈關王廟碑」, 「南宮先生傳」, 「對詰者」 등과 「北歸賦」, 「毀壁辭(并序)」 등을 평가해 달라는 내용이였다.<sup>52)</sup> 1602년에 지은 것이 분명한 「勅建顯靈關王廟碑」를 제외하면, 나머지 글들을 통해 1610년경 허균의 삶과 사유를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비판, 感受, 警戒이다.<sup>53)</sup>

비판은 「學論」, 「政論」, 「官論」, 「兵論」, 「遺才論」, 「厚祿論」, 「小人論」, 「豪民論」, 「鄭道傳·權近論」, 「金宗直論」, 「南孝溫論」, 「李長坤論」 등 12편의 論에서 찾을 수 있다. 비판을 넘어서 혁명을 이야기하는 「호민론」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관론」은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의 관료 제도가 지닌 모순을 고발한 글이고, 「병론」에서는 군기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해이해진 조선과 그에 경각심조차 갖지 않는 위정자들에게 일갈하고 있다. 그 외의 논의 역시 대체로 당대 사회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다.

세상에서 내몰리던 당시 허균의 감수와 시대 비판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한 작품은 「복귀부」이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 聖人도 賢者도 언제나 세상에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상황 제시를 통해 체념을 역력하게 형상했다.<sup>54)</sup> 아울러 능력과 자질이 훌륭한 자가 세상에 버려지는 데서 오는 감수는 「휘벽사(병서)」에서도 보인다.<sup>55)</sup> 이 작품의 감수는 누이의 불우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발현된 슬픔이겠지만, 같은 시기 지은 작품들을 함께 고려할 때 불우와 좌절이라는 구도를 통한 상징적 독해도 가능하다.

감수와 비판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대힐자」는 「복귀부」에 닿는다. 「대힐자」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불우를 드러냄과 동시에, 세속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기호를 따르겠다는 자각된 개인의 태도를 보이고, 세력과 이익에 따라 離合集散하는 세상을 비판한 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얼이라 등용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 생을 마쳐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그렇게 만든 위정자들에 대한 「유재론」의 비판은 「복귀부」와 「대힐자」의 연장이다.

다만 허균의 비판과 감수가 당시 관료사회의 모순과 좌절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을 등지는 자세로 곧바로 이어지는 않는다. 다음의 글에 이런 그의 出處觀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인다.

35.

50) 문집에 수록된 글의 명칭은 「翁四部覆瓿藁」이지만 이것은 당시 편집한 문집의 제목이므로, 「성수시화인」이나 「도문대작인」을 참고해서 리을 덧붙였다.

51) 許筠, 『惺所覆瓿藁』 25권, 「惺叟詩話引」, 356면, “辛亥歲, 俟罪咸山, 閑無事, 因述所嘗談話者, 著之于牘.”; 『惺所覆瓿藁』 권1, 「翁四部覆瓿藁(引)」, 136면, “辛亥歲, 以譴配南州, 幸無事, 發囊中, 有詩文稿草在焉. 亟緝閱之, 則勞情費思者, 多有可惜. 而或可以考既往備故實, 爲破閑之資, 故遂手書而載之牘.”

52) 許筠, 『惺所覆瓿藁』 권21, 「與李蓀谷. 庚戌十月」, 318면, “翁素獎我騷賦婉(婉)麗, 不佞則不敢自信焉. 僕之文近進, 而翁猶(獨)不知之. 故謹寫閑情錄序, 朴氏山莊·王塚二紀, 十二論, 李節度誅, 關廟碑, 南宮生傳, 對詰者, 暨北歸賦, 毀壁辭爲一通, 付卞生而去, 幸教之如何?” 괄호 안의 글자는 교토대학교 가와이문고본 『성소부부고』 원문의 글자다.

53) 연관된 자신의 불우를 통해 타인의 불우를 보고 기록하려는 태도도 이 시기의 글에 보이는데, 그것이 「祥原郡王冢記」와 「故全羅道兵馬節度使贈兵曹判書李公誅. 并引」이다. 이 글들은 비판과 감수에 연관된다.

54) 許筠, 『惺所覆瓿藁』 권3, 「北歸賦」, 167면, “世傲睨而莫余顧兮, 吾方遠適而高飛.”, “唯物外之莫久居兮, 將寘余於何斯?”, “聖不必庸兮, 賢不必用. 此自古而亦然兮, 吾何怨乎今之人?”, “鸞孔威垂, 竄荊棘兮. 鷗梟得意, 鬧阿閣兮.”, “鬱悵悵, 吾將安往兮? 唯從腐史, 與世俯仰兮.”

55) 許筠, 『惺所覆瓿藁』 권3, 「毀壁辭(并序)」, 170면, “天之賦兮奚富以豐, 胡罰以酷予奪之速?”, “唯生者兮懷悲, 睇九霄兮回腸.”

36. 아아!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어찌 軒冕을 무시하여 내던지고 山林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기를 바라겠는가? 오직 道와 세속이 어긋나고 운명과 시대가 어그러져서 고결함에 기대어 산림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니, 그 뜻은 참으로 비감하게 여길 만하다. (중략) 도리어 시대와 운명이 불우한 것이 예전 사람들이 탄식한 바와 비슷한 점이 있다. 만약 건강을 회복한 다음 은퇴를 요청해서 천수를 마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다행인 일이 없을 것이다.<sup>56)</sup>

1610년에 쓴 위 예문 「한정록서」는 “훗날 산림에서 세상을 버리고 세속을 떠난 선비를 만나 이 책을 꺼내 이야기하게 된다면, 天賦의 본성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리라.”<sup>57)</sup>는 말로 마무리된다. 즉 그가 은퇴할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날[異日]이다. 위 예문을 통해 보자면 그가 생각하는 선비의 자리는 세상이다. 따라서 세상에 발 디디지 못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山林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비감한 것이다.<sup>58)</sup>

그런데 1610년 당시 허균의 삶 역시 떠밀리는 상황이었다. 1605년에는 遂安郡守에서, 그리고 1607년에는 三陟府使로 있다가 2개월 만에 부처를 섬긴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같은 해 연말에 公州牧使가 되었다가 이듬해인 1608년에 파직된 이후, 한동안 부안에 내려가 있다가 복직했지만, 1610년 병으로 천추사를 사퇴하려다 혁직되었다. 이 때문에 “顧時命不偶, 有類於昔人所歎”이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겨나지 않고 스스로 은퇴하기를 바랐다.

그러자면 일단 세상에서 버텨야 했기 때문에, 이즈음 허균은 전에 없이 관직을 청탁하는 편지를 자주 쓴다. 1607년 李大中에게 쓴 편지도 그 중 한 편이다. 여기에 허균은 집안이 가난하고 형은 늙었으니 호구 지책을 위한 고을 하나를 부탁한다는 간곡한 청탁을 담았다.<sup>59)</sup> 그에게 보낸 두 번째와 세 번째 편지도 모두 洪陽이나 빈 지방 아무 자리라도 달라는 내용이다.<sup>60)</sup> 벼슬자리를 받는 일이 여의치 않으면 분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sup>61)</sup> 그런데 청탁을 이대중에게 했다는 사실에서 당시 허균의 절박함을 읽을 수 있다. 그와는 1597년에 생긴 舊怨이 있었는데, 자신보다 후배인 沈重卿과 이대중이 허균의 重試 응시를 이때 막았던 일로 인한 유감이다.<sup>62)</sup> 절박함을 담은 청탁 편지는 그 뒤로도 이어진다. 1607년 9월과 10월 崔天健에게 보낸 편지는 큰소리를 치며 자존심을 붙잡고는 있지만 이 역시 청탁이다.<sup>63)</sup> 1609년 9월에는 李士洪에게(「奉李滄海. 己酉九月」), 1610년 9월에는 李廷龜에게(「與李月沙. 庚戌九月」), 같은 해 10월에는 申欽에게(「與申玄翁. 庚戌十月」) 각각 자리를 부탁한다.

56) 許筠, 『惺所覆瓿藁』 권5, 「閑情錄序」, 184면, “嗚呼! 士之生斯世也, 豈欲蔑棄軒冕, 長往山林者哉? 唯其道與俗乖, 命與時舛, 則或有托於高尚而逃焉之者, 其志亦可悲也. (中略) 顧時命不偶, 有類於昔人所歎. 倘得於康健之日, 乞身退休, 以終天年, 則幸孰大焉.”

57) 許筠, 『惺所覆瓿藁』 권5, 「閑情錄序」, 185면, “異日林下, 若值遺世絕俗之士, 出此編以相揚推(推), 則庶不負初賦云.”

58) 1618년에 쓴 『한정록』의 「범례」(『국역 정소부부고』, 25면)에서도 허균은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經濟의 포부를 가졌다면, 어찌 堯舜 같은 임금을 바로 떠나 山林에 아주 은둔하려고 계획하겠는가. 心事가 어긋나거나 자취와 시대가 배치되거나…”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그의 생각은 이 시기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9) 許筠, 『惺所覆瓿稿』 권9, 「與李大中. 第一書」, 218면, “僕家窶兄老, 不能決去. 唯欲得一小郡, 爲妻孥餬口計, 兼以讀書爲暎年酬應之資. 兄若愛惜, 須力言於持枋者, 借一麾以出, 則恩熟大焉? 此言出於悃悞, 非飾辭也. 不宣.”

60) 許筠, 『惺所覆瓿稿』 권9, 「與李大中. 第二書」, 219면, “聞洪陽有缺, 幸言亞判, 俾獲參擬, 勿以非分相屬, 十分祝望.”; 「與李大中. 第三書」, 219면, “幸有閑邑之缺, 力與擬差.”

61) 許筠, 『惺所覆瓿稿』 권9, 「與李大中. 第三書」, 219면, “僕聞之, 尤甚不樂, 終夜耿耿不寐也.”

62) 許筠, 『惺所覆瓿藁』 권22, 「惺翁識小錄上·四館風俗藝文館尤虐」, 328면, “丁酉春, 始入館, 沈重卿·李大中輩皆以後進居上, 苛刻至甚. 時當重試, 翰林下番, 例不得入. 故余乞二君, 皆不許”

63) 許筠, 『惺所覆瓿藁』 권20, 「與崔汾陰. 丁未十月」, 306-307면, “銀州, 吾先人所莅也, 小子敢不樂赴耶? 但小子於先大夫, 毋能爲役, 倘或少不稱, 則辱先訓多矣, 吾固不欲也. 加林在海上地, 僻有魚蟹之饒, 切欲得之. 聞與公州一時差除云, 彼孔道而無蟹, 且有監州, 勿舉吾名如何? 地位相逼, 恐爲爭加林者所推之故, 縷縷耳.”

이 시기에 보이는 빈번한 청탁의 이유 중 하나는 허균이 원래 갖고 있던 ‘출처관’에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당시 그가 처해있던 상황의 영향 역시 작지 않았다. 허균의 나이 12세에 아버지 許曄(1517-1580)이 죽고, 큰형보다 먼저 관직에 나가 관료로 촉망받던 仲兄 許筠(1551-1588) 또한 허균의 나이 20세에 사망한다. 이후로는 큰형 許箴(1548-1612)이 혼자서 집안의 전통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1608년 宣祖에게 遺教를 받은 七大臣 중 한 명이었을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후로 내리막을 걷는다. 더욱이 이대중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즈음 허성은 노쇠한 상태였다. 허균의 절박함에는 이런 사정도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파직과 혁직을 번갈아 겪던 허균의 상황 역시 기록치 않았다.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남궁선생전」과 「도산박씨산장기」에도 암시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참아내고 삶을 되짚어보는 일이었다. 「남궁선생전」의 주인공 南宮斗가 허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忍이고,<sup>64)</sup> 「도산박씨산장기」의 마지막이 富貴와 영화[榮耀]의 순간성에 대한 警戒라는 사실은 그래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sup>65)</sup> 이 중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이라는 경계는 「도문대작인」에서도 반복된다.

37. 나는 죄로 인해 바닷가로 유배를 오게 되어 겨와 싸라기도 부족해서 밥상에 놓이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상한 장어[腐鰻], 비린 생선[腥鱗], 쇠비름[馬齒莧], 들미나리[野苧]뿐이다. 그래서 이들 양을 하루에 먹어도 밤새 배가 고파, 예전에 산해진미를 실컷 먹고 질려서 먹지 않고 물리며 손도 대지 않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입에서 군침이 줄줄 흐른다. 비록 다시 맛보고 싶어도 하늘에 있는 西王母의 복숭아처럼 아득히 먼 일이니, 이 몸이 東方朔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훔쳐 딸 수 있겠는가? 결국 종류별로 나열하여 기록하고 때때로 그것을 보며 맛보기[一嚙]로 삼는다. 작업을 마치고 그에 「屠門大嚼」이라 이름 붙였으니, 이 세상의 현달한 자들은 먹는 데 사치를 다하고 절제 않고 모조리 먹어버리지만, 늘 부귀하고 영화로울 수 없음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경계하는 것이다.<sup>66)</sup>

대리만족, 이것이 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도문대작」 집필의 한 가지 이유이다. 직접 맛볼 수는 없지만 자신이 맛본 각종 맛의 체험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며 먹은 셈 치겠다는 의도를 「도문대작」에 담은 것이다. 허균은 1609년에 쓴 「夢記」와 柳淵叔의 꿈을 빌어서 쓴 「酒吃翁夢記」 모두에서 이루지 못한 희망을 꿈을 통해 이루려고 했다. 함열현에 유배되기 전 의금부에 갇혀 있던 시기에 쓴 「巡軍府君廳記」에서도 자신이 타인의 원한을 꿈에서 풀어주었듯, 자신도 具眼者를 만나 질곡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을 표현하였다. 즉 「도문대작」 역시 꿈 계열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맛보기를 통해 대리만족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계는 또 다른 집필의 이유이다. 아버지 허엽, 장인 金大涉, 강릉의 외가, 팔도를 오갔던 자신의 官歷 등에 힘입어 산해진미를 충분히 맛보다가<sup>67)</sup> 상한 장어·비린 생선·쇠비름·들미나리를 씹어야 하는 상황으로의 급전직하한 자신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경계이다. 앞서 ‘하증’과 ‘위척’의 貪食을 예거한 의도와도 맥이

64) 許筠, 『惺所覆瓿藁』 권8, 「南宮先生傳」, 211면, “筠罷公州, 家扶安, 先生自古阜步訪於旅邸. (中略) 吾師嘗許我以忍, 不能忍而至是. 忍之一字, 仙家妙訣, 君亦慎持勿墜也.”

65) 許筠, 『惺所覆瓿藁』 권6, 「陶山朴氏山莊記」, 189면, “富貴之不可恒, 而榮耀之不可恃也如此. 今之君子, 奈何不以爲戒? 愛權位而戀寵利, 身無平城之功, 而欲享平城之樂, 自以爲可保久長者, 不亦愚哉?”

66) 許筠, 「屠門大嚼引」, 369면, “余罪徙海濱, 糠粒不給, 飢案者唯腐鰻腥鱗馬齒莧野苧. 而日兼食, 終夕枵腹, 每念昔日所食山珍海錯, 飫而斥不御者, 口津津流饑涎. 雖欲更嘗, 邈若天上王母桃, 身非方朔, 安得偷摘也? 遂列類而錄之, 時看之, 以當一嚙焉. 既訖, 命之曰屠門大嚼, 以戒夫世之達者, 窮侈於口, 暴殄不節, 而榮貴之不可常也, 如是已.”

67) 許筠, 「屠門大嚼引」, 369면, “余家雖寒素, 而先大夫存時, 四方異味禮饋者多, 故幼日備食珍羞. 及長, 贅豪家, 又窮陸海之味. 亂日避兵于北方, 歸江陵外業, 殊方奇錯, 因得歷嘗. 而釋褐後南北官轍, 益以餽其口, 故我國所產, 無不嗜其炙而嚼其英焉.”

달아있다. 물론 낙차가 클수록 경계의 효과는 커지고, 대리만족으로서 제대로 된 맛보기의 역할 역시 평범한 음식보다 산해진미가 적역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허균이 「도문대작」의 편집을 ‘특정한 지역에만 있거나 특별히 맛이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한 이유도 대리만족과 반면교사로의 경계 모두에 있다.

이로써 볼 때, 「도문대작」의 집필을 전후한 시기 허균은 세상 속에서 버티고 서 있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속출하는 불우에 감수를 느끼고, 불우를 양산하는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그는 宦路를 떠날 수 없었다. 참고 견디며 부귀영화의 순간성을 경계한 태도처럼, 세상에 대한 비판은 권력의 언저리에서 끈질기게 버티려던 행동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몇 번의 위기를 겪은 끝에 결국 嶺上宦에서 유배객의 신세로 전락했다. 물론 그곳의 환경은 자신이 살던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고, 한양의 권위와 함열현의 낙적이 갖는 격차를 조금이라도 털어내고자 「도문대작」을 서술했다. 아울러 부귀와 영화가 순간이라는 사실을 경계했지만 결국 자기가 전락해버린 아이러니를 통해 세상을 경계하려는 의도 역시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도문대작」 일부와 그가 1610년을 전후로 한 시기 창작한 글을 통해 「도문대작」을 집필하던 시기 그가 처해 있던 상황과 이유를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왜 ‘식품’을 대상으로 한 글을 통해 대리만족과 경계를 이루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38. 음식을 모두 물리고, 오직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능금[林檎]·자두·즙이 많은 배 같은 과일뿐이다. 그래서 동래부(東萊府)의 시장에서 구해달라고 했지만, 오직 참외[甜瓜]밖에 없다. 그런데 그마저도 단 것은 구하기 어렵고 먹을 만한 것도 번번이 상해서 먹지 못하니, 이것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작년 내가 아팠을 때, 南殿의 친구들이 종들을 시켜 여러 차례 포도를 보내주어서 입맛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일을 생각하니 입 속에 저절로 군침이 돌아서 그 생각이 그치지 않는다.<sup>68)</sup>

위 예문은 간흉들과 편당[黨奸]을 했다는 죄목으로 1801년 機張으로 유배되었던 沈魯崇(1762-1837)의 『南遷日錄』 중 1801년 7월 4일의 기록이다. 그가 첫 유배생활 중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라 지적한 사안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일이다. 이 외에도 밥투정·반찬투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심노송은 『남천일록』 곳곳에 기록해 두었다. 大科에 급제하지도 못해서 이렇다 할 변변한 벼슬도 갖지 못했던 심노송이었지만, 집안의 재산과 아버지 沈樂洙(1739-1799) 덕에 배를 곯거나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망, 정권의 교체에 따른 시련과 유배라는 상황 등은 그에게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런 변화된 상황의 落差를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바로 먹거리였다.

허균에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소외를 직접 느끼게 한 계기 역시 먹을 것이었다. 때문에 유배지에 도착한 직후 奇允獻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우도 扶安만 못하고 게도 碧蹄만 못해 굶어죽겠다고 푸념한다. 그리고 함열 현감이 보낸 연어알[鱒卵] 한 종지를 받고 사슴의 태[麕胎]나 莢醬(들쭉 부류로 보임)보다 맛있다 감사하다가도, 작은 우럭[白魚]과 준치[鱒魚]가 많다는 소리를 듣고 유배지를 선택해서 왔지만 정작 거여목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자신을 자조하기도 한다.<sup>69)</sup> 이처럼 음식은 처한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먹는 일만큼 직접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알려주는 표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허균이 열악해진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대리만족을 위해 「도문대작」을 집필하게 된 데는 이와 같은 원인도 있다.

68) 沈魯崇, 『南遷日錄 上』, 國史編纂委員會, 2011, 151면, “食飲全却, 所念惟在果品, 如林檎·李子·濃梨諸種. 至求問萊府場市而不得, 所有只是甜瓜. 而甜品既難得, 雖得食, 輒有害不可食, 此最難堪. 昨年病時, 南殿舊使僕輩屢送饋葡萄, 得以醒胃. 念之口中自生津, 意不自己也.”

69) 許筠, 『惺所覆瓿藁』 권21, 「寄奇獻甫. 辛亥正月」, 317면, “今月十五日, 到配所. 蝦不如扶寧, 蟹不如碧隄, 饑人飢餓死矣.”; 「謝咸山倅. 辛亥正月 ○ 韓會一」, 318면, “奉鱒卵一器, 味殊麕胎, 塗遠莢醬, 頓首頓首.”; 「謝咸山倅. 三月」, “人言此地多產細白魚鱒魚, 求配爲是也. 今春切無之, 亦數奇已. 老夫爲口來, 關干苜蓿, 未免枵腹, 可呵.”

食慾은 생물이란면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욕망이다. 그런데 식욕은 권력과도 연관되어 있다.<sup>70)</sup> 심노송과 허균이 식욕을 채우지 못하게 된 상황이 정치적 불우에 기인한다는 점만으로도 둘 사이의 관계는 설명된다. 더욱이 허균은 음식을 즐기는 일이 근본적인 욕망이라는 점을 긍정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도문대작」을 쓴 이유에 ‘식욕-권력’이라는 조목을 추가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허균도 식욕을 무제한으로 용인하지는 않았다. 그 역시 음식을 탐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좇는 태도까지 긍정하지는 않았다.

39.

40. 음식을 즐기고[食] 이성을 좋아하는 것[色]은 性이다. 다만 ‘식’이 더욱 목숨에 관계되어 있는데도 先賢들이 飮食을 천하게 여긴 이유는 탐하여 이익을 좇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지, 언제 ‘식’을 폐하고 말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여덟 가지 진미의 품목을 무슨 이유로 『禮經』에 기록해 두었으며, 어쩌서 孟軻는 물고기와 곰발바닥을 구분했겠는가?<sup>71)</sup>

『孟子·告子』의 “生을 性이라고 한다(生之謂性)”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告子は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자연적인 특성을 性으로 규정했다. 물론 자연적인 특성에는 생리적 본능, 지각운동, 욕망과 정서 모두가 포함된다.<sup>72)</sup> 그가 “음식을 즐기고 異性을 좋아하는 것이 성이다(食色性也).”라고 말한 이유도 인간의 자연적인 특성을 ‘성’으로 규정한 결과이다. 이에 반해 孟子는 仁義의 도덕이라는 측면에서 ‘성’을 말했다. 육체에 구속되지 않고 금수와 다른 인간만의 존엄성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맹자도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養心莫善於寡慾)”는 정도의 주장만 했다. 즉 맹자 역시 ‘과욕’을 말했지, 그것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滅慾]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선현들이 비판한 점은 탐해서 이익을 좇는 태도이지 ‘식’을 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허균의 말은 옳다. 그리고 이것은 ‘탐식’을 경계한 허균의 태도와도 통한다. 결국 허균이 식욕을 긍정하는 태도에는 절제가 동반된다.

朱熹의 경우 ‘無人慾’이나 ‘滅人慾’을 주장했지만, 그도 ‘식’이라는 욕망의 근본적인 성격은 인정했다.<sup>73)</sup> 그렇다면 허균이나, 주희를 따르며 氣質之性을 本然之性에 접근시키려 한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아니라 욕망의 절제를 요구하는 정도의 거리가 있었을 뿐이다.

조선에서 性理學이 教條化되기 이전에는 ‘식색’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다소 느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허균의 선배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은 ‘인욕’에 대한 완고하고 엄격한 태도를 희화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역시 허균처럼 ‘식색’이 기호이고 욕망이며 ‘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예컨대 徐居正(1420-1488)의 『太平閑話滑稽傳』에는 醬을 좋아하는 權佖, 醋를 좋아하는 閔誼, 차를 좋아하는 李重元이 술안주가 떨어지자 절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훔쳤다는 일화가 보인다. 일화의 마지막은 “하늘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한 것은 그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sup>74)</sup>라고 끝나는데, ‘식-기호-

70) 권력과 먹는 일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례 한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엘리아스 카네티, 『군중과 권력』, 강두식·박병덕 옮김, 바다출판사, 2002, 292면, “먹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권력의 대상이다. 배고픈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빈 공간을 느낀다. 그는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내부의 빈 공간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함을 극복한다. 배가 부를수록 그는 기분 좋게 느낀다. 가장 많이 먹는 사람, 다시 말해 대식가는 포만감을 느끼며 무게 있게 누워있다. 이런 대식가를 우두머리로 삼는 집단도 있다. 대식가의 팽팽한 배가 그들 모두에게 절대로 오랫동안 허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는 듯하다. 그것은 마치 그가 그들 모두를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운 듯한 꼴이다. 이런 점에서 권력과 소화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다.”

71) 許筠, 『屠門大嚼引』, 369면, “食色性也. 而食尤軀命之關, 先賢以飮食爲賤者, 指其饜而徇利也, 何嘗廢食而不談乎? 不然則八珍之品, 何以記諸禮經, 而孟軻有魚熊之分耶?”

72) 王邦雄·曾昭旭·楊祖漢, 『맹자철학』, 황갑연 옮김, 서광사, 2005, 45면 참조.

73) 朱熹, 『近思錄集解』, “一爲要, 一者無欲也.”; 黎靖德 編, 『朱子語類』 권11, “聖人千言萬語, 只是教人存天理滅人欲.”; 黎靖德 編, 『朱子語類』 권13, “問, ‘飮食之間, 孰爲天理, 孰爲人欲?’ 曰, ‘飮食者天理也, 要求美味人欲也.’”

74) 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 李來宗 譯주, 태학사, 2002, 원문(영인자료) 70면, “士人權佖嗜醬, 閔誼嗜醋, 李重元嗜

성'의 관계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成倪(1439-1504)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사람마다 기호가 같지 않으니 성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단언으로 시작해서, 별것 아닌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산해진미도 끔찍이 싫어하는 사례를 나열한 뒤, “사람의 좋아하는 성은 본래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다.”<sup>75)</sup>라는 주장으로 끝내는 이야기기가 그렇다. 아울러 그는 『禮記』의 「禮運」을 인용해서 “식욕과 성욕에 인간의 큰 욕망이 있다(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고 주장하기도 했다.<sup>76)</sup>

이뿐만 아니라 성현도 『慵齋叢話』에 허균과 마찬가지로 다음처럼 식품을 소개하는 조목을 두기도 했다.

41. ① 꿩이 좋기로는 北方이 최고다. 지금 平安道 江邊의 꿩은 그 크기가 오리만 하고 호박처럼 기름이 영긴다. 겨울에 잡아서 供進하는 것을 膏雉라고 하는데, 그 맛이 매우 좋다. 북방에서 남방으로 올수록 꿩이 점차 작아지다가 호남과 영남에 이르면 고기에서 누린내가 나 먹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북방에 풀과 나무가 많아 꿩들이 제대로 마시고 먹으며 살 곳을 구할 수 있기에 살져있다고 말한다.<sup>77)</sup>
- 42.
43. ② 채소와 과일은 모두 土質에 따라 심어야 이익을 거둔다. 지금 東大門 밖 왕십리[往審坪]에는 순무 [蕪菁]·무[蘿蔔]·배추[白菜]를 심는다. 靑坡와 蘆原 두 역에는 토란[蹲鴟]을 심기 좋다. 南山의 남쪽과 李泰院의 마을 사람들은 여뀌[茶蓼]를 심어 대극[紅芽]을 만든다. 京畿 朔寧의 사람들은 파[蔥菜]를 잘 심는다. 忠淸右道의 사람들은 마늘[蒜]을 잘 심는다. 全羅道 사람들은 생강을 잘 심는다. 旌善의 배, 永春(단양)의 대추, 密陽의 밤, 順興의 잣[海松子], 咸陽과 晉陽의 감 등은 다른 곳에 비록 있다고 해도, 이 고을들의 과일처럼 많지도 않고 좋지도 못하다.<sup>78)</sup>

성현과 허균의 글에서 보이는 차이는, 예문 ②의 ‘이익’을 말하는 데서 보이듯, 『용재총화』의 서술이 조금 더 실용적이라는 점에 있다.<sup>79)</sup> 성현의 실용성은 그가 조선건국의 계승자였다는 위치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건국의 아버지들을 이은 세대인 성현은 治世를 공고히 유지하고자

---

茶。一日，同會淸涼寺，夜飲，酒已半而殼已盡。三人歐主僧之熟睡也，竊三器而來。適權得醬，閱得醋，李得茶。三人抵掌大笑曰，‘天之嗜予嗜，豈徒然哉!’痛飲而還。”； 번역은 159면 참조.

75) 成倪, 朴洪植·李康大·李來宗·金在東 校勘·標點, 『慵齋叢話』 권7, “慶山大學校二十周年記念事業團學術行事委員會 ; 學民文化社, 2000, 320-321면, “人之嗜好不同, 性所然也. 金宰樞淳好食椒實, 一庵好食麵, 徐后山好食大口湯, 我伯氏好食蘆苔. 此四物皆非至味, 而篤好之. 裴載之惡麵, 見之則必置床下, 人問其故, 答曰, ‘見人之食麵, 滿口咄咄, 則心神顫動矣.’ 孫鷄城惡食西瓜, 曰, ‘若一片入口, 心先穢惡.’ 崔提學惡大口魚, 乃曰, ‘若聞此魚之臭, 頭痛如裂.’ 申正郎惡蕪菜, 曰, ‘若去凝滑, 可以下箸.’ 此四物皆至味, 而惡之如此, 人之嗜性本定, 不可傳移也.” 번역은 성현 지음, 『용재총화』, 김남이·전지원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16, 382면 참조.

76) 成倪이 『慵齋叢話』에서 飲食男女에 큰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 말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처럼 『小學』의 예를 완고하게 따르던 許操의 입을 통해 나온 발언이라서 더욱 시사하는 바 크다. 成倪, 『慵齋叢話』 권9, 411-412면, “許文敬公操心淸厲, 治家嚴而有法. 教子弟皆用小學之禮, 毫忽細行皆自謹. 人言許公平生不知陰陽之事, 公笑曰, ‘若我不知陰陽之事, 則詡訥從何而生?’ 時有欲革州邑娼妓之議, 命問於政府大臣, 皆曰, ‘革之可當.’ 惟未及於公, 人皆意其猛論. 公聞之乃笑曰, ‘誰爲此策, 男女人之大欲, 而不可禁者也. 州邑娼妓, 皆公家之物, 取之無防. 若嚴此禁, 則年少奉使朝士, 皆以非義, 奪取私家之女. 英雄俊傑, 多陷於辜, 臣意以爲不宜革也.’ 竟從公議, 仍舊不革.”

77) 成倪, 『慵齋叢話』 권7, 300면, “雉之美者, 北方爲最. 今平安道江邊之雉, 其大如鷺, 凝膏如琥珀. 當冬捕而供進, 謂之膏雉, 其味甚美. 自北而南, 雉漸瘠, 至湖嶺南陲則肉臊不可食. 人言北方多草樹, 得飲啄得所, 故肥也.”

78) 成倪, 『慵齋叢話』 권7, 317-318면, “凡菜菓, 皆隨土宜而種之, 以收其利. 今東大門外往審坪, 種蕪菁蘿蔔白菜之類. 靑坡蘆原兩驛, 好種蹲鴟. 南山之南李泰院村人, 種茶蓼作紅芽. 京畿朔寧之人, 好種蔥菜. 忠淸右道之人, 好種蒜. 全羅之人, 好種薑. 如旌善之梨, 永春之棗, 密陽之栗, 順興海松子, 咸陽晉陽之椹, 他處雖有, 而不如此邑之多且美也.”

79) 『용재총화』가 실용적이라는 평가는 「도문대작」보다 상대적으로 실용적이라는 말이지, 그 자체로 農書나 經濟誌에 포함될 정도로 실용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이미 살펴 본 『제민요술』이나 『거가필용사류전집』보다는 덜 실용적이고, 흥만선의 『산림경제』에 견주어도 그렇다는 점에서 『용재총화』의 실용성이 자리한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노력했다. 이 때문에 그의 글 곳곳에는 국가의 터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논의들이 보인다. 예컨대 『浮休子談論』의 처음 두 권인 「雅言」이 주로 임금과 신하의 올바른 도리, 天道와 治道, 仁政과 暴政, 인재의 등용, 선비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80)</sup>

『용재총화』는 “도읍·산천·民風·俗尙의 美惡”<sup>81)</sup>을 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논조를 어기지 않는다. 예문 ②처럼 식품과 관련된 조목에만 국한시키더라도 마찬가지다.<sup>82)</sup> 다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차이보다 유사한 점이 더욱 많다. 특히 예문 ①과 ② 모두가 식재료의 주요 산지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맛있는 지역을 단독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비교를 통한 우열을 드러내 보인다는 사실도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일반적인 평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味感을 적극 반영했다는 사실 역시 그렇다.

이처럼 허균과 성현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식색’이 기호이고 욕망이며 ‘성’이라는 인식에서 도출된 ‘식’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도문대작」에 끼친 이전 시대의 영향력이 직접적이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를 통해 상호간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좌절의 대리만족을 꾀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반면교사로 삼으려 했다는 집필의 이유에, 추락을 민감하게 보여주는 대상이 먹거리였다는 사실, 식욕과 권력의 밀접한 관계, 식욕과 성에 대한 온건한 태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식욕과 성에 대한 태도의 유사성과 실제 글쓰기의 결과로 유추해보면 성현을 비롯한 이전 시대로부터 전해지는 문화적 분위기 역시 그 이유에 덧붙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논의의 요약

오해와 역측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자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대상에 내재한 구조와 결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하나의 개체만으로는 위치와 맥락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문대작」의 구조와 결에 집중하고 다시 그것을 역사적 흐름과 시대의 맥락 속에서 조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양상으로 대별된다.

첫째, 구성과 성격의 측면이다. 「도문대작」은 식재료를 기준으로 삼아 범주를 구성하였고, ‘간소’의 원칙으로 각 범주를 채웠으며, 각 표제에 해당하는 식품의 부각을 위해 품등을 비교하고, 사실을 고증하기도 했다. 이로써 「도문대작」은 정보와 지식을 함께 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서나 조리서와 비교하면 실용적이라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성격은 이론보다 실용에 가깝다. 다만 허균은 정보와 지식만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도문대작」을 통해 그가 경험한 맛과 그 추억도 함께 전하고 있다. 따라서 「도문대작」은 허균이 직접 체험한 식품의 정보와 지식, 맛과 그 추억으로 구성된 저술이다.

둘째, 성립의 배경과 흐름에 관한 내용이다. 「도문대작」에서 찾을 수 있는 집필의 이유는 대리만족과 경계이다. 가까스로 버텨내던 정계에서 떨어지게 된 그가 택한 방법은 먹어본 셈 치는 대리만족을 꾀하는 일이었으며, 세상을 경계했지만 반면교사의 대상이 되어버린 자신을 경계로 삼기를 요구한 것이다. 대리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식품을 선택한 계기는 상황의 낙차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게 하는 소재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점, 식욕과 권력의 밀접한 연관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식욕에 비교적 관대했던 성향도 식품으로 글을 구성하게 만든 요인이었는데, 이 점은 ‘식’과 ‘색’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그의 선배들과도 통한다.

80) 『浮休子談論』에 대해서는 성현, 『부휴자담론』, 이래종 역주, 소명출판, 2004, 3-103면 참조.

81) 黃瑋, 『慵齋叢話』, 「慵齋叢話跋」, 470면.

82) 그의 친구 金澗과의 일화를 소개하기 위한 조목의 서두를 다음처럼 감태와 매생이와 같은 物名의 소개로 시작한 경우에서도 그의 지향을 포착할 수 있다. 成俔, 『慵齋叢話』 권8, 361-362면, “苔出於南海者, 謂之甘苔. 似甘苔而差短者, 曰莓山, 可作灸.”

# LGBT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의 상상력과 젠더테크놀로지

김윤정(이화여대)

##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포스트바디의 양상과 퀴어 전략
  - 1. 하이테크바디와 성(性)의 탈자연화
  - 2. 하이브리드바디와 젠더의 탈식민화
- III. LGBT 수행성과 젠더테크놀로지
  - 1. 젠더 패러디와 탈-신체성
  - 2. 젠더 패스티쉬와 '횡단-신체성'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에 따르면 몸과 세계는 서로 구조를 교환하는 쌍방 작용의 관계를 갖는다. '몸, 지각 그리고 세계'라는 퐁티의 현상학적 몸의 시각은 몸의 물질성과 감각성, 행동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데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서의 안정된 몸이다. 몸과 세계의 상호 교환의 방식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유와 기술과학의 경이로운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세계의 낯선 경험, 공포와 환희를 제공하는 몸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간의 경험적 몸이 기술과학을 통해 영역의 확장과 기능의 향상, 그리고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포스트바디<sup>1)</sup> 사회에서 인간의 몸은 분할, 대체, 교체, 교환, 처분이 가능하다.<sup>2)</sup> 기존의 유기적 몸이 완전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몸으로써 이해되었다면, 포스트바디는 비고정적이고 부분적이며 불명확한 몸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기술과학을 매개로 한 몸의 증강은 근대적이고 위계적인 인간 존재의 이해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도미니크 바뱅(Dominique Babin)의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Post-human 1세대를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포스트바디는 인간의 몸을 기능적으로 증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술공학과 유전공학의 발달에 의존하여 기존의 인간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1) 이 글에서는 기술과학과 결합한 몸을 포스트바디(Post-body)로 규정한다. '포스트'(Post-)는 두 가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먼저 시간상의 개념으로서 후기, "~이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반성과 성찰의 의미에서 이전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탈(脫)'의 의미가 있다. 포스트바디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개념을 반영하여 조합된 용어이다. 기술과학의 발달을 통한 신체의 변형과 증강을 의미하며 이로써 기존의 신체 개념의 전환과 탈피를 의미한다.

2) 몸문화연구소, 『포스트바디: 레고인간이 온다』, 펠로소픽, 2017, 24~25쪽 참조

것이다. 그에 따라 인간의 정신, 육체, 죽음, 세계, 정체성 등에서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포스트바디는 필연적으로 포스트휴먼에 대한 사유를 요구한다.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sup>3)</sup>이다. 헤일즈에 따르면 포스트휴먼 주체는 “혼합물,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정보적 개체”<sup>4)</sup>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인간과 물질, 인간과 자연 간의 경계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관계, 횡단과 교접으로 구성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뼈와 살이 있는 몸,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탈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문학을 중심으로 기술과학시대의 포스트바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에 따른 포스트바디는 사이보그<sup>5)</sup>에서 시작한다. 1985년에 발표된 도나 해러웨이(D. Haraway)의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A Manifesto for Cyborg)」은 인종, 젠더, 계급에서의 지배/피지배 구조를 해체하고, 테크노사이언스와 유기체의 결합인 사이보그를 통해 여성, 동물, 자연, 기계 등과의 경계를 해체할 것을 주장한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주체가 포스트휴머니즘과 접합하는 지점이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주체는 이후 캐서린 헤일즈의 포스트휴먼으로 전개되는데, 포스트휴먼은 계몽주의적 휴머니즘, 현상학적 몸의 존재성을 탈피한 주체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경계의 해체, 고정성의 탈피, 규범의 교란은 객관적 진리 체계의 부정을 의미한다. 해러웨이는 이를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한다. 모든 지식은 부분적이고 인식 주체의 특정한 상황,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하고 수많은 정체성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테면 1980년대 사이버페미니즘(cyber-feminism)의 등장은 기술과학 문명의 발전과 여성의 관계를 논증함으로써 기존의 페미니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여겨졌다.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기술과학의 발전과 전망이 여성 주체와 교접하게 되면서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를 가속하게 되었다. 요컨대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은 사이보그 존재론을 성차와 젠더에 관한 급진적 관점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관점의 전환<sup>6)</sup>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2013년에 발표한 『포스트휴먼』에서 탈인간중심주의와 반휴머니즘을 주장한다. 휴머니즘의 모든 개념적 전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이 ‘백인, 남성, 유럽인, 건강한 신체’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들을 타자화하기 때문이다. 브라이도티는 ‘인간’ 개념을 ‘조에’(Zoé)로 대체한다. ‘조에’(Zoé)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단지 살아있음 자체만으로도 어떤 선이랄 것이 있다”고 하였다. 현대에 와서 조르조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의 존재를 ‘조에’(Zoé)로써 설명한다. 브라이도티는 이를 생명 그 자체,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보편적 개념으로서 ‘인간’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포스트바디에 투영된 소수자적 감수성과 그 문학적 저항성이다. 기술과학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 여성,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재현하는 방식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해체일 뿐만 아니라

3)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아카넷, 2014, 104쪽

4) 캐서린 헤일즈,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허진 역, 플래닛, 2013, 25쪽

5) ‘사이보그’가 과학기술의 한 분야인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유기체를 뜻하는 오거니즘(organism)의 합성어이다. 이 용어를 만든 이들은 맨프레드 클라인즈(Manfread Clynes)라는 피드백 컨트롤 분야 엔지니어와 네이션 클라인(Nathan Kline)이라는 정신약리학 전문가이다. 이들은 공동저자로 1960년 9월에 출판한 <사이보그와 우주(Cyborgs and Spac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무의식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통합 시스템” 그리고 “유기체의 자기조절적 통제 기능을 확장하는 외연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체”를 뜻하는 용어로 ‘사이보그’를 처음 사용했다. (임소연, 「휴먼 바디를 가진 포스트휴먼, 사이보그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포스트휴머니즘과 문명의 전환 : 새로운 인간은 가능한가』, 김환석 외 7명 공저, 광주과학기술원 GIST PRESS, 2017, 121쪽 참조)

6) 김소연, 「사이보그 앨리스를 성구분하기:<그녀>와 <루시>의 포스트휴먼 젠더 정치에 대한 라캉적 주체」, 『젠더와 문화』 제9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6. 12., 214쪽

새로운 가치와 이상을 제시한다. 포스트바디는 포스트휴먼담론을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론을 재전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따라서 이를 한국 현대문학에 적용하여 포스트바디의 몸이 성(性)과 젠더를 구현하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수행하기 위해 본고는 LGBT 소설을 중심으로 포스트바디의 문학적 재현 양상과 젠더테크놀로지로서의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의 한국문학은 소수자문학의 다양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페미니즘과 퀴어에 대한 문학적 재현 양상과 규범화된 젠더 의식에 대한 문학의 전략적 저항의지는 한국문학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최근의 퀴어 서사의 확장은 “삶과 문학에 대한 이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sup>8)</sup>다는 증거이며, “형식의 새로움이 아니라 태도의 새로움으로 소설의 경계를 확장”<sup>9)</sup>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는 윤이형의 「전환」(2017)과 「마흔셋」(2018), 김이환의 「너의 변신」(2010), 이종산의 『커스터머』(2017)를 중심으로 LGBT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의 양상과 젠더테크놀로지의 의의를 분석할 것이다.<sup>10)</sup> 이들 작품은 기술과학시대를 전제로 인간의 몸에 대한 변형 욕망과 의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작중 인물들의 포스트바디에 대한 지향이 성(性)과 젠더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들 작품 분석은 퀴어 이론을 통해 각 작품의 내재적 저항성과 문학적 정치성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퀴어 이론은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근대성에 내포된 남성 중심적, 이성애 중심적 개념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는 “당연시 되어 있는 사유의 기반”인 “주체, 재현, 진리, 총체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구현된다.<sup>11)</sup> ‘퀴어’라는 용어는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 본래의 멸시적 의미의 용어를 적극적으로 재전유함으로써 퀴어의 저항적이고 실천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내포한 정체성 개념으로 재탄생시켰다. ‘퀴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테레사 드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에게 퀴어는 대중매체의 재현방식에서부터 학문적 담론에 이르기까지, 게이/레즈비언 정체성과 동성애에 관한 지배적 패러다임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적인 것 자체를 다시 사유하여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아우르는 담론의 기반으로 기획된 것이다. 1990년에 발표된 로레티스의 「퀴어 이론(Queer Theory)」은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를 선호의 양식이나 일탈의 방식으로 보는 편협함을 지양하고 새로운 문화 주체의 구성으로써 지배 담론의 정치적 문화적 헤게모니에 저항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트러블』에서 자연으로서의 성(性)과 젠더의 고정성, 규범성을 해체한다. 성(性)과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성(性)과 젠더, 섹슈얼리티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일관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서의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젠더화된 몸이 수행적이라는 것은, 젠더가 자신의 실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들과 동떨어져서는 그 어떤 존재론적 위상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만일 그 실체가 내적 본질인 양 조작된 것이라면, 그 내면성이란 바로 대단히 공적이고 사회적인 담론의 효과이자 작용이 될 것이다.<sup>12)</sup> 버틀러의 ‘패러디’(parody) 개념과 수행

7) 이양숙,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과학담론과 문학적 상상력」, 『도시인문학연구』제11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9, 86쪽

8) 소영현, 「퀴어의 -비선형적인, 복수의- 시간」, 『크릿터 1호 : 페미니즘』, (주)민음사, 2019, 76쪽

9) 박혜진, 「증언소설, 기록소설, 오토(auto) 소설」, 『크릿터 1호 : 페미니즘』, (주)민음사, 2019, 105쪽

10) 김이환, 「너의 변신」, 『문학동네』, 문학동네, 2010 겨울

윤이형, 「전환」,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2017.6.

윤이형, 「마흔셋」, 『문학동네』, 문학동네, 2018 여름

이종산, 『커스터머』, 문학동네, 2017

11) 이진경,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423쪽

12)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341쪽

성 이론은 억압된 젠더를 해방하고 강제적 이성애 규범성(heterosexual normativity)의 허구를 폭로한다. 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성소수자들의 정치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요컨대 퀴어 이론은 성적 선호, 지향성, 정체성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인종, 계급, 성적 지향성을 가로지르는 여성이라는 범주에 기대는 대신, 그러한 개념들을 모두 흔들어 해체하고자 한다. 퀴어 이론의 지향점은 정상적인 것들과의 '차이'에 기반을 두는 정치적 연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3)</sup>

## II. 포스트바디의 양상과 퀴어 정체성

### 1. 하이테크바디를 통한 성(性)의 탈자연화

윤이형의 소설은 빈번하게 인간의 세계, 인간의 몸을 넘어선다. 이미 소설집 『셋을 위한 왈츠』(2007), 『큰 늑대 파랑』(2011), 『러브 레플리카』(2016)를 통해서 SF소설이라는 장르적 성격을 보이는 여러 편의 단편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제시한바 있다.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경험적 육체를 이루는 요소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4)</sup> 윤이형의 소설에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로봇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며, 탈신체화(disembodiment)를 통해 몸을 해체하는 경우도 발생 한다. 이때 인간의 몸은 변형과 변신, 분열과 해체의 대상이 된다. 사이보그로서 몸은 인간 존재를 증명하고 타자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몸이 아니라, 비고정적이고 불확정적이며 불명확한 몸이다. 주체의 몸이 사라진 마당에 타자의 자리를 정할 수 없다. 요컨대 윤이형의 소설은 몸과 세계, 몸과 테크놀로지 사이의 경계가 혼동되고 붕괴되는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중이다. 윤이형의 소설적 특성 중 다른 하나는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서사이다. 가장 잘 알려진, 문학적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루카」(2015)뿐만 아니라 「하줄라프」(2015), 「전환」(2017), 「마흔셋」(2018), 『설랑』(2016)에 이르기까지 LGBT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포스트바디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전환」(2017), 「마흔셋」(2018)을 중심으로 LGBT 정체성을 체험하는 포스트바디의 서사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작인 「마흔셋」은 인간의 자연적인 몸이 의료과학 기술과의 접합을 통해 탈자연화되는 현대사회를 지시한다. '마흔셋'의 '나'는 기존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이념과 관습이 점차적으로 붕괴되는 시기에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전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로, 억압과 구속의 삶이 아닌 자유와 해방의 삶으로 지향해 왔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와해되는 자기를 돌아보는 중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는 기술과학의 발전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도구와 매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방식, 가치, 세계관까지도 변화시킨다. 이른바 포스트휴먼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한 것이다. '나'에게 포스트휴먼의 정체성은 동생 '재윤'을 통해 예시된다.

그전에는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또렷해도 몸 자체에 대한 이물감은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참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심해져서 이제는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했던 게 언제

13) 윤조원,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9, 143쪽

14) 조윤경, 「포스트휴먼과 포스트바디의 상상력-오를랑의 작품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38,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1.11., 308쪽

였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남자로 살아야겠어, 재윤이 분명히 내게 말한 건 3년 전이었다. 재윤은 이미 트랜스젠더케어 커뮤니티에서 FTM(female-to-male) 전환 시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호르몬 주사를 시작할 준비까지 마쳐놓은 상태였다. 가슴의 지방을 절제할 거라고 했다.

(윤이형, 「마흔셋」, 『2019 올해의 문제소설』, 180쪽)

‘나’의 여동생이었던 ‘재윤’은 성전환수술을 통해 남동생이 되었다. ‘재윤’에게 생래적 몸은 자신의 정체성을 체현하지 못한다. 몸은 문화가 각인된 하나의 표면이자 장면에 비유된다. 그런데 젠더의 의미가 각인되는 토대나 표면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명하게 표시되는) 몸의 외형<sup>15)</sup>이 성(性) 정체성과 다를 때 “몸 자체에 대한 이물감”은 극심해진다. ‘재윤’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몸’을 버리기로 한다. 몸을 통해서 성(性)과 젠더를 규정하고 규범화하던 사회에서 ‘재윤’은 “자살금지”라는 반복적인 주문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자궁을 적출하고, 남성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재윤’의 몸은 남성의 외형을 갖추기 시작했고, ‘재윤’은 보다 안정적인 일상의 영위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기술과학 시대에 성(性)과 젠더의 불일치는 하이테크바디로써 재조정이 가능하다.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생래적 몸으로서의 성(性)이 탈자연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퀴어는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상한’ 성적 지향을 가진 존재로서 퀴어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고 전환치료를 시도하던 시기에 전환의 대상은 몸이 아닌 정신이었다. 정신 ‘개조’로써 성적 지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듯이 성적 지향은 ‘개조’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몸’의 개조이다. 성(性)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공학, 생명공학, 유전공학의 발전에 따라 가능해졌다. 의학기술의 발전은 성적 지향과 몸의 불일치의 문제를 성(性)의 선택 문제로 ‘전환’시켰다. ‘재윤’ 역시 자신의 성정체성을 체현하지 못 하는 생래적 성(性)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성(性)으로 몸을 바꾸는 중이다. 퀴어의 성적 지향에 따라 재조정되는 포스트바디는 기술과 몸의 결합이라는 하이테크바디로써 성(性)의 자연화를 탈피한다.

기술과학과 접목하여 재탄생한 ‘재윤’의 하이테크바디는 삶의 지속과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 신체의 결손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체내에 인공장기를 삽입하는 의학기술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인공지능이나 기계신체가 기술적 연구의 대상에서 보편적 삶 속으로 확장됨에 따라 탈신체 과학기술은 지난 세기만큼 인류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가 되지 못 한다. 대신, 이제 관심은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분배되며 소비되는 방식에 집중된다.<sup>16)</sup> 이 작품의 화자가 ‘재윤’이 아니라 ‘나’, ‘재경’인 이유이다.

주체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신체를 변형하고, 성(性)과 젠더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하는 양상은 김이환의 「너의 변신」에서 극단적으로 제시된다. 이 작품은 ‘나’의 남성 동성 연인인 ‘너’의 하이테크바디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을 포착한다. 작품의 배경은 성형수술 제국인 대한민국의 근미래를 상정하여 신체개조수술이 합법화된 시대이다. 몸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던 ‘너’는 신체개조수술이 합법화되자마자 조금씩 자신의 몸을 변형하고 재조립한다. 기술과학의 적극적인 활용으로써 인간 신체의 미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너’의 수술은 극단적인 시도로 발전하는데, 남성의 몸에 여성의 성기를 이식하는 가하면 종내에는 육체를 액체로 변환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몸 자체를 버리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性)과 젠더의 불일치에 대하여 의료기술을 적용하여 몸을 변형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이테크바디를 설명하고자 한다.

15)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28쪽

16) 김명성, 「탈신체 시대의 과학기술:사이버펄크 서사로 읽는 과학기술의 사회학과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지평」, 『영어권문화연구』11-1,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18. 4, 42쪽

정말로 깜짝 놀랐다. 병실에는 나보다 더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다. 너는 나를 포옹한 다음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의사가 너의 환자복을 걸어 양쪽 허벅지의 수술 자국을 살피는 동안 너는 나에게 설명했다.

“대수술이었어. 근육과 뼈를 교체하고 신경을 연결했어. 혈관 몇 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혈관이야. 다리가 길어지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엉덩이랑 허리랑 척추까지 수술했어. 하지만 다 끝났지. 이제는 물리치료만 받으면 걸을 수 있어.”

(김이환, 「너의 변신」, 『문학동네』)

신체개조수술에 대한 ‘너’의 관심은 선천적인 신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 달리 “너의 변신”은 선천적 장애 제거가 아닌 미적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예문은 첫 번째 수술 후의 상황이다. ‘너’의 몸은 교체되고 분절되며, 확장되고, 대체된다. 이 소설에 반영된 우리 시대의 테크놀로지는 인체의 내적 구성요소로 변모했으며, 테크놀로지로서 인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인간-기계의 혼합체라는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sup>17)</sup> 이 작품에서 신체개조수술의 합법화는 하이테크바디의 일반화로 나타난다. 다양한 하이테크바디의 양상은 몸의 탈형상-재형상화 과정을 거쳐 육체를 탈신성화시킨다. 또한 몸의 변환과 증강을 강조하고, 수술을 통한 몸의 그 변화과정을 스펙터클과 도발적인 이슈로 전환시킨다. 하이테크바디를 사회역사적인 문맥 속에 위치시키면서 정체성, 문화, 권력의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기술과 매체가 인간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을 진화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재현한다. 또한 인간과 기술적 체현이 진행됨과 동시에 기술의 인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몸이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기술 자체가 되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연적인 몸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과 통합으로 형성되는 하이테크바디는 기존 몸의 물리적 본질, 생래적 특성으로서의 존재성 자체를 폐기하도록 한다. ‘너’가 폐기한 신체의 자연적 특성은 생래적인 성기이다. 생물학적 성(性)의 임의적 교체를 시도한 것이다. ‘나’의 동성 연인인 ‘너’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 된 성의 구조 안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의 몸에 여성의 성기를 결합하는 것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몸을 변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기술과학시대의 포스트바디에서 성(性)이 탈자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하이브리드바디와 젠더의 탈식민화

「전환」에서 회사 동료인 단성인 ‘황진희’와 양성인 ‘신이경’은 현실의 젠더 관념을 전복하는 방식으로써 퀴어 정체성을 재현한다. 이 작품에서 퀴어는 단성인 황진희이다. 작품의 서두에 인용된 “A. K. 미첼의 『납작한 인류 Flat Humanity』 서문”에 따르면 작품의 배경은 인류의 멸종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단성동물에서 양성동물로 진화한 이후의 세계이다. 양성 생식기관을 발달시킨 1차 대변이는 인류가 자신의 유전자를 스스로 복제하여 번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연의 선택이었다. 이후 2차 대변이에서는 “여남” 두 성별의 생식기관이 동시에 기능하는 형태에서 교대로 기능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성별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영장류로 진화하게 되었다. 이로써 인류는 종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두 개의

17) 조윤경, 앞의 글, 310~323쪽 참조

성별을 번갈아 겪음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더욱 다양한 관심사와 직업, 자신과는 다른 타인들의 세계로 인식이 확장되고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악습과 제도의 적폐들도 청산될 수 있었다.<sup>18)</sup>

나는 여자로 태어나 다른 아이들처럼 일곱 살 때 처음으로 남자가 되었다. 지금까지 모두 여덟 번 변했고, 여덟 번 다 내가 너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사실이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 모양이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나 역시 엄마와 아버지의 손에서 공평하게 자라났다. 엄마는 여자일 때나 남자일 때나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자기 배로 나를 품어 낳지 못했다는 것에 묘한 미련이 있었지만 남자일 때는 표현을 잘 못하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여서, 여자일 때는 반대로 엄청나게 극성스러운 스타일이 되어 일상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나를 들들 볶으셨고, 다시 남자로 변해야 할 때면 눈에 떨 정도로 아쉬워하셨다. 내가 여자로 첫 생리를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여자였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울 정도였다. 그 케이크며 생리대 선물이며 축하 파티 준비까지 엄마에게 뺏겼더라면 아버지는 아마 평생을 조금 더 히스테리컬한 사람으로 사셨을 것이다.

(윤이형, 「전환」, 『현대문학』, 97~98쪽)

작품 안에서 “보통”은 모두 생물학적으로 전환을 경험한다. 여성과 남성을 3년 주기로 번갈아가며 살고 있는 것이다. 전환기의 몸은 일주일에 걸쳐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성기가 바뀌고 신체적 굴곡이 바뀌며 근력의 강도와 정서적 표현도 달라진다.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포스트바디의 양상을 하이브리드바디로 구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바디는 젠더 구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대부분 인류가 남성과 여성의 몸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예문에서처럼 생물학적 부모님은 자신의 신체 전환 주기에 따라 각자 여성의 삶도 남성의 삶도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젠더 규범은 해방된다. ‘부모님’을 ‘모부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남성중심적 젠더 규범의 해체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근대 사회는 젠더 규범으로써 여성, 퀴어 등의 사회적 약자를 양산했다. 가부장적 질서와 이성애중심성은 여성과 퀴어를 억압하고 구속하며 통제해왔다. 이러한 식민화의 근본 원인을 「전환」은 남녀 이분법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젠더 이분법이 제거된 사회에서 동성 간의 연애와 사랑은 전혀 낯설지 않다. ‘서 선배’는 남자일 때는 아무리 해도 마음을 받아주지 않던(인용자 : 여성으로 전환한 이후에) 여덟 살 연상의 여성에게 구애하는 데 성공했고 연애를 즐긴다. ‘나’ 역시 남자로 전환한 이후에 ‘진희 씨’(인용자: 단성인 남성)와 연애를 시작한다. 젠더 규범의 상실은 본질적인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들고, 중추적인 ‘남자’와 ‘여자’ 주인공들에게서 강제적 이성애라는 당연시된 서사를 제거함으로써, 확산된 젠더 배치의 효과를 발휘한다.

미래의 사회에서 자연 진화로 하이브리드바디를 갖게 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 성(性)을 기준으로 규범화되었던 이분법적 젠더가 해체되고 포스트바디의 젠더 탈식민화가 가능해진다. 이 작품에서 성소수자는 “유니섹슈얼리티(Unisexuality)”이다. 이들은 자신의 몸에 하나의 성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편협하며 평등과 상호 존중이 아닌 지배와 예측의 습속이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 단성인들은 1,2차 대변이에도 불구하고 진화되지 않은, “자연이 선사한 양성성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 존재들로 평가받고 있다. 젠더 식민화의 잔재가 남은 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양성인 ‘나’가 ‘황진이’에 대한 호감을 애써 외면하려는 이유도, 동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단성인이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바디는 젠더화된 몸에 대한 인식론적 반성을 요구한다. 생물학적 성(性)과 상관없이 젠더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18) 윤이형, 「전환」, 80~83쪽 참조

하는 것이다.

이종산의 『커스터머』는 지구 대폭발 이후의 세계를 그린다. 지구 대폭발 후에 살아남은 인류는 다윈의 진화론을 극복하고 도킨스의 유전자론을 활용하며 새로운 몸을 구성한다.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커스터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몸을 갖고 있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물론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식물 등 기술적 한계나 문화적 이질감이 없는 하이브리드 존재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커스터머』의 세계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유전자와 인체조직도 가공의 형태로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등장한다. 커스터머는 유기적 전체로서의 자연 몸과 인공적 조합물인 기술 몸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기술공학과 유전공학의 발달을 통해 인간의 몸이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수니’는 상류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몸들과 만나게 된다. ‘수니’는 같은 기숙사에 배정된 룸메이트 ‘안’과의 사랑을 키워가면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하게 된다. ‘안’은 중성인이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모두 갖고 태어난 하이브리드바디이다. 중성인은 성장하면서 특정 성(性)으로 발달하기도 한다. 아직 성장기인 ‘안’은 여성인 ‘수니’와 같은 방을 배정받고 생활하며 우정에서 사랑으로 감정을 키워간다. “남자인 동시에 여자인 사람들, 중성인들은 넘치는 호르몬 때문에 성적 매력이 강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는 편견이 강했던 ‘수니’도 ‘안’의 ‘곱고’ ‘단단한’ 혼종적 특성에 매료되어 ‘안’과의 신뢰를 구축해간다.

나보다 크고 근육으로 다져진 몸. 안의 말이 맞기는 했다. 나는 안이 입은 얇은 티셔츠 위로 봉긋하게 올라 있는 부드러운 가슴을 봤다.

안의 바지 가운데가 약간 볼록한 것 같았다. 기분 탓일까 아니면 차분한 얼굴 뒤에 흥분을 감추고 있는 걸까?

나는 여자면서 남자인 안의 몸을 봤다. 처음에는 낯설었고 이제는 사랑하게 된 안의 몸을.

(이종산, 『커스터머』, 12쪽)

‘안’의 하이브리드바디는 돌연변이가 아니고 대폭발 이후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포스트바디의 한 양상이다. ‘안’의 생물학적 부모는 모두 중성인이고, 중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양육자’라고 부른다. ‘안’은 지구 대폭발 당시 특수방공호로 숨어 지낼 수 있었던 수도 지역의 특정 계층 출신이다. ‘안’의 고향인 ‘비취시’는 다시 동굴 구역과 빛 구역으로 나뉘는데, 동굴 구역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특수방공호에 숨어들었다는 죄책감을 체현하고, 자녀들에게는 죄의식의 내면화를 강요한다. 동굴 구역의 주민들은 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행동의 폭을 제한하면서 자신의 몸의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고향에서의 삶에서 죄의식의 내면화를 강요받은 ‘안’의 몸은 ‘태양시’로 진학하게 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개성있는, 자기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몸으로 재구성된다. 중성인으로서 태생적으로 혼종적인 몸의 성격이 제 특성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세계 속에는 모두가 다른 몸을 가지고 있다.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신다. 그 세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남자든 여자든 성이 여러 개거나 심지어 성이 없어도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그 세계 속에서 자유롭다. 그 세계 속에서 나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종산, 『커스터머』, 232쪽)

도나 해러웨이(D. Haraway)는 저작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A Manifesto for Cyborg)」에서 계몽주의적 의미에서의 몸과 자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을 이용해 몸을 해체하여 사회적 변화를 위한 더욱 정치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인종차별주의적인 남성 지배의 자본주의 전통, 지배/파지배 구조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다.<sup>19)</sup> 이 같은 해러웨이의 주장은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목적으로 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 종의 변화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전복적이다.<sup>20)</sup> 이 작품에서 커스텀은 단순히 장식이나 치장의 수준이 아니다. 머리 위에 살아 있는 오리를 붙이기도 하고, 어깨에 꽃 등의 식물을 키우기도 한다. 포스트바디는 결정된 바디가 아니다.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환경과 공조하면서 다시 생성하는 몸이다. 트랜스바디<sup>21)</sup>가 인간의 몸을 더욱 완벽하게 인간적으로 개량하려는 지극한 인간 중심주의적 지향성을 가진다면, 포스트휴머니즘 이념을 반영하는 포스트바디는 타자와의 공생체로서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생태학적 관점을 취한다. 트랜스바디가 타자의 식민화라면, 탈식민주의적인 포스트바디는 윤리적이고 생태적이다. 위계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기 때문이다.<sup>22)</sup>

### III. LGBT 수행성과 젠더테크놀로지

#### 1. 젠더 패러디와 탈-신체성

인간의 몸은 사회적, 문화적, 경험적, 물질적으로 구성된다. 몸의 외관들은 문화적 일관성을 확립하려는 표식을 통해 확립된다. 또한 몸의 경계를 설정하는 담론들은 모두 몸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적합한 경계와 태도, 그리고 교환양식과 관련된 특정한 금기들을 만들어내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적응시키려는 목적을 수행한다.<sup>23)</sup> 따라서 LGBT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은 단일한 행위 성취가 아닌 반복된 인용의 실천으로써 체현된다. 구성된 주체의 조건 속에서 강요된 젠더의 규범을 반복하고 모방하는 것이다. 이때 반복 속에서 생성되는 의미의 재전유를 주목해야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의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재윤은 공중화장실도 가지 않으려고 했다. 삭발에 가깝게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무서워할 것 같고,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거나 해코지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느 쪽도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자기는 어느 쪽도 아닌 것 같다고.

-사람들이 내 몸만 쳐다보는 것 같아. 내 가슴만. 엉덩이도. 언니, 내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까. 어깨가 더 넓었으면 좋겠어. 내가 탄탄하고 똑바르고 힘세 보였으면 좋겠어.

(윤이형, 「마흔셋」, 『2019 올해의 문제소설』, 180쪽)

“삭발에 가깝게 짧은 머리”는 ‘남성’을 모방하고 인용하는 ‘재윤’의 젠더 수행이다. ‘재윤’의 젠더 패러디

19)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문화과학』 8, 임옥희 역, 문화과학사, 1995, 78쪽

20) 이준희, 『서사작품에 나타난 미래의 몸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9, 2쪽

21) 트랜스바디는 인간의 지적, 육체적, 감정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과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하고 삶의 길이를 극도로 연장시키는 것, 인간중심주의가 강화된 트랜스휴머니즘의 몸이다.(조운경, 앞의 논문, 312쪽 참조)

22) 몸문화연구소, 앞의 책, 119쪽

23)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30~331쪽

는 성(性)과 젠더의 임의성, 우연성을 보여준다. 예문은 규범화된 젠더 이분법을 교란하고 불안하게 하는 ‘재윤’의 몸을 보여준다. ‘재윤’은 자신의 몸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양쪽을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낯설게 하는 몸이라는 사실에 좌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불편과 낯설은 ‘재윤’의 LGBT 정체성이 규범화된 신체, 억압적인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증명한다. 성(性)과 젠더의 불일치에 대해 ‘재윤’이 임의로 선택한 젠더 변형의 표식은 고정된 젠더 규범을 교란하고 해체하기 때문이다.

젠더 변형의 가능성은 바로 이런 행위들 간의 자의적인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행위들은 반복된 실패성, 형태-왜곡, 혹은 패러디적 반복의 가능성 속에 있고, 이런 반복은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환영적 효과가 정치적으로 빈약한 구성물에 불과한 것임을 폭로한다. “사람들이 내 몸만 쳐다보는 것 같”으니 몸의 외형이 더 넓고, 탄탄하고 힘세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몸이 젠더 수행의 유효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과학시대인 지금, 인간의 몸은 이미 포스트바디이다. 포스트바디는 우리의 몸과 관련된 일체의 탈신체화 현상을 유발한다. 포스트바디는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고정된 실체라고 여겼던 기존의 몸을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음을 알려준다.<sup>24)</sup> 앞서 자궁 적출을 하고 이제 유방 절제를 앞두고 있는 ‘재윤’의 몸은, 남성 호르몬의 지속적인 ‘주입’으로써 남성적인 몸 외형을 갖추어가는 ‘재윤’의 몸은 젠더 패러디를 통한 탈 신체성을 수행하는 몸이다.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술과학이 접목된 몸으로서의 포스트바디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정서이다. 앞서 보았듯이 「마흔셋」의 화자는 ‘재윤’이 아니라 언니인 ‘나’, ‘재경’이다. 작가는 ‘재윤’의 포스트바디에 대한 ‘나’와 ‘엄마’의 감수성과 민감성을 포착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의 자유와 평등을 몸으로써 누리고 실천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나’는 학생들로부터 “인권감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누구보다 자식의 건강과 안정을 기원하고 도모하지만 ‘엄마’에게 둘째 딸의 “전환”은 죽음 앞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태였다. 이는 기술과학의 진보와 달리 정체되어 있는 인간의 인식체계의 강고함, LGBT 정체성과 포스트바디에 대한 상상력의 결핍을 말한다. 다만 ‘자궁암’으로 긴 투병 끝에 엄마는 죽음을 맞고, 재경과 재윤은 ‘남매’로서의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작품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인권감수성의 고취와 젠더 변형에 대한 민감성 해소에 대한 작가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전환」은 유전적인 변이로써 젠더 규범의 해체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젠더 모방을 통해 원본의 권위를 탈각함으로써 포스트바디의 젠더의 패러디를 통한 탈신체성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대부분의 인류는 3년을 주기로 성 전환이 일어난다. 여성과 남성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것인데, 이때 각 정체성은 젠더 패러디를 통해 수행된다. 젠더의 행동은 반복된 연기를 필요로 한다. 이런 반복은 사회적으로 이미 설정된 일련의 의미들을 재실행하는 동시에 재경험하는 것이다. 젠더화된 몸이 수행적 이라는 것은, 젠더가 자신의 실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들과 동떨어져서는 그 어떤 존재론적 위상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만일 그 실체가 내적 본질인 양 조작된 것이라면, 그 내면성이란 바로 대단히 공적이고 사회적인 담론의 효과이자 작용이 된다.<sup>25)</sup> 따라서 모방이야말로 지배-비지배의 역학에 균열을 내는 저항점이 된다. 젠더는 자신을 과시하면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것’의 과장된 전시를 통해 그 근본적인 환영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sup>26)</sup> 또한 패러디의 실천들은 특권화되고 당연시된 젠더 배치와, 파생되고 가상적이며 모방된 것, 말하자면 실패한 모방본의 구분에 재개입해서 그것을 재통합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서 선배는 전환 주간 닳새에 걸쳐 그라데이션을 주듯 서서히 옷차림을 바꿨고, 애매한 길이어던 머

24) 몸문화연구소, 앞의 책, 24쪽

25)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41쪽

26) 주디스 버틀러, 위의 책, 349~359쪽

리를 다시 기르기 시작했으며,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블라우스와 에이라인 스커트를 입고 베이지톤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3년 전에 비하면 제법 세련되게 어울렸다. 진희 씨가 웃으며 멋지다고 말하자서 선배는 진심으로 기쁜 표정을 지었다.

(윤이형, 「전환」, 92쪽)

여성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한 ‘서 선배’는 “엄청 예쁘게, 아니 아름답게 입어줄 테다.”<sup>27)</sup>라며 여성 정체성의 재현에 자신감을 보인다. 예문에서와 같이, ‘서 선배’에게 ‘여성’의 외양은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여성으로서 예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서 선배’의 성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다. 양성인 ‘서 선배’의 성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불연속성은 젠더가 반드시 섹스를 따를 필요는 없으며, 욕망이나 전체 섹슈얼리티가 젠더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성애, 양성애, 게이와 레즈비언 정체성이 탈 신체성에 기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몸의 영역의 질서 와해와 분해는 이성애적 일관성이라는 규제의 허구를 분열시키면서, 그런 규제적인 이상이 하나의 규범이자 허구임을 폭로한다.<sup>28)</sup> 요컨대 젠더는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시간 속에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공간에 제도화되는 어떤 정체성이다. 젠더 효과는 몸의 양식화를 통해 생산되고, 따라서 이 효과는 몸의 제스처, 동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양식들이 안정된 젠더 자아라는 환영을 구성하는 일상적 방법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정된 물질로서의 몸, 본질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몸은 사라지고 없다. LGBT 정체성을 수행하는 포스트바디는 젠더 패러디를 통해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생성 되는 몸으로써 원본을 위협하고 원본의 권위를 탈락시키면서 구성된다.

## 2. 젠더 패스티쉬와 횡단-신체성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전략은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해체하는 것이다. 해러웨이가 말하는 사이보그의 몸은 기술적이면서 생물학적이고, 살이 있지만 동시에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과 가까울 뿐 아니라 기계와도 가깝다. 이처럼 인간이 언제나 인간을 넘어서는 세계와 맞물리는 지점인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으로 인간의 신체성을 상상한다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이 궁극적으로 ‘환경’과 분리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몸들을 가로지르는 운동, 즉 횡단-신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다양한 몸된 자연들(bodily natures) 사이의 상호교환과 상호연결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횡단(trans)은 서로 다른 장소들을 가로지르는 운동임을 부각하기 때문에 횡단-신체성은 인간 몸, 비인간 생명체, 생태계, 화학 작용물, 그리고 여타 다른 행위자들의 종종 예측 불가능하고 반갑지 않은 작용들을 인정하는 유동적인 공간을 열어준다.<sup>29)</sup>

「너의 변신」은 자기 몸과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합법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에서 몸은 기술과학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것’들과 접합한다. 몸이 다른 ‘것’의 물질성과 상호 교환되고, 상호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생물학적인 몸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체와 이미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자연과 문화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다.<sup>30)</sup> 예컨대, 청소부한테는 팔이

27) 윤이형, 「전환」, 91쪽

28)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40쪽 참조

29) 스테이시 앨리모,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김종갑 옮김, 그린비, 2018, 16~19쪽 참조

30) 조운경, 앞의 논문, 311쪽

네 개나 달려있고, 바비인형 수집광 남성은 몸을 바비인형으로 교체하며, 냉장고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두뇌를 냉장칸 뒤에 이식하는 경우나 진짜 돌고래 대신 돌고래의 몸에 뇌를 이식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효율의 극대화와 인간 욕망의 적극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몸과 물질의 패스티쉬는 합법화되고 보편화된다.

“내가 원했던 몸이야.”

너는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 성 정체성을 알았을 때부터 여성 성기를 갖고 싶었어. 페니스가 싫은 건 아니야. 이걸로 느끼는 오르가슴이 좋으니까. 하지만 다른 남자의 페니스를 몸 안에 받아들일 때는 향문이 아니라 질로 받아들이고 싶었어. 남자의 몸에 여성의 성기를 갖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다가 애를 먹었어. 겁이 났지. 음경과 고환이 없어지면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지금은 여성의 성기가 더 좋아. 처음에는 나도 보는 게 무서웠는데……

<중략>

“연구소에서 새 약품을 발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일종의 방부제야. 몸에서 떼어낸 신체를 얼리는 것보다도 훨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약품이거든. 예를 들어서 팔을 잘라 방부제에 담가놨다가 나중에 원할 때 다시 붙일 수 있어. 대단하지? 내 페니스도 버리지 않고 놔뒀거든. 붙이고 싶으면 다시 붙일 수 있어. 네 생각은 어때? 다시 붙여볼까?”

(김이환, 「너의 변신」, 『문학동네』)

「너의 변신」에서 ‘너’가 행하는 몸의 패스티쉬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젠더 구분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인식되어 온 성기를 패스티쉬 하는 것이다. 남성의 몸에 여성의 성기를 접합함으로써 ‘너’가 추구한 것은 LGBT 정체성의 구현이다. 물론 지금의 실행은 다시 변경될 수 있다. 지금 ‘너’의 성 정체성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정체성 구현 방식에 따라 성기는 일시적이고 임의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너’의 몸은 기술 과학적으로 ‘레디-메이드’ 된 여성 성기를 이식했지만, 앞서 제거한 남성 성기는 언제든지 “붙이고 싶으면 다시 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설정은 기술과학시대와 접목한 인간의 성(性)이 더 이상 인간의 정체성을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의 정체성 구성 방식에 따라 몸은 변형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시대의 테크놀로지는 인체의 내적 구성요소로 변모했으며, 포스트 휴먼은 모든 물질적, 상징적 장벽을 부수고 몸과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한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로 인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즉 인간-기계의 혼합체라는 생각의 전환, 횡단-신체성으로의 사유를 촉구하는 것이다. 횡단-신체성은 신체이론, 환경이론, 과학연구가 생산적인 방식으로 서로 만나고 섞이는 장소를 지칭한다. 인간 신체와 비인간 자연을 가로지르는 운동은 물질과 담론, 자연과 문화, 생물학과 텍스트의 영토들을 관통해 이동하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분석을 필요하게 만든다.<sup>31)</sup> 「너의 변신」에서 젠더 패스티쉬를 통한 횡단-신체성은 얼마나 다양한 물질들이 인간 몸 안에서, 인간 몸을 가로질러 이동하는지 추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이 무언가를 실행하는지를 추적한다. 인간을 넘어서는 세계와 인간 사이의 물질적 상호연결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몸의 유동성과 불확정성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몸은 휴머니즘 전통 해체를 위한 도구이자 대상, 자연, 동물, 기계와 얼마든지 결합하고 향상, 진화할 수 있는 일종의 가능성이다.<sup>32)</sup> 『커스터머』는 인간 몸과 비인간 자연들 사이의 상호연결, 상호교환

31) 스테이시 앨러이모, 앞의 책, 21-22쪽

32) 이준희, 앞의 논문, 3쪽

그리고 횡단적 이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작품 구성은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 새로운 주체에 대한 모색, 성별 인종, 문화, 지역 등 특정 기준에 따라 타자를 구성하고 배제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을 야기한다. 몸의 패스티쉬가 가능한 포스트바디의 사회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체성들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커스텀이 가능해진 뒤로 사람들은 타고난 대로 살 필요가 없어졌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커스텀은 생물학적인 몸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체와 이미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자연과 문화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sup>33)</sup>

작품 속 인물들은 각 개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몸을 커스텀 할 수 있다. 커스텀의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주사 약물을 몸에 주입하여 유전자 구조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두 번째는 의료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날개나 꼬리 등 수술로 이식하거나 접합하고 약물을 주사하여 몸의 구성을 완성한다. 커스터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써 새로운 종과 몸을 생산하고 변형한다. 커스텀으로써 생성된 종과 몸은 다양하다. 유전자 변형 동물인 강아고양이, 어깨에 식물을 이식한 사람, 머리 위에 살아있는 오리를 붙인 남자, 무생물에 생물을 결합한 새로운 동물로서 생명이 있는 돌, 앵무새 날개를 단 무성인 등 다양한 커스터머들이 사회 구성인으로서 살아간다.

“불편하지 않아?”

“뭐가?”

“여자이면서 남자인 게.”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보다는 둘 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

“여자도 남자도 싫어?”

“모르겠어. 거추장스럽기는 해. 그런 게 없는 편이 나한테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편하고.”

나는 안의 말을 듣고 다큐에서 봤던 중성인들을 떠올렸다. 여러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중성인이라는 말을 거부했다.

“중성인이라는 단어는 저를 설명하기에 부족해요. 너무 단순하죠.”

일반적으로 중성인은 두 개 이상의 성이 공존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무성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성인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안은 무성인이 되고 싶은 걸까? 그렇다면 안을 좋아하는 나는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진 걸까? 너무 복잡했다. 나는 안을 만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진지하게 끌려본 적이 없었다.

(이종산, 『커스터머』, 99-100쪽)

모두가 다른 몸, 규범화되지 않은 정체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젠더 이분법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너의 변신」에서 ‘너’의 몸이 기술과학을 매개로 남성이면서 여성인 몸의 패스티쉬를 실천했다면 태생적으로 중성인인 ‘안’은 남성이면서 여자인 몸을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자기 몸의 패스티쉬를 지향한다. ‘너’나 ‘안’에게 ‘주어진’ 몸은 모두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성(性)의 이분법에 도전하는 이들의 젠더 패스티쉬는 이성애/동성애의 협소한 구분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억압적 규범들에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정체성을 고정시켜 우리의 다양한 욕망을 통제하고 사회유지에 기여하는 남성중심 이데올로기나 재생산이 가능한 결합만을 정상성으로 인정하는 이성

33) 조윤경, 앞의 논문, 311쪽

에 규범주의(heteronormativity)를 해체하려는 혁명적인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젠더 패스티쉬는 몸에 대한 상상력의 극단이다. 그러나 ‘주어진’ 몸을 거부하고 각자의 개성대로 ‘만들어 가는’ 몸으로의 인식 전환은 포스트바디를 통한 포스트휴머니즘의 재현이다. 스테이시 앨리모의 횡단-신체성은 인간의 몸을 자연과 환경, 기술과 과학의 영향에 따라 끊임없이 유동하고 변형되는 흐름으로 인식한 것이다. 『커스터머』는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본질적 육체성에 대한 집착, 그럼으로써 몸의 변형과 훼손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을 걱정하고 경고하는 것은 기우(杞憂)라고 본다. 인간은 각자 새로운 몸으로써 더욱 다양한 정체성을 구현하게 될 것이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그리고 인간의 몸은 패스티쉬가 가능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 IV. 나오는 말

기술은 한 사회의 성숙도나 사회적 지위, 분배의 정의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젠더 역할에 대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 기술이 성이나 인종,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열려 있는 구조라면 젠더가 기술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이 글에서는 기술과학의 발전에 따른 몸의 변화와 해체가 LGBT 정체성의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탐구했다. 현대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규범화된 젠더와 이성애 중심성 사회에서 자신들의 성적 지향이 ‘선택과 취향의 문제’로 오인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퀴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전유하여 자신들의 ‘비정상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문화정치를 펼치는 중이다.

문학에서 퀴어 정체성의 수행과 실천은 ‘선택과 취향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환하기보다는 포스트바디를 통해서 몸을 선택하고 취향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윤이형과 김이환, 이종산의 소설에서 성소수자들은 LGBT 정체성 구현에 맞도록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구성한다. 여기에는 기술과학의 발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계적 몸과 결합하는 성소수자들의 하이테크바디나 유전자 변형으로 가능해지는 하이브리드바디는 수행적 젠더 정체성을 체현하는 몸이다.

윤이형의 「마흔셋」과 「전환」은 기존의 윤이형의 문학적 성과를 증명하는 작품들이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 인간의 몸을 넘어서는 존재에의 탐구,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과 몸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문학화 했던 작가적 특징이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동생의 성 전환 수술을 지켜보는 ‘나’, ‘재경’과 대부분의 인류가 양성인인 세상에 특수한 존재, 단성인으로 살아가는 ‘황진희’를 바라보는 ‘나’, ‘신이경’은 동질적인 입장과 상황에 놓여 있다.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대하는 입장이 동일하고 인권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적 인식이 동일하다. 이들 화자를 통해서 작가는 공존과 화해의 포스트바디를 예시하고 포스트휴머니즘의 가능성을 예견한다.

김이환의 「너의 변신」과 이종산의 『커스터머』는 SF 소설 장르를 차용한다. 기술과학의 혁신적인 발전은 인간의 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현시키는데, 이들 작품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디자인할 수 있는 몸이다. 극단적인 신체의 변형과 해체는 인간의 몸을 탈신성화 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는데, 포스트휴머니즘의 개념적 정의에서 인간의 존재나 몸은 더 이상 세계 인식의 중심이 아니고 부분적이며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 작품들에 대한 해석은 보다 자유롭다. 다시 말해서 「너의 변신」과 『커스터머』는 횡단-신체성으로써 실현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거대한 경계선이 소멸하고 추론적, 식민적, 인종적 젠더화는 새롭게 구성될 시점<sup>35)</sup>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인

34) 이지연, 『도나 해러웨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59쪽

35) 이지연, 「테크노젠더와 몸의 미학」, 『현대 기술, 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이광석 외 지음, 그린비, 2016, 239쪽 참조

종과 여성의 담론을 넘어선 맥락을 기술과학 사회의 새로운 정체성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몸의 물질성을 탈피한 인간은 종의 다양성과 성(性)의 탈자연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머니즘과 퀴어는 2000년대 문화 예술의 화두이다. 이는 변화된 세계에서 인식의 변환을 촉구하는 문화정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최근의 한국문학에서 발견되는 퀴어 정체성의 구현 역시 구성된 사회적 일시성으로서의 젠더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몸에 각인된 개념을 내파하고, 성(性)과 젠더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괴리, 그리고 사회적 혐오의 발생 등을 포스트바디의 가능성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몸의 문제를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술적 젠더의 수행, 섹스의 가변성, 그리고 퀴어의 불확정성은 모두 “행위자는 행위 속에서 행위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된다”<sup>36)</sup>는 버틀러의 행위주체성을 상기시킨다. 결국 포스트휴먼사회의 젠더테크놀로지는 포스트바디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36)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52쪽

## 참고문헌

### 1. 기본서

- 김이환, 「너의 변신」, 『문학동네』, 문학동네, 2010 겨울  
윤이형, 「전환」,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2017.6.  
-----, 「마흔셋」, 『문학동네』, 문학동네, 2018 여름  
이종산, 『커스터머』, 문학동네, 2017

### 2. 연구서

- 김명성, 「탈신체 시대의 과학기술:사이버펑크 서사로 읽는 과학기술의 사회학과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지평」, 『영어권문화연구』11-1,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18. 4,  
김소연, 「사이보그 앨리스를 성구분하기:<그녀>와 <루시>의 포스트휴먼 젠더 정치에 대한 라캉적 주제」, 『젠더와문화』 제9권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6. 12  
몸문화연구소, 『포스트바디:레고인간이 온다』, 펠로소픽, 2017  
박혜진, 「증언소설, 기록소설, 오토(auto) 소설」, 『크릿터 1호 : 페니미즘』, (주)민음사, 2019  
소영현, 「퀴어의 -비선형적인, 복수의- 시간」, 『크릿터 1호 : 페니미즘』, (주)민음사, 2019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아카넷, 2014  
윤조원,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9  
이양숙,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과학담론과 문학적 상상력」, 『도시인문학연구』제11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9  
이준희, 『서사작품에 나타난 미래의 몸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9  
이지연, 「테크노젠더와 몸의 미학」, 『현대 기술, 미디어 철학의 갈래들』, 이광석 외 지금, 그린비, 2016  
-----, 『도나 해러웨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이진경,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임소연, 「휴먼 바디를 가진 포스트휴먼, 사이보그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포스트휴머니즘과 문명의 전환 : 새로운 인간은 가능한가』, 김환석 외 7명 공저, 광주과학기술원 GIST PRESS, 2017  
조윤경, 「포스트휴먼과 포스트바디의 상상력-오를랑의 작품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38, 프랑스 문화예술학회, 2011.11.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문화과학』 8, 임옥희 역, 문화과학사, 1995  
스테이시 앨러이모,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김종갑 옮김, 그린비, 2018  
주디스 버틀러, 『젠더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캐서린 해일즈,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허진 역, 플래닛, 2013

# 박상룡 소설에 드러난 ‘신(神)’과 ‘법(法)’의 문제

—「퇴약별」 연작(민음사, 1971)을 중심으로

양 윤 의(고려대)

1. 문제제기
2. 당굴: 신 없는 세계의 사제(「퇴약별 1」의 경우)
3. 족장: 법 없는 세계의 왕(「퇴약별 2」의 경우)
4. 자정의 인간(「퇴약별 3」의 경우)
5. 결론을 대신하여: 『퇴약별』 연작 속 여성의 문제

## 1. 문제제기

2017년 타계한 박상룡은 40년간의 작품 활동을 통해 신화와 종교, 무속적 세계를 하나로 녹여, 우주와 생명,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박상룡의 작품 세계를 세 시기로 나눈다. 「아겔다마」(《사상계》, 1963)를 시작으로 중·단편을 발표한 1960-70년대를 한 시기로, 1975년에 발표된 『죽음의 한 연구』를 한 시기로, 1990년에서 1994년에 걸쳐 발표된 『칠조어론』의 시기를 한 시기로 묶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시기구분은 박상룡의 중·단편의 세계가 『죽음의 한 연구』로 수렴되고 『죽음의 한 연구』의 세계가 『칠조어론』에서 계승, 확장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2)</sup> 한 작가의 작품을 선형적인 발전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작품들이 이 의도에 수렴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작가의 작품 전체를 조망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약점이다. 박상룡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의 대표작인 『죽음의 한 연구』(1975)에 집중되어 있다.<sup>3)</sup> 연구 텍스트를 확장하고, 텍스트를 정밀하게 읽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 단편에 대한 연구들이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퇴약별」(1966-1969) 연작<sup>4)</sup>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상세히 텍스트의 신화적 의미를 독해하고, 그 신화적 논리 너머에 있는 의미교란적 요소를 여성 등장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

1) 임금복, 「박상룡」, 『근대문학 100년 총서』 참고.

2) 김명신, 「박상룡 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0. 5쪽.

3) 박태순, 「죽음의 한 연구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 1975.8.

김주성, 「죽음의 한 연구의 신화적 요소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서정기, 「죽음의 한 연구 시론」, <동서문학>, 1989.10.

최재준, 「죽음의 한 연구론」,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경수, 「삶과 죽음에 대한 연금술적 탐색」, <작가세계>, 1997.가을호.

홍성녕, 「박상룡 『죽음의 한 연구』의 수사학적 연구 : '설교장'과 고전 수사학적 기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구수경, 「죽음의 한 연구에 대한 신화비평적 고찰-죽음과 재생의 원형적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4.

김학돈,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 연구 - 역경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2005.

최영자,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 연구」, <인문과학연구>, 2006.

정도상, 「죽음의 한 연구에 나타난 마음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014.

4) 「퇴약별」 연작은 1966년에서 1969년까지 다음 지면에 발표되었다. 「퇴약별」, 『문학』(1966.10), 「하원갑(下元甲) 설달 그믐 - 퇴약별 기이(其二)」, 『세대』(1967.2), 「자정녀(子正女) - 퇴약별 종(終)」, 『세대』(1969.1)

작에 대한 분석은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sup>5)</sup>

『퇴약별』 연작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부각되는 지점은 신화적 상징성에 대한 평가이다. 김현은 「퇴약별」 연작이 “정신적 지주를 잃어버린 현대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작가가 “어떠한 양식으로든지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증언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sup>6)</sup> 소설이 가진 신화적 상징성을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지니는 현실적 환기력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셈이다.

김주연은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고투가 “대상이 없는 대상과의 승산 없는 씨름”<sup>7)</sup>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설은 “작중 상황자체가 알레고리와 일치로 출발”하며 “현실의 약속”이 그 상황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논의에서도 신화적 상징성과 사머니즘적 소재는 현실과 절연한 것이 아니다.

반면 천이두는 박상룡의 소설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신화 세계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은 소설세계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비판한다. 그는 작가가 신화를 통해 “현대적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sup>8)</sup> 소설의 신화적 장치가 현실성의 결여를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퇴약별』 연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 속 신화적 상징성의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그 논리를 교란하는 또다른 신화적 의미소(이를테면 ‘여성의 문제’)까지 분석되어야 한다. 모든 신화가 현실과 모순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현실의 알레고리인 것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퇴약별」 연작을 따라가면서 각 연작의 신화적 의미를 각각 ‘신(神)’과 ‘말’, ‘법(法)’과 ‘불법(不法)’, ‘신생’과 ‘비윤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 일관된 논리로 수렴되지 않는 의미교란적 요소가 있음을 여성 등장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당굴: 신 없는 세계의 사제(「퇴약별 1」의 경우)

인류가 이룩한 거의 모든 관념들—종교, 신화, 서사론, 철학, 인식론,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을 다루는 박상룡의 ‘잡설(雜說)’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무한한 결과를 보여주는 다면경(多面鏡)과도 같다. 이 중에서도 「퇴약별」 연작은 ‘말’[言語]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소설은 외부와 절연된 한 섬의 중앙에 놓인 사당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당은 백송과 같은 연배이거나 그보다도 많은 세월을 참아온 듯, 비와 띄약별과, 해풍에 깎이고 시달려 피곤해 보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구체적인 형상화라는 내력을 지닌 그것은, 문도 창도 없는 오각(五角) 입체의 돌집이었다. 어떤 족장 하나가 ‘말’을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1:190)<sup>9)</sup>

이 사당은 ‘말(언어)’을 모시는 사당이고 사당에 기거하는 당굴은 ‘말’의 사제이자 “‘말’과 사람들 사이의 먼 거리를 좁혀주는 다리(橋梁)”(1:190)이다. 그는 “‘말’과 교통하기 위하여 명상이나 하면 되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으면 당굴은 마을에 내려가 소년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후계자를 지명하며 그렇게 지명된 “소년은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과도 관계가 끊기며, 이름도 잊어버려야 한다. 다만 ‘말’과 스승과만 사귀는 지고한 고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1:191) 당굴은 결혼도 노동도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말’과의 소통(혹은 명상)에만 전념한다. 이 진술은 종교나 무속 일반에서 사제 계급

5) 『퇴약별』 연작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대체로 인상비평에 가까운 글들이다.

6) 김현, 「세 개의 산문」, 『박상룡 소설집』, 민음사, 1971, 339쪽.

7) 김주연,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84-285쪽.

8) 천이두, 『종합예의 의지』, 일지사, 1974, 344쪽.

9) 1:190은 이 연작의 첫 번째 단편과 이 연작이 실린 『박상룡 소설집』(민음사, 1971)의 쪽수를 뜻한다. 이하 본문에 인용할 때는 연작의 일련번호:쪽수를 밝혀 적도록 한다.

에게 부여된 역할과 같다. 그는 평소에는 수행에만 전념하며 사람들과 신(神)을 중개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그는 노동의 의무와 결혼의 권리에서 놓여난 상태에 있다.

『퇴약별』 연작에서도 이 상태는 보존되어 있으나 ‘신’이 ‘말’로 대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은 ‘초월자’이다. 신은 지각되거나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규정성에서 벗어나 있거나 개념과 추론의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다. 신은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있으므로 파악할 수 없으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방법으로—예컨대 거대한 재앙이나 역병과 같은 숭고한 것으로—자신을 나타낸다. 이러한 신이 ‘말’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사람들은, 말—언어—은 보이지 않는데도 대단히 신비한 어떤 마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은 바다와 땅을 만든 것이며, 자기들의 운명과 시절을 지배하며, 구멍 없는 오각 돌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알았다. 스승은 이 소박한 교리에다 더 보태서, ② 이 우주엔 ‘큰 말’과 ‘작은 말’이 있는데, ‘큰 말’은 어디에나 저절로 있으며, 그리하여 ‘작은 말’들을 지배한다고 한다. ‘작은 말’은 돌에게도 보리이삭에게도 지렁이에게도 있는데, 이 ‘작은 말’들이 ‘큰 말’의 뜻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두 말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한히 큰 것(‘큰 말’)과 무한히 작은 것(‘작은 말’)은 같은 것이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같은 한 몸이라 한다. ③ 이 생각이 사당을 짓고 ‘말’을 모시게 한 것인데, 오(오각)라는 숫자는 주역의 어느 구절에서 뽑아낸 절대적인 숫자로서 신격(神格)을 나타내며, 구멍 하나 없는 건물로 표상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치 않던 태초의 우주 그것이라 하며, 그 속의 방은 어떤 것을 생성시키는 자궁<sup>10)</sup> 그것의 상징이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라는 것이다.(1:194-195, 원안의 숫자는 인용자의 것)

① ‘말’은 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창조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히브리 신화에서 신은 ‘말’로 세상을 지었다. 신은 시간의 앞뒤를 포함한 ‘말’—즉 ‘기억’과 ‘예언’—로 그곳에 터를 둔 이들의 운명을 지배했다. ② 존재에 ‘큰 존재’(존재자를 산출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있지 않은 것, 존재)와 ‘작은 존재’(개별적으로 있는 것, 존재자)가 있듯이 말에도 ‘큰 말’과 ‘작은 말’이 있을 것이다. ‘작은 말’은 모든 존재자에 깃든 말이다. 돌이 구르는 소리, 보리이삭이 흔들리는 소리, 지렁이가 길을 내는 소리 등등. 그것이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무릇 ‘있는’ 모든 것들은 언어를 갖고 있다. ‘큰 말’은 ‘작은 말’들을 낳은 말이면서 모든 존재자들의 울림과 울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말의 큰 바탕, 다시 말해 ‘함께 울림[共鳴]’이다. ‘큰 말’은 ‘작은 말’의 기원이자 원리이며, ‘작은 말’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체계이다. 모든 ‘작은 말’은 ‘큰 말’과 합치되어야, 즉 ‘큰 말’의 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 ③ 사당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이 ‘큰 말’과 ‘작은 말’의 상호성에 대한 알레고리일 것이다. 그것은 ‘큰 말’을 받아내어 ‘작은 말’로 구체화하는 데 요구되는 오감의 수용성 내지 수행성과 관련된 숫자다. 숫자 5는 오행(五行: 불, 물, 나무, 쇠, 흙), 오원소(五元素: 흙, 물, 불, 바람, 공[空]), 오관(五官: 눈, 귀, 코, 혀, 몸), 오감(五感: 색, 성, 향, 미, 촉)과 연관된 상징이다.<sup>11)</sup> 인간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파악된 대상은 그 색과 소리와 향과 맛과 촉감을 통해서 종합된다. 이 종합이 다시 종합되면 궁극적으로 존재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행과 오원소는 세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소이므로 이 종합의 어느 지점에서나 만나게 될 세계의 본질적인 측면(Aspect)이다.<sup>12)</sup> 따라서 오각형은 태초의 우주이자 자궁(아직 아무것도 탄생하지 않았으나 이제 곧 모든 것을 낳게 될 기원)의 상징이다.

10) “자궁”이 책에는 “자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식으로 보인다.

11) 『바가다드 기타』, 함석헌 주석, 한길사, 2007, 438쪽. 13장 5절 5원소 참조.

12) 인간은 오관을 갖춘 유정물(有情物)이다. “그들은 인간을, ‘판켄드리야(Pānkēndriya, 五官을 갖춘 유정)’라고 하는데, 그로부터의 진화는, 정신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데다.”(박상룡, 『신을 죽인 자의 행로는 쓸쓸했다』, 문학동네, 2003, 59쪽)

말은 이처럼 신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이 신의 본체는 아니다. 말은 신의 창조와 섭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지만 신과는 분리된 어떤 것이다. 신은 말로 천지를 지었으나 이 때문에 말은 신과 천지를 분리시켰고 인간의 기억과 운명은 그 말에 기록되었으나 이 때문에 그 말은 신의 모습을 세상에서 숨겼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는 것은 태초에 분리가 있었다는 말과 같다. 이 소설이 사당을 얘기하면서도 그 결의 “백송”을 얘기하는 것(백송은 범죄자의 목을 매다는데 소용되었다. 사당만큼이나 형벌의 역사도 오래되었다는 의미이다)이나, 당굴의 소임을 논하면서도 그 소임에 대해서 회의하는 “새 당굴”(1:192)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말은 그 탄생과 더불어 타락의 역사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말’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말’을 태어나게 하려면 ‘말’의 ‘말’이 있어야 되며, 그 ‘말’의 ‘말’이 나타나려면 또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말’이란 우연의 자존자(自存者) 그것인가? 당굴의 사색의 절벽은 여기였다.(1:195)

이제 새 당굴의 번민이 예사롭지 않은 것임을, 저 질문이 말의 탄생에서부터 예비 되어 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초의 탄생(창조)이 있기 위해서는 말이 먼저 태어나야 한다. 태어남이 말의 역량이라면 말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말 이전에 다른 말이 예비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은 무한히 소급되어야 한다. 말의 창조자인 ‘신’이 말의 탄생과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이란 우연의 자존자(自存者) 그것인가?” 결국 말은 우연히 태어난 것인가? 그렇다면 세상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되고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도 우연적인 것이 된다(세계의 원리란 없다). 세상이 나아가는 바, 다시 말해 이 세계의 목적도 사라져버린다(세계는 무목적적이다). 말을 창조한 최초의 원인인 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말과 인간을 매개하는 당굴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재난일 수밖에 없다.

당굴은 미칠 듯한 기분이 되어 사당 벽을 쳐대기 시작했다. “말을 해라, 말을! 말을!” 당굴은 발악했다. 그러다가 당굴은 주저앉고 말았다.(1:194)

말에게 “말을 해라!”라고 명령(탄원)하는 것은 말의 현현(顯現)을 명령(혹은 탄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굴에게는 접신(接神, ecstasy)이 불가능하다. 그가 간청하는 대상이 신이 아니라 신의 언어—발화하는 것이 바로 생성인 성현(聖顯)으로서의 말—이기 때문이다. 신이 말을 할 때 신과 말이 분리되듯이(생성의 역량을 가진) 이 말도 스스로를 나타낼 때(말을 할 때) 생성된 것으로서의 말, 타락한 말밖에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당의 말은 언제나 알아들을 수 없이 웅웅거리기만 했다. 당굴을 빼놓곤(다른 사람들은) 그 음향의 밑바닥에 깔리는 색조(色調)에서 얼마쯤의 뜻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괴로움 많은 사내가 흐느끼기라도 하는 듯, 그렇게 구슬픈 가락을 띠고 있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권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원시적인 외경심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엎드려 부들부들 떨었다. 말은 그렇게 해서 물과 물과 운명과 시절을 지배해 왔다.(1:201)

당굴의 말은 사람들에게 들려야 하지만 해석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알아들을 수 없이 웅웅”거리는 소리여야 한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서만 그의 말은 신의 말이 된다. 인간의 언어는 뜻을 가진 소리들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결합되고 그것이 일정한 형식을 가진 채 분절/연속되어 전달된다. 신의 말을 전달하는 당굴의 말은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의미와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어떤 색조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말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무의미를 의미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민에 사로잡힌 당굴에게 섬돌이라는 청년이 찾아온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독쇠를 죽였노라는 것이다. 섬돌을 타일러 보낸 다음 날, 독쇠의 아우 바람쇠가 다른 사내들과 함께 섬돌이를 잡아서 데리고 온다. 살인자를 처벌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어서 재판을 해주십시오. 사람을 죽인 놈은 죽어야 된다는, 내려오는 법률대로.”

바람쇠가 이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요? 당신네들 뜻대로 찢어죽이든 태워죽이든 할 일이지.”

당굴은 양미간을 찌푸렸다. 당굴답지 않은 말이었다.

“헤헤, 그래야 우리가 살인자가 안 되기 때문입죠. 이 모든 법률은 ‘말’님에게서 나왔고, ‘말’님은 공평하니깐요.”(1:198)

이 장면에 이르면 이미 ‘말’은 ‘법’의 형식으로 전환되어버린다(법이 타락한 말이라는 사실을 「퇴약별 2」를 다룬 다음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퇴약별 1」에서 재판의 주재자가 당굴인 것으로 보아 이 섬이 제정일치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족장이 있으나 그에게는 아무 실권도 없다. 족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굴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섬을 떠나는 「퇴약별 2」에서다. 당굴은 섬들에게 죽음을 선고해야 한다. 당굴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젊은이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생명이나, 그대를 소송한 자의 팔촌 이내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지 않으며, 또한 그대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꼭 한 가지 것만 원해라. 너의 소원은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수백 년이나 내려온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일 동틀 때까지뿐이다. 이 판결은 ‘말’의 입술에서 나온 엄숙한 것이다.” 이 말은 사형선고의 완곡어법적 표현이었다.(1:201)

당굴의 판결은 “말의 입술”—신성한 말이 스스로 말을 한다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섬돌은 죽음을 선고 받았으나 소송과 무관한 한 가지 소원만은 반드시 충족시켜 주겠노라는 약속을 받았다. 제정 분리시대에도 세속의 범법자는 성스러운 구역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굴의 저 약속은 그런 공간적인 소도(蘇塗)를 시간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다. 형벌의 시간은 피할 수 없으나 그 집행이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특별한 시간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유예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신의 말이 그 위력을 발휘하는 시간이며(법의 집행을 유예하는 시간이므로) “너의 소원은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에서 보듯 절대적인 시간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은 대개 자손을 남기는 데 그 시간을 썼다. 그런데 섬돌의 소원은 뜻밖의 것이었다.

섬돌이는 (중략) 족장대리와 당굴과 사람들 앞에 끌려왔을 때, 자기의 최후의, 그리고 절대적인 권리 하나를 분명하게 말했다.

“난 당굴님과 같이 죽고 싶습니다.”(1:204)

이 소원은 당굴을 결정적인 파국으로 몰아간다. 당굴이 ‘말’의 사제라면 그는 ‘말’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죽는다면 그를 통해서 선언된 ‘말’의 효력도 중지될 것이다. 그가 저 소원을 거절한다면 그는 말의 신성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이고 그의 선언은 무효가 될 것이다. 예외(例

外)에 자신을 포함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취소시키는 이 역설은 ‘말’의 실효성 자체를 중지시킨다. 섬돌이의 소원은 족장대리에 의해 부인되었으나(형은 곧바로 집행되었다), 당굴에게 그 소원은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목격한 후에 당굴은 사당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추었다.<sup>13)</sup> 이때부터 역병이 창궐하여 섬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역병은 말의 시대가, 다시 말해 말의 사제의 역할이 완전하게 끝났음을 증언하는 것이다.<sup>14)</sup> 분노한 사람들이 사당을 부수려고 몰려갔다.

그런데 오각 입체 문 없는 방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히히거리며 흐늘어져 까맣게 변해버렸다.

방속엔 이미 육탈(肉脫) 되어진 흰 뼈들이 서로 감은 채 오롯이 모여 있었고, 그 흰 뼈들은 배고 누워 역시 살을 잃어가는 사내 하나는 불 꺼진 초롱을 눈에다 불티고 있었는데, 그 옆엔 사내 같은 뼈무더기가 여자 같은 뼈 무더기의 가슴에 입술을 대고 있었다.

거기에서 아마도 할애비 당굴과 손자 당굴들이 수음(手淫)을 즐기며 화장(化粧)을 지웠던 모양이었다.(1:208)

까맣게 타죽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말’의 위력에 부스러진 것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그곳에는 모습을 감추었던 당굴과 선대 당굴들이 뼈만 남은 채 일가를 이루어 살고 있다. 이 기괴한 모습은 ‘말’의 위력이 사라진 곳에서, 양상하게 남은 말의 잔재 혹은 ‘자신이 죽었음을 알지 못하는’ 말의 화신(化身)들의 최후 모습이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미 죽었으나 여전히 그 죽음을 알지 못하는 중음 신들의 다양한 초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실제의 죽음과 상징적인 죽음 사이에서 거처를 마련한 말의 사제들이 이른바 ‘두 죽음’ 사이에서 저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5)</sup>

그런데 「퇴약별 1」에서는 말의 죽음과 (「퇴약별 2」에서 이야기하게 될) 법의 도래 사이에, 잘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제 3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 섬돌에게 죽임을 당한 독쇠의 아내이자 「퇴약별 2」의 중심 인물인 바람쇠의 형수인 ‘미친 엔네’의 방식이 그것이다. 그녀는 섬돌의 광기어린 복수극에 휘말려 남편을 잃은 것은 물론, 남편의 인육마저 먹어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다. 그런 그녀가 처형당한 “섬돌이의 상처 난 뒤통치”를 핥고 그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어서는 “시체를 어르며 젖을 물렸다.”(1:206) 이 행동은 그저 광기어린 기행일 뿐인가? 그렇지 않다. ‘광기’란 ‘작은 말’들에 속해 있지 않다. 어떤 뜻도 실어 나르지 못하기에 광기의 말은 당굴의 말에 가장 가깝다. 그녀는 복수와 형벌로 가득 찬 법의 말에서는 가장 멀고 창조와 기억과 예언으로서의 신의 말에서는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그런 그녀가 섬돌을 용서한다는 것은, 복수와 죽임의 위치에서 벗어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하여 신성한 말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과연 그녀는 당굴들의 뼈 무더기와 함께 섬돌에게 젖을 물린 자세 그대로 발견된다. 말의 품에 안긴 피에타가 아닐 수 없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원한과 죽임과 형벌의 언어로 타락한 말(법의 말)을 부정하는 길이다. 그 길은 타락한 말의 입장에서 광기로부터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이 「퇴약별 2」의 섬순이, 「퇴약별 3」의 누이에게 전승된다.

13) 김현은 이 장면을 신앙으로서 ‘말’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한계 내에서 ‘말’을 이해하려 한 새로운 당굴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 앞의 글, 339쪽.

14) 역병이 ‘말’의 역량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이후의 연작에서도 증명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역병은 계속될 것이다. 역병이 사라진 후에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퇴약별 2」) 혹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남은 섬에서는 역병이 멈춘다.(「퇴약별 3」) 서로를 소통시켜주던 말의 역량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은, 그런 상호성에 기초를 둔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전염’될 만한 말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자 역병이 끝난다.

15)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새물결, 2013.

### 3. 족장: 법 없는 세계의 왕(『퇴약별 2』의 경우)

역병이 창궐하여 섬의 주민들이 죽어나가자 살아남은 이들이 배를 만들어 섬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이 역병이 당굴의 사라짐, 나아가 말의 역량이 소진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임은 앞에서 살핀 바 있다. 상징 질서(큰 ‘말’)가 파괴되면 그 질서에 기초한 모든 개별적 상징들(작은 ‘말’들)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하원갑(下元甲)의 시대가 열린다.<sup>16)</sup> 이 시대의 ‘말’은 더 이상 신의 역량을 보존할 수 없다.

“새천지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갖질 않고 있어요, 전. ‘말(언어)’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처지가, 말로는 잘 안 돼도, 환히 보이는 걸요. ‘말’이 없이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말예요. 어떻게 살죠?”

“남자는 밭 갈고” 족장은 동생의 생각이 자기의 것과는 다른 쪽에서 비롯되고 있는 걸 느끼며, 분명하게 말했다.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면 되고, 여자는 애 낳는 고통으로 기르는 재미로 살면 된다. ‘말’이 있었을 때도 그랬잖나.”(2:213)

살아남은 자들을 이끌고 떠나기로 한 족장과 섬에 남겠다고 말한 족장의 동생(점쇠)과의 대화다. 점쇠는 ‘말’이 사라진 시대의 질서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는 역병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말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면 세계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족장은 ‘말’이 사라진 후에도 삶은 남아 있다고, 그 삶의 관습대로 살면 된다고 말한다. ‘말’ 즉 신의 창조와 기억의 역량이 사라져도 삶은 영위될 것이다. ‘말’이 사라진 시대에도 말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어떤 것인가? 그 말은 사람들을 한 뜻으로 묶어주던 역량을 상실했으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어떤 효력으로 남은 말일 것이다. 그것은 당위를 잃고 나서도 강제력으로 남은 말일 것이다. 그 말의 다른 이름이 바로 ‘율법’이다.

“네 생각은 순전히 생각(관념)이 빚어낸 것이라는 걸 알겠느냐? 도대체 넌 ‘말’이 없는 천지가 어떻다는 거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말’이 없는 걸 알았을 때, 우린 좀 쓸쓸하다는 느낌을 가졌었지만 병만 없었더라면 그 빈 마음은 금방 아물어들고 말았을 것이다.” (중략)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은 제 가끔의 생각(이념)을 가지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대로는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따라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땐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그땐, 형님의 새로운 ‘말’은 다시 한 번 죽고 맙니다. 율법이란 그것의 밑에서 생겨난 자식이 아닙니까? 그땐 우리를 죽여 왔던 병보다도 더 지독한 병이 생길 겁니다.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그것은 여러 생각 중에서도 으뜸인 것만이 뭉쳐서 된, 그것들 너머의 으뜸인 것입니다. 여러 생각이 서로 짓이겨져서 찌꺼기는 떨어져 버리고 남은 맨 나중의 것이면서도, 모든 생각이 태어나오는 맨 처음의 것입니다.”(2:214~215)

족장(형님)은 이미 당굴 시대의 ‘말’이 사라지고 없는 시대에 속해 있다. 그가 보기에 말의 신성함을 찾는 동생의 생각은 이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실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인간과 만물을 묶어주는 ‘말’이 없다는 사실은 쓸쓸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 모두가 한 ‘말’의 범주 안에 있다는 안온함이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반면 동생(점쇠)은 당굴 시대의 ‘말’을 되찾기를 염원한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이 가진 제각각의 생각은 ‘이념’이다. 각자가 자신의 중심에 설정한 믿음의 ‘말’이다. 문제는 그것이 보편적인 말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공통지반이 없으므로 각자는 서로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결과 상대방의 말을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역병보다도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역병은 ‘말’이 잠시 우리를 떠나서 일어난 재해지만 새로운 시대의 참극은 ‘말’이 아예 존재하

16) 『퇴약별 2』에는 ‘하원갑 설달 그믐’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하원갑’이란 음양설에서 180년마다 크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세 번째 60년을 이르는 말로, 세계의 기운이 쇠하여 멸망으로 접어드는 시대를 말한다. 더하여 설달그믐이니, 이 소설이 종말 혹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 않는 데서 일어난 재해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신적인 ‘말’의 자식이자 그림자이다. 말의 신성함은 사라졌으나 그것의 강제력은 남아 있는 것. 이것이 법이다. 족장은 인간의 기원마저도 여기서 찾는다.

“저 바다 가운데 어딘가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을 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할아버지들도 여기서 살았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만이 이 좁은 땅의 어느 틈에서 태어나서 살게 되었던 말이나?” 족장은 사람을 선동했던 때의, 그의 소박한 시원인론(始原人論)을 되풀이했다. “분명히 어디엔가는 큰 땅이 있고, 많은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있을 게다. 생각해봐라, 풍랑이 심했던 밤이 지나면 지나간 아침으로 깨어진 뱃조각들이 흘러와있었던 것들을 말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방법으로 배를 짓고 있었다.”(2:213)

이것은 「퇴약별 1」의 새 당굴의 고민(‘말’이 탄생하려면 ‘말’의 ‘말’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말’의 ‘말’이 있으려면 ‘말’의 ‘말’의 ‘말’이 있어야 한다. 이 소급은 무한히 이어진다.)을 인간의 기원으로 바꾼 데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낳은 다른 우리가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배가 있으려면 이 배를 지은 기술이 적용된 흔적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섬에 갇힌 인간은 섬 바깥의 다른 인간의 흔적이다. 섬에 남은 배는 섬 바깥의 다른 배의 유물이다. 그렇다면 법은 태초의 그 ‘말’의 흔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신적인 권능을 가진 ‘말’의 시대는 가고 흔적으로서의 ‘법’의 시대가 왔다.

법은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말’이다. 이는 정당성이 아니라 대가성을 근본으로 삼는다. 따라서 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선행해야 한다. 이미 「퇴약별 1」에서 법이 폭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암시되었다. 섬들은 독쇠를 죽여서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런데 섬들이 독쇠를 죽인 것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기—그의 말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독쇠의 책임성 여부는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 법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폭력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폭력이 있어야 한다. 그 선행하는 폭력에 해당하는 법이 또 있어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법과 폭력은 무한히 소급된다. 법은 폭력의 흔적이며 폭력은 법의 기원이다. 이 이항(二項)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퇴약별 2」는 이렇게 섬을 탈출한 자들의 파국을 그려낸다. 무리는 출발할 때부터 최후의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구성원들을 쏜다. 점쇠를 빼고 모두 63명이 출발했다.

먼저 마흔여섯에서 환갑때까지의 남녀를 무리 짓고(노년대) 세어보니, 족장까지 남자가 여섯에 여자가 넷이었고, 서른 이상의 무리 중엔(장년대) 바람쇠를 비롯해서 남자 열넷에 여자 아홉이었고, 이십 세부터 열아홉까지의 무리 중엔(소년대) 소년이 다섯에, 섬순이를 포함하여 소녀가 넷이었고, 다섯 살 이상의 남녀 아이 중엔(유년대) 남아 셋, 여아 둘이었다. 그리고 유아 중에선 사내에는 없고, 계집아이만 둘이었다.(2:211)

이 강박증적인 ‘셈하기’는 ‘법’이 자신의 보편성을 보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이 폭력에 기원을 두고 있는 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 어느 누구도 법의 머릿수 세기에서 열외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 향해의 초창기에는 무한정의 자유가 보장되는 듯했다.

여기에선 울타리도 없고, 계급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 무엇이든 공평하게 분배되었으며, 무엇이든 공

유(公有)였다. 어느 때엔가는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고, 가난스러웠던 자들이 바랐던 그 이상적인 제도가 어느덧 성공되어 있었다. (중략) 그러는 새 그들은 행복에 가까운 것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낮엔 긴장에 좋을 만큼 일하고 밤엔 장고에 맞춰 춤추는 사이, 사내들의 살갓 밑에 다시 굳은 근육과 진한 정액이 알팍고 누르텡텡하게 부어 팽개쳐져 있던 엔네들의 피부 밑에도, 동정하고파 하는 생래의 다정과 진정으로 은밀하고 순순하게 갈망하는 음욕이 되살려져 오동동해 있었다. (중략) 개인들이 지금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자기를 송두리째 누구에게든 주어버리고 싶어했다. 개아(個我)까지도 공유였다.(2:219~220)

항해에 나선 사람들은 처음에는 “개아(個我)까지도 공유”했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았고 생산물을 특정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않았으며 욕망을 억압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신화적인 이상사회에 가깝다. 당굴이 ‘말’과 사람을 매개하면서 신의 존재가 은닉되었듯이 족장이 이끄는 사람들은 ‘법’과 사람을 매개하면서 ‘말’의 존재를 은닉한 셈이다. ‘말’의 존재가 불필요한 이 공유의 이상(理想) 혹은 환상이 주어져야 법이 나타날 신비한 토대가 마련된다.<sup>17)</sup> 그러나 이들은 항해 열아흐레 밤에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 사람들과 딸린 배를 잃는다. 이때부터 죽음이 이들을 덮친다. 역병이 신의 역량을 가진 ‘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폭풍우는 법의 임재(臨齋)와 더불어 사라졌던 신의 재래(再來)이다. 모든 이를 묶는 말의 역량이 사라진 자리에, 즉 그 뜻을 짐작할 수 없는 무한한 폭력으로서의 신적인 힘이 ‘우연’의 형식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sup>18)</sup>

이제 항해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희망의 여정에서 필멸을 항해 가는 혹은 죽음을 연기(延期)해가는 절망의 과정으로 변한다. 이들이 바다 위에서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육지는 끝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법은 법 바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당위성이 없으므로 자기 존재의 근거를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 그것은 악착으로 제가 움켜쥔 자들을 계수하면 그만이다. 식량과 식수가 고갈되어 가자, 바람쇠를 필두로 한 힘 있는 자들은 입을 줄이기 위해 동료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한다. 이 살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시 ‘신’을 재도입한다.<sup>19)</sup>

“헌데 말일세. 바람이 잘 부는 바다래도 영 끊길 때가 있다는구먼.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바치면 뜻하는 쪽으로 잘 불어준다는 거야. (중략) 배에서 수두 하나를 묶어 병든 용왕님께 바치면 된다는 거였소. 용왕님은 지금 사람의 생간(肝)을 먹을 병이…….”(2:225~226)

희생제의는 폭력을 동원하여 신의 개입을 청원하는 의식이다. 신도 신의 ‘말’도 사라지고 그 ‘말’의 흔적인 법만 남은 곳에서, 폭력에 기댄 자들이 입을 줄이기 위해 자기들의 우두머리[首頭]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이다. 법 없는 시대의 왕인 족장은 이렇게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법을 대표하는 자가 사라지자 남은 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 「퇴약별 1」의 주인공이 신의 말을 체현한 당굴이 아니라 신의 말을 찾지 못해 회의하는 당굴인 것과 비슷하게, 「퇴약별 2」의 중심

17) 데리다, 『법의 힘』, 34쪽. “법들은 정당해서가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신용을 얻으면서 존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법들이 가지는 권위의 신비한 토대이며, 그것들 외에 다른 어떤 토대도 갖고 있지 않다.” 데리다는 몽테뉴의 말을 인용하면서 법을 정의와 구분한다.

18) 데리다, 『법의 힘』, 17-18쪽. 데리다는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을 구분한다. 법 정초적 폭력은 정당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적 폭력이다. 법이 도래하기 위해서 폭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폭풍우는 이 폭력의 원초적 현현이다.

19) 이 사건 전에 먼저 난교가 있었다. 사내들이 자기 옷을 찢어발기고 여자들은 사내들을 힐끔거렸다. 난교의 결과로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나 그것도 잠시뿐 “며칠 지나선 일상의 다반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2:225) 성적인 일탈은 불법이지만 죽음 쪽이 아니라 삶 쪽의 일이다. 욕망은 생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이 지배하는 공동체에 불법이 도입되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죽음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인물은 법의 이상을 추구하는 족장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바람쇠라 할 수 있다. 그는 불법을 자행하는 인물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열하고 잔인하며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만 행동한다. 살인, 강간, 독신(瀆神), 참언-법이 형벌의 목록으로 간추려놓은 모든 행동이 바람쇠의 것이다. 끝내 바람쇠 자신도 다른 장정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 점에서도 그는 법의 계수에 포함되는 자다.

법이 지배하는 곳에서 불법이 자행된다는 역설은 말의 절대적인 명령이 내부에서 그 말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역설과 닮았다. 법이 대가성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이 역설은 피할 수 없는 역설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있는 곳에서는 법이 존재할 수 없다. 법을 어긴 자들이 있는 곳에서만 법은 존속할 수 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법은 그 완전한 형식을 얻는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처벌한다는 역설이 여기서 생겨난다. 「퇴약별 2」에서 항해에 나선 모든 자들은 것처럼 불법의 부당한 희생자들이거나 법의 합당한 처벌자들이다. 그 대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이다.

「퇴약별 1」에서는 독쇠의 아내가 ‘광기’로 말 없는 시대에 말의 역량을 가시화하였다. 「퇴약별 2」에서 그 역할을 맡은 이는 섬순이다. 그녀는 (섬에 남는 것을 택한) 점쇠의 연인이었으나 섬을 떠났다. 처음에는 점쇠를 그리워하였으나 이내 그를 잊고 족장의 여자가 되었으며, 족장이 죽은 후에는 다시 바람쇠의 차지가 되는 비극적 인물이다. 죽음을 예감한 바람쇠가 그녀의 배를 더듬거리며 혼잣말을 한다.

“그래, 내가 여기 이 속에서 너를 빨며 자라고 있다. 이런 똑같은 두 개의 자궁 속에서 내가 시방 자라고 있다. 아니, 하나는 죽어 버렸다. 어젠가 그저겐가, 다신 되잡을 수 없이 된 어떤 날 죽어 버렸어.” 그리곤 기절해버렸다.(2:233)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기 직전, 바람쇠는 섬순이의 몸속에 자신이 자라고 있노라고 말한다. 그가 죽임을 당해도 또 하나의 그는 그녀의 몸속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는 선언이다. 그러자 섬순이는 이런 독백으로 그의 말을 취소시켜 버린다. “내가 애를 뱃다면 누구의 앨까?”(2:233) 그 아이는 바람쇠의 아이일 수도, 족장의 아이일 수도 심지어 점쇠의 아이일 수도 있다. 바람쇠가 혈육이라는 개별성으로 자신의 존속을 도모한다면 점순이는 누구의 아이도 될 수 있다는 보편성으로 그의 존속을 부정하는 것이다. 법이 계수-자신의 테두리에 속한 모든 자들을 썸-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섬순이는 그 개별자들을 구별 불가능하게 만듦-셀 수 없음-으로서 법의 바깥으로 탈주하는 썸이다. 「퇴약별 2」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자도 섬순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민인 그 젊은 여자는 바닷물을 퍼올려 마시기 시작했다. 에워식톤처럼. 이 세계를 송두리째 삼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궁 속에서 어떤 생명이 제국주의적인 맹아를 키우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다.(2:234)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목을 매달거나 미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들과 달리 섬순이는 갈증을 못 이긴 나머지 바닷물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의미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겠지만 서술자는 거기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 그녀는 허기를 못 이긴 나머지 제 자신의 몸을 먹어치운 신화 속 인물(“에워식톤”)과도 같다. 바닷물은 양수(羊水)의 신화적 상징이다. 섬순은 가도 가도 망망대해인 이 세계를 모두 먹어치웠다. 섬순의 행동은 자신을 먹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몸속에서 무한증식하는 세계(“제국주의적인 맹아”)를 키우는 행동이기도 했다. 법의 개별성을 부정함으로써 그녀는 알 수 없음의 세계, 즉 신화적 불가지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퇴약별 3」에서 그녀는 점쇠의 누이이자 연인으로 다시 등장한다.

#### 4. 자정의 인간(『퇴악별 3』의 경우)

『퇴악별 3』은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섬에 남은 점쇠의 이야기다. 섬은 시체들만 남겨진 무인도가 되어 버렸다. 점쇠는 “고독”, “공포”, “외로움”, “무서움”(3:237)을 느끼며 섬의 이곳저곳을 떠돈다. 그러다가 점쇠는 문득 깨달음을 얻는다.<sup>20)</sup>

“자정(子正)이로군, 자정이야! (중략) 자정은, 어제의 끝이고…… 내일의 시작이고……. 현대 오늘이 끼이질 못했 고…… 하 그것(0시)은 묘혈(墓穴)이며 산실(産室)이고……. 그건, 정말, 그래! 거기서 아마 거소를 잃은, ‘말’은 살고 있는 모양이다.”(3:240)

말의 타락의 시대, 법의 종말의 시대는 끝이 났다. 지금은 자정이다. 자정은 영도(零度, zero degree)의 시간이다. 어제는 끝이 났고 내일은 시작되려고 하는데, 정작 오늘은 머물 곳이 없다. 오늘은 한 시대의 종말(어제)과 다른 시대의 임재(내일) 사이에 낀, 무한히 얇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오늘에 처소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은 어제의 일이 된다. ‘말’은 그 무한히 얇은 자리에 즉 “거소”를 잃은 거소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한편 자정은 묘혈이자 산실이기도 하다. 어제의 것들은 모두 죽어서 묘혈에 묻혔다. 또한 바로 거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한다. 섬 전체가 묘지였으므로 삶은 섬의 바깥이 아닌 섬의 안에서 생겨나야 한다. 마침내 점쇠는 갓난애를 발견한다.

그래 갓난애가 울고 있었다.

점쇠는 그런데 피로워 짓틀어대기 시작했다. 이빨을 앓는 언청이가 참는 앓음 같은, 이빨 빠진 승냥이가 개미에게 뜯기며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내용이라는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토해져 나오는, 그래서 뜻을 알 수 없는 기묘한 노래 같은 걸 흘리며, 제 신명에 육인 망나니같이 그렇게 두 손의 손가락들을 칼끝처럼 곤두세워 하늘을 찌르다가 하면 나팔꽃 모양으로, 합장을 하여 수줍게 움츠리고, 두 다리를 찢어지도록 벌려 땅에 퍼놓는가 하면, 상반신만을 누에처럼 휘둘러 오방(五方)을 자기 일점으로 모으고, 입술을 땅에 부비는가 하면, 어느새 일어나 질풍 같이 땀들다간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래, 갓난애가 울고 있었다. 땀에 뻘쩍이고 긴장된 근육이 제멋대로 푸들리다 이완되어 버렸을 때까지 점쇠는 그 짓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점쇠는 겹혀히 무릎을 꿇었다. 그래, 갓난애가 울고 있었다.(3:241~242)

저 공들인 묘사는 신생(新生)의 순간을 몸의 언어로 형용하기 위한 것이다. 점쇠의 저 기묘한 노래는 갓난애의 울음을 흉내 내고 있다. 언어가 아닌 언어이자 내용을 알 수 없는 내용,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말, ‘앓음’과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가 바로 갓난애의 소리다. 이것을 ‘원-언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현존하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면서 자기 뜻과 감정을 모두 실어 나르는 갓난애의 울음과 같은 언어. 모든 언어를 낳은 시원(始原)의 언어가 여기에 있다. 점쇠는 그 울음을 형용한 몸의 언어로, 지극 정성의 제의적 몸짓으로 갓난애의 울음에 응답한다. 갓난애의 울음이야말로 자정의 인간이 가져야 할 언어일 것이다. 그 첫 발성이 최초의 의미가 되고, 분절되지 않는 울음이 최초의 문장이 되는 그러한 언어 말이다.

20) 점쇠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소를 찾아내고 다시 그 소를 잃는 과정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 그는 “송아지를 놓치고 서야 어깨를 늘어뜨린 채 닢 없이 서버렸다. 송아지가 미운 만큼 아침이 두려웠다. 아마도 점쇠는, 송아지의 나르 코시스였던 것이다. 높은 곳으로부터의 전략에서 송아지를 본 순간, 갑자기 송아지는 보이지 않게 되고, 자신이 거기에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3:240)

갓난애는 섬에서 태어난 첫 생명이다. 섬의 여기저기에서 죽어 널려 있는 자들은 말이 사라진 이후의 참상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섬을 떠나서 바다를 떠돌다 죽은 자들은 법의 지배 하에서 죽음에 계수된 자들이다. 반면 갓난애는 새로운 ‘말’의 탄생을 알리는 사자와도 같다. 점쇠는 갓난애를 안고는 “서로 다른 영(靈)들이 어떻게 이렇게 통할 수 있을까?”(3:243) 생각하며 이 아기가 ‘말’의 깊은 뜻을 증언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아이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빨리 죽어버린다. 점쇠는 사내인 자신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런 갓난애가 울고 있었다면 주변에 어미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여 주변을 뒤진 끝에 어미를 찾아낸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역병에 들어 빈들에 버려진, 죽은 줄 알았던 열아홉 살 누이였다.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보듬어 되살려내는 동안 아기의 최후는 간단히 언급되고 만다. 누이의 회복과 사당을 수리하는 긴 서술 사이에 이런 문장을 슬쩍 넣어두는 식으로. “아이(그날 밤에) 죽어버렸으므로 당굴들의 사당을 태어나게 했던 ‘고행의 돌더미’ 속에다 묻어 주었다.”(3:246) 알고 보니 아이는 자정의 도래를 알리는 사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어제의 증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는 홍수신화의 서사를 그대로 따라간다. 대홍수의 도래(역병의 도래),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남겨두어 후손을 전함, 세계의 멸망(섬의 멸망), 살아남은 오누이, 하늘의 뜻에 따라 부부의 연을 맺음. 대홍수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두 번째 창세(創世)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세상을 떠받치는 바탕(대지와 하늘과 바다)까지 사라질 필요는 없다. 그곳을 터전으로 삼은 거주자들만 새롭게 설정하면 그만인 터. 대홍수의 목적은 바로 이것—죄로 가득 찬 인류의 멸절과 신인류의 등장이다. 이 구성에서 갓난애는 최종적인 국면에서야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모습을 드러낸 갓난애는 어제에 속한 인간이 되고 만다. 뒤에 가서 누이는 점쇠에게 아기가 바람쇠의 아이임을 밝힌다. 「피약별 2」의 선언을 다시 기억하자. 바람쇠가 섬순이의 뱃속에서 자신이 다시 자라고 있음을 선언했을 때 섬순이는 즉각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재선언함으로써 바람쇠의 선언을 취소시킨다. 누이의 고백도 섬순이의 말과 같다. 아기가 법의 처벌목록에 오른 바람쇠의 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정의 인간세계에서는 절멸되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누이와 오라비가 부부의 연을 맺는 ‘근친상간’의 모티프는 홍수신화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귀결이다. 세상에 남은 이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후손을 남기려면 둘이 부부가 되어야 한다. 이 논리에 따른다면 근친이 아닌 다른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이는 인간이 아니거나 이미 절멸했을 것이다. 나아가 바로 이 금기의 위반은 새로운 윤리를 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말의 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 그 말한 신이 은닉되어야 한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기 위해서 불법(不法)이 만연해야 한다. 자정의 윤리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윤리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근친상간이다.

「피약별 2」의 족장은 바람쇠 일당의 손에 의해 수장되기 전까지 오각돌집(사당)의 형상을 조각하려 애쓰고 있었다. “면도, 각도, 안팎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양은 있는, 아니면 그것들이 다 있으면서도 모양은 없는, 그런 것을 깎으려는 것이다.”(2:223) ‘말’은 사당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사당은 아닌(혹은 사당의 형상은 아니면서도 오각의 사당인) 그러한 불가능한 형상이다. 법의 세계에서 구현되지 않은 ‘말’의 형상을 찾으려는 이 시도는 당연히 실패로 끝난다. 섬에 남은 점쇠도 허물어진 사당을 복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시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말’의 재래란 어제의 윤리가 통용되는 세상의 재래이기 때문이다. 누이와 잠자리를 함께 한 그날에, 점쇠는 사당으로 가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사당을 파헤친다.

점쇠의 행동이 누이에겐 고백으로 보였다. ‘말’의 사람도, 율법의 사람도 아니라는. 다만 한 계집만의 남정네라는. 그

래서 누이에겐 천둥도 무섭지 않았고, 번개도 정다웠고 비가 흩지도 않았고, 통쾌하기만 했다.(3:253)

바다를 떠돌던 이들과 다르게 누이는 폭풍우를 우연하고 폭력적인 신의 현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앞에 “말의 사람도, 올법의 사람도” 아닌, 한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점쇠는 홍수신화에서 요구하는 신인류가, 다시 말해 자정의 인간이 된 것인가?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진다.

점쇠가 충혈된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을 땐 거기에, 풍성한 대지(大地)가 기막히게 비옥한 음부를 열고 유혹하고 있었으며, 버마재비의 암컷이 이를 갈며 ‘말’이나 같은 그런 무엇을 찢어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피가 솟도록 눈을 치뜨고 보아도 그랬다. 그것은 점쇠를 건널 수 없게 했다. 점쇠는 찢기고 터지고 굵혀 걸레쪽이 된 몸을 간신히 일으켜 비적이며 그것을 향해 돌진했다.

누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오빠를 쏘아보았지만, 형언 못할 공포로 부들부들 떨다 무릎을 꿇었다.(3:253)

점쇠에게 누이는 수컷을 잡아먹는, 나아가 ‘말’을 찢어 죽이려는 암컷 버마재비(사마귀)로 보였다. 섬순이가 자기 앞에 놓인 세상(바다)을 모두 삼키려고 든 것처럼 누이는 “비옥한 음부를 열고 유혹”하는 “대지” 그 자체였다. 살려달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누이는 오라비의 손에 죽고 만다.(3:256-257) 죽은 누이의 시신을 보듬으며 점쇠는 마지막 긴 고백을 시작한다.

“버마재비의 암컷은, 그건 어찌면 나였고 너는 아니었다. 어찌면 그리고 몇 백 년이나 굳어온 올법이었다. (중략) 네가 나를 분만했구나. 네가 없었더라도 어느 때엔 허긴 이렇게 되긴 했을 것이다. (중략) 나를 보라, 내 속에서 넌 너의 새 삶을 보게 될 게다.”(3:254)

자정의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옛 윤리의 위반(근친상간)만이 아니라 옛 올법의 폐지가 필요했다. 신생을 위해서는 모든 옛것의 죽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버마재비의 암컷이 자신이라는 점쇠의 고백은 누이가 아니라 자신이 ‘죽임’의 임무를 떠맡은 자이자 대지에서 떨어져 나온 자라는 고백이다. “네가 나를 분만했구나”라는 점쇠의 깨달음은 누이가 대지이자 산출(產出)의 역량 그 자체였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점쇠는 어머니—누이의 자식이다. 고로 그가 자정의 인간으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대지는 대지로 돌아가야 한다. 곧 죽어야 한다. 대지모신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몸을 세계의 바탕으로 제공하는 신화의 논리가 이 고백에 내재해 있다.<sup>21)</sup>

“① 말은 아마 있을 게다. 그래서 난 그를 죽이려 사당을 헐었다. 하필이면 누이를 오빠에게 줄 수 있느냐고 나는 대들었었으니까. 때였어. 너무 두텁게 낀 때였어. (중략) ② 그러나 ‘말’은 아마 없을 게다. 돌이니 풀이니 송아지니 하는 것들에서 느꼈던 ‘말’은 그것들의 정조(情操)며 생명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돌에게서도 난 생명을 느꼈으니까. 따지고 보면 송아지나 아이나 여자가 남게 된 것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거기에 ‘말’의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의 예지와 실명(失明)이 있었던 것이다. (중략) 난 지금은 다만 새나 풀이나, 짐승이나 돌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들은 ‘말’ 따윈 생각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말’이 있다고도 안 하며 없다고도 안 하며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여 생각지도 않는다. 누이니 오빠니도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은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중략) 인간만이 볼 수 없었던 그리하여 스스로를 제외시켰던, 태고적의 그 어떤 숨결 같은 것이, 젖 같은 것이, 샘솟는 것을 되찾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정(子正)의 의지였다. 땅의 맥관을 타고, 즐기차지만 고요히 흘러온 작용력(作用力)—

21) 이대영, 「박상룡 소설의 중단편 연구」, <어문학>, 2000, 30쪽. 이대영은 “황폐화된 섬에 우주의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누이라는 대속물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것이 어쩌면 내가 찾은 ‘새로운 말’이다. (중략) 태고적의 그 어떤 숨결, 잃어버렸던 땅, 그 ‘새로운 말’, 자정의 의지, 그 여인—그것은 이 한우리의 고향이다. 이 한우리의 귀소(歸巢)다. (중략) 비가 개이는데로 묵은 땅은 온통 불살라 버려야겠어. 폭우로도 다 못 씻은 낡음들을. 그리곤 씨알을 던져야지, 씨알을 암튼. 이 여인의 몸에, 그 자궁에.”(3:255~257, 밑줄과 원안의 숫자는 인용자의 것)

① ‘있을 것’이라고 점쇠가 이야기하는 ‘말’은 법의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텁게 낀 때”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②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신의 말이다. 모든 것들을 낳고 모든 것들에 작용하는 창조의 역량이자 섭리로서의 초월적인 말은 이제 없다. 자정의 인간에게 진정한 ‘말’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자들, “풀이니 송아지니 하는 것들”에게 내재한 정조와 생명, 그것들을 산출하는 대지의 작용—바로 그것이 말이었다. 그는 이렇게 옛것들을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대지에 새로운 씨를 뿌리겠다고 선언한다. 그 돌무더기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라갔다.”(3:257) 성스러운 영(Holly Spirit)처럼.

그런데 『퇴약별 3』의 부제는 ‘자정녀(子正女)’다. 이 부제에 기대어 읽는다면, 자정의 인간은 점쇠가 아니라<sup>22)</sup> 누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모든 개별적인 존재자들에 깃든 생명력이 새로운 시대의 ‘말’이라면 누이는 그 개별자들을 낳은 “태고적의 어떤 숨결, 혹은 잃어버렸던 땅”으로서, 혹은 “자정의 의지” 그 자체로서, 개별자들이 태어나서 살고 죽어가는 터전(대지)이다. 신이 개별자들의 터전 바깥에 있는 초월적인 작용이라고 말한다면 대지는 개별자들의 터전이 되는 내재적 바탕이다. ‘말’의 현현과 부재, 그 어느 쪽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미친 여인(『퇴약별 1』)이나, 법의 작용과 불법, 그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았던 섬순(『퇴약별 2』)처럼. 누이 역시 모든 개별자들에 속하지 않으면서도(그래서 누이는 개별자들 가운데 하나로 현존하지 않아야 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죽어야 했다) 모든 개별자들이 현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경계 그 자체가 되었다. 점쇠가 자정에 속한 신인간이라면 누이는 자정 그 자체—어제에도 내일에도 속하지 않는 그 앓은 오늘, 옛것을 구별하고 새것을 나타낸 후에 그 자신은 소멸하는 시간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퇴약별』 연작 속 여성의 문제

신의 말이 사라지고 법의 지배를 거쳐 자정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인간의 말이 탄생한다. 이 과정은 새 당굴과 족장, 바람쇠와 점쇠로 이어지는 남성의 계보를 통해서 전해진다. 『퇴약별』 연작이 신화적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여성이 교환의 단위 혹은 재화의 일종으로 취급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류는 여성을 등가교환하면서 친족과 씨족의 체계를 완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연작의 여성들에게는 어떤 주체성도 마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퇴약별』 연작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미친 여자’일 뿐이거나(『퇴약별 1』),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로 이전되는 소유의 대상이거나(『퇴약별 2』), 타락 끝에 오빠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윤리적이고 수동적인 인물(『퇴약별 3』)들로 그려져 있다. 『퇴약별』 연작이 사실적, 재현적 소설이 아니라 신화소(神話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설이라고 말한다 해도 이러한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본문을 서술하면서 언급했듯이) 각 연작에 등장하는 여성은 단순한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남성들이 정의한 교환의 체계 바깥에 놓이거나(엔네의 경우), 남성들의 개체로서의 보존을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계수를 무력화하거나(섬순이의 경우), 남성들의 새로운 삶이 영위되는 터전이 됨으로써 교환의 체계를 정지시키기 때문이다(누이의 경우). 이들은 남성중심적인 신화적 서사를 교란하거나 횡단함으로써

22) 연구자들은 그동안 당굴과 새로운 당굴 그리고 점쇠로 이어지는 남성 계보에 주목해 왔다.

써, 진정한 ‘인간’의 탄생이라는 이 연작의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의미화하게 만든다.

「퇴약별 1」의 ‘엔네’는 광인이다. 광기는 ‘말’이 도래함으로써 은닉되어 버렸던 신적인 질서의 표현이다. 당굴이 증얼거렸던 신의 ‘말’이 광인의 말처럼 해독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지아버를 죽인 섬돌을 용서하는 것은 그녀가 신의 ‘말’이 사라진 복수와 죽임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연 그녀는 산-죽은(undead) 당굴들과 함께 벽 속에서, 죽은 섬돌에게 젖을 물린 상태로 발견된다. 일종의 피에타인 셈이다. 그녀는 원한과 죽임과 형벌의 언어로 타락한 말(법의 말)을 부정하였다.

「퇴약별 1」에서 엔네가 ‘광기’로 말 없는 시대에 말의 역량을 가시화하였다면, 「퇴약별 2」에서 섬순이는 특별한 ‘선언’으로 폭력과 죽음의 시대에 법의 계수(計數) 능력을 박탈한다. 바람쇠가 섬순이의 뱃속에 든 아이가 자신의 자식-나아가 바람쇠 자신-임을 선언하자, 섬순이는 이 말을 즉각 무효화함으로써 법/불법의 개별성을 부인한다. 바람쇠가 혈육이라는 개별성으로 자신의 존속을 도모한다면 섬순이는 누구의 아이도 될 수 있다는 보편성으로 그의 존속을 부정하는 것이다. 법의 능력은 계수하기, 즉 자신의 테두리에 속한 모든 자들을 셈하기이다. 섬순이는 셀 수 없음, 다시 말해 개별자들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법의 바깥으로 탈주한다. 그녀는 신화적인 불가지의 세계에서 세계와 자신을 먹어치우는 거인이 됨으로써, 「퇴약별 3」의 누이에게로 이어진다.

「퇴약별 3」의 부제에 기대어 읽는다면, 이 소설의 진정한 주인공은 점쇠가 아니라 누이가 되어야 한다. 새로이 선언된 ‘말’이 모든 개별적인 존재자들에 갖든 생명력의 표현이라면, 누이는 그 개별자들을 낳은 “태고적의 어떤 숨결, 혹은 잃어버렸던 땅”으로서, 혹은 “자정의 의지” 그 자체로서, 개별자들이 태어나서 살고 죽어가는 터전(대지)이다. 이로써 그녀는 사라진 태초의 신(개별자들의 터전 바깥에 있는 초월자)을 대신한 새로운 여신(개별자들의 터전이 되는 내재적 바탕)이 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그것의 신화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말’의 현현과 부재,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미친 여인(「퇴약별 1」)이나, 법의 작용과 불법, 그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았던 섬순(「퇴약별 2」)이 그랬듯, 누이 역시 개별자들에 속하지 않으면서도(그래서 그녀는 죽어야 했다) 모든 개별자들이 현존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대지)가 된 것이다.

신과 법, 즉 신 없는 시대의 ‘말’과 불법이 만연한 시대의 ‘법’, 나아가 ‘자정의 시대’의 새로운 의미론을 탐색하는 이 소설에서, 모든 분할과 분절을 가로지르는 존재는 그리고 이 횡단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도입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성’이다. 여성이야말로 제도와 법과 권력의 말에서 소외되어 있으면서 바로 그 때문에 새로운 말의 역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퇴약별」 연작이 새로이 읽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박상룡 소설에 드러난 ‘신(神)’과 ‘법(法)’의 문제>에 대한 토론문

김개영(목포대)

양윤의 선생님의 글은 박상룡 소설, 3편의 「피약별」 연작이 가진 상징적 신화소를 통해 ‘신(神)’과 ‘법(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시에 이와는 별개로 ‘여성 인물’이 가진 의미교란적 요소를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3편의 연작에 대해서 선생님은 각각 ‘당굴’과 ‘족장’, 그리고 ‘자정의 인간’이 중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작 1편에서 당굴은 ‘말’을 신으로 모시는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의심하다가 자살에 이르고, 연작 2편에서 족장은 신 대신 ‘율법’을 공동체 운영의 중심으로 세웠으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구성원들에 의해 희생됩니다. 각각 신 중심 사회, 이성 중심 사회를 알레고리화 하여 그 모순성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되는데, 결국 작가는 연작 3편에 이르러 이 모두를 극복한 새로운 신인류-자정의 인간(점쇠)-을 제시하여 니체적 의미의 범신론적 세계관-초월적이 아닌 이 세계에 내재하는 신-을 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글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은 당굴과 족장, 점쇠로 이어지는 남성의 계보에 의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성 인물들은 철저히 타자화된 존재로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해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의문을 표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연작3편에 드러나는 여성인물들이야말로 남성중심적인 신화서사를 교란하거나 횡단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작에 나타난 여성문제를 비판하거나 아예 괄호에 넣었던 기존 연구와 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신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는 텍스트 이해의 중핵이라고 여겨집니다. 크리스테바는 언어를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의미를 만들어 내며 작동하는 상징계적 차원과 신체적 충동을 드러내는 억양이나 리듬 몸짓 등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기호계적 차원이 그것입니다. 상징계의 언어가 가부장제에 의해 ‘타락한 말’이라면 기호계의 언어는 말 본연의 즉자적 의미를 띠고 있는 ‘실재의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텍스트로 돌아가자면, ‘갓난애’의 울음소리 및 그 소리를 들은 점쇠의 행동은 기호계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것들을 ‘원-언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생의 순간을 몸의 언어로 형용”한 것이며, “현존하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면서 자기 뜻과 감정을 모두 실어나르는” “모든 언어를 낳은 시원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텍스트에 드러난 기호계의 언어는 상징계 너머의 세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라캉식의 실재계의 속성과 공유되는 의미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모시는 사당에서 들리는 ‘웅웅거림’ 또한 기호계, 혹은 실재계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신의 말은 당굴의 해석을 요하는 것으로 일반 인간들은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은 실재계의 언어를 상징계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징계의 언어가 남성 언어로 구조화되어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여성은 그 질서 바깥으로 내몰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포착, 상징계의 ‘말’-특히, 법-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성인물의 행위를 분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엔네’의 광기를 신적인 질서(실재계)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작의 각 여성인물들은 상징계의 ‘타락한 말’, 즉 ‘법’을 교란하는 존재들로 실재계가 가진 원래의 말의 질서를 드러내주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적했듯이<sup>23)</sup>, “남성인물은 그대로 남성으로서의 <인간>으로 머물지만, 여성인물은 인간적 범위를 떠나 추상적 보편적 개념으로 그 범주가 무한정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덧붙이자

면, 텍스트가 비록 신화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남성인물의 경우 현실 환기성이 다분하지만 여성인물의 경우는 여전히 신화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에게 젖을 물리는 '엔네', 홀로 살아남아 뱃속에 보편자를 잉태한 채 바닷물을 퍼올려 마시는 '섬순', 태고적의 어떤 숨결, 혹은 잃어버렸던 땅으로서의 대지모인 '점순'은 모두 일종의 어머니 콤플렉스에 기반 한 남성의 여성로망을 실현하는 신화적 인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독해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문제제기에서 밝히신 “텍스트의 신화적 의미를 독해하고, 그 신화적 논리 너머에 있는 의미교란적 요소를 여성 등장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 의도가 충분히 논증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신화적 논리라는 것은 남성적 신화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신화적 논리 ‘너머’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각 연작의 의미화 과정은 변증법적 논리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여성인물 또한 이러한 논리적 발전양상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3) 김명신, 「전복과 변형의 미학-박상룡 소설 「피약별」 연작을 중심으로-」, 『예산학보』22집, 1999, 130쪽.



#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신체 정치

-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psycho-pass)>를 중심으로 -

황지영(이화여자대학교)

## <목 차>

1.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사이코패스(psycho-pass)>
2. 테크노폴리(Technopoly) 속 신체 정치
3. 시스템의 오류를 증언하는 예외적 신체들
4. 경계에 선 신체들의 존재론적 전환
5. 명멸하는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자기규율

### 1.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사이코패스(psycho-pass)>

1516년에 토마스 모어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을 가진 제목의 『유토피아(Utopia)』를 출간했을 때, 이 책은 미래의 어느 날이라는 ‘후대의 시간’이 아니라, 동시대에 존재하는 ‘저 먼 공간’을 상정했다. 작가는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가 이곳은 아니지만 지금도 어딘가에는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종교적 관용, 남녀평등, 평화주의 등 인류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이념들이 꼼꼼하게 묘사되어 있다. 토마스 모어 이후 많은 작가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고통스러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인 유토피아를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 유토피아 소설들에 비해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확연하게 많아진다. 디스토피아 소설의 만연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탄생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세계대전은 인류가 자멸할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사건이었다. 더불어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빈부격차의 심화와 인간을 압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암울한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이 이어졌다.<sup>1)</sup> 설사 미래사회를 유토피아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할 때에도, 유토피아는 기만적인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었다. 여러 작품들에서 유토피아는 억압적인 지배형태를 그 속에 감추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sup>2)</sup>

1) 박상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 미래를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 『과학과 기술』, 2002, 82~83쪽.  
토머스 모어 이후 17세기에 베이컨이 발표한 「뉴아틀란티스」(1627)나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1637) 등도 모두 나름대로의 이상향을 다루고 있다. 19세기 작품으로는 에드워드 벨러미가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표현한 「회고: 2000년에서 1887년까지」(1888)를 들 수 있고, 20세기의 대표작으로는 카프라 감독이 영화로도 만든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선」(1933)과 그 안에서 그려지는 낙원 ‘샹그리라’가 있다.  
2) 김명진, 「영화 속에 나타난 과학기술 이미지」, 『한국과학기술학회 강연/강좌자료』, 2005, 66쪽.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현재의 ‘먼 곳’을 상상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어로 ‘나쁜 장소’를 뜻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를 그리는 작가들은 이곳을 미래의 시간 속에 봉인하였다. 그래야 파국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디스토피아 소설들을 읽을 때, 독자들이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작품 속의 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는 일은 독자들에게 어떤 쾌락을 선사한다.<sup>3)</sup> 또한 디스토피아에서 탈출하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독자들은 잠자고 있던 생의 감각이 깨어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디스토피아’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현실 세계로 소환되고 다채로운 양상으로 변주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디스토피아’라는 개념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후를 비롯한 지구의 자연 환경과 동식물의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뿐 아니라 정신적 영역까지도 데이터로 처리되고 특정 권력이 그 데이터를 장악한 세상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감정적,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걸러내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렌즈”<sup>4)</sup>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계급사회에서는 ‘인간다움’이라고 평가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 의식, 자유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존중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다움의 자리를 통제 시스템이 대체한 곳이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들의 다채로운 개성이 소멸되는 사회가 바로 ‘데이터 디스토피아’이다.

이러한 데이터 디스토피아는 미래사회를 다루는 SF 장르의 문학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자주 등장한다. SF를 사색적인 장르로 만들었다고 평가 받는 로버트 하인라인은 1957년 대학 강연에서 “SF란 실현 가능한 미래의 사상에 관한 현실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따르면 SF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이고, 미래 사회의 물질적 기반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미래의 사상’을 담은 것이다. 또한 SF는 작가의 여기(餘技)로 등장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예측’의 산물이다. 과거에 창작된 SF 작품들이 오늘날 현실화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현시점에서 미래 사회를 다루고 있는 SF에는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sup>5)</sup>

본고의 분석 대상인 일본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psychp-pass)><sup>6)</sup>에는 인간의 정신 상태와 성격적 경향을 계측하여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 디스토피아가 등장한다.<sup>7)</sup> ‘시빌라 시스템’은 2112년의 일본을 운영하는 정치체이자 이 세계를 가리키는 이름인데, 이 안에서는 온갖 심리 경향이 계측되고 기록되고 관리

3) 수잔 손탁, 『타인의 고통』, 이재원 역, 이후, 2007.

4) 한병철, 『심리정치』,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5, 80쪽.

5) 현재 데이터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다. 이미 중국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고,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의 행동뿐 아니라 인식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한다.

김지우 외, 「조지 오웰의 악몽: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 「중국, SNS·해외쇼핑·불효까지 감시…‘빅브라더’ 사회로 가나」, 『한국경제』, 2016.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112958091>

임주리, 「‘빅브라더’ 중국, 무단횡단 땀 전광판에 얼굴·이름이 뜬다」, 『중앙일보』, 2017.7.14., <http://news.joins.com/article/21756676>

6) 사이코패스(psychp-pass)는 시즌1이 후지TV에서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총 22부작으로 방영되었고, 시즌2 역시 후지TV에서 2014년 10월 9일부터 2014년 12월 19일까지 총 11부작으로 방영되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시즌3가 방영될 예정이며, 2015년에 극장판도 개봉되었다. 이 작품의 제목을 한국어로 읽으면 ‘사이코패스’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사이코패스(psycho-path)’가 아니다. 제목의 의미는 ‘정신/영혼’을 나타내는 ‘사이코(Psycho)’에 ‘판정하다’라는 뜻을 지닌 ‘패스(Pass)’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정신/영혼을 판정하다’ 정도가 된다.

7) 만보, 『애니메이션을 보는 오덕후의 바른 자세』, 스튜디오 본프리, 2015, 376~377쪽.

<사이코패스> 시즌1의 각본을 담당한 우로부치는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꼭 극대화된 문명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님을 피력했다. 그는 <사이코패스>를 통해서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꼭 행복한 세계인가?’, 그리고 ‘행복한 사회, 완벽한 사회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진다.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인의 영혼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 계층치를 ‘사이코패스(psychp-pass)’라고 부르며 타인을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인 양 이 수치를 사용한다. 개인의 고민거리를 시빌라 시스템이 대신 결정해 주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잠재범들은 격리되어 있어서 ‘선량한’ 사람들만 거리를 활보하는 이곳은 얼핏 보면 유토피아처럼 느껴진다.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자들로부터 ‘가장 완벽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는 시빌라 시스템은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해 ‘도미네이터’라는 무기를 사용한다. ‘시빌라 시스템의 눈’이라고도 불리는 도미네이터는 시민들의 범죄계수를 측정하여, 100 미만의 수치가 나오면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간주하여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100에서 299까지의 수치가 나오면 잠재범으로 판단하여 대상을 기절시키는 모드가 작동한다. 그리고 300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위험분자로 간주하여 그 대상을 제거해 버린다. 이처럼 시빌라 시스템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데이터화해서 통제한다.

시빌라 시스템 안에서는 사이코패스에 따라 직업과 그에 따른 계층이 결정되고, 한 번 정해진 계층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모와 자식 간의 계층 이동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계층이 상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바로 <사이코패스>가 제시하는 세계이다. 등장인물 중 하나인 카가리는 “5살 때 사이코패스 검진에 찍힌 후로 계속 잠재범, 치료 갱생 가망 제로” 판정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시빌라 시스템이 판정한 대로 잠재범으로서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공안국의 ‘집행관’이 된다.

이 작품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공안국 요원들은 카가리처럼 범죄계수가 높아 잠재범인 ‘집행관’과 집행관들을 감시하고 지휘하는 ‘감시관’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팀을 이루어 범죄 소탕에 참여하는데, 시즌1과 시즌2의 여자 주인공인 츠네모리 아카네는 감시관이고 시즌1의 남자 주인공인 코가미 신야는 집행관이다. 코가미처럼 현재 집행관인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는 감시관이었지만 범죄자를 잡는 과정에서 범죄계수가 상승해 집행관이 된 이들도 존재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범죄를 단속하는 자도 범죄계수가 쉽게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시빌라 시스템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A 판정을 받은 츠네모리가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형사과의 감시관으로 배속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이코패스가 흐려지지 않고, 범죄계수도 늘 안정적인 츠네모리는 성과보다는 법과 질서와 정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반면에 그의 감시 아래 있는 코가미는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되는 살인과 시민들의 폭주를 주도하는 사람이 도미네이터로는 처벌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도 범죄계수가 상승하지 않는 ‘면제 체질자’임을 알고는 시빌라 시스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신체 대 신체의 격전을 통해 그를 제압하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설정 속에서 서사가 진행되는 <사이코패스>를 시빌라 시스템을 중심으로 데이터 디스토피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 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신체성들이 길항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이곳에는 통제를 받아들이는 순응적 신체, 순응과 저항 사이를 오가는 경계적 신체, 시스템이 포착할 수 없는 예외적 신체, 마지막으로 시스템과 상관없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규율적 신체 등이 등장한다. 시빌라 시스템과 이 신체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지점들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본고에서는 <사이코패스>에서 그려진 데이터 디스토피아를 유지시키는 힘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테크노폴리(Technopoly) 속 신체 정치

데이터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작품들의 공통점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류 전체에게든 특정 계층에게

든 비극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 기술의 끝없는 발전에 대한 작가들의 우려와 불신이 담겨 있다. 데이터 디스토피아 속에서 새로운 기술은 생각하는 방식뿐 아니라 생각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의 특성, 그리고 사고를 개발하는 공동체의 성격마저 바뀌 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널 포스트먼이 ‘테크노폴리(Technopoly)’라고 부르는 “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전체주의 문화”가 펼쳐진다.<sup>8)</sup>

‘테크노폴리(Technopoly)’란 기술이 신격화되고 모든 권위를 독점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이코패스>에서 인간들이 자신의 진로를 시빌라 시스템의 판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기술에 모든 전권을 내어주고 스스로를 기술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아이러니컬한 문화적 상태가 바로 테크노폴리이다. 기술은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허물어버리고, 인간은 기술이 제시하는 새로운 규범과 목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sup>9)</sup>

올더스 헉슬리는 ‘헨리 포드 제국’의 출현을 테크노폴리가 출현하는 시점으로 파악했고, ‘멋진 신세계’가 ‘포드 전(Before Ford)’과 ‘포드 후(After Ford)’로 나뉜다고 보았다. 『멋진 신세계』에 묘사된 방식대로 테크노폴리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대안들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또한 테크노폴리는 종교, 예술, 가족, 정치, 역사, 진리, 프라이버시, 지성 등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기반한 새로운 요구들을 사람들이 따르도록 강요한다.<sup>10)</sup>

<사이코패스>의 시빌라 시스템에서는 사회의 거의 모든 요소들이 데이터가 되고, 일본의 많은 곳들이 홀로그램으로 뒤덮여 있으며, 개인들의 자유 의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곳은 모든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세계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눈에 보이는 환상을 좇을 수밖에 없는 공간, 누군가가 데이터로 만든 세계를 비밀스럽게 유지해 가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추구하지 않으며 환상 세계에 젖어 획일적인 삶을 살아간다.

사물은 매끈하게 다듬어지고 평탄해질 때 부정성이 제거된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조작될 때, 즉 계산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과정에 종속될 때 부정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성이 제거된 상태는 모든 사회적 과정을 장악하여 근원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끌어들이는 ‘시스템적 강제력’을 지닌다. 전체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시빌라 시스템은 ‘다름’과 ‘낯섦’의 부정성과 ‘타자의 저항’을 제거하면서, 시스템을 안정시킨다.<sup>11)</sup>

다름과 낯섦의 부정성을 제거하는 방식은 1949년에 창작된 조지 오웰의 『1984』<sup>12)</sup>에서도 사용되었던 방식이다. 국민들의 부정적 사유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부정적 언어를 제거하는 방식은 시스템이 원하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저항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이러한 시스템들 속에서 인간들은 시스템에 대항할

8) 널 포스트먼, 『테크노폴리-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김균 역, 궁리, 2005, 33쪽.

9) 널 포스트먼(2005), 위의 책, 265-266쪽.

이 책에서 널 포스트먼은 테크노폴리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전도의 문제와 이것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교육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그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10) 널 포스트먼(2005), 위의 책, 70쪽.

11) 한병철(2014), 앞의 책, 14쪽.

12)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역, 민음사, 2003, 74~75쪽.

“한 낱말에는 이미 그 자체 내에 반대로 말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돼 있네. 그래서 ‘좋다(good)’라는 말을 예로 든다면, 그 반대말을 ‘안 좋다(ungood)’라고 하면 되지. 철자도 생판 다른 ‘나쁘다(bad)’는 말이 뭇 때문에 따로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란 말이면 충분하네. 모양은 비슷하지만 오히려 이게 다른 말보다 더 정확한 반대말이지. ‘좋다’는 말의 뜻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네. ‘탁월하다(excellent)’느니, ‘훌륭하다(splendid)’는 따위의 말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하면 될 것이네. 물론 이런 형태의 낱말들이 이미 사용되고는 있지만. 신어 사전의 결정판에는 ‘좋다’란 말 한마디만 남을 걸세.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는 개념은 여섯 개의 낱말로 나누어지지만, 실제로는 단 한 낱말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지. 어때, 멋있지 않나, 윈스터? 물론 이걸 애당초 B.B.(빅 브라더)의 아이디어였다네.”

수 있는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평준화되고, 시스템을 위한 기능적 요소로 전락한다.<sup>13)</sup>

막스 베버<sup>14)</sup>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시빌라가 인류에게 내려준 은총이다.”라는 시빌라 시스템의 운영 모토를 긍정한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인생이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게 결정해 주는 시빌라 시스템을 유토피아라고 믿는다. 또한 시빌라 시스템이 만든 사회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진 사회’ 혹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풍족하고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미셸 푸코<sup>15)</sup>의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시빌라’는 하나의 시스템인 동시에 최첨단의 기술과 판옵티콘의 원리가 결합된 거대한 감옥이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시빌라 시스템은 지나치게 발전한 과학을 사용하여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학과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낳는다. 또한 시빌라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듯 보이지만, 시빌라 시스템이 관료들을 선정하는 한 시빌라가 실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적인 거짓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이코패스> 시즌1의 엔딩곡인 <이름 없는 괴물>의 가사는 푸코적 관점에서 데이터 디스토피아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가사 속 “안개 낀 밤에 떠오르는 붉은 달”과 “검은 비”는 공포스러운 도시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든다. 순수를 상징하는 ‘옛날이야기’를 상실한 시빌라 시스템은 이제 디스토피아적 형상을 담은 미래를 대변한다. 이 노래의 화자는 ‘검은 쇠창살’ 안에서 태어났으며, ‘벽돌로 된 병동’에서 삶을 유지한다. 그는 쇠창살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과거의 ‘선율’을 기억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시스템 속에 ‘감금’ 당한 상태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이 곡의 제목인 ‘이름 없는 괴물’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이코패스> 안에서 ‘괴물’로 칭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을 옹호하는 자들은 시스템에 저항하는 자들을 ‘괴물’이라고 부르고, 시스템의 실체를 폭로하려는 자들은 시빌라의 통제 자체를 ‘괴물’이라 칭한다. 하지만 이 노래 가사에 따르면 검은 쇠창살 속에서 태어난 ‘나’와 ‘사랑하는 동지의 방관자들’이 모두 ‘이름 없는 괴물’에 해당한다. 시빌라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존엄이 훼손당하고 있음에도, 저항하지 않는 수동적인 시민 모두가 ‘이름 없는 괴물’<sup>16)</sup>인 것이다.

여기에서 <사이코패스>에 나타나는 신체 정치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름 없는 괴물’이 된 이유는 테크노폴리 속에서 작동하는 신체 정치, 다시 말해 인간의 신체보다는 정신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삼는 시빌라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 국민들의 사이코패스를 드론과 도미네이터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빌라 시스템은 신체적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던 ‘빅브라더’의 진화한 버전이다. 오웰이 창안한 ‘빅브라더’는 반역자 윈스터의 의식을 개조하기 위해 전기 충격, 수면 박탈, 독방 감금, 약물 투여, 신체 고문 등을 행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풀려난 윈스터의 신체는 고문으로 인해 노인처럼 변해 있었다.

반면에 ‘시빌라 시스템’은 국민들의 사이코패스를 관리하기 위해 신체적으로는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사이코패스) 테라피’를 주기적으로 권한다. 그 후에 사이코패스가 안정되면 정상적

13) 한병철(2014), 앞의 책, 15쪽.

14) 막스 베버, 『관료제』,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2018.

15)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5.

16) 에티엔느 드 라보에티, 『자발적 복종』, 박설호 역, 울력, 2004.

라보에티는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투를 예로 들면서 세계 최강 제국과 맞서 싸워서 스파르타가 승리한 이유는 스파르타인들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유는 목숨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를 잃으면 용기도 투쟁의욕도 강인함도 상실하기 때문에 노예들은 자발적 복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사이코패스>에서 시빌라 시스템에 순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자발적 복종을 선택한 ‘노예’들과 다를 바 없으며, OST에서는 이를 ‘이름 없는 괴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테라피를 시행했음에도 사이코패스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결국 격리된다. 이처럼 초기의 빅브라더가 신체에 역압을 가함으로써 정신의 순종을 이끌어냈다면 진화한 빅브라더는 정신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신체의 순종을 이끌어낸다. 그 이유는 후자의 방식이 저항 없이 ‘이름 없는 괴물들’을 더 쉽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인격체처럼 작동하는 시빌라 시스템은 홉스가 『리바이어던』<sup>17)</sup>에서 인공인간으로서의 국가를 설명하는 방식과 연결 가능하다. 『리바이어던』의 표지 이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계적 신체를 지닌 거인의 몸 중 왕관을 쓴 머리는 컨트롤타워를 상징하고 그 몸은 국가 안에 포함된 개개인들로 구성된다. 특히 공정함을 추구하기 위해 시스템적 합리성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인공 ‘이성’과 ‘의지’에 빚대어 설명하는 홉스적 세계관과 직결된다.<sup>18)</sup>

그렇다고 해서 시빌라 시스템이 고전적 형태의 정치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니다. 도미네이터와 사이코패스를 통해서 시민들을 관리하는 시빌라 시스템은 ‘심리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심리권력은 인간을 내부에서부터 감시하고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권력보다 더 효율적이다.<sup>19)</sup>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심리정치는 시민들의 행동에 담긴 무의식적 논리를 파악하는 수동적 감시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양화하고 측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물’이 된다.<sup>20)</sup>

시빌라 시스템이 운영되는 2112년은 의학 기술, 로봇 기술, 데이터 기술 등 과학 기술이 영혼의 비밀을 푸는 데까지 발전한 시기이다. 그래서 시빌라 시스템은 정신과 신체를 아우르며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인 시민들의 ‘정동’<sup>21)</sup>을 관리한다. 데이터 디스토피아에서 신체적 정동이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여 “틀도 없고 구체화되지도 않고 형태가 없는 것을, 본질적으로 (인간적) 의미가 주입된 구체적이고 형태가 부여된” 데이터로 바꾼다.<sup>22)</sup>

작품 속에서는 스트레스 지수, 범죄계수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상 이 지수들이 파악하는 것은 주로 개인이 ‘얼마나 분노했는가?’이다. 공격성과 파괴력을 담고 있는 분노 정동이 개인을 겨누면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주위로 확산된 이 정동이 집단적 정동이 되어 국가를 겨냥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여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sup>23)</sup>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를 미연에 막기 위해 정동을 통제함으로써 시민들을 관리한다.

그리고 이 심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다양한 성격의 신체들이 시스템과 접촉하면서 정치

17)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1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진석용 역, 나남출판, 2018.

18) 김태진, 「홉스의 정치사상에서 신체의 문제: 신체(body)와 인격(person) 사이의 아포리아」, 『한국정치학회보』 51(1), 2017.3, 33~34쪽.

『리바이어던』에서 국가를 인공신체에 빚대어 설명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권이란 인공 ‘혼’(soul)<sup>10)</sup>으로서 전신에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며, 각 부 장관들과 사법 및 행정 관리들은 인공 ‘관절’에 해당하고, 상벌은 모든 관절과 사지를 주권자와 연결시켜 그 의무의 수행을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으로 ‘신경’에 비유된다. 또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부와 재산은 그의 ‘체력’에, 조언자들은 그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의 ‘기억’에, 공평과 법은 인공 ‘이성’과 ‘의지’에 비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신체의 화합이 ‘건강’이며, 소요는 신체의 ‘질병’이고, 내란은 신체의 ‘죽음’이다.”

19) 한병철, 『투명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4, 221쪽.

20) 한병철(2015), 앞의 책, 24~25쪽.

21) 이 글에서 ‘감정’이 아니라 ‘정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화 되는 ‘분노’가 옆으로 전염되기도 하고 집단적인 감연 상태인 ‘에어리어 스트레스’로 전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 반응과 자율적 반응까지를 포괄하는 ‘정동’이 ‘감정’보다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더 맞닿아 있다.

22) 패트리샤 T. 클라프, 「정동적 전회- 정치경제, 바이오미디어, 신체들」, 벨리사 그레그 외, 『정동 이론 :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342쪽.

23) 황지영,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서의 이행- 1920~30년대의 프로문학과 그 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44집, 2018, 43~65쪽.

적인 문제들을 가시화시킨다. 범죄계수가 상승하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도미네이트의 일괄처리 방식은 인간의 고유성과 상황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신체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심리에 대한 통제로 인해 점점 신체성이 지워지는 데이터 디스토피아에서 “결국 살아가는 건 몸뚱이”라는 사실과 체제에 대한 저항 역시 신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 3. 시스템의 오류를 증언하는 예외적 신체들

테크노폴리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끌리는 이유는 기술 문명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혹적인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증명하려는 소수의 인간들은 존재한다. <사이코패스> 안에서 시스템의 증강을 가져오는 것도 (순응적인) 인간의 신체이지만, 시스템의 오류를 드러내는 것 역시 (시스템에서 이탈한) 신체들이다. 시즌1에서는 ‘마키시마 쇼코’를 통해서 ‘면제 체질자’가, 시즌2에서는 ‘카무이 키리토’를 통해서 ‘투명인간’이 예외적 신체로 제시된다. 이 둘은 시빌라의 눈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시즌1에서 시빌라 시스템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하는 마키시마는 자신의 사이코패스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려 할 때 범죄계수가 상승하지만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도 범죄계수가 하강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코패스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특권’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사회 속에서 영원히 ‘고립과 소외’ 상태에 머물러야 함을 뜻한다.

차가운 예술가의 형상으로 그려지는 마키시마가 중시하는 것은 시빌라 시스템에서 사라져 버린 인간의 고유성이다. 인간 영혼의 찬란함은 인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행동했을 때만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믿는 그는, 인생이라는 게임에 방관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참가하길 소망한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공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절망과 고독을 파괴 본능으로 전환하여 시빌라의 가면을 벗기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마키시마가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잠재범들을 미리 감금한 덕에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기괴한 살인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배후에는 마키시마가 있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는 아바타들의 실제 주인들을 죽이고 대신 아바타를 운영한 사건, 여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학교의 학생들을 살해한 후 그 신체를 절단하여 공원에 전시하는 사건, 코가미를 유인해서 벌인 인간 사냥 등의 범죄를 기획하여 공안국의 요원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그 다음으로 그는 가장 편리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오 테러’를 준비한다. 시빌라 시스템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은 보리를 가공하여 만든 것뿐이다. 그래서 그는 시빌라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전인구의 식량 중 99%를 차지하는 보리농장을 폐허로 만들 계획을 세운다. 완전 무인 농경 시스템 속에서 보리들을 지켜주었던 바이러스 ‘우카노미타마’의 코드를 바꿈으로써 그것을 풍요의 ‘신’에서 죽음을 나르는 ‘악마’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식량의 씨가 마를 것이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의 범죄계수는 상승할 것이다. 그 후 모두가 잠재범 혹은 위험분자가 될 경우 치안과 질서 유지를 목표로 가동되는 시빌라 시스템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범죄 심리학자인 사이가 조지의 대사처럼 “본래 국가의 시스템이란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보다 완벽하다고 계속해서 신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신뢰가 있어야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혐오를 지닌 마키시마는 생명관리권력으로서

의 시빌라 시스템이 얻고 있던 신뢰를 깨기 위해 다수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방식을 선택한다.<sup>24)</sup>

시즌2에서 ‘(감시자인) 시빌라 시스템은 무슨 색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카무이 역시 예외적 신체의 소유자이다. 그동안 시빌라 시스템은 범죄계수의 색상을 가지고 개인들을 처벌해 왔다. ‘클리어’한 자들에게만 생존권을 부여하고 탁한 색상을 지닌 자들의 신체는 감금하거나 제거했던 시빌라 시스템. 카무이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인을 일삼아 온 시빌라 시스템의 색상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법의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었을 때 시빌라 시스템 역시 처벌의 대상이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다.

사실 카무이는 15년 전 수학여행을 떠난 초등학생 184명이 사망한 비행기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는데,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184명의 신체 조직들을 이식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적 신체성’을 지닌 카무이는 시스템의 스캐너가 인식할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 마키시마처럼 시스템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마키시마가 선천적으로 예외적 신체를 갖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이식 받은 카무이는 후천적으로 예외적 신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은 친구들의 신체를 이식 받은 카무이는 친구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15년 전 사망한 친구들의 모습을 23살로 성장시켜 그 홀로그램을 뒤집어쓰고 공안국 요원들의 추적을 피한다. 그러면서 도미네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감시관을 납치해서 도미네이터의 기능을 캐나간다. 사용자의 눈을 이용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받은 사람에게만 시빌라 시스템이 직접 명령을 전달하는 도미네이터를 통해서 시빌라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가 가진 비밀에 점점 접근해 가려는 것이다.

또한 의료 특허를 이용해 자신을 조립한 후 막대한 이익을 챙긴 토가네 재단에 대해 분노하며, 현대의 의료 기술, 구체적으로는 세뇌와 명상에 기반한 카운슬링과 약물 투여, 그리고 장기 이식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이코패스를 맑게 하는 방법을 익힌 후 많은 사람들을 면제 체질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면제 체질자들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교란하고, 더 나아가 탁한 색상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빌라 시스템을 처벌하려고 한다.

이처럼 예외적 신체들이 시스템의 오류를 증언하는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시빌라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가 사회를 파괴하려 했던 면제 체질자들의 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이 전개되는 시즌1의 17화 제목은 ‘강철의 내장(鉄の腸(はらわた))’인데, 여기에서는 시빌라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가 247명의 뇌의 공유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진다. 이들의 뇌는 교환될 수 있도록 유닛화 되어 있고, 대량의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로 처리된다. 인간 뇌의 활동을 통합하여 사고력을 확장하고 광대한 처리 능력을 갖춘 고속화 시스템이 바로 시빌라 시스템의 중추였던 것이다. 이 시스템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은 면제 체질자로 시스템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자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행동을 조감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컨트롤타워에 소속되지 않는 한 면제 체질자들은 시스템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시빌라 시스템은 2만분의 1의 확률로 등장하는 이들을 시스템의 외부가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이들을 시스템 안으로 포섭하려 한다. 그래서 마키시마에게 자신들과 함께 하면 신체는 소멸되겠지만 뇌와 사이보그 신체를 얻어 ‘전능의 유희’와 ‘세계를 지배하는 전능감’을 즐길 수 있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키시마나 카무이는 안전하고 완벽한 사회는 환상일 뿐이며, 우리가

24)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난장, 2011, 473~478쪽.

국가는 시민들의 삶이 고유한 변화와 이동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조절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성은 각 개인과 다른 개인들 사이에 일련의 상호작용, 순환작용, 전파작용을 생겨나게 하므로, 국가는 규제가 아니라 조절의 방식을 사용해서 경제적 절차나 인구에 내재하는 자연적 현상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 마키시마의 계획대로 시빌라 시스템 안에서 식량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인구의 자연성은 깨지고 국가가 추구하는 ‘안전 메커니즘’은 더 이상 유지되지 어려워진다.

살고 있는 건 여전히 위험 사회, 즉 편리하지만 위험한 것에 기댄 사회임을 알고 있다. 도미네이터가 아니라 진짜 총을 쏘아야지만 제거할 수 있는 이들은 가상공간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의 신체와 사회의 물질적인 기반을 붕괴시킴으로써 시빌라 시스템에 대항한다. 시민들의 정신을 통제하는 데에 집중한 시빌라 시스템이 지워버린 물질로서의 신체성이 정신을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신체들에게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시빌라 시스템의 컨트롤타워를 장악한 이들은 뇌만을 제외한 신체의 사이보그화를 추진하고, 만약 뇌까지 기계화되는 순간이 오면 불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들은 마키시마가 왜 번거로운 신체를 버리지 않는지 궁금해 한다. 이미 인간은 삶의 많은 부분을 기계 장치에 의존하는 (부분적) 사이보그이고, 현대 단말기는 이미 제2의 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기계화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사이보그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는 마키시마나 카무이는 사이보그화에 대해 비판적이다. 데이터 디스토피아에서 물질성에 기반해 저항한 예외적 신체의 소유자들은 “절망해야 희망도 있다.”고 말한 키에르케고르를 떠올리게 만든다. 예외적 신체를 지닌 두 인물은 모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절망을 경험했던 이들이야말로 유토피아의 외피를 쓴 ‘시빌라 시스템’이 정말 ‘멋진 신세계’인지 반문할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다.

#### 4. 경계에 선 신체들의 존재론적 전환

막스 베버는 이상적인 관료는 증오도 정열도 없이, 사랑도 열광도 없이, 객관적인 의무 관념의 압박 아래에서 사람은 보지 않고 모두에게, 즉 동일한 실제적 상황에 처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형식적으로는 동등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sup>25)</sup> 또한 “합리적 지배란 비인격적이고 체계적인 질서, ‘마치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기계 같이 기능하는’ 법의 지배”라고 생각했다.<sup>26)</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빌라 시스템은 이상적인 관료제적 행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빌라 시스템은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을 사용해 시민들을 지배하고 그 방식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시스템의 우월성을 높인다.<sup>27)</sup>

하지만 특정 사회의 성패를 행정의 체계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이다. 행정을 진행할 때 감정을 배제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평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츠네모리의 친구는 운동선수가 꿈이었지만 시빌라 시스템이 선수로서의 재능은 없다고 판정해서 결국 트레이너가 되었다. 이 경우처럼 시빌라 시스템 안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개인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변화와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시빌라 시스템의 이중성을 응시하면서 그 경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공안국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으로부터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범죄계수가 올라가 지금은 집행관으로 활동하는 이들이다. 집행관은 공안국의 요원이라고는 하나 잠재범의 범죄계수를 지니고

25) 전성우, 「막스 베버의 지배사회학과 사회통제」, 심영희·전병재 공편, 『사회통제의 이론과 현실』, 나남출판, 2000, 82쪽.

26) 전성우(2000), 위의 글, 84쪽.

27) 전성우(2000), 위의 글, 98쪽.

시빌라 시스템이 베버가 긍정한 관료제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고 해서 베버가 이 시스템을 긍정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베버는 관료제에 기반한 합리적 지배는 긍정했지만, 전체주의적 내지는 총체적 ‘계획합리성’은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있어서 ‘인격 파탄자’, ‘사냥개’, ‘짐승을 잡는 짐승’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범죄자와 같은 심리적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범인들의 행동 방식을 분석하거나 범인들을 추격할 때 그 역량을 발휘한다.

시즌1의 주인공이자 시빌라 시스템이 생포해 오라고 한 마키시마를 죽인 후 사라지는 코가미 신야는 감시관인 츠네모리와 함께 마키시마가 기획한 다양한 살인 사건들을 해결한다. 그는 뛰어난 수사관의 자질인 추리력과 상황 판단력,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까지 두루 갖춘 인물이다. 게다가 코가미는 범죄 피해자의 범죄계수가 상승하자 그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를 지키려고 한 츠네모리가 자신을 도미네이터로 쓴 후 상심하자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한다.

코가미는 공안국 요원들에게 도미네이터가 지급된 이후 신체 훈련을 등한시 하는 다른 요원들과 달리, 도미네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인간을 죽이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신체를 강화하는 훈련을 한다. 그는 위험 분자를 살해하는 것은 시빌라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도미네이터가 작동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그 도미네이터를 들고 있다면 자신에게도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거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것도 시빌라 시스템이지만 코가미는 살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시스템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 유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

이런 코가미를 보면서 사이가는 그가 어둠을 지나치게 응시한다고 지적한다.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코가미가 시스템의 어둠을 응시할 때 시스템 역시 코가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능력은 뛰어나지만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코가미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은 시빌라 시스템이 표방하는 공정성은 자신이 위협 받지 않을 때만 유지되는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집행관인 마사오카 토모미는 코가미가 마키시마를 잡기 위해 단독 행동을 할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인물이다. 그는 시스템 도입 이전에 형사였던 만큼 세이프하우스에 권총과 오토바이 등을 준비해 두었다가 공안국을 탈출하는 코가미에게 제공한다. 세상이 데이터 디스토피아가 되기 전부터 사회생활을 했던 만큼 지금은 금지된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안국의 동료들을 인간적으로 대한다.

이런 마사오카가 집행관이 된 이유 역시 시빌라 시스템의 공정함을 의심하게 만든다. 마사오카는 시빌라 시스템이 도입된 후 도미네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 방식을 고수하려는 시스템을 의심한다. 그런데 그가 시스템을 의심하는 동안 범죄계수는 계속 상승하여 그는 결국 잠재범이 되었고, 집행관이 된 후 더 이상 시스템을 의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체념하자 범죄계수가 상승하는 것을 멈추었다.

시스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를 때와 같은 심리적 경향을 나타내고 그것이 실제 범죄계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마사오카의 범죄계수 변화는 시스템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설정한 시빌라의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마사오카는 시빌라 시스템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그리고 시스템을 의심할 때와 의심을 접었을 때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증언한다.

한편 작품 속에서 현재 집행관인 코가미와 마사오카가 집행관이 된 내역이 전사를 통해서 간략히 제시되었다면, 기노자 노부치카는 마키시마를 쫓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마사오카가 죽고 친구인 코가미마저 떠나면서 범죄계수가 상승하여 집행관이 된다. 가까웠던 두 사람이 집행관이 된 것을 속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집행관이 된 이들을 냉소적으로 대하던 기노자는, 후배인 츠네모리마저 잠재범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가 이 두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린다.

그러나 츠네모리 대신 잠재범이 된 기노자는 집행관이 된 후에 범죄계수가 상승할 것을 걱정해 사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던 감시관 시절과 달리 적극성을 발휘한다. 최측근들이 집행관이 된 후 그는 자신도 그

들처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집행관이 된 후 불안감에서 벗어나 보다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범죄계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마사 오카와 코가미의 상황에 대해 이해도 하게 되고, 그들이 사건을 해결할 때 보였던 적극성이 범죄자와 공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정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음도 깨닫는다.

기노자는 시빌라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개인의 행복도와 연결되지 않음을 반증한다. 감시관일 때는 냉소적이고 수동적이었던 그가 집행관이 된 후 배려심과 적극성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시스템이 원하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판정한 대로 산다면 위험 부담 없이 평균치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할 것이다. 기노자는 지위의 하강이라는 방식으로 경계를 넘어 삶의 기쁨이 꼭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시킨다.

집행관들은 처음부터 시스템의 외부로 처리되었던 예외적 신체의 소유자들과 달리 계속해서 시스템의 내부에 머물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에서 잠재범으로 강등됨으로써 예외적 신체들과는 또 다른 성격의 소외와 고독을 경험한다. 시빌라 시스템은 자신의 범죄계수를 다스리지 못한 자들을 단죄하는데, 잠재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범죄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관이라는 지위 역시 그 단죄의 한 형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분노) 정동을 다스리지 못한 자들은 제체 전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빌라 시스템 안에서 규정치를 넘어서 정동은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고 시스템은 이를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극장판에서 시빌라 시스템을 탈출하여 동남아시아로 간 코가미가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반군에 합류한 것 역시 이러한 생각에 힘을 보태준다. 일본이 시빌라 시스템 자체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저항군들이 결성되었고 코가미 역시 그 안에서 활동한다. 코가미는 시빌라 시스템의 경계를 벗어난 후 그 밖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깨닫는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잔혹함 속에서 자유롭게 투쟁하는 삶을 선택한다. 시스템의 심연을 본 자가 외부를 경험했을 때 시스템으로의 복귀는 더 이상 선택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 5. 명멸하는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자기규율

시빌라 시스템이 인간의 정신을 데이터로 바꿔버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자신의 재능과 영혼을 지키는 법 또한 알지 못하게 되었다. 과학 기술에 의해서 재능이 살해되고 사회에 의해서 영혼이 살해되는 시빌라 시스템은 디스토피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죽음과도 같은 '안식'이라는 병마에 빠져 있는 순응적 신체의 소유자들은 시빌라 시스템을 '우상'으로 여긴다. 우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상화는 환상을 가진 시민들이 힘을 실어줬을 때 가능한 것이다. 시민들은 시빌라 시스템이 권유하는 사이코패스 관리를 자발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시스템이 존속되는 데에 기여한다.

게다가 시빌라 시스템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중이다. 시스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운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자체적인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시스템 안에 존재하지만 시스템이 인식할 수 없는 예외적 신체들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을 인정하고는,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사이코패스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관리를 이끌어내어 시민 관리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결과를 낳는 등 점차 완벽한 시스템을 향해 나아간다.

그럼에도 시빌라 시스템이 데이터 디스토피아로 완성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의 통제와 상관없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규율적 주체인 '츠네모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 그리고 건강한 사이코패스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사이코패스가 탁해질 것을 염려하지 않는 그는 시스템의 작동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인물이다. 마키시마에 의해 친구가 살해되는 순간에도 법이 허용하는 도미네이터에 의한 집행만을 고수하는 그는 고지식한 면을 지니기도 했지만, 이처럼 타협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다가올 새 시대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시빌라 시스템이 “악인의 뇌를 굶어모은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시스템에 대해 감정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정당성보다는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그 실효성을 인정한다. 시빌라 시스템도 츠네모리의 이런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공개하였다. 시빌라 시스템 안에서는 선과 악 같은 상대적인 가치관을 배척하고 시빌라의 의자 자체가 윤리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츠네모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시스템이 카무이와 같은 집합적 사이코패스를 인정할 것을 종용하고, 시스템의 폭주를 막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푸코는 『주체의 해석학』에서 ‘검투사’와 ‘무희’를 대비되는 존재로 설정한다. 뛰어난 검투사의 검술은 강하고 화려한 움직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한 것이다. 반면 무희는 외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울림에 따라 춤을 춘다. 이런 무희가 바로 푸코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내부로 시선을 돌리는 존재’이다.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무희의 몸짓<sup>28)</sup>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더라도 법과 정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기규율’적인 츠네모리의 모습과 겹쳐진다.

<사이코패스> 속에서 데이터 디스토피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듯 보였다가 다시 미완성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 유토피아인 줄 알았던 곳이 알고 보면 디스토피아이거나, 디스토피아인 줄 알았던 곳에 시스템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 그곳은 디스토피아이기를 멈출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디스토피아는 계속해서 ‘명멸(明滅)’한다. 데이터 디스토피아가 ‘나타난[明]’ 순간 이 힘을 무화시키는 힘, 다시 말해 이곳을 ‘사라지게[滅]’ 만드는 힘 역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사회가 사람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는 츠네모리 같은 자기규율적 신체를 지닌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완)

## ■ 참고문헌

### 1차 자료

사이코패스(PSYCHO-PASS) 1기 (22부작), 후지TV, 2012.10.11.~2013.03.21.

사이코패스(PSYCHO-PASS) 2기 (11부작), 후지TV, 2014.10.09.~2014.12.19.

사이코패스(PSYCHO-PASS) 극장판, 2015.5.28

### 2차 자료

---

28)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 1. 논문

- 김태진, 「홉스의 정치사상에서 신체의 문제: 신체(body)와 인격(person) 사이의 아포리아」, 『한국정치학회보』 51(1), 2017.3, 33~34쪽.
- 박상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 미래를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 『과학과 기술』, 2002, 82~83쪽.
- 황지영,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의 이행- 1920~30년대의 프로문학과 그 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44집, 2018, 43~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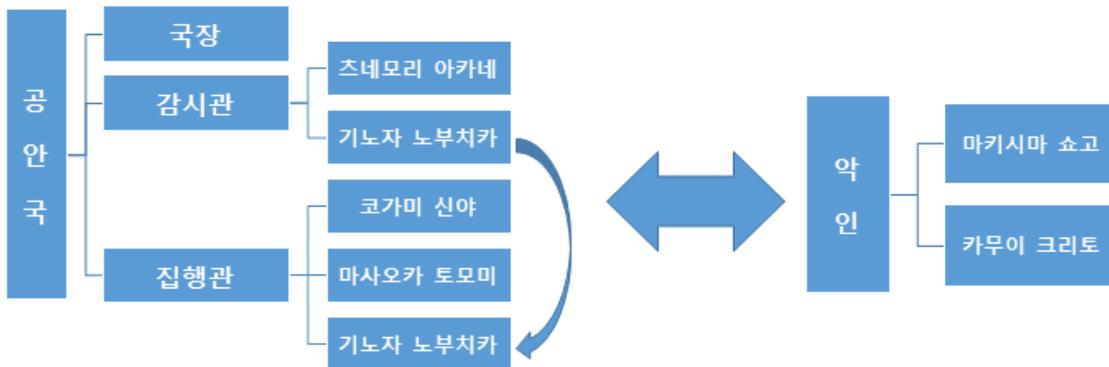
## 2. 단행본

- 김원갑, 『사이버 문화와 SF, 사이보그 건축』, 시공문화사, 2015.
- 닐 포스트먼, 『테크노폴리-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김균 역, 궁리, 2005.
- 막스 베버, 『관료제』,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2018.
- 만보, 『애니메이션을 보는 오덕후의 바른 자세』, 스튜디오 본프리, 2015.
- 멜리사 그레그 외, 『정동 이론 : 몸과 문화·윤리·정치에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2005.
- —,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동문선, 2007.
- —, 『안전, 영토, 인구』, 오토르망 역, 난장, 2011.
- —,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토르망 역, 난장, 2012.
- 수잔 손탁, 『타인의 고통』, 이재원 역, 이후, 2007.
- 심영희·전병재 공편, 『사회통제의 이론과 현실』, 나남출판, 2000.
- 에티엔느 드 라 보에티, 『자발적 복종』, 박설호 역, 울력, 2004.
-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역, 민음사, 2003.
- 최정운, 『지식국가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통계 발달의 정치적 의미』, 이조, 2016.
-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1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진석용 역, 나남출판, 2018.
- 한병철, 『심리정치』,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5.
- 한병철, 『투명사회』, 김태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4.

## 3. 인터넷 자료

- 「중국, SNS·해외쇼핑·불효까지 감시...'빅브러더 사회'로 가나」, 『한국경제』, 2016.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112958091>
- 김명진, 「영화 속에 나타난 과학기술 이미지」, 『한국과학기술학회 강연/강좌자료』, 2005, 66쪽.
- 김지우 외, 「조지 오웰의 악몽: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
- 임주리, 「'빅브러더' 중국, 무단횡단 땀 전광판에 얼굴·이름이 뜬다」, 『중앙일보』, 2017.7.14.,  
<http://news.join.com/article/21756676>

[부록] <사이코패스> 인물 소개, 공식 홈페이지 참조



|     |          |  |   |
|-----|----------|--|---|
| 감시관 | 츠네모리 아카네 | 공안국 형사과 1과에 소속된 신입 감시관. 천진난만한 성격이나 사건을 조사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간다. 법과 정의를 중시하면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다. |    |
|     | 기노자 노부치카 | 공안국 형사과 1과에 소속되어 있는 츠네모리의 선배로 범죄계수가 높은 인간을 증오하는 엘리트. 시즌1 후반에 범죄계수 상승으로 집행관이 된다.    |    |
| 집행관 | 코가미 신야   | 공안국 형사과 1과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관. 자학적이라고 할 정도로 단련한 육체와 조사에 대한 집념으로 같은 집행관 사이에서 경외의 대상이다.    |    |
|     | 마사오카 토모미 | 공안국 형사과 1과 소속되어 있는 집행관, 근면하고 성실한 타입으로 의지가 되는 베테랑. 시즌1 후반부에서 기노자의 아버지임이 밝혀진다.       |   |
| 악인  | 마키시마 쇼고  | 시즌1에서 여러 살인 사건의 배후에서 남몰래 움직이는 수수께끼의 남자. 범죄계수가 상승하지 않는 면제 체질자로 시빌라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한다.   |  |
|     | 카무이 키리토  | 시즌2에서 범죄계수의 측정은커녕 시빌라가 인식 못 하는 체질을 가진 의문의 남자. 약물과 심리유도로 타인의 탁해진 사이코패스 색을 깨끗하게 만든다. |  |

##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신체 정치’ 토론문

토론자 : 임선숙 (단국대)

본 논문은 일본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를 중심으로 작품의 배경인 데이터 디스토피아를 유지하는 힘과 완성을 지연시키는 힘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둘의 힘은 데이터 디스토피아의 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신체성들이 길항하는 과정에서 온다고 보고, 통제를 받아들이는 순응적 신체, 순응과 저항을 오가는 경계적 신체,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는 예외적 신체, 시스템과 상관없이 자기 통제가 가능한 자기 규율적 신체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데이터 디스토피아에서 발생하는 인간들에 대한 통제와 그들의 저항을 다양한 ‘신체성’의 유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이라는 대중문화 텍스트를 학문의 영역으로 소환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장 ‘명멸하는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자기 규율’ 부분에서 시빌라 시스템이 데이터 디스토피아로 완성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의 통제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규율적 주체인 ‘츠네모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츠네모리’의 특징을 ‘친구가 살해되는 순간에도 법이 허용하는 도미네이터에 의한 집행만을 고수’하는 면을 지니고 있으며, ‘법과 정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어서, 오히려 츠네모리가 자기 규율을 통해 도미네이터의 집행을 고수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츠네모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새 시대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보수적인 캐릭터의 특징이 새 시대의 지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이런 집행을 고수하지만 차후 서사 전개에 캐릭터의 행동 변화가 있는 것인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전개 과정 및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문의 서두에서 연구 목적을 ‘시빌라 시스템과 이 신체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지점들을 중심으로, <사이코패스>에서 그려진 데이터 디스토피아를 유지시키는 힘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에서 보면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힘이 일면 대조적으로 보이고 이 두 개의 힘이 유의미하게 각각 구성될 것 같은데, 실제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이 두 힘에 대한 분석이 섞여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유지’되는 힘은 ‘2장 테크노폴리 속 신체 정치’ 그리고 ‘5장 명멸하는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자기규율’의 일부 캐릭터 특징을 포함하고, ‘지연’시키는 힘은 ‘3장 시스템의 오류를 증언하는 예외적 신체들’과 ‘4장 경계에 선 신체들의 존재론적 전환’, ‘5장 명멸하는 데이터 디스토피아와 자기규율’의 일부 캐릭터 특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와 지연을 중심으로 각각을 상위항목으로 구성하고 2장과 5장 일부를 상위항목인 유지의 힘으로 묶고,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의 일부를 상위항목 지연의 힘으로 묶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장과 5장의 공통적인 의미 요소들을 상위항목 ‘유지’의 힘에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3장과 4장, 5장의 공통적인 의미 요소들을 상위항목 ‘지연’의 힘에 드러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공통적인 의미 요소들을 제시하면, 연구의 목적인 데이터 디스토피아를 ‘유지’하는 힘과 ‘지연’시키는 힘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부산방언의 단모음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 성조에 따른 음가 변이를 중심으로 -

황미경(한기대)

목 차

|                       |
|-----------------------|
| 1. 서론                 |
| 2. 연구 방법              |
| 3. 경남 부산방언의 단모음 실현 양상 |
| 4. 결론                 |

1. 서론

이 연구는 경남 부산 지역의 방언에 나타나는 단모음의 음가 실현 양상을 실험음성학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징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상도 방언의 성조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단모음 음가가 어떠한 음성적 변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남 부산방언 70대 이상의 화자를 대상으로 단모음 발화실험을 실시하고 그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경남 부산방언은 주로 울산, 양산 지역 등의 방언과 함께 경남 동부방언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sup>1)</sup>. 서부 경남방언의 단모음이 지역에 따라 6~8모음 체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부산방언을 포함한 동부 경남방언은 대부분의 지역이 6모음 체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sup>.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산방언의 노년층 화자들은 /-/와 /-/, /-/와 /-/, /-/와 /-/를 구별하여 발화하지 않고 /-/, /-/를

- 1) 경남방언의 구획은 구획을 나누는 기준의 차이에 의해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김영송(1963:982-983)은 음운을 기준으로 경남방언을 동북 방언과 서남 방언으로 구획하고 울산, 양산, 밀양, 창녕, 합천, 거창 등을 동부 방언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최명옥(2000:161-162)에서는 음운, 어휘, 문법을 근거로 하여 경남 방언을 동부 방언과 중서부 방언으로 구분하고 김해, 양산, 울산, 밀양 방언을 경남 동부 방언권에 포함시켰다. 또한 박정수(1992)에서는 음운 규칙을 근거로 경남방언을 동부 방언과 서부 방언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임석규(2014)에서는 성조 현상의 방언차를 토대로 경상도 방언을 9개의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부산은 창원, 합천, 의령, 창녕, 함안, 밀양, 김해, 양산과 같은 권역에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 2) 경남방언의 단모음 목록(조규태(2002)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추가하여 표로 재구성하였음.)

| 지역 | ㅣ | ㅓ | ㅓ/ㅕ | ㅕ | ㅗ | ㅡ | ㅡ/ㅣ | ㅣ | ㅓ | ㅕ | ㅗ | 개수 | 연구 논저     |
|----|---|---|-----|---|---|---|-----|---|---|---|---|----|-----------|
| 거제 | + | - | +   | - | - | + | -   | + | + | + | + | 7  | 박정수(1988) |
| 고성 | + | - | +   | - | - | + | -   | - | + | + | + | 6  | 박창원(1983) |
| 남해 | + | + | -   | + | - | + | -   | + | + | + | + | 8  | 공세기(1988) |
| 밀양 | + | - | +   | - | + | - | +   | - | + | + | + | 7  | 황용수(1990) |
| 사천 | + | - | +   | - | - | - | +   | - | + | + | + | 6  | 최명옥(1976) |
| 산청 | + | - | +   | - | - | - | +   | - | + | + | + | 6  | 배명인(1983) |
| 양산 | + | - | +   | - | - | - | +   | - | + | + | + | 6  | 신기상(1999) |
| 울주 | + | - | +   | - | - | - | +   | - | + | + | + | 6  | 신기상(1999) |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6  | 김형태(1985) |
| 통영 | + | + | -   | + | - | + | -   | + | + | + | + | 8  | 정연찬(1968) |
| 함안 | + | - | +   | - | - | - | +   | - | + | + | + | 6  | 구현옥(1998)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 + | 6  | 김영선(2012) |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6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도 방언의 단모음 음가에 대해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김무식(1997), 이향원 외(2017) 등이 있는데, 그 중 김무식(1997)은 경상도 방언 중 경북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에 대해 음성학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북방언 화자들이 /ㄱ/와 /ㄴ/, /ㅡ/와 /ㅣ/ 모음을 구별하지 않고 발화하고 있으며 /ㄷ/, /ㄹ/을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ㄱ/와 /ㄴ/의 합류 모음은 서울 방언의 /ㄱ/와 /ㄴ/ 모음 중 어느 한 모음으로 실현되기보다는 제보자에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 더 가깝게 발화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ㅡ/ 모음의 경우 서울 방언에 비해 저설 쪽에서 발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경상도 방언의 모음을 대상으로 그 음향음성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제보자의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는 점, 남성과 여성 화자를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험자의 연령대와 성별 등의 변수를 통제된 상황에서 단모음 발화실험을 실시하여 이 지역의 단모음 음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향원·신우봉·신지영(2017)에서는 지역별로 20~35세 청년층 화자와 50~65세 장년층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 /ㄴ/, /ㄷ/, /ㄹ/, /ㅡ/의 음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남권 장년층 남성이 산출한 /ㄴ/와 /ㄷ/는 F1에 의해서만 변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ㄹ/와 /ㅡ/는 F1, F2값이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이 두 모음을 구분하지 않고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년층 화자나 장년층 여성 화자의 경우에는 /ㄴ/와 /ㄷ/를 변별하여 발화하고, /ㄹ/와 /ㅡ/ 또한 변별적으로 구분하여 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남권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에 비해 /ㅡ/와 /ㅣ/를 구분하여 발화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 또한 경남방언을 사용하는 낮은 연령대의 화자들에게서 /ㅡ/와 /ㅣ/의 합류모음이 분기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sup>3)</sup>. 또한 이는 이 지역의 모음 /ㅡ/와 /ㅣ/의 음가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과 연구가 보다 행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도 방언의 단모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제보자의 연령 및 성별 등에 대한 통제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주로 65세 이하의 장년층까지만 대상 화자로 다루고 있어 이 지역 노년층 화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6단모음의 음가와 변이음역에 대해서는 음향음성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상도 방언은 음의 상대적 높낮이가 단어 의미의 변별적 기능을 하는 ‘성조언어<sup>4)</sup>’로 분류된다. 따라서 경남 부산방언에서도 단어나 어절이 일정한 성조형을 보이며 실현되고 그에 따라 각각의 음절에는 상대적인 음높이 차이에 따른 성조가 부여되는데, 이러한 음의 높낮이 차이가 이 방언에서는 발화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은 중부방언과 달리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방언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분절음과 성조를 별개로 분리하여 연구해

3) 경북방언을 대상으로 한 장혜진(2006), 안미애(2011)에서도 젊은 세대의 발화에서 모음 /ㄷ/가 /ㅡ/와 /ㅣ/로 분기되어 실현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ㅡ/와 /ㅣ/로의 모음 분기 현상은 현재 경상도 지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분기의 원인으로는 미디어에의 노출, 교육의 영향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이 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근열(2005)에서와 같이 높낮이의 의미 변별력 약화와 같은 경상도 방언에서의 언어 내적 현상이 /ㅡ/와 /ㅣ/의 음소 분기(split)를 야기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러므로 그 분기의 원인을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언어 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한 방언의 음운체계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적 요인의 영향을 더 받기 쉬운, 혹은 더 받기 어려운 음소나 체계의 내적 요인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경상방언을 운율적 관점에서 논의할 때 학자들마다 성조언어를 정의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성조언어’, ‘고저 악센트어’, ‘음고언어’와 같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본고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조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호영(1993)에서는 ‘성조언어’를 ‘높이(pitch)가 어휘 의미의 변별 기능(distinctive function)’을 가지며, 음의 높이가 음운론적 층위에서 각 음절에 부과되는 언어’라고 하였다.

은 경향이 있었다<sup>5)</sup>. 비록 성조언어에서 성조와 모음 음가 간의 보편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혀진 바는 매우 미미한 정도라고 하더라도<sup>6)</sup> 개별 성조언어마다 성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적인 발음 현상들은 모음의 음가와 상호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단모음 음가가 성조에 따라서 어떠한 음성적 변이 양상을 보이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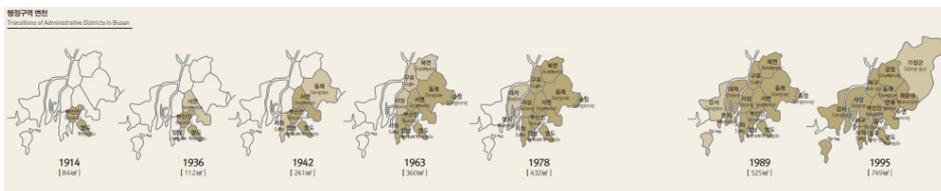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경남 부산방언의 단모음 음가를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며 특히 고조 및 저조의 성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음의 음가 변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2. 연구 방법

부산방언의 모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부산방언’을 정의하는 일이다. 그런데 단순히 행정적인 구역만을 기준으로 부산방언을 정의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장군은 본래 양산군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었으며 강서구는 이전의 김해에 포함된 지역이었다<sup>7)</sup>. 그러므로 현재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부산방언을 연구하자면 새롭게 편입된 지역의 언어와 기존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산 방언을 따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sup>8)</sup>.

또한 부산 지역에 오랜 기간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출신 지역은 ‘부산방언’의 정의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부산 지역은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인구가 유입된 곳 중의 한 곳으로 양산, 함안, 밀양 등의 경남 지역을 비롯하여 경북 지역, 심지어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한 지역이다. 실제 조사자가 피험자를 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 기관 두 곳은 부산시 동래구와 연제구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노인들이 대다수 활동하는 곳으로, 그 곳에 소속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경상도 타 지역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학령기 이전에, 혹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와서 정착하였다고 하였다<sup>9)</sup>. 또한 30년대 초·중반에 출생한 이들 중에는 일본

- 5) 임석규(2014)에서도 경상도 방언의 음소 목록을 조사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 최소대립어 자료들이 성조에 대한 고려 없이 제시되고 있음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 6) 정인교(1986)에 따르면 그간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모음이 대립적인 성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해 왔지만 모음과 성조 실현의 보편적 관계에 대한 것은 많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는 개별 언어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7) 1978년에 낙동강 서쪽의 김해군 대저읍, 명지면이 부산시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에는 김해군 녹산면, 가락면이 부산시 강서구에 편입되었다. 또한 1995년 양산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이 부산으로 편입되어 현재의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을 형성하였다.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변천 (부산발전연구원(<http://bdi.re.kr>), ‘지도로 본 부산’ 자료집에서 발췌)>

- 8) 이근열(1997)에서 기장 지역의 언어를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을 보면 기존 부산방언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된 음운현상과 다른 예들이 제시되고 있음이 김영선(2012)에서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꿍다’의 ㅂ불규칙 활용의 경우 기존 부산방언에서는 박지홍(1974:3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꿍+어라→꾸어라’로 실현되는 것에 반해, 기장 지역에서는 ‘꿍+어라→꾸버라’로만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산 내에서의 지역별 음운현상 차이는 부산의 언어 연구가 지역별로 좀 더 세분화되어 행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9) 박지홍(1974)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부산방언이 부산 ‘외곽 지역’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각 지역 말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아니며, 여전히 부산 동래 지역을 중

에서 출생하여 일본어를 사용하며 지내다가 해방 이후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정착한 이들도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산방언 화자마다의 발화에 나타나는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1950년대 이전에 부산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부산방언이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 부산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 그리고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영도 지역 출신자는 피험자에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이들로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1) 피험자 선정 기준

- ㄱ. 부산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일 것  
(강서구, 기장군, 영도구<sup>10)</sup> 지역 출신자 제외)
- ㄴ. 70대 이상의 화자일 것
- ㄷ.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 이상은 부산 출신일 것
- ㄹ. 학력이 중졸 이하일 것
- ㅁ. 치아가 건강하며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이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 피험자는 70대 이상의 여성 화자 17명<sup>11)</sup>으로 다음과 같다.

(2) 피험자 정보

| 화자 번호 <sup>12)</sup> | 이름  | 성별 | 출생 연도 | 현 거주지       | 부모 출신 지역 |    | 학력 |
|----------------------|-----|----|-------|-------------|----------|----|----|
|                      |     |    |       |             | 부        | 모  |    |
| BOW1                 | 이재술 | 여  | 1930년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부산       | 부산 | 중졸 |
| BOW2                 | 김문이 | 여  | 1934년 | "           | 부산       | 함안 | 초졸 |
| BOW3                 | 이정기 | 여  | 1937년 | "           | 성주       | 부산 | 중졸 |
| BOW4                 | 신충미 | 여  | 1931년 | "           | 부산       | 밀양 | 중졸 |
| BOW5                 | 성경자 | 여  | 1930년 | "           | 부산       | 부산 | 중졸 |
| BOW6                 | 장문자 | 여  | 1942년 | "           | 부산       | 부산 | 중졸 |
| BOW7                 | 김달순 | 여  | 1943년 | "           | 부산       | 진주 | 중졸 |
| BOW8                 | 서강덕 | 여  | 1938년 | "           | 부산       | 부산 | 초졸 |
| BOW9                 | 노숙남 | 여  | 1939년 | "           | 진주       | 부산 | 중졸 |
| BOW10                | 최숙휘 | 여  | 1930년 | "           | 부산       | 부산 | 무학 |
| BOW11                | 변소영 | 여  | 1944년 | "           | 함안       | 부산 | 무학 |
| BOW12                | 허여자 | 여  | 1935년 | "           | 부산       | 의령 | 중졸 |
| BOW13                | 김점순 | 여  | 1937년 | "           | 부산       | 부산 | 중졸 |

심으로 정착하여 살아온 부산 토박이들이 있기에 이들의 말과 ‘외곽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들의 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아야만 이러한 주장이 합리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10)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대한민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된 곳인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부산 타 지역의 언어와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영도 지역 출신 화자들은 피험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11) 실제 실험에서는 3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조건에 맞는 피험자들을 23명으로 선별하여 그 중 17명의 자료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추후 1차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    |    |
|-------|-----|---|-------|---|----|----|----|
| BOW14 | 이수연 | 여 | 1934년 | ” | 통영 | 부산 | 중졸 |
| BOW15 | 김순조 | 여 | 1943년 | ” | 부산 | 부산 | 초졸 |
| BOW16 | 장성옥 | 여 | 1942년 | ” | 부산 | 부산 | 초졸 |
| BOW17 | 이순화 | 여 | 1942년 | ” | 부산 | 마산 | 중졸 |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사자는 피험자 선정을 위해 2018년 6월부터 부산시 동래구와 연제구에 위치한 노인대학과 복지센터 두 곳의 관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전달하였고<sup>13)</sup>, 기관의 관계자를 통해 부산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피험자의 인원을 파악한 후 이들의 실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 전, 2019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는 실험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실험 날짜 및 장소를 협의하였다. 그리고 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험상의 문제들에 미리 대비하고자 2019년 5월 18일에서 19일 이틀 동안 두 기관에서 선정해 준 피험자들을 미리 만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sup>14)</sup>.

예비조사에서는 기관에서 제공해 준 피험자 정보를 재확인하고, 정상적인 발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실제 조사에서 실시할 실험 방법 및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간단히 하였다. 조사자는 예비조사에서 피험자들 중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추가 시각자료와 질문들을 준비했으며, 피험자들의 연령대가 높아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음을 고려해 조사 항목을 종이에 인쇄하여 보여주기보다는 큰 종이에 굵은 글자로 써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를 거쳐 녹음자료를 구성한 후 2019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4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 지역의 모음 체계에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 6모음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경상도 방언에서 분기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는 /-/와 /-/의 음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ㅣ, ㅞ(ㅙ), ㅡ, ㅜ, ㅛ, ㅜ, ㅝ/ 7개의 모음으로 정하였다.

### (3) 부산방언 단모음 조사 항목

|   |      |   |   |   |   |   |
|---|------|---|---|---|---|---|
| ㅣ | ㅞ(ㅙ) | ㅡ | ㅜ | ㅛ | ㅜ | ㅝ |
|---|------|---|---|---|---|---|

모음이 포함된 녹음 단어는 성조를 고려하여 2~3음절로 된 유의미 단어로 선정하였다. 성조의 경우 본고에서는 경남방언의 성조를 3성조 체계로 보고 어두의 성조를 고조(H), 중조(M), 저조(L)의 세 단계로 나누어 녹음자료를 구성하였다<sup>15)</sup>. 단어 내 목표 모음이 포함된 음절을 ‘V’ 형식으로 구성하고자

12) 추후 통계 분석 시의 편의를 위해 화자마다 고유한 화자번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BOW1’은 ‘부산방언 화자(B, Busan), 노년층 화자(O, Old), 여성 화자(W, Women), 화자 순서(1, 1,2,3,...)’를 의미한다.  
 13) 조사자는 연구 대상을 경남 부산방언으로 정하면서 피험자 확보의 가능성을 먼저 조사했으며, 따라서 연구 목적을 전달했다는 의미는 부산 토박이 화자들을 대상으로 음성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험자 선정 등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뜻이다. 조사자는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기에 실험 전 준비 과정과 실험 진행 과정에서 청솔대학과 효마을 관계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14) 기관에서 부산방언 화자라고 알려준 39명의 화자들 중 본 연구에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피험자에 대해서는 발화실험은 실시하되 실험 결과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이나 부산 근교의 타 지역(함안, 밀양, 청도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0세 이전의 이른 나이에 부산으로 이주한 이들의 경우도 발화실험은 실시하였지만 최대한 통제된 조건 하에서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들의 발화는 결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5) 경남방언의 성조 체계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2단 체계로 보는 입장과 3단 체계로 보는 입장이 대립을 이루어 왔다.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를 2단 체계로 보는 연구로는 최명옥(1990, 1998), 김주원(2000) 등이 있으며, 3단 체계로 보는 연구로는 허웅(1954), 김차균(1980)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경남방언의 3단 체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조별 발화 모음의 평균 음높이 차이와 조사 시 경남 부산방언 화자들의 성조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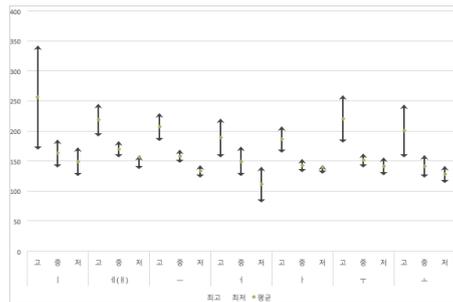
하였으나, 해당 음절이 'V'이면서 저빈도 단어가 아닌 것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과 같이 받침이 있는 음절로 구성된 단어도 포함시켰다. 이렇게 구성한 실험 단어 목록을 표로 제시하면 (4)와 같다.

(4) 실험 단어 목록

| 성조 <sup>16)</sup> | 단모음 |                     |     |    |                   |                   |    |
|-------------------|-----|---------------------|-----|----|-------------------|-------------------|----|
|                   | ㅣ   | ㅘ(ㅙ) <sup>17)</sup> | ㅡ   | ㅓ  | ㅗ                 | ㅜ                 | ㅛ  |
| 고조(H)             | 이불  | 애비                  | 은행  | 어제 | 아래                | 우리 <sup>18)</sup> | 오늘 |
| 중조(M)             | 이삭  | 애누리                 | 으름장 | 어선 | 아침                | 우영 <sup>19)</sup> | 오이 |
| 저조(L)             | 이사  | 애수                  | 으시시 | 어른 | 아래 <sup>20)</sup> | 우리                | 오후 |

실험을 할 때에는 피험자로부터 최대한 자연스러운 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글로 제시된 단어 목록과 함께 사진과 그림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자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험자에게 질문을 하면 피험자가 “이거는(이것은) ‘\_\_\_\_\_’라/이라 캄미더(합니다), ‘\_\_\_\_\_’.”와 같이 문장 형식으로 먼저 대답하고 단어만 단독으로 다시 한번 발화하게 하는 방식으로 녹음하였다. 녹음자료 분석 시에는 문장 내 발화 단어를 사용했으나 문장 내 단어 발화가 명확하게 발음되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 발화한 음성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녹음 장소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소음이 없는 공간을 빌려서 사용했으며 최대한 주변

부산방언 화자들은 ‘배(梨)[H] : 배(船)[M] : 배(倍)[L]’에 대해서 음의 높낮이 차이를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배(梨)[H] : 배(倍)[L]’ 또는 ‘배(船)[M] : 배(倍)[L]’에 대해서는 음높이 차이가 느껴지지만 ‘배(梨)[H] : 배(船)[M]’의 경우에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부산 토박이 화자 중 한 명이 해당 단어의 뜻을 떠올리며 각 단어를 번갈아가며 단음절로 발화했을 때 다른 모든 부산방언 화자들은 조금도 틀림이 없이 그 단어가 뜻하는 대상을 알아맞혔다. 이로 보아 70대 이상의 부산방언 화자들은 3단 체계의 높낮이 차이를 무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 방언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세 단계의 음높이 차이를 두 단계로 단순화하여 기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모음별 성조에 따른 음높이 측정값(최고값, 최저값, 평균값)(Hz)>

- 16) 어두 고조, 중조, 저조로 발화되는 실험 단어는 김차균 외(2008)에서 제시한 경남 동남부 방언 명사들의 성조형, 그리고 필자가 알고 있는 부산 토박이 화자들의 발화를 토대로 나눈 것이다.
- 17) 이 지역에서는 /ㅘ/와 /ㅙ/가 합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시각적인 편의를 위해 표준어 어형을 고려한 ‘ㅘ’와 ‘ㅙ’가 포함된 형태로 단어를 기술하였다.
- 18) ‘우리(HM)’는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우리(LM)’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로 성조 실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임.
- 19) 조사 시 피험자들은 ‘우영’의 사진을 보고 ‘우봉’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우영’의 부산방언형이 ‘우봉’이기 때문인데 연구 목적에 따라 어두 모음을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우영’과 ‘우봉’을 모두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 20) 저조로 시작되는 ‘아래(LH)’는 중부방언의 ‘그제, 그저께’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형.

잡음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모두 닫아 밀폐된 환경을 조성했다.

피험자의 음성은 Sony사의 ICD-TX650 녹음기와 기기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여 44,000Hz, 16bit 샘플링의 스테레오 타입 웨이브 파일 형태로 디지털화하여 저장하였다. 한 명의 화자 당 적게는 40분에서 많게는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렇게 수집한 모음 자료는 모두 714개(화자 17명\*21\*2회=714개)가 확보되었다.

저장된 음성은 모노 타입의 파일로 변환하여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프라트(Praat)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모든 모음에 대해서 혀의 높이와 관련이 있는 제1포먼트(F1)와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되는 제2포먼트(F2)를 분석하였으며, 성조에 따른 음높이를 관찰하기 위한 모음의 기본주파수(F0)도 함께 측정하였다. 포먼트 값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tt에서 해당 단모음의 안정 구간을 추출한 후에 안정 구간의 중앙 지점에서 자동 측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수동으로 재측정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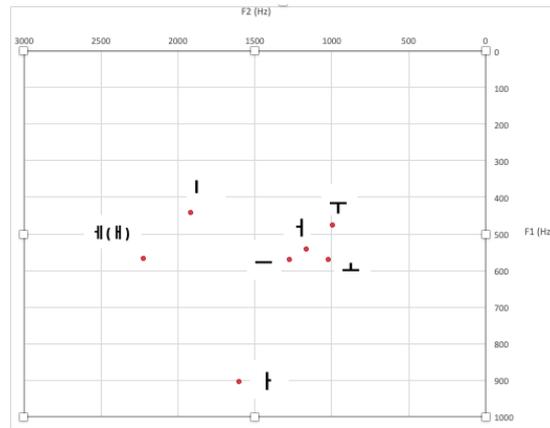
#### 4. 경남 부산방언의 단모음 실현 양상

부산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단모음별로 측정한 제1포먼트(F1)와 제2포먼트(F2)의 평균값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l, ㄱ(ㄱ), ㅡ, ㅋ, ㆁ, ㅌ, ㅍ, ㅊ/ 모음에 대한 부산방언 화자의 F1, F2 평균값과 표준편차

| 모음 \ 값 | 각 모음의 평균 포먼트 값(Hz)(표준편차) |               |
|--------|--------------------------|---------------|
|        | F1                       | F2            |
| l      | 443.92 (62)              | 1911.59 (522) |
| ㄱ(ㄱ)   | 569.58 (42)              | 2216.74 (311) |
| ㅡ      | 572.23 (62)              | 1268.49 (161) |
| ㅋ      | 544.60 (27)              | 1162.55 (134) |
| ㆁ      | 906.93 (66)              | 1594.47 (134) |
| ㅌ      | 477.65 (58)              | 989.06 (301)  |
| ㅊ      | 571.74 (38)              | 1017.10 (195) |

그리고 이러한 F1과 F2 평균값을 바탕으로 하여 그린 부산방언의 모음 분포도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부산방언의 모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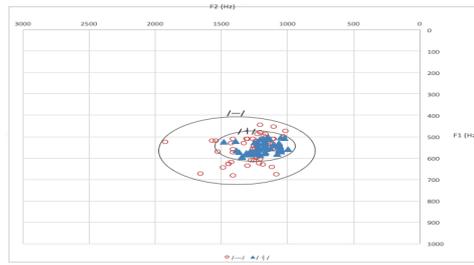
<그림1>은 성조를 고려하지 않고 각 모음별로 녹음된 세 개의 단어로 녹음된 화자별 발화에서 모음을 추출하여 각 모음의 F1, F2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평균값을 바탕으로 그린 분포도이다. 이 모음 사각도를 통해서 화자별 모음 발화의 특성이나 성조에 따른 음가 변이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산방언을 사용하는 70대 이상 여성 화자가 발화한 단모음의 평균 음가가 어느 위치에서 조음되고 있으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부산방언 화자의 단모음 분포도를 보면, /ㅏ/, ㅑ(ㅑ), ㅓ, ㅕ, ㅗ/ 다섯 개의 모음이 각각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설모음의 경우 /ㅑ(ㅑ)/가 /ㅏ/보다 더 전설 쪽에서 조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ㅏ/의 전설도가 /ㅑ(ㅑ)/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김무식(1997), 구회산(2001), 장혜진 외(2006)<sup>21)</sup>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는 실험 자료에 포함된 저모음 /ㅏ/의 포먼트 값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결과로 보인다. 즉, 성조에 따른 /ㅏ/ 음가의 분포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고에서 /ㅏ/ 모음이 상당히 중설 쪽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저모음 /ㅏ/에서 주로 나타나는 후설화 된 /ㅏ/에 의해 평균 F2값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후설모음의 경우에는 /ㅓ/, /ㅕ/, /ㅗ/의 세 모음 간 거리가 가깝고, /ㅓ/와 /ㅕ/는 /ㅕ/와 /ㅗ/에 비해서 더 가까운 거리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ㅓ/ 모음이 중부방언과 달리 상당히 저설 쪽에서 발화되고 있는데 이는 김무식(1997)에서 보고된 된 바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부산방언에서는 /ㅓ/와 /ㅕ/ 뿐만 아니라 /ㅕ/와 /ㅗ/ 간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워서 후설 중·고모음 /ㅓ-, ㅕ-, ㅗ-, ㅓ/가 전반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조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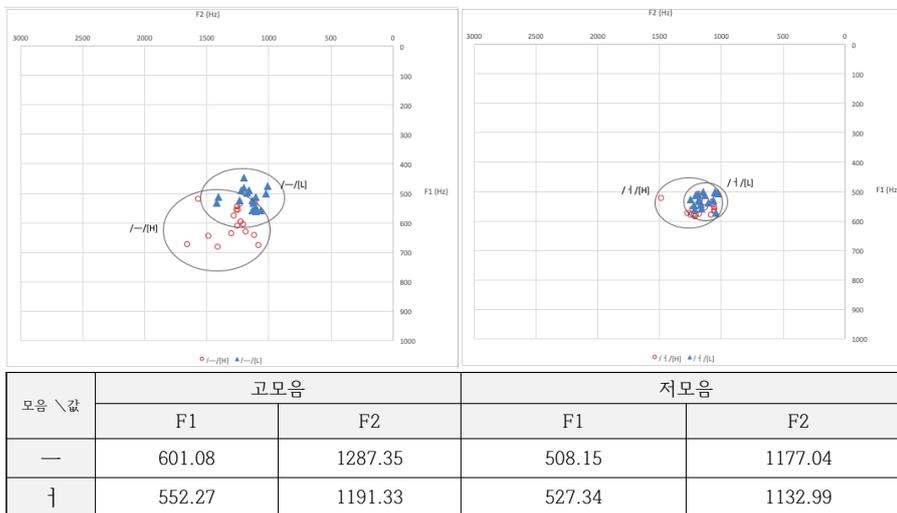
한편 이향원 외(2017)에서 부산방언 장년층 여성 화자들이 구별하여 발화한다고 보고한 /ㅓ/와 /ㅕ/는 화자별로 발화한 모음의 분포도를 통해 음가의 실현 영역을 확인해 본 결과 <그림2>와 같이 거의 구분되지 않고 발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ㅓ/는 /ㅕ/에 비해 음가 변이의 폭 F1과 F2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 장혜진(2006)의 경우 HL의 성조형을 가지는 2음절 단어의 어두 모음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고조 어두 모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ㅏ/ 모음의 F2 값이 /ㅑ(ㅑ)/ 모음에서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2> 부산방언 모음 /-/와 /ㅈ/의 음가 실현 영역

이처럼 경남방언에서는 /-/와 /ㅈ/의 음가 실현 영역이 <그림2>와 같이 상당 부분 겹쳐져서 나타나므로 이 두 모음이 합류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 합류 모음을 /ㅈ/로 설정하여 논의해왔다. 그런데 본고에서 실험한 /-/와 /ㅈ/의 어두 음가를 고조와 저조의 성조에서 실현되는 것에 따라 나누어보면 그 실현 양상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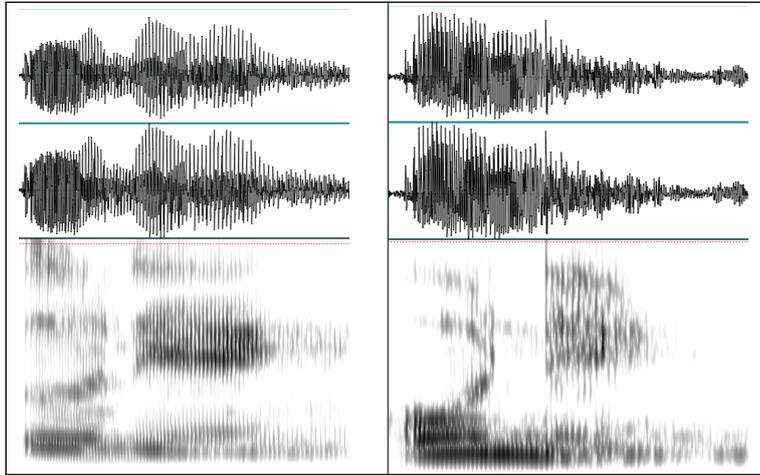


<그림3> 고조와 저조 성조에 따른 부산방언 /-/와 /ㅈ/의 평균 포먼트 값과 음가 분포도

<그림3>은 /-/와 /ㅈ/의 음가 분포를 성조에 따라 고조와 저조의 모음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인데, /-/의 경우 고조로 실현될 때 저조의 /-/에서보다 저설·전설 쪽에서 실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상당수의 /-/가 /ㅈ/의 실현 영역과 겹치지 않는 음역에서 실현된다. 물론 모든 고조의 /-/가 /ㅈ/와 다른 음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조의 /-/가 /ㅈ/와 구별되는 독자적 변이음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포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에 /ㅈ/의 음가는 /-/와 달리 성조에 따라 그 실현 영역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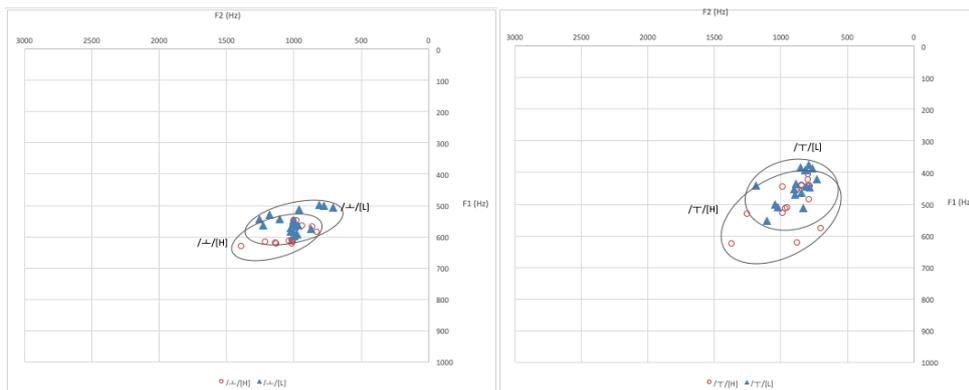
구회산(2001)에서 조음 방식과 음향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F1값은 인두의 협착이 강할수록 상승하고, 구강 전방의 협착이 강할수록 하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조 모음 /-/에서 나타나는 F1의 상승은 조음적인 측면에서는 인두 공간의 협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에서 두 화자가 발음한 ‘은행’에서 나타난 고조 모음 /-/의 스펙트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왼쪽 스펙트로그램에서는 전형적인 모음의 형태가 관찰되는 반면 오른쪽의 스펙트로그램에 나타난 /-/는 강하게 발음된 비음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sup>22)</sup>. 즉 같은 고조 모음의 /-/일 경우라도 오른쪽과 같이 비음이 동반된 것으로 보이는 고조 모음 /-/에서는 F1값이 더 높

게 나타나며, 이는 경상도 방언에서 자주 나타나는 비모음화가 어두 고조 모음 /ㅡ/에서 실현되면서 비인강의 공간을 좁혀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4> '은행'(좌: 화자 BOW1, 우: 화자 BOW4)에 나타난 고조 모음 /ㅡ/의 스펙트로그램 비교

한편, /ㄴ/와 /ㄷ/의 경우에는 저조 모음이 고조 모음에 비해 F1, F2의 평균값이 다소 높게 났다. 그러나 각 모음별로 F1, F2 평균값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F1값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2값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ㄷ/ 모음보다 /ㄴ/ 모음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방언에서 저모음의 /ㄴ/, /ㄷ/는 고모음의 /ㄴ/, /ㄷ/에 비해 다소 고설 쪽에서 발음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ㄷ/ 모음은 /ㄴ/에 비해 성조에 따른 음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고조의 /ㄷ/가 넓은 조음 영역을 보이고 있어 그 음가 변이의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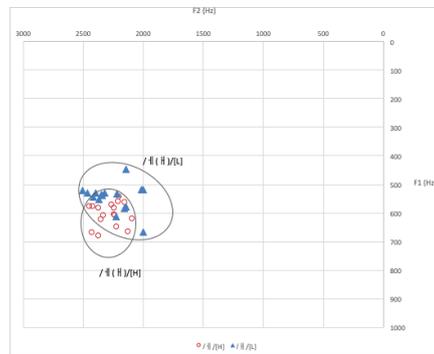
| 모음 \ 값 | 고모음 |    | 저모음 |    | t-test 검정 결과<br>(*: 유의수준, P<0.05) |    |
|--------|-----|----|-----|----|-----------------------------------|----|
|        | F1  | F2 | F1  | F2 | F1                                | F2 |
|        |     |    |     |    |                                   |    |

22) 비음은 공명 주파수를 보여주는 점에서는 모음과 비슷하지만, 모음과 달리 특정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공명 주파수(antiresonance frequency)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모음과 차이가 있다. (이상도·김수정, 2007:87)

|   |        |         |        |        |         |                 |
|---|--------|---------|--------|--------|---------|-----------------|
| ㅏ | 597.27 | 1025.42 | 552.71 | 992.07 | *0.0001 | 0.465<br>(n.s.) |
| ㅓ | 490.68 | 899.42  | 445.55 | 887.83 | *0.027  | 0.816<br>(n.s.) |

<그림5> 고조와 저조 성조에 따른 부산방언 /ㅏ/, /ㅓ/의 평균 포먼트 값과 음가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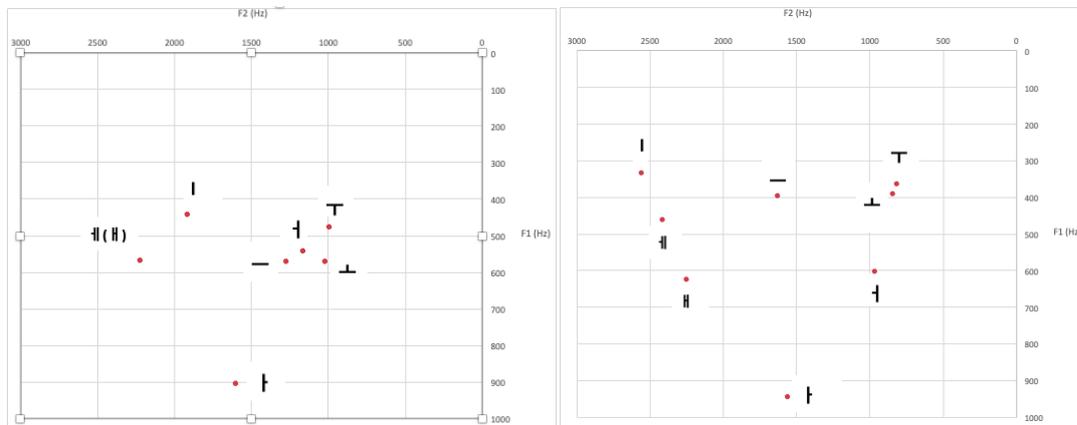
이처럼 고조 모음에 비해 저조 모음에서 F1이 증가하는 것은 /ㅓ/ 모음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고조 모음의 /ㅓ(ㅓ)/와 저조 모음의 /ㅓ(ㅓ)/에서 측정된 F1, F2 값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F2값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F1값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ㅓ/ 모음의 경우에는 저조의 F1값이 고조의 /ㅓ/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모음 \ 값 | 고모음    |         | 저모음    |         | t-test 검정 결과<br>(*: 유의수준, P<0.05) |                |
|--------|--------|---------|--------|---------|-----------------------------------|----------------|
|        | F1     | F2      | F1     | F2      | F1                                | F2             |
| ㅓ(ㅓ)   | 606.48 | 2273.52 | 544.80 | 2240.03 | *0.0002                           | 0.49<br>(n.s.) |

<그림6> 고조와 저조 성조에 따른 부산방언 /ㅓ(ㅓ)/의 평균 포먼트 값과 음가 분포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1>에 나타난 부산방언 화자의 모음분포도를 장혜진 외(2015)에서 제시한 값을 토대로 구성한 서울방언 화자들의 모음사각도와 비교해보면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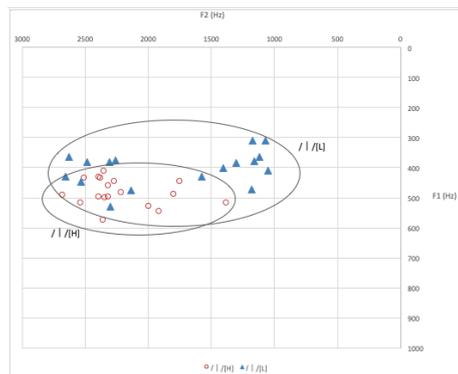


<그림7> 부산방언 화자의 모음사각도와 서울방언 여성 화자의 모음사각도(장혜진 외(2015), 60대)의 비교

<그림7>에서 부산방언과 서울방언의 단모음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꺀(꺈)/의 경우 서울방언의 /꺀/보다는 후설·저설 쪽에서 발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방언의 /꺀/와 /꺈/ 어느 한쪽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ㅡ/와 /ㅓ/의 합류 모음은 서울방언의 /ㅓ/에 가까운 모음이나 그보다는 더 전설·고설 쪽에서 발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산방언에서는 중·고모음 /ㅣ, ㅓ, ㅓ/가 서울방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설·전설 위치에서 발음되고 저모음인 /ㅓ/는 모음 공간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발화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방언 화자들의 모음 공간이 서울방언 화자들에 비해 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모음사각도를 김무식(1997)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독 달리 나타나는 것이 바로 /ㅣ/ 모음의 위치이다. 김무식(1997)에서는 /ㅣ/모음이 /꺀/와 /꺈/ 모음에 비해 더 전설에서 발음된다고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상당수의 저모음 /ㅣ/가 후설 고모음의 위치에서 발화되어 전체적으로는 /ㅣ/ 모음의 F2 평균 포먼트 값이 /꺀(꺈)/보다 작게 나타났다<sup>23)</sup>.

즉, 아래의 <그림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산방언의 /ㅣ/ 음가는 F2의 변이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저조의 /ㅣ/ 모음으로 발화될 때 고조에 비해 후설화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또한 고조 모음의 /ㅣ/는 대부분이 전설의 위치에서 발화되나 항상 전설의 위치에서만 발화되는 것이 아니며 중설의 위치에서 /ㅣ/ 모음이 발화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게 발화되는 전설의 /ㅣ/와 후설의 /ㅣ/ 모음 간에는 그 음가 변이의 폭이 매우 커서 과연 후설화 한 모음 /ㅣ/를 전설모음 /ㅣ/와 동일한 모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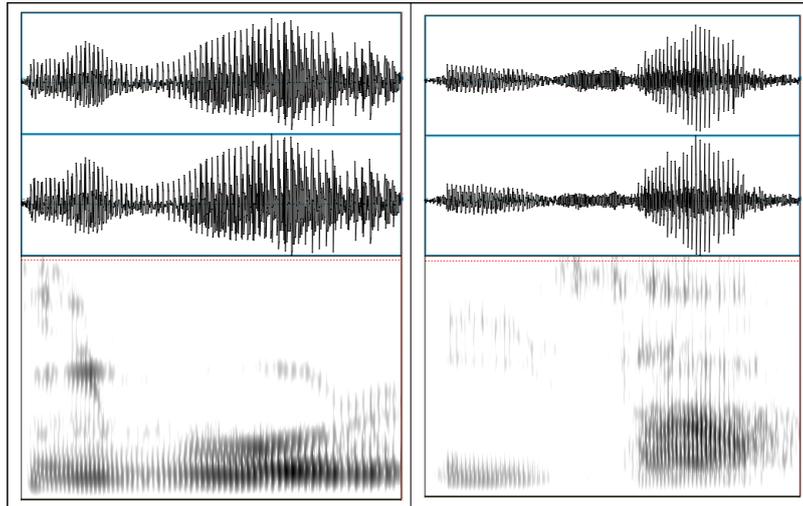


| 모음 \ 값 | 고모음    |         | 저모음    |         |
|--------|--------|---------|--------|---------|
|        | F1     | F2      | F1     | F2      |
| ㅣ      | 484.78 | 2214.14 | 402.90 | 1784.74 |

<그림8> 고조와 저조 성조에 따른 부산방언 /ㅣ/의 평균 포먼트 값과 음가 분포도

그런데 F2값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고조의 /ㅣ/와 저조의 /ㅣ/의 스펙트로그램을 비교해보면 고조의 전설모음 /ㅣ/와 저조의 후설모음 /ㅣ/의 음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현대 경상도 화자들이 모음 /ㅣ/를 후설화하여 발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구 회산(2001)의 연구에서는 서울방언 화자나 호남방언 화자와 달리 영남방언의 화자들이 영어 모음 /i/를 발음할 때 전설 쪽에서 발음하지 못하고 중설 고모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비록 영어 모음의 발음에서 나타난 중설 고모음 /ㅣ/이기는 하나 타 방언의 화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ㅣ/의 음가가 경상도 방언 화자에게서만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지역 방언에 존재하는 후설화 된 /ㅣ/ 음가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짐작을 해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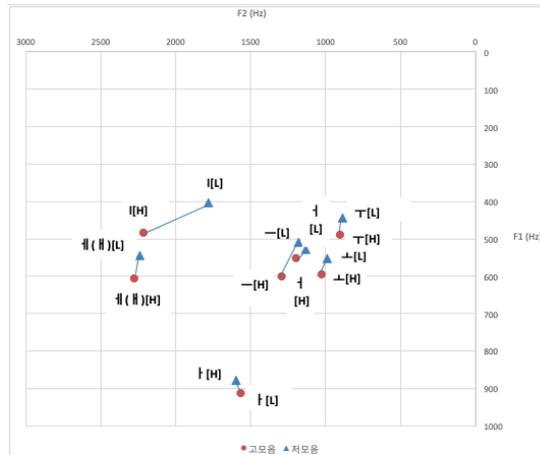
<그림9> ‘이불’(화자 BOW12)과 ‘이사’(화자 BOW 6)에 나타난 전설 고모음 ‘이’(좌)와 중설 고모음 ‘이’(우)의 스펙트로그램 비교

<그림9>는 ‘이불’에서 고조의 전설 고모음으로 발화된 /i/, ‘이사’에서 저조의 후설 고모음으로 발화된 /i/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보면 전설 고모음 /i/의 스펙트로그램에서는 전반부에 짧은 폐쇄 구간이 나타난 후 포먼트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에너지가 강한 모음이 스펙트로그램에서 관찰된다. 그에 반해 오른쪽의 /i/ 모음 스펙트로그램에서는 제 1포먼트 외에 나머지 포먼트들은 매우 약화된 형태로 나타나서 고조의 /i/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저조의 /i/ 모음이 비모음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24)</sup>.

##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도 방언의 단모음은 6단모음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성조에 따라서 각 단모음의 실현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각 실험 단모음에서 측정된 고조와 저조에서의 단모음 F1, F2 평균값을 토대로 분포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24) 두 스펙트로그램에서 모음이 시작되는 첫 부분을 보면 두 모음에서 모두 짧은 폐쇄구간이 모음의 시작 전에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주원(1995)에서 경상도 방언의 어두 고조 모음에서만 잉여적으로 나타난다고 한 성문 파열음([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어두 모음에 나타나는 성문 파열음은 주로 고조 모음에서 나타나기는 하나 중조, 심지어는 저조의 모음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ɔ, ɰ, ɤ(ɨ)/ 모음에서는 저조의 모음에서 F1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조의 성조로 발음할 때 조음 위치가 위쪽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 모음과 /|/ 모음의 경우 고조와 저조의 성조에 따른 음가 변이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의 경우 고조의 /—/ 모음이 저조의 /—/에 비해 저설 쪽에서 발음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의 경우에는 저조의 /—/ 모음이 후설화하여 발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두 경우 모두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관찰했을 때 비모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비모음화가 왜 특정 모음의 특정 음높이에서 자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말 성조언어인 경상도 방언의 하위방언인 경남 부산방언을 대상으로 노년층 화자에게서 실현되는 단모음의 음가 실현 양상을 성조와 관련지어 분석하여 경상도 방언의 성조와 모음 음가 변이의 상관성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분석하고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조 및 경상도 화자들의 발음 습관 등이 다양한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그 음가 변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펼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성조에 따른 모음 음가 실현 양상이 성별이나 세대, 발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국어학회, 59-91.
- 권경근(2001), 「현대국어에서의 모음 체계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젊은 세대의 말을 중심으로」,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29-48.
- 구회산(2001), 「지역 방언 화자에 따른 영어 모음의 발음 연구」, 『음성과학』 8(4), 한국음성학회, 193-206.
- 김무식(1997), 「한국어 모음의 음성학적 특징과 교육- CSL(Computerized Speech Lap)을 이용하여」, 『언어연구』 1, 1-21.
- 김무식(1999), 「경상도방언 초분절소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어문학』 제66호, 29-62.
- 김세진(2004), 「우리말 방언 성조 체계 설정 방법」, 『어문연구』 44, 어문연구학회.
- 김영선(2001), 「부산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12집, 3-24.
- 김주원(1995), 「경상도 방언의 성문 파열음과 성조」, 『언어학』 17, 61-77.
- 김차균(1999),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역락.
- 김차균, 이지향, 권오욱, 성철재(2008), 「경남 동남부 방언의 성조 체계」, 『언어학』 50, 23-105.
- 박창원(1997), 「동남 방언의 모음체계(1) - 모음사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중심으로-」, 『예산학보』, 20, 37-65.
-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서울: 태학사.
- 소신애(2010), 「평안 방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 평안 지역어의 모음을 중심으로」, 『국어학』 58, 231-254.
- 손일권(2015), 「대구방언 화자의 성조와 모음길이」, 『언어과학연구』 73, 언어과학회, 103-120.
- 손일권(2016), 「어휘 성조의 세대별 차이 - 대구방언 화자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79, 175-195.
-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 안미애(2012), 「대구 지역어의 모음 /-/와 /-/에 대한 사회음성학적인 연구」, 『문화와 융합』 34, 한국문화융합학회, 65-83.
- 이근열(2005), 「경남 방언의 홀소리 체계 변화」, 『우리말 연구』 17, 우리말학회.
- 이토 다카요시(伊藤貴祥)(2011),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국어학』 60, 국어학회, 182-210.
- 이향원, 신우봉, 신지영(2017),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9(2), 39-51.
- 임석규(2016), 「동남방언의 성조 실현, 그 기저성조와 울동제약」, 『방언학』 23, 한국방언학회, 31-58.
- 장혜진·차재은·신지영(2008), 「대구 방언 화자의 /-/와 /-/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 381-402.
- 장혜진, 신지영, 남호성(2015),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연구』 21(2), 341-358.
- 정인교(1986), 「성조의 음성학적 고찰」, 『언어과학연구』 4, 1-20.
- 정인호(2007), 「소위 ‘비모음화’ 현상의 지리적 분포와 그 성격」, 『우리말글』 41, 135-162.
- 조규태(2004), 「경남 방언의 성문파열음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36, 247-260.

- 최명옥(1998),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23-5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 방언 자료집 VIII』, 경상남도 편.
- 허용(195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최현배선생 환갑기념논총』, 479-490.
- Fang Hu(2016), Tonal Effect on Vowel Articulation in a Tone Languag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9(6).
- Pike.Kenneth L.(1957), *Tone Languages*, Ann Arbor: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북촌시단의 여성 인식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조면호와 김윤식을 중심으로

김 용 태(성균관대 한문학과)

## 목차

1. 머리말
2. 조면호의 여성 인식
3. 김윤식의 여성 인식
4. 맺음말

### 1. 머리말

‘북촌시단’은 19세기 서울 북촌에서 열렸던 시회들을 넓게 포괄하는 용어로서 발표자가 처음 제기한 것이기에 아직은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19세기 서울의 문학사 내지는 사상사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 유효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발표자는 전망하고 있다.<sup>1)</sup>

북촌시단은 시기에 따라 대략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는 金履陽(1755~1845), 金祖淳(1765~1832), 金鑣(1766~1822) 등이 중심이고, 중기는 趙冕鎬(1803~1887), 申錫愚(1805~1865) 등이 중심이며, 후기는 金允植(1835~1922), 俞吉濬(1856~1914) 등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북촌시단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전적으로 노론계 인사는 아니지만 그 중심은 노론계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일정한 결속감과 계승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북촌시단을 연구하게 되면 18세기 후반의 문예적 사상적 성과가 어떻게 개화사상으로 연결되는지를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발표의 주제인 ‘여성 인식’에 있어서도 북촌시단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북촌시단의 초기 멤버인 김려의 경우 그의 대표작인 <思牖樂府>에 대단히 진전된 여성인식이 담겨 있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sup>2)</sup> 그리고 김이양은 기생이었던 雲楚를 처로 받아들였고 여성들의 시회인 ‘삼호정 시사’를 후원하기도 하였다.<sup>3)</sup> 또 김조순은 여성의 학자적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하였다.

……자고로 부녀자들 가운데 붓을 들고 저술을 한 자들이 또한 많지만 규방 아녀자의 정서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어서 학문과 性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특별히 제출한 자는 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읽어보니 心에 대한 논한 법이 周敦頤, 張載, 程顥, 朱熹의 전통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 문로가 이미 바르고 본말이 또한 갖추어져 있어 비록 老士宿儒로서 道를 안다고 자부하는 자라도 그 결점을 선뜻 지적할 수 없다. 또한 저 장구나 읊조리고 공령문에 힘

1) 북촌시사에 대한 발표자의 구상은 다음의 연구를 통해 다듬어 왔다. 김용태,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돌베개, 2008, 56면~72면; 『楓臯 金祖淳과 ‘북촌시단’』,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학회, 2016, 10~13면; 『박규수의 북촌시사 활동』, 『환재 박규수 연구』, 실시학사, 2018; 『淵泉 金履陽의 문예론과 경세론에 대한 재검토』, 『고전문학연구』 55, 한국고전문학회, 2019.

2) 김려의 여성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함. 박혜숙, 「사유악부 연구」,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김경미, 「여성주의적 독법으로 본 김려의 여성 인식과 시적 형상화」, 『페미니즘연구』 8, 한국여성연구소, 2008; 조수미, 「<감담일기>에 나타난 김려의 여성 인식」, 『민족문화논총』 6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8.

3) 김경미, 「조선 후기의 새로운 여성 문화 공간, 삼호정 시사」, 『여/성이론』 5, 여이연, 2001; 박영민, 「雲楚, 관기와 기생첩의 경계에 선 하위주체」, 『한국고전문학연구』 11, 한국고전문학회, 2005 참조.

을 쓰는 자들은 장자 北面을 하고 스승으로 받들 겨를도 없을 것이니 부인이라고 무시할 수 있겠는가? 안타깝다, 그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이여. …… 이로 인해 생각해 보니 하늘은 성품을 부여하매 애초에 남녀의 구분이 있지 않았던 것이다. ……4)

<靜心堂記跋>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靜心堂記”가 누구의 어떤 저서인지 확실치 않은데 김조순은 여성 학자의 저서로 단정하고서 그 수준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남성 학자도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를 이룩하였다고 하며, 이를 통해 보자면 학문 능력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발언도 하고 있다. 적어도 이 인용문에 한정해서 보자면, 김조순은 여성에 대해 별다른 편견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처럼 북촌시단 초기 멤버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이들의 개인적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나아가 ‘북촌시단의 현상’으로 설명해야 마땅한 지점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그 원인을 깊이 있게 고구하기에는 아직 북촌시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발표에서는 북촌시단의 중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조면호와 김윤식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북촌시단 여성인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 발표를 통해 북촌 시단 전체의 여성 인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2. 조면호의 여성 인식

조면호의 독특한 여성 인식이 잘 드러난 갈래로 “聞砧”, “曉砧” 등의 제목으로 지어진 일련의 시편을 들 수 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는 그의 詩心을 각별하게 일깨우는 바가 있었던 듯하다. 그의 문집에는 이처럼 다듬이 소리를 듣고 지은 시가 13수 보인다. 다음은 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1854, 51세)에 지어진 작품이다.

|              |                           |
|--------------|---------------------------|
| 已看桐葉月        | 오동잎에 뜬 달 아까 보았더니          |
| 照入結針樓.       | 바느질하는 집으로 들어와 비취주네.       |
| 處處蒼茫夜        | 여기저기 분주한 밤이요              |
| 聲聲縹緲秋.       | 톡탁 소리 아득히 들리는 가을이네.       |
| <u>征袍紅信急</u> | <u>나그네 솜옷은 붉은 소식이 급하고</u> |
| 宮錦熨香流.       | 궁중 비단엔 다림질 내음 흐르네.        |
| 遠近西風滑        | 멀고 가까이에 서풍이 흐르는데          |
| 一聽一白頭.       | 한번 들으면 한번 머리가 희어지네.       |

다듬이 소리는 한시의 전통에서 즐겨 채택된 유서 깊은 모티브였다. 다듬이질은 겨울옷을 다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장치로 활용되거나, 여인들의 노고를 동정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종종 활용되는 시적 관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 시 역시 주로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월이 흘러간다는 감회도 담아내고 있다. 다듬이 소리를 모티브로 하였던 한시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金祖淳, 『楓臯集』 卷5, 「靜心堂記跋」. “……自古婦女之能操觚著述者亦多矣, 不過閨閣兒女之情而已, 未有特出己見於學問性命之際者. 今讀此篇, 其論心之法, 深有得於周張程朱之緒, 門路既正, 本末亦該, 雖老師宿儒之自號知道者, 未可遽指其罅漏, 若誦章句資功令者, 將北面而師事之不暇, 顧可以婦人忽之哉. 惜乎, 其不爲男子而生也. …… 因是思之, 天之賦性, 初無男女之殊……”

그런데 1876년 74세에 지은 <聞砧行>은 다듬이 소리의 오래된 모티프를 옥수 특유의 방식으로 변주하기 시작했다.

|             |                              |
|-------------|------------------------------|
| 初夏(昏?)何處起砧聲 | 초저녁부터 어디에서 다듬이 소리 일어나나?      |
| 二更三更至五更.    | 이경을 지나 삼경, 오경까지 이어지네.        |
| 南隣北里或先後     | 남쪽 이웃, 북쪽 마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
| 雙槌隻擣時重輕.    | 두 방망이로 치고 두드리매 무겁다가 가볍다가.    |
| 切雲戾風停復作     | 구름에도 닿고 바람도 그치도록 쉬었다 다시 일어나니 |
| 萬木蕭森月過城.    | 온갖 나무 쓸쓸한데 달은 성을 지나가네.       |
| 駒駒飽宿凡幾輩     | 쿨쿨대며 편안히 잠자는 무리 얼마나 많은가?     |
| 怪我此時耳獨明.    | 이상하다, 나는 이때 귀가 더욱 밝아지네.      |

<聞砧行>은 24구로 이루어진 장편고시이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는 그 첫 대목이다. 여기서 시인이 왜 다듬이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다듬이 소리는 어느 한 집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에서 함께 일어나므로 그 소리가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 리드미칼한 그 소리는 더욱더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시인은 새 옷을 입고 즐거워할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다가<sup>5)</sup> 들은 다음과 같은 사연에 생각이 미친다. 다음은 마지막 대목이다.

|            |                                 |
|------------|---------------------------------|
| 薄澣薄汚勞筋骨    | 이 옷도 빨고 저 옷도 빠느라 근골이 수고롭고       |
| 蠶牛較計顧難評.   | 쇠털같이 자잘한 일 신경 쓰니, 그 공로 어이 평가하라. |
| 龜手呵凍擣睡眠    | 갈라진 손등 호호 불고, 졸린 눈 치켜뜨며         |
| 乙乙燈前憂思擘.   | 깜빡깜빡 등불 앞에 시름도 깊네.              |
| 彼皆貧寒一弱女    | 저들 모두 빈한하고 연약한 여자로되             |
| 身事家事期厥成.   | 몸소 집안일 도맡아 성취하기를 기약하네           |
| 吾且老病束兩手    | 나는 또한 늙고 병들어 두 손이 묶인 처지         |
| 多愧人間男子名.   | 이 세상 남자라는 그 이름 너무도 부끄럽네.        |
| 君不見朱軒之上駿馬背 | 그대는 보지 못했나, 부잣집 마루 위나 준마 등 위에서  |
| 粲粲楚楚飾太平.   | 찬란하고 선명하게 태평시대 꾸민다지.            |

시인의 인식은 다듬이질 하는 여성들의 노고에 이르렀다. 가족들의 기쁜 명절을 위해 밤잠을 줄이고 추위를 견디는 여성들의 노고에 대한 동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의 생각은 그치지 않고, ‘남성들은 왜 노고에 동참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으로 나아간다. 여성들의 일방적 노고를 당연시하고, 그 노동의 결과물만 취해가는 남성들이 ‘부끄럽다’는 시인의 인식이 놀랍다. 이와 같은 조면호의 인식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음은 조면호가 1882년 80세에 지은 <曉砧>이다.

|        |                  |
|--------|------------------|
| 可憐男子身  | 가련타, 남자의 몸뚱이여    |
| 都付女人手. | 모든 것을 여자 손에 맡기네. |
| 明日拂衣行  | 내일 아침 떨쳐입고 다니리니  |
| 揚揚顏亦厚. | 의기양양 얼굴 또한 두껍구나. |

5) “臥念家家此聲裏，歲時迫頭關人情。新衣新襪盛服着，父母舅姑當盡誠。婦妾爲夫各自別，童穉受憐及弟兄。”

앞의 시에서는 여성에 대한 동정이 남성으로서의 '부끄러움'으로 변화되었다면, 이 시에서는 남성들의 뻔뻔함에 대한 질타가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1884년 82세에 지은 <搗女歎>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질타가 좀 더 확장되어 나타난다.

|        |                   |
|--------|-------------------|
| 刁刁切切聲  | 톡톡톡탁 톡톡톡탁         |
| 冷杵徹天明. | 차가운 방망이질로 날이 밝았네. |
| 催作郎君服  | 재촉하여 낭군 옷 지어 놓으면  |
| 紛紛四處行. | 분분히 사방팔방 입고 다니지.  |
| 是處謀財利  | 여기선 이익을 도모하고      |
| 是處希功名. | 저기선 공명을 바라다가      |
| 倘有得其一  | 혹여 하나라도 얻고 나면     |
| 不論女死生  | 여자가 죽건 살건 개의치 않네. |
| 時時長歎息  | 때때로 나오는 긴 탄식      |
| 龜手若爲情  | 터져버린 손이나 알아줬으면.   |

이 시는 남성들의 뻔뻔함 뒤에 숨은 '비루함'을 고발하고 있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노고에 힘입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다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일 뿐인 데다가 여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고 하며 남성들의 파렴치함을 질책하고 있다.

『詩經』에서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시의 전형이 마련된 이후, 동아시아의 한시 전통에서는 여성들의 고통에 동정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술한 작품이 창작되었다. 그런데 조면호의 경우처럼 여성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남성 스스로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가사 분담'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상기해 보면 조면호의 인식은 각별하게 주목되는 바가 있다.

이러한 통렬한 자기반성의 인식이 조면호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가까운 동인들 사이에 공유되었던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조면호와 가장 가까운 詩友였던 申錫愚(1805~1865)가 지은 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작품은 주목할 점이 있다.

|                                     |                             |
|-------------------------------------|-----------------------------|
| 將軍紅玉出行邊장군 홍옥이 변방으로 출행을 하니           |                             |
| 遠若英豪近却妍.                            | 멀리 보면 영웅호걸이요, 가까이는 고운 여성이네. |
| 隊隊扮粧衣短後 무리 지어 분장하고 가쁜한 옷 입고서        |                             |
| 紛紛馳逐意無前.                            | 분분하게 내달리니 거칠 것이 없도다.        |
| 連錢寶馬嘶長霧인전총이라 보배로운 말, 입김을 안개처럼 내뿜고   |                             |
| 帶箭華蟲落暮烟.                            | 화살 맞은 오색빛 꿩은 저녁연기 속에 떨어지네.  |
| 畫壁奩臺如待勒그림 병풍과 화장대에 공적이 새겨지길 기다릴 법하니 |                             |
| 夫人城是古燕然.                            | 부인성이 곧 고대의 연연산이었네.          |

<백일원에서 기녀들이 말달리는 것을 보다(百一院觀妓女馳馬)>라는 제목의 시이다. '백일원'은 의주 지방의 講武堂으로서 기녀들의 마상무예 시범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이곳에 행차한 관원들이나 연행사들은 으레 이곳에서 기녀들의 무예 시범을 관람하였고 시로 남긴 것도 여러 편 전한다. 그러한 시들은 대개 '이색적인 볼거리'를 대하는 호기심이 主調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석우의 이 시도 그러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결을 달리하는 모습이 보인다. 『海藏集』에는 이 시의 바로 뒤에 <月夜讌統軍亭>이란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서문에 “백일원에서 말타며 활쏘기를 관람했다. 기녀들도 능히 말을 타며 칼을 놀리는데 변경의 풍속은 굳셈을 숭상함이니 참으로 기뻐할 만했다. 군교들의 기예가 기녀들보다 조금 우수하긴 한데 기녀인지 군교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sup>6)</sup>고 말하고 있는바 신석우의 관심은 기녀들의 ‘기량’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량’은 단순히 ‘볼거리’로서의 기량이 아니라 실제로 戰功을 세울 수 있는 ‘기량’임을 위 시는 보여주고 있다.<sup>7)</sup> 앞에서 김조순이 학문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면 신석우는 무예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 3. 김윤식의 여성 인식

김윤식은 환재 박규수의 제자로서 『환재집』의 편집을 맡았고, 그의 문집을 보면 북촌에서 창수한 시들을 『北山集』이라는 표제하에 모아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학맥이나 당색, 활동 내용을 볼 때 북촌시단의 후예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김윤식은 1897년 제주로 유배되었을 때 <濟州雜詠> 연작시를 지었는데 다음은 그 가운데 한 수이다.

|       |                    |
|-------|--------------------|
| 夫閒婦獨忙 | 남편은 한가롭고 아내 홀로 바쁘니 |
| 家政在閨壺 | 집안 살림은 여성에게 달려 있네. |
| 終歲治荒畬 | 한 해 다하도록 거친 묵밭 매건만 |
| 良辰噉美飯 | 명절에나 쌀밥을 먹는구나.     |

이 시에서 주목되는 바는 ‘夫閒’ 두 글자이다. 전통적으로 제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집안 살림을 여성이 도맡아 한다는 것이 전통 남성 문인의 눈에 포착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면호가 보여주었던 반성적 인식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김윤식의 여성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자료는 <개가는 왕정에서 금하는 바가 아니다(改嫁非王政之所禁)>이다. 이 글의 정확한 창작연도는 알 수 없는데 문집의 편집 체제를 고려해 보면 대략 1911년 무렵 김윤식이 신지도 유배에서 돌아와 다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글은 문답체 형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아비가 죽어도 개가지 않는 것이 옛 도인가(夫死不嫁, 古之道乎)?”라는 혹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화자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만약 지아비가 죽었으나 (아내가) 나이가 젊고 자식이 없으면 삼 년 후에 개가할 수 있었으니 역시 한 지아비를 따르는 의를 지킨 것이다. 이는 王政에서 금한 것이 아니다.

(2) 맹자가 …… ‘안에 원망하는 여인이 없고 밖으로 홀로된 지아비가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당시에는 사람마다 모두 부부의 즐거움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

6) “觀百一院騎射，妓女能馳馬舞劍，邊俗尙勁，固爲可喜。軍校技能，稍優於妓，妓乎校乎，吾不知也。”

7) ‘부인성’은 東晉 때의 襄陽城인데 前秦이 이곳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이때 양양성을 수비하던 朱序의 모친 韓氏가 성곽을 살펴보니 서북쪽이 허술하였다. 이에 한씨는 여인들을 인솔하여 서북쪽을 보강하였다. 결국 前秦의 군사는 물러났는데, 이로 인해 양양성은 ‘부인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燕然山’은 후한의 竇憲이 흉노와 싸워 대승리를 거둔 후 공적을 자세히 기록한 비석을 세웠던 산이다.

(3) 『禮記』에 嫁母(아버지가 죽고 재가한 어머니)와 出母(아버지에게 버려진 생모)의 상복이 있다. ……

(4) 동서양 고금의 역사를 두루 고찰해 보아도 이런 나쁜 법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다. 국초에 제도를 의논하던 신하들이 한때의 혐의 때문에 경솔하게 개가한 자손은 淸宦을 허가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다. …… 근거로 삼은 것은 왕축(王蠋)의 ‘열녀는 두 지아비에게 시집가지 않는다.’라는 한 구절의 말에 불과하다. …… 그 말은 한때 격양된 말에서 나온 것이고 고전에서 상고한 것이 아니었다. 어찌 후세 사람은 금석처럼 받들어 마침내 온 세상 청상과부에 족쇄를 채워 참담하게 하늘의 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

(5) 사람마다 부부의 즐거움을 지니게 하면 人道의 결핍을 보충할 수 있고 천지의 조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어찌 홀롭하지 않은가? 나는 그러므로 ‘어진 정사는 반드시 개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sup>8)</sup>

조선에서 국법으로 금지하였던 재혼은 1894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허락되었으니 김윤식이 이 글을 쓸 때 제도적 측면에서 거리낄 점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도 여전히 재혼을 금지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었던 만큼 고루한 유림의 공박을 면할 수는 없었을 듯하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김윤식은 재가 금지가 유교의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1)~(3)을 들어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재가 금지를 법으로 정하게 된 것은 선초 기득권 층의 무리한 처사였다고 (4)에서 주장하였다.<sup>9)</sup> 그런데 이러한 논거들을 동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청상과부에게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마다 부부의 즐거움’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여성을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은 자연스레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병서)>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니 두 글 모두 개가 금지가 갖는 비인간성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다. 박지원이 일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은유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김윤식은 논증을 통해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김윤식은 박지원의 여성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통해서도 북촌시단의 공통된 여성인식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김윤식이 1917년 무렵에 쓴 <書谷城李夫人家狀後>도 여성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글이다. 玄采(1886~1925)를 통해 전해들은 ‘곡성 이부인’의 행적은 “효로써 부모를 섬기고 공경으로써 남편을 섬기며 의리로써 자식을 교육하고 종족과 향당(鄉黨) 간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부유하면 능히 베풀며”,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구휼”<sup>10)</sup>하는 것이었다. 이에 김윤식은 이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나는 이에 깊이 느낀 바가 있다. 만약 이 사람이 조정에 섰다면 國事는 쇠함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사회에 나갔다면 풍속이 구차하고 태만함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sup>11)</sup>

8)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을 크게 참조하였음. 孟子述公劉之德曰‘內無怨女，外無曠夫’，可見當時人人皆有室家之樂矣。文王之治岐也，先施四窮，老而無妻曰鰥，老而無夫曰寡，可見少而無夫者，自當改嫁而有依托之所，不在恤窮之例也。……且《禮》有嫁母、出母之服，若非時王之制，安得著之《禮經》乎？以是知改嫁非王政之所禁也。非獨周制爲然，遍考東西洋、古今歷史，無此弊法，獨我東有之。國初議制之臣，因一時之嫌，率意妄作，爲改嫁子孫勿許淸宦之法。……其所以爲據者，不過王蠋之‘烈女不更二夫’一句語也。……王蠋者戰國時殉名好氣之人，非讀書明理之士也。其言出於一時激昂之辭，而無稽於古典。奈何後之人奉若金石，遂錮一世之青孀，慘無天日？是豈先王不忍人之政乎？……使人人有室家之樂，可以補人道之缺，而召天地之和，豈不美哉？余故曰仁政必自改嫁始。

9) 조선에서 재가가 법으로 금지되는 과정에서의 논란 및 조선 후기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숙인, 「15세기 조선의 개가 논쟁」, 『동양철학』 32, 한국동양철학회, 2009; 김윤정, 「조선후기 嫁母·出母 담론과 그 예학적 성격」, 『퇴계학보』 131, 퇴계학연구원, 2012;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 『고문서연구』 18, 한국고문서학회, 2000 참조.

10) “貧而無怨。富而能施。士君子之德行也。識時達權。愛國恤民。大丈夫之志事也。至於女子之行。孝以事親。敬以事夫。義以教子。睦恤於宗族鄉黨之間。如斯而a328\_602a已。苟得一節。猶足以稱賢媛。況具有此美。而又有大過人者乎。”

김윤식의 주장은 여성도 조정에 출사하여 국사를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애국 계몽운동이 한창 일어났을 무렵이니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서구사상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앞에서 김조순이 학문의 능력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지 않다고 하였고, 신석우가 무공을 세움에 있어 여성도 남성과 같을 수 있다고 하였던 점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김윤식의 인식이 꼭 서구에서 영향받은 것이라 단정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 적어도 북촌시단의 진전된 여성 인식의 흐름이 있었기에 서구로부터 전해지는 여성 해방의 사상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진전된 여성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북촌 시단의 몇몇 국면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북촌 시단의 여성 인식’이 규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잠정적이거나 발표자가 구상하고 있는 대략의 구도는 대략 이러하다.

19세기 중반 북촌 시단을 주도하였던 조면호는 김조순과 김려의 문학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위치였으며 아울러 金正禧의 서화 예술을 계승하였던 인물이다. 그리고 당시 조면호와 절친하였던 박규수와 신석우는 박지원의 학문과 문학을 계승하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북촌 시단은 이른바 ‘담정일파’의 문예와 연암과 추사의 실학이 한데 소통하는 문화적 공간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북촌 시단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진전된 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것을 가능케 했던 요소는 사상적 측면과 예술적 감각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개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사상적·경학적 논의와 사유의 진전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싶다. 선행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개가를 둘러싼 논의는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나름 진지하게 논의된 전통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의 힘이 있었기에 과감한 개가 허용 주장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조면호가 통렬하게 보여준 반성적 자기 인식은 조면호 특유의 ‘감각’에서 유래한 것이라 생각된다. 조면호는 ‘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바 자신만의 새로운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고심은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하여 “등불 앞 내가 나를 대하니/알 수 없네, 이 사람은 누구인가(燈前我對我, 不識此何人)”, “이 적막하고 고독한 몸을 느끼며/내가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感茲幽獨身, 吾與吾相語)”, “때때로 내가 나에게 묻노니/나는 어떤 사람인가(時時我問我, 我是如何人)”라고 물으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조면호의 시문학은 이처럼 새로운 감각을 확보하기 위한 끝없는 시도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담정 일파로부터 배운 것이 틀림없다. 김조순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무릇 괴롭게 읊조리면 생각이 반드시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이치가 반드시 갖추어지고, 이치가 갖추어지면 말이 반드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기를 그치지 않으면 공교롭게 된다.<sup>12)</sup>

이 인용문에 따르면 ‘표현을 고심하다 보면 이치가 갖추어진다’고 하니, 심성 수양이 깊어지면 문장은 저절로 훌륭해진다고 보는 성리학파의 文道合一論과는 정반대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면호가 남성들의 비루함을 날카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한 결과라고 보고 싶다.

여기서 말한 ‘사상적 측면’과 ‘예술적 감각’은 사실 서로 관련성이 깊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질

11) “余於是重有感焉。若使斯人處於廟堂之上。國事必不至於衰弊。立於社會之中。風俗必不至於偷墮。”

12) 김조순, 「書金明遠畊讀園未定稿後」. “夫吟苦則思必深, 思深則理必該, 理該則語必新, 新而不已則工”

적인 이 두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여성에 대한 편견을 타파해 나가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게 생각된다. 보다 확장되고 심화된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의 생애와 교유 양상 고찰

- 『성재집』과 『성재일기』를 중심으로

이연순(성신여대)

## 목차

1. 서론
2. 성재의 생애
  - 1) 퇴계의 제자로서 월천과 함께 한 수학기
  - 2) 능참봉에서 봉화 현감에까지 오른 사환기
3. 성재의 교유 양상
  - 1) 계회(契會)를 통한 교유
  - 2) 유산(遊山)을 통한 교유
4. 결론

## 1. 서론

본고에서는 16세기 인물인 성재 금난수(1530~1604)의 생애와 교유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성재에 대해서는 성재가 퇴계의 문인이었다는 점에서 그 수학과 학문, 교유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sup>1)</sup> 그와 비슷한 시기 퇴계의 제자로서 긴밀히 교유하며 함께 수학하였던 월천 조목(趙穆, 1524~1606)의 경우에 비해서는 연구가 미미한 편이다. 또한 『성재일기(惺齋日記)』와 같은 중요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다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성재일기』를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에 번역 의뢰하면서 그 완역본이 문집의 완역과 함께 출간돼, 본고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그 생애와 교유를,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학과도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재는 고려 말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에 오르며 이름을 떨친 금의(琴儀)의 후손으로, 경북 예안에서 태어나 21세에 퇴계의 문인이 되어 월천과 함께 수학기를 보냈고, 퇴계 사후 유교 수습에도 직접 관여할 만큼 퇴계 학파와 영향 관계가 깊은 인물이다. 비록 과거에는 실패하고 생원시 합격을 끝으로, 50세부터 제릉 참봉이 되어 경릉 참봉 등을 거쳐 67세에 성주 판관, 70세에 봉화 현감에 이르며 벼슬살이를 마감하지 만, 당시 성행한 계회(契會)와 유산(遊山) 등을 통해 평생 학문을 놓지 않으며 당대 인물들과 활발한 교유를 펼쳐갔다. 곧 대표적으로 고향에서는 23세에 퇴계의 제자들과 함께 현사사수계(玄沙寺修契), 44세에 마을 지인들과 학연정강신회(廓然亭講信會) 등을 만들었고, 서울에서는 51세와 54세, 그리고 58세에 인척간의 모임인 육촌계회(六寸契會)와 57세에 동료들끼리 결성한 장흥고계회(長興庫契會)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와 함께 서울과 고향에서 이루어진 전별연과 생신연 등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하며 교유를 이었고, 지리산, 청량산, 천마산 등을 유람하며 퇴계의 문인들뿐 아니라 남명의 문인들과도 교분을 가졌다. 또한 성재

1) 최영성,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의 학퇴계(學退溪) 정신(精神)과 주경함양(主敬涵養) 공부(工夫)」, 『퇴계학과 유교 문화』 제29집,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2001, pp.145~169. 박현순,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의 수학과 교유」, 『역사문화논총』 제4호, 신구문화사, 2008, pp.35-73. 이치역, 「퇴계(退溪)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특성과 그 정신의 전승」, 『퇴계학논집』 제14집, 퇴계학연구원, 2014, pp.241-266. 이치역(2014)은 퇴계 위기지학의 전승 양상을 도반(道伴)과 출사(出仕)로 나누고, 전자에 월천 조목과 성재 금난수의 경우를 들어 성재의 학문 특성을 알려주었다.

는 자식들의 수학과 과거, 관직에까지 힘써 끝내 둘째 아들 금업(琴爍, 1557년~1638)이 문과에 급제하고 중앙의 관직인 정언(正言)이 되는 데까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성재 말년에 임진왜란을 겪어, 당시 고향에서 의병 활동을 벌이고 그에 지지하면서 조정의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며 변란에 대처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모습이 『성재일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향촌 사족의 실제 삶과 당대 실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성재와 관련해서는, 일기문학의 변성기라 불리는 16세기에 『성재일기』를 남겨 그로써 일기문학사적으로 일정한 의의가 부여되고<sup>2)</sup> 또한 그 문집이 남아 있어 계획와 유산 등을 통한 교유와 그때 남긴 문학을 일기와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성재가 살았던 16세기는 기존에 일기문학 외에도 유산기 문학이 우세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계획와 관련한 기록과 회화 등이 많이 남아, 그 분야 연구에도 관심이 모아졌다.<sup>3)</sup> 본고에서 성재가 남긴 『성재집』과 『성재일기』를 통해 그 생애와 교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성재도 당시 이러한 주된 경향을 보이는 문학 작품들을 창작한 면모가 발견되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성재의 생애와 교유를 주되게 살펴 며, 당대 문학의 경향과 관계되는 점들도 고려하여 의의를 추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성재집』과 『성재일기』로, 『성재집』은 한국문집총간 속 4권에 수록된 것으로, 이를 저본으로 하여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완역본이 나왔다. 『성재일기』 또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최근 편차 구성을 연대순으로, 곧 1554~1555, 1560~1561, 1575~1604년까지로 재구한 완역본이 나왔다.<sup>4)</sup> 이에 본문에서 『성재집』과 『성재일기』를 인용할 때는 이들 번역본을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또한 저자 이름은 빼고 책 이름만을 제시해 구분하겠다.

## 2. 성재의 생애와 학문

### 1) 퇴계의 제자로서 월천과 함께 한 수학기

성재는 금씨(琴氏)로, 그 계통은 삼한에서부터 나와, 고려시대 문하평장사에까지 오른 금의(琴儀) 대에 이름을 떨쳤다. 금의는 세 번이나 과거의 시험관을 맡아 그때마다 뽑은 인재들이 모두 당세의 이름난 사람들이었다고 전한다.<sup>5)</sup> 이는 경기체가인 「한림별곡」의 1연 끝에서 ‘금학사(琴學士)의 옥순문생(玉筍門生)’이

2) 일기문학에 대해서는 일찍이 장덕순이 16세기를 “일기문학의 변성기”라고 평하면서, 16세기 일기문학이 성행하는 경향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장덕순, 『한국수필문학사』, 박이정, 1995, pp.145~174. 그런데 『성재일기』에는 특히 임란이 일어나던 시기 전후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임란으로 소실된 『선조실록』을 대체할 정도로 많은 기록이 있지는 않다. 다만 그것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는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재는 임란 때 의병 활동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일기에 그 활동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당시 조정의 건문을 간혹 기록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3) 유산기와 관련한 초기 연구에서 15~16세기 금강산과 지리산, 청량산, 소백산 등을 찾고 쓴 문인들의 작품을 다룬 성과가 나왔고, 개별 산의 유산기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혜순·정하영 외, 『조선 중기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그리고 계획에 관해서는 조선 중기 문인들의 계획와 그때 남긴 그림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돌베개, 2007. 신영주, 「15, 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획 활동과 계획도축」, 『한문학보』 제17집, 우리문학회, 2007, pp.53~80. 국립중앙박물관 [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원컬렉션 명품선』,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2.

4) 다만 성재의 생애를 재구하는 데는 이러한 성재의 일기를 기본으로 하고 문집에 수록된 연보, 묘갈명 등을 대부분 활용하되, 일기 기록이 빠진 시기 중 성재가 퇴계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기 시작해 퇴계 사후까지의 시기, 곧 1550년부터 1570년까지는 퇴계의 생애를 집성한 정석태, 『퇴계선생연표월일조록』, 퇴계학연구소, 2006.의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다. 공교롭게도 성재의 일기에는 성재가 퇴계를 찾아가 배우던 초기 곧 1560~1561년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퇴계가 돌아가시고 5년간, 곧 1562년부터 1574년까지의 기록이 모두 빠져 있다. 이것이 퇴계와 관련하여서 해석할 일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성재의 수학기와 스승의 사후 5년간이 딱 그에 해당하는 시기라, 그 중심에 퇴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정석태(2006)의 연구는 퇴계 생전(1500~1570)까지만 다루고 있어 그때까지만 참고한다. 본문에서 성재의 생애 중 월일까지 분명히 밝힌 것은 기본적으로 『檀齋日記』의 기록과 정석태(2006)의 성과에 근거한 것이다.

라 불리며 칭송된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이규보(李奎報)가 금의의 묘지(墓誌)에 “옥순(玉笋)의 성대함이 근고에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sup>6)</sup> 라고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성재는 1530년 2월 13일에 아버지 첨지공(僉知公)과 어머니 남씨(南氏) 사이에서 2남 3녀 중 맏아들로, 예안현(禮安縣) 부라리(浮羅里)에서 태어났다.<sup>7)</sup> 성재의 수학기는 7세에 가학으로 부친께 소학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 12세에 김성일의 부친인 김진(金璉, 1500~1580)에게 나아가 수학하는 것으로 이어진다.<sup>8)</sup> 그러다 15세에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알고, “사람의 본성은 모두 선하다.”는 가르침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sup>9)</sup> 이때 성재의 위기지학에 대한 깨달음은 평생 이어지는 그의 학문 자세로, 월천과 함께 퇴계의 위기지학을 계승한 인물로 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sup>10)</sup> 이후부터 성재가 퇴계의 제자가 되어 그와 관련해 학문적으로 경험한 점들과 한편으로 아들들의 학문 성취를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20세에 관례를 지른 성재는 월천(月川) 조목(趙穆)을 좇아 배웠고<sup>11)</sup> 이 해 겨울에 청량산 상선암(上仙庵)에서 독서하였는데,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 양곡(陽谷) 이국량(李國樑) 등과 여러 암자에 나누어 지내며 날짜를 잡아 모여 독서한 책을 강하기도 하였다.<sup>12)</sup> 21세 되던 1550년 봄에는 보현암(普賢菴)에 머무르며 공부하였고, 11월에 월천의 권유로 당시 고향에 내려와 있던 퇴계(退溪)를 찾아뵙고 제자가 되었다.<sup>13)</sup> 이후부터 성재는 퇴계에게 수업하며 질문하고 격려 받으며 학문에 매진한다. 22세 7월에는 연대사(蓮臺寺)에 공부하러 가는 길에 퇴계에게 전송 시를 받는데, 이는 당시 성재가 학문을 이루지 못해 향시에 참여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자 뜻을 가상히 여기며 지어준 시이다.<sup>14)</sup> 이에 성재가 청량산에서 퇴계의 시에 차운한 시가 있다.<sup>15)</sup>

23세 1월에 안중암(安中菴)에 있다가 만월암(滿月菴)으로 옮겨 독서하였고<sup>16)</sup>, 11월에는 현사사수계(玄沙寺修契)를 결성하였다. 이때 참여한 인물은 성재를 포함해 월천(月川) 조목,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 1526~1586), 지산(芝山) 김팔원(金八元, 1524~1589), 인재(忍齋) 권대기(權大器, 1523~1587) 등 총 5명으

- 5) 『惺齋集』 권3, 「墓碣銘」, 公諱蘭秀字聞遠姓琴氏, 系出三韓壁上功臣諱容式之世譜, 其後守太保門下平章事太學士判吏部事致仕英烈公諱儀, 三掌禮闈, 所得皆當世間人.
- 6) 『惺齋集』 권3, 「墓碣銘」, 李相國奎報誌其墓曰玉笋之盛, 近古未有.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권36, 「壁上三韓大匡金紫光祿大夫守太保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修文殿大學士判吏部事致仕琴公墓誌銘」, 嘗典司馬試及三掌禮闈, 所得皆當世間人, 玉笋之盛, 近古未有也.
- 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皇明世宗嘉靖九年(中宗大王二十五年), 庚寅二月十三日甲戌(亥時), 先生生于禮安縣浮羅里第.(先生先世世居奉化, 高祖按察使令同正公諱淑, 始移居浮浦.)
- 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五年丙申(先生七歲), 始受小學.(先生生而穎悟, 甫學語便識字, 及就學, 僉知公篤於教授, 程課日就.) / 二十年辛丑(先生十二歲), 往拜內舅漁隱南公(蓋臣), 因受學于青溪金公.(璉○時金公構書堂於傅巖之傍, 教授子弟及鄉秀才. ○嘗以秋山錦命題賦詩, 金公大加稱賞. 與藥峯克一, 龜峯守一諸公, 已結童叟之交, 以器量義氣相許.)
- 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三年甲辰(先生十五歲), 勵志讀書, 蚤知爲己之學.(嘗讀至人性皆善之訓, 惕然有警省也.)
- 10) 이치억, 앞의 논문, pp.241-266.
- 11) 『惺齋集』 권3, 「墓碣銘」, 既冠從趙月川穆學. 이듬해 성재는 월천의 누이동생에게 장가들었다. 琴蘭秀,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九年庚戌(先生二十一歲), 聘夫人橫城趙氏.(參判大春女, 月川穆之妹也.)
- 1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八年己酉(先生二十歲), 冬讀書于清涼山上仙庵.(具柏潭鳳齡, 李陽谷國樑諸公, 分栖諸庵, 約日相會講論所讀書.) 이때 구봉령과는 훗날 ‘현사사수계’로도 함께 한다.
- 1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九年庚戌(先生二十一歲), 春栖普賢菴. ○受業于退溪李先生之門.(既冠從月川學, 月川曰君吾友也, 宜往拜先生, 遂踵門請業. 先生每稱人品甚好, 志趣可尚.) 琴蘭秀, 『惺齋集』 권3, 「墓碣銘」, 退溪李先生之門, 惟月川最先進, 謂公曰君吾友也, 宜往拜先生. 時先生解職還鄉, 人有願學者, 輒辭以疾. 公日踵先生之門, 幾月餘不去, 先生嘉其志, 始與之進.
- 14) 李滉, 『退溪先生續集』 권2, 「送琴聞遠讀書清涼山」, 用前韻. 蓋聞遠, 乃敬仲之甥, 而澤卿, 敬仲今皆下世. 因聞遠之行, 而有懷其人, 故次前韻以贈云. 『惺齋集』 권3, 「普賢菴壁上, 書前後入山記」, 辛亥孟秋, 又栖蓮臺寺, 先生有送行詩.
- 15) 『惺齋集』 권1, 「讀書清涼山敬次退溪先生韻」.
- 1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一年壬子(先生二十三歲), 二月棲安中菴, 又移滿月菴, 承退溪先生書.

로<sup>17)</sup> 모두 퇴계의 문인이다. 성재는 이 해 12월에 퇴계에게 학문을 면려하는 뜻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sup>18)</sup> 24세 12월 27일경에 『심경(心經)』을 읽고 퇴계 선생에게 시 두 수를 올렸다.<sup>19)</sup> 이에 퇴계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믐 즈음 성재 시에 차운한 시<sup>20)</sup>와 편지를 보냈다.<sup>21)</sup>

25세 봄에는 동계(東溪)에 성성재(惺惺齋)라는 서실을 짓자, 퇴계가 그 편액을 써주며 시 두 수를 지어주었고 그에 대해 성재가 차운하였다. 퇴계는 한 수를 더 짓고, 또 성성재 주변의 누대 곧 활원대(活源臺), 임경대(臨鏡臺), 총춘대(總春臺), 풍호대(風乎臺) 등을 제제로 풍광을 읊고 수양할 것을 다짐하는 시 다섯 수를 더 지었다.<sup>22)</sup> 이러한 퇴계의 시 중 두 번째 시에서 ‘성재’의 호에 대해 그 근본 의미를 찾아 사랑좌(謝良佐, 1050~1103)의 ‘성성법(惺惺法)’과 서암 스님의 ‘성성(惺惺)’ 고사를 든 것을 볼 수 있다.<sup>23)</sup> 이 해 9월 16일에는 퇴계에게 받은 편지에서, 과거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뜻을 새겼고<sup>24)</sup>, 10월 27일에도 월천과 같이 받은 퇴계의 편지에서 공부할 것에 대해 자극을 받았다. 이때 퇴계가 손수 써서 준 『연평답문(延平答問)』 한 권을 읽었다.<sup>25)</sup> 이달 30일에는 월천과 함께 다음 달 영주 향교에서 열리는 거접에 참가하러 길을 나섰는데 비가 심하게 내려 그냥 돌아온 일이 있었다.<sup>26)</sup>

26세에는 월천 등과 서로 오가며 월천의 생일 때나 장모의 기일에는 월천의 서재에 가고, 월천이 성재

1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一年壬子……十一月修契于玄沙寺.(趙月川, 具栢潭, 金芝山人元, 權忍齋大器 諸公皆與其會. 其立議畧曰凡我朋執, 乍分乍合, 殊無資益, 或山或社, 佳辰勝節, 各攜經史, 齊會通讀.) 이렇게 결성한 수계의 일원들은 훗날까지도 성재와 교유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조목과는 일찍이 그 누이동생과 혼인함으로써 사돈 관계를 맺었고, 퇴계를 스승으로 함께 모시며 제자 관계도 이어갔다.

18) 이 편지의 원문은 이항, 『退溪先生續集』 권6, 「與琴聞遠(壬子)」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를 바탕으로 1552년 12월 29일(그믐)의 편지로 밝혀놓았기에 이에 따랐다. 정석태(2006), 『퇴계선생연표월일조록』 2, 152쪽.

19) 『惺齋集』 권1, 「讀心經書二絶上退溪先生」,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二年癸丑(先生二十四歲), 讀心經, 上二絶詩于退溪先生.

20) 李滉, 『退溪集』 外集 卷1, 「心經絶句, 次琴聞遠韻」. 이 시는 성재가 보낸 시 「讀心經書二絶上退溪先生」에 퇴계가 차운한 시로, 퇴계집 외집에 네 수가 실려 있는데, 이 중 앞의 두 수만 성재가 이번에 보낸 시의 차운시이고, 뒤의 두 수는 성재의 또 다른 시에 대한 차운시이다. 이들 퇴계 시는 모두 성재집에는 제 위치에 ‘차운’과 ‘원운’으로 수록되어 있다.

21) 李滉, 『退溪集』 권36, 「答琴聞遠(蘭秀○癸丑)」.

22) 성재집에는 성재가 차운한 시와 그 원운인 퇴계의 시 각 두 수씩이 실린 뒤에 나머지 시 여섯 수를 이어서 총 8수를 실어놓았다. 퇴계집에는 앞의 두 수만 실려 있고, 별집에 한 수, 속집에 다섯 수가 따로 실려 있다. 『惺齋集』 권1, 「甲寅仲春, 築書室於東溪之上, 爲讀書藏修之所, 宅地閒曠, 泉石可愛, 先生手書惺齋扁額賜之. 又有臨鏡臺, 風乎臺, 總春臺, 活源塘諸詩. 不勝感佩, 遂用其韻(甲寅)」.

23) 李滉, 『退溪集』 卷2, 「琴聞遠東溪惺惺齋(二首)」. 성성법’은 북송 시대 유학자 정이의 제자인 사랑좌가 스승이 체계화한 경 사상의 공부 방법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그 저술인 『상채어록(上蔡語錄)』에서 “경은 상성성법이다.[敬是常惺惺法.] 지금 사람이 경을 설명할 때 정제엄숙으로 말한다. 진실로 옳기는 하나 만일 마음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치를 터득할 수도, 물욕과 사욕을 물리칠 수도 없다. 비록 억지로 이 마음을 지닌다 해도 어찌 경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주자대전』 권43에서는 “대개 경건함과 진지함은 미발과 이발에 다 적용이 되는, 위로도 통하고 아래로도 통하는 도이다.”라고도 하여, 이러한 점은 불교의 선과 통하는 부분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심경부주』 권1에 실린 주희의 해명을 보면, “이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것은 같으나 그 방법은 다르니 우리 유가는 이 마음을 깨워서 그로 하여금 여러 도리를 비추어보고자 하고, 불씨는 공허하게 마음을 불러 깨워 여기에 있게 하여 아무런 작용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구분하였다. 김수청, 『송대 신유학의 인격수양론』, 신지서원, 2006, 107~108쪽. 참고. 그런데 퇴계가 불교의 서암 스님 고사를 인용한 것은 당시 많이 알려진 고사로 접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4) 李滉, 『退溪集』 卷36, 「答琴聞遠(甲寅)」.

25) 李滉, 『退溪先生續集』 卷5, 「與趙士敬, 琴聞遠.(甲寅)」,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四年乙卯(先生二十六歲), 讀延平答問書.(退溪先生手書一本以寄示期勉之意.) 성재의 연보에는 이러한 행적이 이듬해의 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퇴계집에 수록된 편지를 통해 전년도인 1554년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석태(2006)의 고증을 통해 정확히 10월 27일의 일임을 알 수 있다.

26) 일기에 따르면 1554년 10월 30일 풍성(豊城)으로 향하여 고감(高甘)에서 자고, 11월 1일에 이대림(李大林)이 교관 이던 영주 향교에서 잤는데, 다음날 비 때문에 서정(西亭)에서 막혔다가 저녁이 되어 조금 개기에 마침내 길을 나서 곧장 백운으로 향하였으나 4일이나 거접하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의 서재에 찾아오기도 하며, 함께 동계에서 물고기를 잡고 노닐기도 하였고, 스승 퇴계가 내려왔을 때 같이 찾아뵈러 가거나, 퇴계가 보낸 편지나 시에도 월천과 성재 둘에게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여<sup>27)</sup>, 일 상에서나 학문적으로 꾸준히 교류가 이어졌다. 퇴계와 관련해서만 들면, 3월 4일 서울에서 내려온 퇴계 선생을 뵈러 계상으로 찾아갔고, 5월 6일 퇴계가 월천에게 보낸 편지의 끝에 성재도 같은 내용을 당부 받았 으며, 6월 2일 월천과 함께 걸어 가 퇴계 선생을 뵈고, 9월 28일 월천과 함께 퇴계 선생을 뵈는 것 등이 그 예이다.<sup>28)</sup> 성재는 이 해 10월에 월천과 함께 영양에서 치러진 향시에 임했으나 월천만 합격하고 혼자 떨어 졌다.<sup>29)</sup> 이에 11월에 성재는 용두사(龍頭寺)에서 독서하였다.<sup>30)</sup> 27세에도 월천과 교류는 이어져, 월란암 (月瀾菴)에서 함께 독서하고 퇴계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베껴 쓰며 공부하였다.<sup>31)</sup>

그런데 28세에는 퇴계가 월천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재를 걱정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sup>32)</sup> 이에 성재가 편지와 함께 시 세 수를 보내자 퇴계가 성재에게 그의 성찰하는 자세를 칭찬하며 답신을 보내주었다.<sup>33)</sup> 이 해 겨울에는 계당(溪堂)에서 퇴계의 손자인 몽재(蒙齋) 이안도(李安道, 1541~1584)와 김부륜(金富倫, 1531~1598)의 조카 김전(金堧, 1538~1575) 등과 함께 학문하였다.<sup>34)</sup> 29세에 3월에는 도산서당에 천연대 가 완공되었고<sup>35)</sup> 4월에 역동서원을 세울 터를 살펴보고자 퇴계 선생과 부포리에 있는 오담(鰲潭)을 유람하 고 터를 정하였다.<sup>36)</sup> 한편 당시 성재가 월천, 이명홍 등과 월란암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사실을 퇴계가 보

27) 李滉, 『退溪集』 卷23, 「與趙士敬」. 이 편지글이 언제 월천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성재가 이 내용을 보았는지 는 확인되지 않으나, 전날 월천에 갔고 10일에도 월천에 가 이야기를 나눈 기록이 있기에, 그 사이에 도착한 퇴계 의 편지 내용을 성재도 전해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퇴계는 이 편지를 보낸 다음날, 명종에게 고향에 내려가 조리하 고 오도록 허락받았다. 이전에 퇴계가 당시 자신의 직위인 첨지중추부사의 면직을 청하는 사장을 올린 것에 답을 받은 것이다. 성재는 편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계 선생을 뵈는 기록을 남겨 놓아 당시 퇴계가 고향으로 내 려온 사정을 알려준다. / 『惺齋日記』 1555.8.25. 『惺齋集』 卷3, 「惺齋先生年譜」, 三十四年乙卯(先生二十六歲), 夏與趙月川寓惺齋, 冬往樓龍壽寺.(月川讀書講義, 精審剴切, 每與共業以問辨, 資益相推. ○退陶先生嘗有一詩而共勉. 詩曰, 心法由來謹毫釐, 如水易波鏡易塵. 寄與山南趙與琴, 勉勉莫負良貴身.) 李滉, 『退溪先生續集』 卷2, 「山居偶書病懷, 寄士敬, 聞遠, 山堂近日無來人」, 蒼苔綠竹相映新. 山翁百病頭似雪. 書卷叢中猶競辰. 心法由來謹毫釐. 如水易波鏡易塵. 寄與山南趙與琴. 勉勉莫負良貴身.

28) 『惺齋日記』, 1555.3.4. 1555.6.2. 1555.9.28.

29) 이때의 일이 『惺齋日記』에 자세하다. 『惺齋日記』, 1555.10.1. 1555.10.9. 1555.10.10. 1555.10.13. 1555.10.25.

30) 『惺齋日記』, 1555.11~12월 기록에서 자세하다. 『惺齋集』 卷3, 「惺齋先生年譜」, 三十四年乙卯(先生二十六歲), 冬往樓龍壽寺.

31) 『惺齋日記』, 1556.4.9. 『惺齋集』 卷3, 「惺齋先生年譜」, 三十五年丙辰(先生二十七歲), 四月與趙月川讀書于月瀾菴, 書朱子書節要.(時退溪先生抄節朱書爲七冊, 命繕寫. 書畧曰, 士敬寫至中半, 替與聞遠寫了爲當, 所以必要兩君皆寫, 要觀吾鄉文雅之盛, 不可欠一故也. ○先生書法法臨師帖, 端楷嚴正, 精彩溢發, 家藏諸本, 心畫可見.) 李滉, 『退溪集』 卷36, 「與琴聞遠」. 이 편지는 퇴계 문집에는 갑인년과 정사년 사이에 연호 표시 없이 들어 있는데, 성재의 연보와 퇴계집 초초본의 기록을 통해 이때의 4월 9일의 일로 밝혀 넣는다.

32) 李滉, 『退溪集』 卷23, 「答趙士敬(丁巳)」.

33) 『惺齋集』 卷3, 「惺齋先生年譜」, 三十六年丁巳(先生二十八歲), 上退溪先生書.(答書略曰長牋寫意, 兼惠三詩, 足見近日策勵警省之深, 深以爲喜, 亦因以自省也. 以此齋居積久, 益加進修. 新得日富則舊習自除.) 李滉, 『退溪集』 卷36, 「與琴聞遠(丁巳)」.

34) 『惺齋集』 卷3, 「惺齋先生年譜」, 三十六年丁巳(先生二十八歲), 冬講業于溪堂.(琴勉進應壘, 李蒙齋安道, 金九峯堧同業. ○時退溪先生編成啓蒙傳疑, 講質著策圖及胡玉齋諸說. ○歲終將歸, 先生贈詩云, 生爲男子不貲身, 此事何須讓別人. 齷齪無成應坐懦, 從今努力競時辰.) 이 시는 퇴계집에는 없고 성재집 연보에만 수록되어 있다.

35) 『惺齋日記』, 1558.3. 『惺齋集』 卷3, 「道山書堂建閣記」, 戊午三月. 令僧慎如輩臨水築臺. 始名滄浪者此也. 臨江斗截. 境界敞豁. 甲子夏. 蘭秀自孤山往拜先生. 先生杖屨逍遙於臺上. 時風日暄妍. 景物和暢. 天理流行. 無所滯礙之妙. 可得於仰觀俯察矣. 先生曰今日遇會心境. 君此際來到. 又得會心人矣. 因進而問曰鳶飛魚躍. 子思子引之以明上下昭著之理. 而特言鳶之飛魚之躍何也. 先生曰凡事物之自然者. 是理也. 鳶之戾天. 魚之躍淵. 豈勉強而爲之歟. 纔涉於有所作爲. 非理之自然也. 성재는 훗날 1564년 여름에 이곳에서 시를 지어 퇴계에게 품평을 여쭙는다.

36) 『惺齋集』 卷3, 「惺齋先生年譜」, 三十七年戊午(先生二十九歲), 四月陪退溪先生遊鰲潭.(時一鄉士子稟退溪先生議建易東書院, 相地於丹砂凌雲等處, 而先生以鰲潭之勝, 仰達於師門, 約會遊賞, 後遂定址.) 이에 관해서는 퇴계가 월천과 성재에게 보낸 편지와 연보의 기록이 남아 있다. 李滉, 『退溪集』 卷23, 「與趙士敬」, 琴聞遠」. 李滉, 『退溪

낸 편지에서 알 수 있다.<sup>37)</sup> 가을에는 보현암(普賢庵)에 머물며 간재(良齋) 이덕홍(李德弘)과 함께 수학하였다.<sup>38)</sup> 성재는 그 후 퇴계 선생에게 편지를 올렸고, 그에 퇴계가 답하여 성재에게 『중용』의 문장을 들어 ‘늦게 학문을 하는 자에게 약이 되는 말’이라 알려주며 면려하였다.<sup>39)</sup> 30세 봄에도 이덕홍이 와서 한 달을 성재(惺齋)에서 머물며 공부하고 그때의 깨달음을 퇴계에게 편지하여 알렸다.<sup>40)</sup>

성재가 31세 되던 1560년 4월에 퇴계 선생과 월천, 매헌, 신중 등과 고산에서 노닐고 시를 지었다.<sup>41)</sup> 그리고 이 해 11월 성재는 이듬해 2월에 합천(陝川)에서 치러질 향시(鄕試)에 응시하러 가는 길에 지리산을 유람하고자 일찍 나서서, 퇴계 선생께 하직 인사를 하고<sup>42)</sup> 성주에 이르러 당시 목사였던 금계 황준량(黃俊良)과 영봉서원(迎鳳書院)에 사당 세우는 일을 논의한 후<sup>43)</sup> 또 성주 교수로 있던 덕계 오건(吳健)과 향서당(鄕序堂)에 모여 도의를 닦았다.<sup>44)</sup> 그러나 성주에서 나와 가야산에 가려다보니 마침 눈이 많이 내려 포기하고 단성에 머물며 남명의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는다.<sup>45)</sup>

이듬해 32세 1월에 단성에서 퇴계 선생께 시를 보내자 그에 차운한 퇴계의 시를 받았다.<sup>46)</sup> 그리고 남명의 벗인 이원(李源, 1501~1568)을 뵈었는데, 이때 그가 퇴계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주자 성재도 퇴계 선

先生年譜』卷1, 「年譜」, 三十七年戊午(先生五十八歲), 四月, 遊麓潭, 爲禹祭酒倬, 欲建書院於潭上, 相其地. 또 월천도 역동서원사실에 이 일을 남겨 놓았다.

- 37) 李滉, 『退溪集』 권23, 「與趙士敬, 李仁仲, 琴聞遠」. 퇴계가 이들을 만나러 월란암에 가려가 장맛비로 못 가게 된 사연을 적어 보낸 편지와 시가 퇴계집에 실려 있다.
- 3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秋棲普賢庵.(李良齋德弘從而受學.)
- 3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上退溪先生書.(答書畧曰, 君中間學不力而事多誤, 正如示意. 然自今能改已往之事, 如塵掃鏡空, 復何追念之有哉. 中庸博學之以下, 至雖柔必強, 真是子思喫緊爲人處, 在晚學尤爲當病之藥.) 성재가 이 해의 언제 퇴계를 편지를 보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그 편지를 퇴계는 12월 11일 이후에 보게 된 듯하다. 퇴계가 답한 편지에서 그 사정을 알려준다. 李滉, 『退溪集』 권36, 「答琴聞遠(戊午)」.
- 40) 李德弘, 『良齋集』 권3, 「上退溪先生」.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八年己未(先生三十歲), 春李宏仲德弘, 來留惺齋一月.(良齋上退溪先生書曰戊午秋, 去清涼山, 得拜琴公, 琴公憐弘蚩蚩, 導弘詞章之術, 而教弘古文一卷. 己未春, 聞琴公栖惺惺齋, 沂東溪而尋訪, 遂處一月, 琴公每歎曰人性無不善, 而汨於私欲, 不知本體之善, 可勝歎哉. 弘驚問曰何如, 曰讀小學則可知也. 後讀小學, 汗出沾背.)
- 41) 성재의 문집이나 연보에는 없는 사실이나, 매헌집의 연보와 시, 그리고 월천집의 연보를 통해 알 수 있다. 趙穆, 『月川先生年譜』, 三十九年庚申(先生三十七歲), 三月. 陪退溪先生. 登芙蓉山. 定精舍基址. ○四月. 讀書于月瀾寺. ○陪退溪先生遊孤山.(有唱酬諸作). / 琴輔, 『梅軒先生年譜』, 三十九年庚申(先生四十歲), 四月與趙月川金沔清(富儀), 陪退溪先生遊孤山, 有次題石壁詩, 讀心經近思錄, 著心近講義. ○冬往留陶山, 時書堂新成. / 琴輔, 『梅軒集』 권1, 「庚申四月, 約趙士敬(穆), 金慎仲(富儀), 琴聞遠(蘭秀), 陪退溪先生遊孤山, 敬次先生題石壁韻」, 爲問孤山之鶴梅, 西湖東洛孰勝否. 請看老師題壁詩, 也應佳名更悠久. 월천은 이 해 3월에도 퇴계 선생과 부용산에 올라 精舍를 정하고 터를 기초했다고 하였고, 4월에는 월란사에서 독서했다는 기록도 있다. 지난해 5월경에 성재와 월천이 월란암에서 독서하고 가을에는 보현암에 머물렀다 다시 월란사로 가서 독서하다 4월 어느 날 퇴계 선생과 성재 등과 고산에 유람하러 다니며 시를 창수한 것으로 보인다. 매헌 금보가 지은 시에서 김부익와도 함께 갔던 사실이 확인된다.
- 4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九年庚申(先生三十一歲), 十一月赴陝川鄕試.(先生嘗擬一遊伽頭流, 是時前期發行, 拜謝溪堂. 退陶先生曰, 今欲使子知物情而行也, 子獨心知而慎之.) 『惺齋日記』, 1560.11.9. 『惺齋集』 권1, 「南征(並小序)」.
- 4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九年庚申(先生三十一歲), (到星州, 與主倅黃錦溪(俊良)論迎鳳書院立享儀節. 先是州牧盧慶麟册書院, 將享金寒暄, 李文烈, 李文忠諸賢, 而難於位次, 士論攙貳. 錦溪稟於陶山先生, 是行承命會議. ○退陶先生以寒暄文烈兩坐之間, 隔以屏幃, 使各自爲尊之意 與錦溪書云琴生歸時, 口授此意, 想已傳稟. 但琴生以隔屏爲未盡, 欲別門以出入, 常時以爲當矣. 更思之, 異門以太甚分別, 具此再稟.) 『惺齋日記』, 1560.11.17. 성재의 연보에서 퇴계 선생의 뜻으로 인용한 내용은 퇴계가 황준량에게 준 편지에 실려 있다. 李滉, 『退溪集』 권20, 「與黃仲舉」.
- 4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與吳德溪(健), 會鄕序堂.(時吳公以州教授來會, 講劇道義.) 『惺齋日記』, 『惺齋日記』, 1560.11.17.
- 45) 『惺齋日記』, 1560.11.19.
- 4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年辛酉(先生三十二歲), 正月在丹城, 次呈退溪先生寄詩一絕.(詩曰, 奔走風波患失人, 安閒不似退溪濱. 何當遊歷還歸早, 更向天淵學隱淪. 李滉, 『退溪集』 권2, 「琴聞遠自丹城書來, 卻寄一絕」, 歲暮難堪憶故人, 平安書到雪溪濱. 南行莫負酬心事, 方丈山中訪隱淪.

생의 시에 차운하여 보냈다.<sup>47)</sup> 그리고 2월에는 진주 향교에 머물며 정탁(鄭琢)이 보내준 시에도 차운하였다.<sup>48)</sup> 이후 진사시(進士試)를 보는데 시제가 여러 차례 바뀌다가 마침내 정해진 시제로 글을 지었고<sup>49)</sup> 또 이달에 생원시(生員試)를 본 후, 생원시와 진사시 모두 2등 12인으로 입격한 사실을 알게 된다.<sup>50)</sup> 3월에는 현풍에 가서 논(論)과 부(賦)와 책문(策文) 등을 지었다.<sup>51)</sup> 4월에는 배삼익(裴三益)과 시를 주고받으며 지리산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다가<sup>52)</sup> 서모의 병이 심하다는 소식에 돌아가려 하였으나<sup>53)</sup> 결국 15일에 뇌룡당(雷龍堂)에서 남명(南冥)을 뵈고 말씀을 들은 후<sup>54)</sup> 남명 문인들의 전별을 받고 5월에야 집으로 돌아왔다.<sup>55)</sup> 5월 5일 오후에 퇴계 선생을 뵈고, 7일 퇴계가 월천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를 보는데, 여기에 성재에 관한 내용이 있다. 당시 퇴계의 조카가 도산(陶山)에 작은 집을 짓고자 성재와 이덕홍 등과 뜻을 함께 해 지어갔는데, 일이 커지고 복잡해지자 중지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sup>56)</sup> 5월 12일 도산(陶山)에 나아가 퇴계 선생을 뵈고, 13일 고산에서 도산으로 내려와 퇴계 선생을 뵈었다. 24일에는 8월에 있을 회시(會試)에 대비하기 위해 백운동 서원으로 돌아왔고<sup>57)</sup> 28일에 남경상의 「잡록후(雜錄後)」 시에 차운하여 절구 3수를

- 4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年辛酉(先生三十二歲), 正月在丹城, 次呈退溪先生寄詩一絕.(詩曰, 奔走風波患失人, 安閒不似退溪濱. 何當遊歷還歸早, 更向天淵學隱淪. 往拜清香堂李公(源), 于培養里, 李公次退陶韻以贈詩曰, 此日開懷摠可人, 錦聯來自退溪濱. 臘梅帶雪成佳會. 香液傳心想隱淪. 『惺齋集』 권1, 「訪清香堂李公(源), 相對甚歡. 次退溪先生韻以贈, 仍次二絕奉呈」, 來拜山南一老人, 清香心事碧江濱. 貞梅苦竹終身契, 誰識先生此隱淪. 江城逢著養真人, 時到清香寂寞濱. 若與先生同隱此, 滔滔慾浪免沈淪.
- 4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年辛酉(先生三十二歲), 二月… ○與鄭子精(琢), 遊臺石樓.(有唱和韻.) 『惺齋集』 권1, 「登臺石樓, 與鄭子精共賦一絕」, 第一樓中君我雙, 滿杯春酒倒菁江. 居然領得風流事, 水色山光照碧窓.
- 49) 『惺齋日記』, 1561.2.18.
- 5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年辛酉(先生三十二歲), 二月中鄉解生員試. 『惺齋日記』, 1561.2.20. 2.26.
- 51) 『惺齋日記』, 1561.3.11. 3.13. 3.14.
- 52) 『惺齋日記』, 1561.4.4. 4.6. 4.12. 『惺齋集』 권3, 「裴汝友(三益), 有丹溪柳家壁上詩, 遂用其韻」, 聞說丹溪古哲人, 地名佳勝有攸因. 靈襟不屑丹爐液, 日向湯盤澡雪新. 何事南州遠別離 배삼익이 보내준 시는 문집중간에는 없고 성재의 일기에만 수록되어 있다. 또 배삼익이 두 수를 보내 성재가 모두 차운했는데 첫 시의 차운시만 성재의 문집에 수록되었고, 둘째 차운시는 일기에만 있고 문집에서 빠졌다.
- 53) 『惺齋日記』, 1561.4.12. 이후 이 해에 서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는 성재 일기에 보이지 않으나, 성재의 문집에서 성재가 퇴계 선생께 질문하고 그에 답변을 받은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惺齋集』 권2, 「上退溪先生問目」禮, 庶母之服服總麻, 無論有子無子, 皆服總麻歟. 答; 禮庶母之服總麻, 指父有子之妾言也. 然則似謂無子之妾無服也, 然又謂父妾代主母榘家事者加厚焉. 今尊公侍人雖無子, 乃代榘之人, 宜服總而稍加日數爲可也. 嘗思古禮所以辨有子無子而服者, 古之卿大夫妾御良多, 凡婢皆妾之類也. 不可泛指父妾而皆服總麻, 故以有子服總爲文, 其實當觀情義輕重而處之, 故又有稟父命行服之言, 須以此等事理量處. 李滉, 『退溪集』 권36, 「與琴聞遠(辛酉)」. 성재는 16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뒤 32세에 서모가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다. 이에 퇴계 선생께 자식이 없이 죽은 첩에 대한 복제를 여쭙자 그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 곧 퇴계는 서모의 복은 자식이 있는 경우에 시마(總麻)로 하는데, 예전에 아버지의 첩이라고 모두 석 달 복을 입을 수는 없어 석 달 복을 입는다는 예문이 있었으나, 정분과 의리의 경중을 살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5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年辛酉(先生三十二歲), 四月往拜曹南冥先生(植). 『惺齋日記』, 1561.4.15. 4.18.
- 5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年辛酉(先生三十二歲), ○與清香堂權竹亭文顯, 鄭永慕構, 金用貞諸公, 同會雷龍堂. … (是行與丹晉諸名勝, 探討勝賞, 俱有唱酬詩.) 『惺齋集』 권1, 「到丹城, 主倅鄭以健挽止甚款, 與孫仲翔 □□, 鄭茂仲 □□, 宋仲胤 □□, 孫衡仲 □□, 黃慶叔 □□, 同留醉吟」, 杯酒風流結好朋, 醉歸孤館冷如冰. 客中愁緒憑誰遣, 耿耿床頭一穗燈. 『惺齋集』 권1, 「星山路上, 遙望伽倻, 突兀撐空, 舉眼斯得, 而冰雪路阻, 明春歸路, 以爲登覽計」, 竹杖芒鞋取次行, 滄江一帶雪初晴. 濯纓歌罷還相笑, 水色山光眼欲明. 『惺齋集』 권1, 「贈別茂仲于衡仲江亭」, 傾蓋何嫌識未曾, 西南眞箇得高朋. 儀容秀美鼓邊玉, 談笑清眞壑下冰. 客裏班荆欣有托, 江頭分袂恨無憑. 驪駒一曲斜陽畔, 臨別題詩澁未能. 『惺齋集』 권1, 「與汝友約頭流之遊」, 扶搖南極出塵蹤, 雲外珠林喜得從. 這裏風流奇興在, 竹林烟月暮晨鍾. 『惺齋集』 권1, 「宿權景和□第, 以杯酒絲竹娛賓」, 主人非是冷書生, 杯酒絃歌慰客情. 半夜獨醒人闌寂, 起看殘月照窓明. 『惺齋日記』, 1561.4.22.~29. 1561.5.1.~2.
- 56) 퇴계의 편지에는 없지만, 『惺齋集』 권3, 「陶山書堂營建記事」에서 이 해의 일을 다루며 금보, 김부의, 금응흔, 김부륜 등도 이 일에 함께 하였다고 하였다. 또 隴雲의 곁에 齋室 두어 칸을 지어 讀書하고 肄業하는 곳을 삼으려 했다는 뜻도 밝혀놓았다. 그 뒤에 중지된 사정에 대해서는 퇴계의 편지를 그대로 실어 전했다. 李滉, 『退溪集』 卷23, 「與趙士敬」.

지었다.<sup>58)</sup> 회시(會試)를 보러 7월에 서울로 가서 8월 4일 녹명을 하고, 11일 제2소인 장악원(掌樂院)에서 부제(賦題)와 시제(詩題)에 글을 지었다. 13일에 생원시를 치러, 19일 생원시에 3등으로 참방하여<sup>59)</sup> 21일 삼첨동(三清洞)에서 방회를 열고, 29일 응방(應榜)을 하였다. 성재의 과거 이력으로 이때, 곧 1561년(신유) 8월의 생원시 합격이 방목에 기록된 유일한 것이다.<sup>60)</sup> 이 해 3월에 도산서당에 節友社가 완공되었는데 어느 날 성재가 계상에서 도산으로 갔다가 퇴계가 시 한 수를 짓자, 퇴계에게 그 시의 경지를 현인의 경우에 견주려다가 추단이 지나치다는 답변을 들었다.<sup>61)</sup>

33세 되던 해 7월 16일에 퇴계 선생, 월천 등과 뱃놀이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고<sup>62)</sup> 12월 12일에는 퇴계 선생과 단사곡, 월란대 등으로 놀러 갔다. 34세에 퇴계 선생께 편지를 올려, 왕세자의 복제(服制)와 시제(時祭), 상례(喪禮) 등의 조목을 질의하였다.<sup>63)</sup> 겨울에 외사촌 남치리(南致利)와 성재(惺齋)에 머무르며 퇴계 선생께 수업을 받았다.<sup>64)</sup>

35세 4월 14일에는 퇴계 선생을 비롯해 문인들 13인과 함께 청량산을 유람하러 나서서 3일을 머물고 17일에 내려왔다. 그 전에 봄에 성재가 고산 보현암 벽에 「입산기(入山記)」를 써놓았는데, 청량산에 들어갈 때 퇴계가 그 글을 보고 성재에게 시를 지어주자, 성재가 다시 그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sup>65)</sup> 여름에 고산에 가서 퇴계 선생을 천연대(天淵臺)에서 뵈고<sup>66)</sup>, 가을에는 일동정사(日洞精舍)가 지어져 당시 많은 이들이 시를 지어주었다.<sup>67)</sup> 성재가 이즈음 주자의 글을 읽고 퇴계 선생에게 올린 편지가 있다.<sup>68)</sup> 12월 15일 퇴계의 조카 이교(李喬, 1531~1595)가 원암촌에 집을 지어 처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떠나자 김취려, 성

5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夏往棲白雲洞書院.(與閔景退應祺, 南三松夢鰲同栖, 有次南公韻三絕.)

58) 이 시들은 일기에만 수록되어 있고 문집에는 없다.

5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年辛酉(先生三十二歲), 秋中生員會試三等.(與李蒙齋, 吳竹牖, 安東臬霽諸公同參)

60) 명종(明宗) 16년(156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46위(76/100), 『嘉靖四十年辛酉八月十九日司馬榜目』, 단국대 도서관. 『朝鮮時代 生進試 榜目』 3책, 국학자료원, 2002.

61) 『惺齋集』 권3, 「陶山書堂營建記事」, 節友社, 在巖軒東麓下. 辛酉三月所築也, 先生一日自溪上步出陶山, 有詩一絕曰, 花發巖崖春寂寂, 鳥鳴澗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 閒到山前問考槃. 蘭秀嘗問此詩, 有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 而與曾點浴沂氣象, 濂溪庭草, 一般意思同. 先生曰, 李德弘輩亦有此語, 而但推言之太過耳.

62) 이때 아쉬워하며 퇴계가 남긴 시 두 수가 있다. 李滉, 『退溪集』 卷3, 「七月既望, 期與趙士敬, 金彥遇, 慎仲, 惇敘, 琴夾之, 聞遠諸人, 泛舟風月潭, 前一日大雨, 不果會. 戲吟二絕, 呈諸友一笑.」, 戊戌欣逢赤壁秋, 相邀風月泛蘭舟. 無端昨夜江成海, 千載風流一笑休. 問月寧同白也親, 狂雲復妬我三人. 世間萬事皆如此, 悵悵難逢恰好辰.

6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二年癸亥(先生三十四歲), 上退溪先生書, 仰質王世子服制及時祭喪禮諸條.

6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冬表弟南義仲(致利), 來留惺齋, 進與受業於退溪先生.

65) 『惺齋集』 권3, 「普賢菴壁上, 書前後入山記」.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三年甲子(先生三十五歲), 春棲普賢庵, 書入山記揭壁上.(先生讀書肄業, 必占靜處, 前後入清涼者十有三焉. ○退溪先生往來遊賞, 嘗於孤山石壁, 題絕句云, 日洞主人琴氏子, 隔水呼問今在否. 耕夫揮手語不聞, 悵望雲山獨坐久. 擬於杖履所憇之地立小亭, 扁以坐久, 而力絀未就. 李滉, 『退溪集』 卷3, 「普賢壁上, 見聞遠自敘前後遊山之語, 有感」. 『惺齋集』 권3, 「敬次退溪先生普賢菴壁上詩韻」, 函筵和氣一團中, 此世依歸有退翁. 何幸名山陪賞日, 詠歸真樂浴沂同. 原韻, 少年攻苦此山中, 老作無成一病翁. 壁上看君興歎語, 此心何啻與君同.

6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夏自孤山拜退溪先生于天淵臺, 時風日暄妍景物和暢, 退溪先生曰, 今日得會心境, 君此際來到, 又得會心人. 『惺齋集』 권3, 「陶山書堂營建記事」, 天淵臺, 戊午三月, 令僧慎如輩臨水築臺, 始名滄浪者此也, 臨江斗截, 境界敞豁. 甲子夏. 蘭秀自孤山往拜先生, 先生杖履追遙於臺上, 時風日暄妍, 景物和暢, 天理流行, 無所滯礙之妙, 可得於仰觀俯察矣. 先生曰, 今日遇會心境, 君此際來到. 又得會心人矣, 因進而問曰, 鳶飛魚躍. 子思子引之以明上下昭著之理, 而特言鳶之飛魚之躍何也. 先生曰, 凡事物之自然者, 是理也. 鳶之戾天, 魚之躍淵, 豈勉強而爲之歟. 纔涉於有所作爲, 非理之自然也.

6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秋築日洞精舍.(即孤山亭, 挾翠壁俯深潭, 秀麗幽曠, 爲宣城名勝之一. 先生常攜經入栖, 悠然有自得之趣. ○一時諸賢多贈遺詩什編爲孤山志. 『惺齋集』 권1, 「孤山精舍(甲子)」, 一歲中間六度歸, 四時佳興得無違. 紅花落盡青林暗, 黃葉飄餘白雪飛. 砂峽乘風披袂服, 長潭逢雨荷簑衣. 箇中別有風流在, 醉向寒波弄月輝.

6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上退溪先生書.(答書畧曰近日讀晦庵書, 漸覺有異於初, 此學而有得之驗, 甚善甚善.) 李滉, 『退溪集』 권36, 「答琴聞遠(甲子)」.

재가 이안도 등과 함께 시를 지어 송별해주었다.<sup>69)</sup> 36세에는 친족 형 등과 계모임을 열어 퇴계가 온계(溫溪) 마을에 세운 약조에 준수해 마을 친족 계를 시행하자고 하였다.<sup>70)</sup> 37세 봄에 고산정에서 주자의 글을 읽고 퇴계 선생께 편지와 절구 시 두 수를 올리자 이에 퇴계가 차운하였다.<sup>71)</sup> 38세 7월 중순에는 역동서원 건립 공사에 농번기 백성들을 동원하게 된 일에 대해 퇴계에게 편지로 문의하자 퇴계로부터 그 공사를 7월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답신을 받았다.<sup>72)</sup> 7월 14일에는 당시 명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던 퇴계가 월천과 성재에게 편지를 보내, 조사들이 요구할 것에 대비해 계상 동재의 서가에 있는 이언적(李彦迪)의 유고를 속히 찾아서 보내줄 것을 부탁받아 실행하였다.<sup>73)</sup> 8월에는 도산에 가서 퇴계 선생께 태극에 관해 주희와 육구연의 설을 살피고 질의하였다.<sup>74)</sup>

39세 정월에 한강(寒岡) 정구(鄭逋)가 찾아왔고, 2월에 역동서원(易東書院)에서 모여 원규와 당재의 이름을 의논하여 퇴계에게 정할 것을 여쭙었다.<sup>75)</sup> 4월에 퇴계가 계상의 서재에 거처하고 있을 때 배삼익, 월천 등과 퇴계를 찾아가 배알하고 고산으로 놀러 갔다. 다음 날 퇴계로부터 2수의 시를 받았다. 성재도 이에 답하는 차운시를 지었다.<sup>76)</sup> 40세 여름에 농운정사(隴雲精舍)에 머무르며 계재(溪齋)에서 수업하였고, 11월에 현풍(玄風)에서 곽횡(郭勳)을 조문하였다.<sup>77)</sup>

41세 5월에는 퇴계가 도산에서 강한 『역학계몽(易學啟蒙)』의 수업을 받고, 7월에는 역동서원에서 강한 『심경』 수업을 받았다.<sup>78)</sup> 이때 모인 사람들은 김부필, 이숙량, 조목, 김부의, 김부륜, 금응훈, 윤흥종, 이재, 이안도, 이순도, 박려 등이었다. 9월에는 도산서당에 박사훈, 이덕홍, 남치리 등 제생과 이안도 등과 함께 모여 퇴계 선생이 강의하는 『계몽』과 『심경』을 듣고 공부하였다. 성재는 동문들과 『심경의의(心經疑義)』를 교정하였는데, 퇴계에게 교정이 정밀하고 자세하다는 평을 들었다. 11월에 아버지 첨지공(僉知公)을 모시고

69) 성재가 지어준 시는 문집에 없다. 단, 이에 경계하는 뜻을 담아 퇴계가 지어준 차운시 2수가 있다.

7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四年乙丑(先生三十六歲), 與族兄(應角), 諸公設族契會. 其立議畧曰, 洞中族契立議, 退溪先生於溫溪洞中所立之約也, 其於端睦之道, 情義兼盡, 吾洞中所居皆親戚, 連門接畔, 與溫溪大段相似, 故取以傳錄, 遵守施行.

71)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五年丙寅(先生三十七歲), 春讀朱書于孤山亭, 上退溪先生書.(答書畧曰, 朱書問目, 卒乍難辦. 今乃追報, 義理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孟子之言, 真不我欺, 其見於日用之間, 比舊差親切, 明白卑近處, 看得有高遠底, 賴問難之至, 多有警發處. ○先生手抄朱書治心養性之要及講問諸錄, 常置座右, 朝夕觀省焉. 上二絕詩于退溪先生.) 『惺齋集』 권1, 「上退溪先生二絕」, 心法相傳書與圖, 海東千載有真儒. 南歸日有扁舟興, 恬退高風邁五湖. 綽綽行藏未易窺, 幾從前席有論思. 真源見得程朱後, 正是巖棲講道時. 次韻, 退溪先生, 簡在天心最不圖, 聖門猶戒小人儒. 難將百疾干天祿, 豈慕扁舟泛五湖. 晚向塵編竊覷窺, 自欣忘食會心思. 近聞君亦朱書讀, 能有深源見得時.

72) 李滉, 『退溪集』 권36, 「答琴聞遠, 示喻運瓦事, 所云退役之難, 非不料得. 但不奪農時, 古人至戒. 吾輩平生, 誦習此等說話, 謂當如此. 今纔有一事到手, 便不用其說, 殊非本志之所願欲者, 意謂待七月間爲之, 雖未免蠶勦之恨, 不至於腐朽, 其黜色則受丹腹而可無之, 故前與士敬書, 聊發之耳. 然此事非輕, 不可以一滉言斷置, 稟議于城主及諸君善處之, 令無後悔, 幸甚. 이보다 전인 5월 11일에 퇴계가 월천에게 보낸 편지(『退溪集』 권36, 答趙士敬)에 이와 비슷한 뜻의 내용이 있어 이 이후의 일로 보인다.

73) 李滉, 『退溪集』 권23, 「與趙士敬琴聞遠(丙辰)」.

7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穆宗隆慶元年丁卯(先生三十八歲), 八月拜陶山, 講質太極疑義.(先是承退溪先生書, 齋上晦齋李先生太極問辨書. 至是取朱陸二家之說, 參攷質問.)

7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正月鄭寒岡(述), 來訪. ○二月與諸公會易東書院, 議定院規堂齋名號, 稟定於退溪先生. 先生書畧曰, 堂齋等名, 不知如此可否, 伊山院規頗詳密, 可做議定新規.

76) 『惺齋集』 권1, 「與裴汝友, 趙士敬, 朴彥秀(藝) 共遊孤山, 敬次退溪先生寄贈韻」, 良宵穩放月潭船. 身世飄如鶴背仙. 造次江山增氣色. 師門更荷兩詩傳. 溪齋前日問更端. 仁知吾家水與山. 好是扁舟明月夜. 五更風露不知寒.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5 續內集, 「裴汝友, 趙士敬, 琴聞遠, 朴彥秀(藝) 諸君, 同枉顧溪齋, 因往遊孤山. 明日, 寄呈二絕句. 聞說山潭辦釣船, 夢中乘弄覺猶仙. 勝遊此日身如繫, 空把殘杯款款傳. 敗閑吾迹太無端, 負我非山我負山. 臥想諸君追賞處, 玉峯搖影鏡潭寒.

7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年己巳(先生四十歲), 夏留隴雲精舍, 質業溪齋. ○十一月, 哭郭公(趙)于玄風.(郭公號濯清軒. 曾守本縣, 與先生契分甚厚, 至是操文往奠.) 이때 곽횡에게 지어준 제문은 문집에 없다.

7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年庚午(先生四十一歲), 七月陪退溪先生會易東書院, 時與同門諸公受心經七日.

가서 퇴계 선생을 찾아보았다. 당시 권호문이 청량산으로 가는 길에 계상서당으로 퇴계를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강의 도중 성재가 아버지를 모시고 간 것이다.<sup>79)</sup> 그리고 12월에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자, 일 년을 띠를 두르고 심상 삼년(心喪三年)을 지내며, 제문에서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이시고 나를 가르친 분은 선생”이라고 하였다.<sup>80)</sup>

성재 42세부터 45세까지는 퇴계 선생 사후 사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성재의 일기에는 이 시기가 고스란히 빠져 있고<sup>81)</sup> 『묘갈명』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 이에 성재의 문집과 연보, 관련 문인들의 문집을 주 자료로 정리한다. 3월에 퇴계 선생 장례의 절차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논변하였고, 6월에는 역동서원에서 퇴계의 문집을 모았고, 사문일록(師門日錄)을 수정(修整)하였다.<sup>82)</sup> 43세 4월에 김부필, 금보, 구봉령, 금응협(琴應夾), 유성룡(柳成龍), 정유일(鄭惟一), 이문규(李文奎) 등과 함께 부석사(浮石寺)를 유람하며 시를 지었다.<sup>83)</sup> 11월에 계당에서 기대승(奇大升)이 지은 퇴계의 묘갈문<sup>84)</sup>에 대해 퇴계 손자 이안도와 의논하여 결정하였다.<sup>85)</sup> 44세 봄에 김부필·금보·이숙량(李叔樑) 등과 확연정(廓然亭)에서 강신을 하였다.<sup>86)</sup> 45세 동문들과 함께 도산(陶山)에 상덕사(尙德祠)를 건립할 것을 의논하고, 퇴계 선생의 시호에 대하여 의논하고는 글을 지었다.<sup>87)</sup> 45세 봄에는 도산서당 뒤에 서원을 지었다.<sup>88)</sup> 46세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

7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年庚午(先生四十一歲), 陪僉知公往拜退溪先生.(權松巖好文清涼遊錄云, 與閔伯嚮, 柳應見諸公會溪堂. 方橫經問難, 報琴僉知到門. 先生翼然起迎, 吾輩鞠立庭下而望之, 蒼顏白髮, 眞地上仙也, 上退溪先生書.)

8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年庚午(先生四十一歲), 十二月辛丑, 退溪先生易箒.(先生誠心服事, 義重恩深, 暮年布帶, 心喪三年. 祭告之文, 有生我父母, 教我先生之語.)

81) 그런데 1572년 12월 연보에서는 ‘일록’을 지칭하며 인용하는 대목이 있다. 정확히 1572.12.2.~4. 그리고 8일까지의 기록을 인용하여 퇴계의 기일에 즈음해 奠을 한 일련의 과정을 적어놓았다. 이로부터 성재가 이 시기에도 일기를 썼으나 일기가 일실된 것이 분명하다.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六年壬申. 先生四十三歲, 十二月會奠先師几筵.(按日錄云二日與士敬, 章仲, 大濟, 宏仲宿陶山, 三日彥遇至, 四日奠于溪上, 八日陪靈輦還本第, 哭別諸友而歸.)

8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五年辛未(先生四十二歲), 三月會葬退溪先生, 與諸公論辨儀節.(與題誌官金潛齋就礪書畧曰士純持示誌文, 果如鄙料, 未知公見以爲如何. 愚意更爲求製於相悉之人, 追瘞於襄事之後, 正合義理. 又曰既磨造墓表, 則付喪家任意爲之, 何有嫌於不書官爵而強違遺教乎. 六月會易東書院哀集先師文集.(壬申六月, 又會易東, 修整師門日錄.)

8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六年壬申(先生四十三歲), 四月遊浮石寺. 與金後凋富弼, 琴梅軒輔, 具柏潭, 琴日休應夾, 柳西厓成龍, 鄭文峯惟一, 李公文奎同遊. 有唱酬詩. 『惺齋集』 권1, 「四月. 與金彥遇 富弼, 琴士任, 李景昭 文奎, 具景瑞, 琴夾之, 鄭子中, 柳而見 成龍. 遊浮石寺唱酬韻」, 老少羣行忘後先. 德星今夜聚山巔. 聊知千古喬松伴. 却羨高樓十八仙.

84) 奇大升, 『高峯集』 권3, 「退溪先生墓碣銘」, 『退溪先生年譜』 권2, 『鶴峯集』 권4, 「與趙月川琴聞遠」.

8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六年壬申(先生四十三歲), 十一月會溪堂議定奇高峯(大升), 所撰先師墓碣文, 有蒙齋書. / 李安道, 『蒙齋集』 권1, 「與琴惺齋」.

8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神宗萬曆元年癸酉(先生四十四歲), 春與金後凋(富弼), 琴梅軒(輔), 李梅巖(叔樑)諸公講信于廓然亭.(在芙蓉山下洛江上.)

8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先生四十五歲), 與同門諸公, 議建尙德祠于陶山. ○著退溪先生易名私議.(略曰先師退溪先生議諡之日, 洛中諸議, 以爲先生諡議不可用循例易名之典, 當用一字之諡, 以文元正三字擬之, 太常廟堂之論, 或合或不合. 先生道德, 爲考亭後一人, 太常諡法, 舍一文字奚以哉.) 『惺齋集』 권2, 「退溪先生易名私議」, 先師退溪先生議諡之日, 洛中諸議, 以爲先生諡議, 不可用循例易名之典. 當用一字之諡, 以文元正三字擬之, 太常廟堂之論, 或合不合云. 日休公問于余曰, 本國未嘗有一字爲諡者如何. 余答曰, 自周公制諡, 天子之正卿, 諸侯之三卿, 其卒皆有諡, 而考諸史傳. 並無二字之諡, 文武周公之大聖, 雖二字不能盡表其盛德, 而以一字加之者, 豈無其意乎. 宋之諸賢, 亦多有一字爲諡者, 本國議諡, 一從周公諡法, 豈可以本國所未嘗有而疑之乎. 又問曰, 文元正三字, 是濂溪伊川晦庵之諡, 是則如何. 又答曰, 周有文王穆王而臣子亦稱周文公召穆公, 魯又有文公則冒始祖之諡而春秋無譏貶. 文公後又有季文子, 亦無貶辭, 衛有二孔文子則並以一文字爲諡而無拘, 如得其實則父子君臣之間, 猶不以爲嫌, 此其有可疑者乎. 又問曰, 正字非生經公相則不可加也, 慕齋常有是言, 如宋之司馬文正王文正范文正之類, 是也如何. 又答曰, 伊川亦嘗以此爲諡, 雖非公相, 猶得用之明矣, 亦何疑於此乎. 然先生道德, 爲考亭後一人, 大常諡法, 舍一文字奚以哉.

88) 『惺齋集』 권3, 「陶山書堂營建記事」, 萬曆二年甲戌春, 一鄉士子議, 陶山先生講道之所, 不可無書院. 乃就書堂後數步而闢地營建.

시자 당시 관찰사 윤근수가 부의를 보내왔고<sup>89)</sup>, 많이 이들이 와서 조문하였다.<sup>90)</sup> 이 해 9월 12일부터 백운재궁(白雲齋宮)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47세 3월 5일에는 백운재궁(白雲齋宮)에 기와를 이으며 낙성하였다.<sup>91)</sup> 그리고 하실(下室)에서 궤식(饋食)하는 뜻을 묻는 남치리의 편지에 사우례(士虞禮)를 근거로 답하였다.<sup>92)</sup>

한편 성재는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 아들들, 곧 첫째 경(憬)과 둘째 업(爨), 그리고 셋째 개(愷)의 수학과 과거 여정에 대해 일기에 세세히 기록하였다. 성재는 퇴계 생전인 1570년에도 세 아들들과 용수사(龍壽寺)에 머물며 퇴계 선생에게 글을 올리자, 격려의 뜻이 담긴 답신을 받은 적이 있었다.<sup>93)</sup> 그 후 1576년 8월 15일 성재의 첫째 아들 경(憬)과 둘째 아들 업(爨)이 서울로 별시를 보러가기 위하여 떠났다가 9월 20일에 서울에서 내려온 일, 48세 4월 24일에는 둘째 업(爨)이 봉화현에서 월천에게 『고문진보(古文眞寶)』 후집(後集)의 내용을 질문한 것 등이 보이고, 이때 세 아들 모두 월천에게 수학하게 한 사실은 연보에도 기록되어 있다.<sup>94)</sup> 이후로도 9월 28일 첫째와 둘째, 셋째가 고산에서 청량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다거나, 11월 1일 청량산에 가서 성재가 이들을 만나고 데리고 왔다는 기록, 11월 3일 셋째 아들이 봉화에서 산으로 들어갔다는 견문 기록까지 보인다.

한편 이 해 5월에 아버지 상을 마치고, 8월 2일에는 향교에서 석전(釋奠)에 참석하여 석채례(釋菜禮)를 행하였다.<sup>95)</sup> 고을 수령 유몽정(柳夢鼎, 1527~1593)이 일동정사(日洞精舍)를 내방하여<sup>96)</sup>, 8월 25일 일동정사(日洞精舍)에 올라가 장원(莊園)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윤8월 7일 체직되어 떠나는 유몽정을 전별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10월 14일에 김부필의 부음을 듣고 제문을 지었고<sup>97)</sup>

49세 1월 27일 첫째와 둘째 아들과 도산서원에서 『소학』을 강하였고<sup>98)</sup> 3월 14일 셋째 아들이 오수영(吳守盈, 1521~1606)에게 시를 배웠다. 봄에 일휴당(日休堂)에서 김부익(金富儀), 김부륜, 김륜(金玪) 등과 모였다.<sup>99)</sup> 4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당시 봉화 수령이던 월천과 성재의 둘째 아들, 김시보(金施普), 김경룡(金景龍) 등과 청량산을 유람하였다.<sup>100)</sup> 또 8월에도 25일부터 27일까지 양사기(楊士奇), 서익(徐益) 등과 청량산을 유람하고 배를 타고 단사협(丹砂峽)과 풍월담(風月潭)으로 내려왔다.<sup>101)</sup> 이 해 11월 23일 봉사

8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年乙亥(先生四十六歲), 五月丁僉知公憂, 賁趾諸公爲相殯禮, 尹月汀根壽以方伯臨吊致賻. 八月葬僉知公于白雲山, 廬墓三年, 哀毀踰制.

90) 『惺齋日記』, 1577.5.13~1578.5.

91)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年丙子(先生四十七歲), 春白雲齋舍成, 春秋省掃之禮, 齋室典守之資, 立規定法, 爲子孫遵行.

9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年丙子(先生四十七歲), 答南賁趾書. 論下室饋食之義. 『惺齋集』 권3, 「答南義仲(致利)問目」, 不復饋食於下室. 既有殯宮. 又祀下室何義. 士虞禮. 虞而立尸有几筵. 疏曰未葬之前. 殯宮雖有脯醢之奠. 不立几筵. 其下室之內. 有吉几筵云云. 士喪禮朔月奠用特豚. 無籩有黍稷. 註饋朝夕上食也. 下室中不異生時. 殯宮中則無. 今至朔月月半乃有之. 若朔月月半殯宮中黍稷. 下室則無. 故不復饋食於下室云云. 以此觀之. 下室平生所居之寢也. 殯宮西階之客位也. 象生時故設吉几筵於寢而日上食. 惟朔望有黍稷於殯宮耳. 未知可否.

9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年庚午(先生四十一歲), 時攜三子憬, 爨, 愷. 往栖龍壽寺. ○答書畧曰所叙從前失學之由. 近日蹉脚之恨. 皆出於中. 誠非外飾空言之比可尙. 但徒知如此. 而不能深思力矯. 以收效於晚景. 則其一時慨恨自歎. 雖甚痛切. 亦何益之有哉. 吾儕既以學問爲己任. 又得此名於世間. 當十分用功. 眞如學記所謂俛焉日有孳孳. 斃而後已. 庶可不負其素志. 不取笑於人. 今當各思勉勵. 以遂此願也.

9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五年丁丑(先生四十八歲), … 送子爨受業于月川. 時月川以奉化倅. 講業諸生于鄉校. ○長子憬三子愷. 俱受業于月川.

9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五年丁丑(先生四十八歲), 五月服闋. ○八月往陶山書院行釋菜禮.(每年新正及釋菜時參謁, 以寓羹牆之慕.)

9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五年丁丑(先生四十八歲), 柳侯夢鼎來訪日洞精舍.(有次壁上韻.)

9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五年丁丑(先生四十八歲), 十月哭金後凋堂.(有祭文, 逸不傳.)

9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六年戊寅(先生四十九歲), ○與諸生講小學于陶山.

9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六年戊寅(先生四十九歲), 春與金挹清(富儀), 金雪月富倫, 金柏巖玪 會日休堂.

100) 이때의 일이 일기에 자세하다.

101)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六年戊寅(先生四十九歲), ○八月自孤山並流而下. 遊風月潭. 楊逍遙士奇徐青霞益

(奉事) 박의장(朴毅長)이 성재(惺齋)에 와서 경전을 강론했다.<sup>102)</sup>

이상 성재의 수학기에는 월천을 통해 퇴계와 사제지간을 맺은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학문도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 짐작되나, 남아 있는 저술이 없어 자세히 살펴보기 어려웠다. 다만 퇴계의 문하에서 『심경(心經)』, 『연평답문(延平答問)』,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등을 읽고, 퇴계의 『역학계몽(易學啟蒙)』 수업을 들으며, 『심경의의(心經疑義)』를 교정하는 등 퇴계에게 학문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문들과 현사사수계, 학연정강신회 등 계회를 열거나 청량산, 지리산, 부석사 등을 유람하며 폭넓게 교유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능참봉에서 봉화 현감에까지 오른 사환기

성재는 50세가 되던 1579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벼슬살이에 들어가, 4월에 유일(遺逸)로 제릉 참봉(齊陵參奉)이 되어 8월에 능침(陵寢)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sup>103)</sup> 제릉은 태종의 모후인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능으로, 현재 경기도 개풍군 부소산에 있고, 그 원찰이 연경사(衍慶寺)여서, 성재는 도성에서 머물다가 매달 이곳에 와 초하루 제사를 지내고 연경사(衍慶寺)에서 음복한 후 보름쯤 도성으로 돌아오거나 고향에 내려가는 일련의 일들을 반복한다. 이때의 여정과 만난 이들, 전별연 자리의 풍경이 일기에 자세하다. 그리고 이 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강화도를 유람하였고, 그때 신역(申櫟)이 함께 하였다.<sup>104)</sup>

51세에도 제릉 참봉으로 소임을 다하며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아들 교육에 더욱 열성을 보인다. 2월에 첫째 아들의 과거 시험을 위해 개성에 있는 정몽주 사당인 문충공 서원에서 머물다가 29일 성균관에 보내고, 3월 2일 시험장에 들어가기까지 일들을 기록하였다. 이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아들들을 데리고 천마산(天摩山)을 유람한다.<sup>105)</sup> 또 10월 23일, 29일과 11월 18일에는 둘째 아들이 『사략(史略)』을 매일 10장씩 외며 읽어간 과정을 권수마다 기록하여, 아들의 독서와 학습에 관심을 보였다. 또 지인에게 부탁하여 당시 아들이 읽을 책, 곧 한유의 글(『한문(韓文)』), 『대학(大學)』, 『고문진보(古文眞寶)』 전집(前集) 등을 빌려오기도 하였다.

이 해에도 성재는 봄가을로 고향에 내려간다. 그 전에 3월 6일 장의동(藏義洞) 한의(韓誼)의 집에서 이루어진 친족 간 계회로 육촌회(六寸會)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4월 보름에 제릉 참봉의 임무를 마치고 16일에 개성으로 가서 문충공 서원에서 지내던 아들을 만나고, 동년과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고향으로 돌아와 성묘하고 윤4월까지 지내다 5월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sup>106)</sup> 가을에는 8월에 초하루와 보름 두 번의 제사를 마치고 16일 새벽에 출발하여 용인, 충주, 영천 등지를 거쳐 24일 밤에 집에 도착해 다음날부터 친족들과 월천과 인사하고, 8월 30일 역동서원(易東書院)의 음복에 참석한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선 집안의 제사를 받들어 가묘에서 시사(時祀)를 지내고 증조할머니의 기제사를 지낸 후<sup>107)</sup> 고향 지인들과 만나 강신회에 참석하여 두루 만나고<sup>108)</sup> 서울에 올라가기 전 전별도 받는다.<sup>109)</sup> 이후 11월에는 고향 집에서 보

同遊。而有孤山亭次贈詩。 이때의 일이 일기에 자세하다.

10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六年戊寅(先生四十九歲), 朴奉事(毅長), 來住惺齋, 講質經傳.

10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七年己卯(先生五十歲), 四月除齊陵參奉.(以遺逸薦授.) 八月承命修治陵寢. ○遊沁都.(申公櫟贈詩有云, 聞說孤山洞裏天, 他日贏糧往問仙.) 신역이 남긴 시가 있어 이를 통해 성재와 강화도 유람을 같이 한 인물이 신역임을 알려 준다.

10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七年己卯(先生五十歲), ○遊沁都.(申公櫟贈詩有云, 聞說孤山洞裏天, 他日贏糧往問仙.) 이때 신역이 남긴 시를 통해 성재와 강화도 유람을 같이 한 인물이 신역임을 알려 준다.

10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八年庚辰(先生五十一歲), 二月攜子櫟, 恪遊天磨朴淵. 至崧陽謁圍隱鄭先生祠.(留二子讀書院中.)

10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八年庚辰(先生五十一歲), 四月由暇還鄉.(每春秋受由還鄉, 省掃先壟.) 그 여정의 기록이 일기에 자세하다.

107) 『惺齋日記』, 1580.9.4. 1580.9.8.

10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八年庚辰(先生五十一歲), 秋謁廬江尊道祠.(與裴臨淵(三益), 同會.) 1581.9.24.

내온 편지를 받아 보았다.<sup>110)</sup>

52세에도 제릉 참봉으로 정월 초하루와 10일 제사를 받들고 연경사에서 음복하는 등 능참봉의 임무를 다한 후에는 인근에 있는 풍덕의 관호루(觀湖樓)에 오르거나 파주의 적취정(滴翠亭)을 가는 등 서울 벼슬 살이를 이어갔다.<sup>111)</sup> 또 절기에 따라 단오제, 춘향제 등의 제사를 지냈다.<sup>112)</sup> 이 해에는 정월 보름쯤 고향을 향해 떠나 충주, 영천을 거쳐 집에 도착해 3월에 이안도와 월천서당에서 모였다가<sup>113)</sup> 배삼익 등의 전별을 받으며 다시 서울로 향해 보름쯤 서울에 왔다. 그리고 또 봄가을, 곧 4월과 9월에는 고향에 내려와 성묘하며 한 달 이상씩 머물고 서울로 가기도 하였다. 이 해 11월 19일에 성재는 집경전(集慶殿) 참봉이 되었다.<sup>114)</sup> 집경전은 경주(慶州)에 있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전각이다.

53세에는 집경전 참봉으로 정월에 동료와 함께 임금의 초상(曄容)을 봉심(奉審)하고<sup>115)</sup> 초하루 제사를 지냈다. 그 후 2월까지 지인들과 만나고 경주 부윤이 베푸는 잔치에서 풍류를 즐겼으며,<sup>116)</sup> 그 사이 금장대(金藏臺)에 놀러가기도 하였다. 3월 초에는 고향에 가는 성재를 전별해주는 잔치가 의풍루(倚風樓)의 누대와 벽하정(碧荷亭) 등지에서 있었고, 3월 10일 고향에 돌아온 성재는 찾아온 친척들을 만난 후 저녁에 역동 서원(易東書院)에서 월천 등과 만났다. 23일 월천, 4월 5일 숙부의 생신에 참여하고, 8일 마을 강신회(講信會)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당시 역질이 번져 친척과 지인의 부음을 듣고 아들을 조문에 보냈으며<sup>117)</sup>, 5월 17일에 아들 경(憬)을 고산(孤山)에 보내 퇴계 선생이 지은 절구 시를 절벽에 모각하게 하고, 20일 다시 경주로 향하여 26일 도착하였다.

이 해 7월에는 경주 유람을 다녔다. 봉황대(鳳凰臺), 불국사(佛國寺), 이견대(利見臺) 등지를 다니고 토함산(吐呑山)에서 점필재 선생의 시에 차운하였다.<sup>118)</sup> 30일에 집경전 재실(殿齋)로 돌아와 초하루 제사를 지내고 다시 8월 4일 남원(南院)에 갔다. 지인들을 만나 함께 월성(月城), 분황사(芬皇寺), 포석정(鮑石亭), 오릉(五陵) 등을 보고 돌아와 경주 부윤에게 시를 올렸다.<sup>119)</sup> 8월 16일에는 고향으로 향하여 20일 집에 와서 22일 역동 서원에 가 월천과 지인들을 만났다. 9월에는 해마다 고향에서 하던 의례를 행한다.<sup>120)</sup> 20일 경주로 향하여 영덕을 거쳐 24일 경주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10월 2일 고향으로 갔다가 27일 경주로 돌아온다. 이때 고향 가는 길에 옥산 서원(玉山書院)에 들러 당시 서원 원장이던 손엽(孫曄)의 접대를 받고, 이 언적의 아들 이준(李浚) 집을 방문하였으며, 이경해(李景海) 등과 산수를 감상하였다.<sup>121)</sup>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백율사(栢栗寺)에 올라 퇴계 선생의 편지와 시를 첩(帖)으로 꾸며 5책으로 나눴다. 12월 고향에 있는 동안 둘째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며느리가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할 때는 이들에 걸쳐 잔치를 마련해

9.25. 9.26. 9.27.

109) 『惺齋日記』, 1581.9.28.~29.

110) 『惺齋日記』, 1580.11.5. 1581.7.24. 이듬해에도 그와 같은 기록이 있다.

111) 『惺齋日記』, 1581.7.15. 1581.8.15.

112) 『惺齋日記』, 1581.7.8.

11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九年辛巳(先生五十二歲), 三月與李蒙齋(安道), 會月川書堂.

114) 이에 성재의 관직 제수 과정이 이어진다. 『惺齋日記』, 1581.11.22. 12.6. 12.25.~2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九年辛巳(先生五十二歲), 十一月換集慶殿參奉.

11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年壬午(先生五十三歲), 正月與同僚李(弘愨), 奉審曄容.

116) 『惺齋日記』, 1582.1.15. 1.24. 1.30. 2.2.

117) 『惺齋日記』, 1582.4.16.~20, 23.

11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年壬午(先生五十三歲), ○八月遊鮑石亭利見臺, 有詩什. 『惺齋集』 권1, 「向利見臺過吐呑山, 次佔畢齋金先生韻」, 秋風匹馬亂山中, 歷盡烟霞一萬重. 十載歸來人事改, 青山依舊樹鬆鬆. 1582.7.8. 7.27.~29.

119) 『惺齋日記』, 1582.7.30. 1582.8.4. 8.8.

120) 『惺齋日記』, 1582.9.1.

121)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年壬午(先生五十三歲), 冬會玉山書院, 與孫公曄, 李景海諸公, 講討晦齋先生遺文, 賞溪亭泉石. 1582.10.2.

지인들에게 대접하였다.<sup>122)</sup>

54세 1월 1일에 가묘에 제사를 지내고, 동네 손님들에게 대접하였다. 2월에는 세 아들 모두 과거 시험을 보러 나서서, 첫째가 4일에, 둘째와 셋째는 7일에 떠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성재는 2월에 경릉 참봉(敬陵參奉)이 되어<sup>123)</sup> 동네 지인들의 전별을 받으며 서울로 향해 영천, 풍기, 단양, 이천 등지를 거쳐 윤2월 1일 서울에 있는 정탁의 집에 도착해 지내며, 조정에 나아가 숙배하고 대제(大祭)와 환안제(還安祭)까지 치르는 등 임무를 수행하였다.<sup>124)</sup> 이때는 고향의 식구들도 함께 올라와 15일 보름 제사를 마치고 두모포로 가서, 배를 타고 온 식구들을 맞이하였다. 경릉은 추존왕 덕종과 소혜왕후의 능으로,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서오릉 안에 있다. 3월부터 성재는 본격적으로 초하루 제사를 지내러 이들 전 그곳에 갔다가 보름에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는 능참봉의 생활을 반복한다. 도성 안에서는 지인들을 만나고 전별 자리 등에 참석한다.

4월부터 성재는 과거를 치른다. 먼저 성균관에서 녹명을 한 후 알성별시(謁聖別試)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합격한 이를 축하해주러 다녔다.<sup>125)</sup> 그리고 10일에 하향제(夏享祭)를 지낸 후 도성에 들어와 18일 수각동(水閣洞)에서 육촌회(六寸會)에 참석하였다.<sup>126)</sup> 이때도 이교, 이봉원 등과 교유가 이어졌고<sup>127)</sup>, 종정도(從政圖) 놀이를 같이 하며, 사마시 동년과도 만났다.<sup>128)</sup> 이 해 5월에는 서울에 연일 큰 비가 왔다는 기록이 있다.<sup>129)</sup> 7월에도 과거 시험을 보러 성균관에 가서 종장(終場)에서 책문을 제출하였고, 이때는 아들들도 같이 시험을 치러 첫째 아들이 입격하였고,<sup>130)</sup> 8월에 첫째 아들이 전시(殿試)에서 책문을 제출한 후<sup>131)</sup> 황여일(黃汝一)이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갔다.<sup>132)</sup> 가을에는 성묘하러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도성에 머물며 매달 초하루 제사를 지내는 능참봉의 임무를 하다가 10월에 두모포로 들어온 월전을 맞이한다.<sup>133)</sup> 그리고 12월 12일에 정시(廷試)를 보고 책문(策問)을 제출하였다.

55세에도 경릉 참봉으로서 초하루 제사와 보름 제사를 맡아 하였고, 4월에 하향제(夏享祭), 10월에 동향제(冬享祭), 12월에 납향대제(臘香大祭)와 같은 제사도 올렸다.<sup>134)</sup> 끝나고는 동료들과 답청(踏靑)이나 중앙절과 같은 풍속을 즐기기도<sup>135)</sup>, 천렵, 뱃놀이, 활쏘기 등을 하며 그때마다 참석한 이들을 기록하였다.<sup>136)</sup> 그 외에는 도성에서 지내며 조정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적거나<sup>137)</sup>, 지인의 전별연에 참석하고<sup>138)</sup> 이교, 배삼익, 정탁 등과 교유하는 일상이 이어진다.<sup>139)</sup> 또 아들들의 과거 시험에 관심을 갖고 도모한 일들<sup>140)</sup>과 딸

122) 『惺齋日記』, 1582.12.10. 12.16. 12.19. 12.20. 12.21.~22.

12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一年癸未(先生五十四歲), 二月除敬陵參奉.

124) 『惺齋日記』, 1583.윤2.3.~8. 윤2.11. 윤2.13.~14.

125) 『惺齋日記』, 1583.4.2. 4.4.

12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一年癸未(先生五十四歲), ○四月設六寸會於水閣洞. 按日錄李四宰陽元, 權參議德興, 宜川守季玉, 成川守叔玉, 寧提令天與, 鄭參議復始, 趙郡守宗道, 趙奉事鵬, 韓察訪恒, 韓縣監讓, 權大成, 趙堪, 李孝元, 李義元, 金軫, 安世得同參. 蓋諸公俱爲同會祖親. 庚辰三月丁亥九月. 皆修契會. 圖繪以傳. 傳爲洛中勝事. 李栗谷 珥 來訪. 先生與月川書曰李叔獻以陶山契分. 累次委訪於直廬. 余亦因事相見. 辭語款曲. 時論亦皆平淡. 而其後見諫院諸疏啓. 未免太峻激. 未知於兄見以爲如何.

127) 『惺齋日記』, 1583.4.24. 4.27. 7.2. 7.3.

128) 『惺齋日記』, 1583.4.28.~30.

129) 『惺齋日記』, 1583.5.15. 5.20.~23.

130) 『惺齋日記』, 1583.7.1. 7.6. 7.15.

131) 『惺齋日記』, 1583.8.24.

132) 『惺齋日記』, 1583.8.28.

133) 『惺齋日記』, 1583.10.10.

134) 『惺齋日記』, 1584.4.3. 10.7. 12.17.

135) 『惺齋日記』, 1584.3.3. 9.9.

136) 『惺齋日記』, 1584.3.9. 5.1. 5.15.~16.

137) 특히 성균관이나 과거와 관련한 소식이 많다. 1584.1.16. 3.24.

138) 『惺齋日記』, 1584.1.19. 2.1. 7.21. 7.25. 8.27.~28. 1584.9.10.

의 병 소식을 듣고도 기록하였다.<sup>141)</sup> 다른 것은 이 해부터 성재의 생일잔치가 간혹 나온다는 것이다. 성재 생일인 2월 13일 저녁에 동료와 함께 집에서 보내온 백주(白酒)를 마시고 이야기하며 보냈다. 그 외에 지인들의 추노를 잡는 일을 돕기도 하고<sup>142)</sup>, 이순도(李純道)와 이봉원의 부음을 듣고 조문을 하러 가기도 하였다.<sup>143)</sup> 그리고 퇴계의 제자로 그 사후 유교 수습에도 힘쓰며<sup>144)</sup> 『화담집(花潭集)』을 읽은 데 대한 변론의 글(「讀花潭集辨」)을 썼다.<sup>145)</sup> 이 글은 5년 전 성재가 서울 벼슬살이를 시작하던 첫 해 7월에 유수(留守)가 책을 보내와<sup>146)</sup> 꼼꼼히 읽고 쓴 것이었다.<sup>147)</sup>

56세에도 경릉 참봉으로 임무를 다하는데, 1월에 춘향대제(春享大祭), 3월에 한식대제(寒食大祭), 5월에 단오제(端午祭), 11월에 동지대제(冬至大祭), 12월에 동향대제(冬享大祭)를 지내고<sup>148)</sup> 제사가 끝나고는 천렵 등을 한 기록도 보인다.<sup>149)</sup> 2월에는 김우옹이 숙직하는 데 찾아와주었다.<sup>150)</sup> 아들들이 승보시(陞補試)에 모두 입격한 사실과 함께 과거 시험, 독서 과정에 관해서도 기록하였는데, 특히 막내아들 각(恪)의 독서 과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를 당시 성주에 머물던 허봉(許篈)에게 보내 수학하게 한 일이 있다.<sup>151)</sup> 성재도 스스로 『강목(綱目)』을 베껴 쓰며 학문한 기록을 남겼다.<sup>152)</sup> 이 해에는 지인들의 문명을 다니고<sup>153)</sup>

139) 『惺齋日記』, 1584.2.22.2.23.11.4.11.27.12.20.

140) 『惺齋日記』, 1584.12.14.

141) 『惺齋日記』, 1584.2.29. 1584.4.17.1584.7.12.1584.7.14.12.6.

142) 『惺齋日記』, 1584.3.9. 3.10.

143) 『惺齋日記』, 1584.6.25.~26. 1584.6.25. 6.26. 1584.8.15. 8.17.

144) 『惺齋日記』, 1584.8.15. .

14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二年甲申(先生五十五歲), 作徐花潭理氣說辨.

146) 『惺齋日記』, 1579.7.5. 이 날 일기에는 화담집을 유수에게 받았다고 하였으나, 문집에 따르면 성재는 화담집을 읽고자 우경선에게서 얻어 보았다고 하였다. 경선은 우성전(禹性傳, 1542~1593)의 자로, 그는 1581년 수원부사에서 파직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유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후 8.24.에 화담을 탐방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화담을 만났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147) 『惺齋集』 권2, 「讀花潭集辨」, 徐花潭學問, 近世所罕. 吾黨之崇奉不爲不少, 而嘗於先師門下得聞緒餘, 則以認理爲氣爲其所病處, 第以未見所著全集, 不敢輕爲之論說矣. 遊宦京師, 日與搢紳士友相接, 非毀其學者固多, 而篤信之者亦十之八九矣. 余於是益爲之疑之於心而莫知證嚮矣, 從禹善善得其遺集而讀之. 始知向者所聞非虛, 而余之所見爲不徒也. 其曰原氣太虛, 淡然無形, 至邵翁不得下一字處云者, 是言氣也. 其曰易所謂寂然不動, 中庸所謂誠者自成云者, 是言理也. 澹然之體, 渾然之用云者, 又言氣也. 濂溪於此不奈何, 只消下語曰無極而太極云者. 又以氣爲理也, 其理氣說, 以易所謂寂然不動. 濂溪所謂無極而太極爲太虛, 原其所以能合散開闔動靜生克者, 名之曰太極, 而虛本無窮, 極亦無窮云者, 以太虛專爲理也. 又曰虛者氣也, 又曰靜虛即氣之體也云者, 又以大虛爲氣也, 蓋於理氣之分, 初無的見, 故言之無主張如是. 又以澹一清虛者爲太虛, 又以一陰一陽流行者爲氣, 有若一陰一陽之前, 別有所謂澹一清虛之氣者然, 此不但不識理也. 又不能識氣也, 至於死生鬼神說, 有聚散而無有無之說, 與夫一草一木之微, 一片香燭之物, 其氣終亦不散云者, 自以謂得程朱微旨, 而其餘縱橫爲說, 皆是此意. 無一語無病, 無一處可通, 蓋其爲學, 讀書講論之工少. 自信自主之意勝, 故雖曰吾學已到誠意境界, 而其所需工夫, 猶未端的, 是以退溪先生與南彥經書曰其學似朴而實誕, 似高而實雜. 又曰花潭公所見於氣數一邊路熟, 故未免認理爲氣, 亦或有指氣爲理者, 此則指理氣等說而言也. 又曰火之既滅, 爐中猶有薰熟, 久而方盡, 夏日日既落, 餘炎猶在, 至夜陰盛而方歇, 皆一理也. 但無久而恒存, 亦無將已屈之氣, 爲方伸之氣, 此則指鬼神死生之說而言矣. 又答鄭子中書曰許太輝以花潭比之橫渠, 而其著述, 某皆見之, 不知可比西銘者何, 可比正蒙者何. 蓋先生深知其學, 故辨說如是, 而從遊諸公一味尊信. 或謂花潭實兼張邵諸賢, 或謂花潭功不在橫渠下, 今世不知其實者, 安得不靡然從之乎. 由是之懼, 略論梗槩, 以爲後日觀省之資云爾. /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二年甲申(先生五十五歲), 作徐花潭理氣說辨. 성재가 화담집을 접한 때는 일기에 1579년이라 하였는데, 그에 대한 변론의 글을 쓴 시기가 연보에 1584년이라 되어 있어, 그 사이 5년이나 간격이 뜨므로, 연보의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148) 『惺齋日記』, 1585.1.3. 1585.3.6. 5.5. 11.2. 12.5.

149) 『惺齋日記』, 1585.4.1.

15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三年乙酉(先生五十六歲), 二月金東岡(宇顛), 來訪直廬.

151) 『惺齋日記』, 1585.1.6. 1585.1.17. 2.10. 2.11. 2.12. 2.17. 4.9. 4.11. 6.5. 7.21. 10.6. 10.24. 10.26. 11.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三年乙酉(先生五十六歲), 十一月送子恪受業于許荷谷(鈞).

152) 『惺齋日記』, 1585.6.4. 6.17. 6.24. 7.9. 8.2. 8.12.

153) 『惺齋日記』, 1585.1.1. 1.4. 1.7.

자신과 월천의 병치레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sup>154)</sup> 이교, 배삼익, 정탁 등 지인들과 교류하며 전별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다.<sup>155)</sup> 숙부 금보(琴輔, 1521~1584)의 부음에 조문하고, 함께 온 이들도 기록도 있다.<sup>156)</sup> 가을에는 휴가를 받아 윤9월에 보름 제사를 마친 후 고향을 향해 출발하여 용인, 충주, 단양 등지를 거쳐 집에 도착하자마자 숙부의 빈소로 갔다.<sup>157)</sup> 그 외에도 부음을 들은 이들의 빈소에 찾아가 예를 갖췄다.<sup>158)</sup> 10월 1일에 시제를 지내고 여러 지인들의 전별을 받으며 3일 떠나 영천, 풍기, 단양, 이천을 거쳐 10일 도성에 들어왔다. 12월에 장흥고(長興庫) 봉사(奉事)가 되었다.<sup>159)</sup> 그리고 이 해 월천이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사직하고 내려가자 성재가 시(「廣津舟中, 送月川南歸.(乙酉)」)를 지어주었다.<sup>160)</sup>

57세에는 관직이 조금 바뀌어, 1월에 제관<sup>161)</sup>, 4월에 경릉(敬陵) 알자(謁者), 8월에는 경릉 제사의 찬자(贊者)되었다.<sup>162)</sup> 그보다 먼저 1월에는 장흥고(長興庫)에 입직하여 2월에 그곳 물품들을 검사하는 번고(反庫) 업무를 하며 청대(請臺)하였다.<sup>163)</sup> 그리고 5월에는 방물표(方物表)를 지어 올렸고<sup>164)</sup> 동료들과 장흥고 계회(長興庫契會)를 만들어<sup>165)</sup> 제사를 마친 뒤 이들과 천렵을 하기도 하였다.<sup>166)</sup> 이 외에 월천, 배삼익, 정탁, 이교 등과 교류하였고, 이 해에는 특히 윤탁연, 허엽, 허봉, 김우옹 등과 교류한 기록도 보인다.<sup>167)</sup> 아들의 독서와 학문 활동에 대해, 특히 당시 성산에 와 있던 허봉에게 배운 아들에 대한 관심 또한 이어졌다.<sup>168)</sup> 그리고 아들의 병과 혼사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sup>169)</sup>

58세에도 경릉에서 제관의 업무를 다하다가, 5월에 강릉(康陵)에서 제관을 하게 되었고, 6월에 사직동에서 제사 드리고, 7월에는 알자로 차임되어 경릉으로 갔다가, 9월에 건원릉(健元陵)으로, 10월에는 또 경릉으로 갔으며, 12월에 장흥고 직장이 되었다가 사직 제관이 된다.<sup>170)</sup> 이 해 봄에는 특히 가뭄이 심했는지 4~5월 사이에 기우제 지내는 일이 많이 보인다.<sup>171)</sup> 그 외에 이교, 배삼익, 정탁 등 지인들을 찾아가거나 생일잔치, 송별연 등에 참석하고, 부음을 듣고 조문하러 다닌다.<sup>172)</sup> 이 해에는 특히 육촌회가 있어 그에 참석하였다.<sup>173)</sup> 또한 아들의 학업과 과거에도 관심을 가졌는데<sup>174)</sup>, 막내아들의 경우는 병에 대해 자세히

154) 『惺齋日記』, 1585.1.15. 1585.1.17. 1585.3.6. 1585.3.7.

155) 『惺齋日記』, 1585.2.22. 3.7. 3.24. 3.27. 4.10. 6.26. 6.28. 7.17 8.20. 11.16. 11.24. 12.27.

156) 『惺齋日記』, 1585.2.29. 2.30. 3.1. 3.2.

157) 『惺齋日記』, 1585.윤9.15.~20. 1585.윤9.15. 윤9.20.

158) 『惺齋日記』, 1585.윤9.25. 윤9.28.

15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三年乙酉(先生五十六歲), 十二月陞長興庫奉事.

16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三年乙酉(先生五十六歲), 送趙月川南歸(時月川以工曹佐郎辭歸. 先生贈詩云, 千里相攜過一春, 江頭送別兩逡巡. 兄歸獨占溪山勝, 愧我風埃潦倒身.) 『惺齋集』 권1, 「廣津舟中, 送月川南歸.(乙酉)」.

161) 『惺齋日記』, 1586.1.3. 1586.3.14.

162) 『惺齋日記』, 1586.4.30. 8.29. 9.27.

163) 『惺齋日記』, 1586.2.9~11.

164) 『惺齋日記』, 1586.5.14. 5.1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四年丙戌(先生五十七歲), 五月製進方物表.

16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四年丙戌(先生五十七歲), 與同僚設長興庫契會(令趙舜賓, 主簿金禔, 直長白守琮與焉. 按契帖列書官階姓諱, 附以圖繪, 松蔭隱暎, 冠佩偉然. 李鷺渚陽元題契會圖詩云松下開清樽, 齊顏氣像眞, 文華堪會友, 風采借傳神, 劇手開閒局, 高標似散人, 明時修契好, 行樂詔朝紳. 金主簿畫, 以畫家名於世.)

166) 『惺齋日記』, 1586.5.1.

167) 『惺齋日記』, 1586.1.1. 1.4. 1.23. 2.23. 3.15. 3.23. 4.4. 4.6. 4.21. 5.6. 11.11. 11.1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三年乙酉(先生五十六歲), 二月金東岡(宇顛), 來訪直廬.

168) 『惺齋日記』, 1586.2.12. 3.4. 3.17. 4.11. 4.28. 7.7. 7.24. 8.2. 11.14. 11.22. 12.24.

169) 『惺齋日記』, 1586.11.17. 11.20. 12.14.

170) 『惺齋日記』, 1587.5.30. 6.24. 7.30. 9.14. 10.30. 12.26. 12.2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五年丁亥(先生五十八歲), 十月受香往健元陵. ○十二月陞長興庫直長.

171) 『惺齋日記』, 1587.4.19. 4.28. 5.16.

172) 『惺齋日記』, 1587.1.1. 1.15. 1.22. 2.19. 3.7. 3.21. 3.26. 4.12. 4.9. 4.15. 4.18. 7.17. 10.23. 12.25.

173) 『惺齋日記』, 1587.9.20.

기록하였다.<sup>175)</sup> 성재도 다시 『강목』을 빌려와 독서하였으나 이 해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는 떨어졌다.<sup>176)</sup>

59세 1월에는 대궐에 숙배한 후 효릉(孝陵)으로 가고, 종실의 교육을 담당하는 종학(宗學)의 모임에도 참석하였으며, 2월에는 강릉(康陵)으로 갔고, 7월에 영녕전(永寧殿) 제관이 되었다. 그리고 8월에는 태릉(泰陵)에, 10월에 경릉에, 12월에 사직에 갔다.<sup>177)</sup> 당시 중국에서 종계변무의 목적을 달성한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받아 종묘에서 제사 지내고 잔치를 베푼 일을 기록하였다.<sup>178)</sup> 그리고 10월에 교정청에서 내린 연회에 참석하였는데 이는 전에 유학자들을 불러 사서와 소학 등을 번역하게 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sup>179)</sup> 그 외에 월천, 이교 등과 교유하며 지인들의 전별연 등에 참석하였다.<sup>180)</sup> 한편 2월부터 딸의 병을 치료해 주고자 애썼고<sup>181)</sup> 3~4월에는 성재도 병이 들어 막내아들과 같이 아팠다가 나았다.<sup>182)</sup> 그리고 아들들이 중학과 서학에서 강하고 과거 시험을 치렀다.<sup>183)</sup> 그런데 이 해에 막내아들은 정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례를 치르기도 하나<sup>184)</sup> 잦은 병치레로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자 통석해하였다.<sup>185)</sup> 그리고 7월에 배삼익<sup>186)</sup>, 9월에 허봉(許篈), 12월에 정작(鄭燦)의 부음을 들었다.<sup>187)</sup>

60세에도 제관으로서 1월에 태릉에서 제사 지내고, 신년하례에 참석하며, 남산에 가서도 제사를 지낸 후, 그믐에 경릉으로 갔다. 2월에 제관에 차임되어 희릉(禧陵)에, 3월에는 그믐에 경릉으로 갔다. 5월에는 문소전(文昭殿)에, 8월 보름에는 경릉에, 9월에도 배릉(拜陵)하는 여가를 따라 경릉과 창릉(昌陵)에 갔다.<sup>188)</sup> 6월에는 장예원 사평이 되었다.<sup>189)</sup> 그러면서 지인들과 교유하고 특히 동년들과도 만나며 전별연에 참석하였다.<sup>190)</sup> 이때 남산에서 제사 지낸 후 계축을 만들기로 약속하고, 목멱산동고계(木覓山同苦契)에도 참석하였다.<sup>191)</sup> 그리고 집안의 기제사 등을 받들며<sup>192)</sup>, 막내딸이 병으로 죽자 많은 이들의 조문을 받고, 죽은 딸의 상구를 운반하는 데도 도움을 받았다.<sup>193)</sup> 3월에는 시축을 나눠가지는 분축회를 가졌고<sup>194)</sup>, 아들

174) 『惺齋日記』, 1587.7.26. 8.17. 8.18.

175) 『惺齋日記』, 1587.1.13. 1.18. 7.25. 7.27. 9.3. 9.11. 11.6.

176) 『惺齋日記』, 1587.4.26. 4.28. 8.24. 12.6. 이 기록으로 보아 성재는 이 해 과거 시험에서 낙방한 것으로 보인다.

177) 『惺齋日記』, 1588.1.4. 1.7. 2.14. 7.1. 8.14. 10.14. 12.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六年戊子(先生五十九歲), 五月詣闕謝恩.(時因陳賀加資謝恩.)

178) 『惺齋日記』, 1588.5.7. 『宣祖實錄』, 선조 21년 5.7. 5.15.

17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六年戊子(先生五十九歲), 十月參校正廳賜宴.(先是設校正廳, 招集諸儒, 翻譯四子小學諸書, 是時賜宴.) 성재가 사서와 소학 등의 책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일에 베풀어준 연회에는 참석하였다.

180) 『惺齋日記』, 1588.1.4. 1.4. 1.8. 1.26. 2.6. 6.2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六年戊子(先生五十九歲), 二月餞琴日休于任亨吉家.(時日休公以河陽倅赴任. ○按梅軒(日休)諸公, 當書行第, 而依日錄具姓諱謹書, 當時亦有此例.)

181) 『惺齋日記』, 1588.2.30. 3.10. 9.20. 12.17. 12.25.

182) 『惺齋日記』, 1588.3.26. 3.27. 3.28. 3.29. 3.30. 4.1. 4.2. 4.3. 4.4. 4.5. 4.6. 4.7. 4.12. 4.18.

183) 『惺齋日記』, 1588.2.15. 2.16. 2.19. 2.24. 4.20. 4.21. 4.28. 5.6. 5.25. 8.8. 8.10. 8.29. 9.2.

184) 『惺齋日記』, 1588.2.13.

185) 『惺齋日記』, 1588.4.22. 4.23. 4.27. 5.3. 5.8. 6.5. 윤6.7. 윤6.20. 윤6.22. 7.22. 7.30. 8.5. 8.17. 8.21. 8.22. 8.24. 8.25. 8.17. 8.21. 8.24. 8.2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六年戊子(先生五十九歲), 八月哭季子恪.(聰慧絕世, 十六成文章, 十七而夭, 先生深爲痛惜.)

186) 『惺齋日記』, 1588.7.3. 7.4. 7.5. 7.8.

187) 『惺齋日記』, 1588.9.18. 12.2.

188) 『惺齋日記』, 1589.1.1. 1.3. 1.29. 1589.2.19. 3.29. 5.4. 8.14. 9.6.

18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七年己丑(先生六十歲), 六月除掌隸院司評.

190) 『惺齋日記』, 1589.1.15. 1.16. 1.19. 1.24. 2.1. 2.4. 2.6. 2.8. 2.9. 2.10. 5.25. 6.6.

191) 『惺齋日記』, 1589.1.6. 1589.1.7. 1.17.

192) 『惺齋日記』, 1589.1.27. 1.29. 5.11.

193) 『惺齋日記』, 1589.1.3. 6.9. 6.19. 9.2. 9.26. 10.6. 10.9. 10.10. 10.11. 10.14. 10.15. 10.28. 11.10.

194) 『惺齋日記』, 1589.3.5.

들이 과거 시험을 치러 첫째는 생원시에, 둘째는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여 기쁨을 누렸다.<sup>195)</sup> 성재도 『강목』을 빌려와 공부했다.<sup>196)</sup> 10월에는 당시 정여립 사건으로 조정에 나아가 군기시에서 정여립을 능지처참하는 것을 보고, 진하(陳賀)하였으며, 그 후로도 이와 관련하여 조정에서 견문한 것들을 기록하고 기축옥사에 연루된 지인들을 문안하기도 하였다.<sup>197)</sup> 성재는 12월 말에 계사를 올리고, 모화관에 칙사를 배행하러 조정에 나아갔으며<sup>198)</sup>, 영동 현감의 부망에 올랐으나 낙점되지는 않았다.<sup>199)</sup>

61세에 제관으로 2월 그믐에 사직(社稷)으로 갔다가, 조정에 나아갔고, 4월에는 종묘로 갔다.<sup>200)</sup> 그리고 정탁, 이교 등 지인들과 교유하였는데<sup>201)</sup> 1월에 종묘에 불이 나서 이굉중(李宏仲)이 옥에 갇히자 그를 위해 옥바라지를 하며 김성일에게 구조회문(救助回文)을 내기도 하였다.<sup>202)</sup> 3월에는 통신 부사로 떠나는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을 한강에서 전별하며 시를 지어주었다.<sup>203)</sup> 또 고향에서 아들이 성균관에 들어가느라 도성에 온 것을 맞아주고, 과거 본 것들을 기록하였다.<sup>204)</sup> 그러나 이 해 4월 보름 이후 성재는 서울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윤두수 등 명사들의 전별시를 받으며 고향에 내려가<sup>205)</sup> 할아버지 기제사를 지낸 후 가묘에 초하루 제사를 지내고, 백운지(白雲池)에 올라가 성묘하며, 기제사와 시제 등을 지냈다.<sup>206)</sup> 당시 예안 현감이 기우제 지내는 데도 동참하였다.<sup>207)</sup> 그리고 고향의 많은 이들과 만나, 당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온 월천을 비롯해, 유향소 사람들도 찾아오고, 분천 동회와 향약에 참석하며 만남을 가졌다.<sup>208)</sup> 또한 지인들의 부음에 조문하였다.<sup>209)</sup> 이후 8월 초에 영천, 풍기, 충주, 단양을 갔다가 다시 영천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왔다.<sup>210)</sup> 이 외에는 줄곧 고향에 머물면서 청량산에 오르고, 상덕사(尙德祠)에 배알하며 이덕흥 등과 교유한다.<sup>211)</sup> 그리고 서울에서 들려오는 아들 소식을 기록하였다.<sup>212)</sup>

195) 『惺齋日記』, 1589.2.13. 3.11. 3.17. 3.19. 3.22. 3.27. 4.17. 11.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七年己丑(先生六十歲), 四月子憬, 櫟俱中司馬.

196) 『惺齋日記』, 1589.4.7.

197) 『惺齋日記』, 1589.10.2. 『宣祖實錄』, 선조 22년 10.2. 『惺齋日記』, 1589.10.18. 10.23. 10.27. 11.6. 11.10. 11.11. 11.13. 11.16. 12.9. 12.11. 12.1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七年己丑(先生六十歲), 十一月往問金翰林達遠(垓), 黃會元(汝一), 俞大楨于禁府.(諸公以李震吉史草徑焚事被逮.) ○與月川書.(以鄭汝立獄事, 朝著不靖, 先生常有退休之志. 書略曰閔伯嚮, 李君美皆補外下去, 宏仲亦將罷歸, 獨處無輔, 不勝俛仰, 自入劇司, 無一日之暇, 欲呈病決歸則慮有圖遞之嫌, 欲付僚索則勢有難安.) 성재가 당시 월천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여립 사건과 기축옥사 등으로 인해 서울에 있기 불편해하던 성재의 심정을 볼 수 있다.

198) 『惺齋日記』, 1589.12.21. 12.26. 12.2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七年己丑(先生六十歲), 陪表詣慕華館.(餞藥圃鄭相公赴上京.)

199) 『惺齋日記』, 1589.12.21.

200) 『惺齋日記』, 1590.1.21. 1589.2.27. 2.28. 4.11.

201) 『惺齋日記』, 1590.1.9.

202) 『惺齋日記』, 1590.1.21. 1.24. 1.26. 1.29. 2.22. 2.25.

203) 『惺齋日記』, 1590.3.6. 『惺齋集』 권1, 「漢江船上, 送通信使金士純之日本(庚寅)」, 蒼茫馬島接鯨波. 遙送扶桑萬里槎. 近日蠻情多反覆. 試憑公去問如何. 同學同朝四十春. 心情何啻弟兄親. 此行可遂平生志. 匏繫還嗟老病身.

204) 『惺齋日記』, 1590.3.18. 3.21. 4.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八年庚寅(先生六十一歲), 三月餞金鶴峯奉使日本.(贈行詩有忠信行蠻貊句語.)

205) 『惺齋日記』, 1590.4.17.~2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八年庚寅(先生六十一歲), 四月解職還鄉.(尹梧陰斗壽寄詩云, 半生踪跡寄朝端, 回首烟霞象外山. 這裏退陶心訣在, 蒲潭秋月鏡光寒. 金潛齋詩云, 吾人離合自多端, 公又休官入舊山. 他日扁舟期一訪, 小亭高處玉峯寒. 一時名公贈遺詩.)

206) 『惺齋日記』, 1590.4.28. 5.1. 5.3. 5.4. 5.13. 5.23. 6.1.

207) 『惺齋日記』, 1590.5.6. 5.7. 5.9.

208) 『惺齋日記』, 1590.5.10. 5.14. 5.25. 9.13.

209) 『惺齋日記』, 1590.6.6. 6.9.

210) 『惺齋日記』, 1590.8.9. 8.10.~22.

211) 『惺齋日記』, 1590.10.2. 10.3. 10.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八年庚寅(先生六十一歲), 是行歷訪島潭諸勝.(倏然有出塵之想.) 秋謁尙德祠.(與同門諸公約會, 吳春塘守盈, 權晦谷春蘭, 李良齋諸公同會.)

212) 『惺齋日記』, 1590.9.12.

62세에도 고향에서 머물며 봄에 풍호대와 총춘대에 소나무를 심고<sup>213)</sup> 고산에 들어가 녹음대에 국화를 심었다.<sup>214)</sup> 월천 등과 더욱 가까이 교유하였고<sup>215)</sup> 훈도 안응규와 사우대(四友臺)을 유람하며 그에게 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sup>216)</sup> 또 둘째 아들이 장가가 되게 며느리를 맞이해 잔치를 벌였으며<sup>217)</sup> 첫째와 둘째 아들이 경산(慶山)에서 별시를 보았고, 둘째 아들은 8월 사마시에 합격한 후 도산서원의 현관이 되었다.<sup>218)</sup> 그리고 성재는 강신회에도 참석하였다.<sup>219)</sup>

이듬해인 1592년 4월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sup>220)</sup>, 4월 이전에는 아들들의 학업을 점검하고<sup>221)</sup> 신극검(申克儉)과 아들들에게 시를 지어 보여주기도 하며 일상을 보내다가<sup>222)</sup> 4월부터 왜적의 침입 소식이 들려와 가족들과 함께 피난 가며, 서울에 있던 아들이 피난 오는 등 난리를 겪는다.<sup>223)</sup> 다른 이들의 피해 상황과 도성의 함락 소식도 기록하였다.<sup>224)</sup> 그 와중에 딸이 또 목숨을 잃어 장례를 치르고<sup>225)</sup> 아들은 창군(槍軍)을 뽑는 일에 참여한다.<sup>226)</sup> 성재는 급격한 왜적의 침입에 집안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갖은 애를 써서 대비하였다. 먼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가족들의 피난처를 알아보고 월명담(月明潭) 주변의 석굴로 숨었다가 왜적이 고향까지 침입해오자, 반구대 석굴로 옮겨 숨고, 왜적의 약탈이 심해져 용두 절벽(龍頭絕壁)으로 숨었다가 왜적이 안동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서재로 내려왔다.<sup>227)</sup> 이후로도 왜적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마을 차원에서 왜적의 침입에 대비해 향병(鄉兵)의 일을 의논하는 데 참석하고, 첫째 아들은 군량 유사(軍糧有司)로 활동하기도 하였다.<sup>228)</sup> 그런 한편으로 일상의 교유는 이어갔다.<sup>229)</sup>

이듬해 성재 64세에도 왜적의 침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1월 말에 명나라 군사가 평양성을 소탕했다는 소식, 11월에 경주가 포위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sup>230)</sup> 당시 흥역이 돌아, 그로 인해 죽은 지인의 초상이

- 21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九年辛卯(先生六十二歲), 春修築風乎臺, 總春臺植松.(先生性好種樹. 自易東觀水臺, 至院郊三叉水淵, 連亘三數里, 栽植松林, 蔚然蒼翠, 以帶司評時, 故月川名曰司評松. 見邑志. 『惺齋日記』, 1591.2.23.
- 214) 『惺齋日記』, 1591.4.1. 4.4.
- 215) 『惺齋日記』, 1591.1.30.
- 216) 『惺齋日記』, 1591.3.29. 윤3.1.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九年辛卯(先生六十二歲), 四月與安訓導(應奎), 遊薪巖, 卽四友臺. 詳見原集唱酬詩註. 『惺齋集』 권1, 「解官家居, 偶吟一絕, 呈安文叔(應奎)」, 人間得失付蒼天. 白首重逢豈偶然. 況值山中花柳節. 不妨携手下前川. 일기에는 안응규가 차운한 시도 실려 있으나 문집에는 없다. 또 일기에는 윤3월에도 안응규에게 시를 지어주었다고 하나 문집에 실려 있지 않다.
- 217) 『惺齋日記』, 1591.5.21.
- 218) 『惺齋日記』, 1591.7.3. 7.11. 8.13. 8.2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九年辛卯(先生六十二歲), 八月子愷中司馬.(先生書, 餘慶欲將傳世業, 子孫須勸孝兼忠之句, 勉戒焉.)
- 219) 『惺齋日記』, 1591.10.30.
- 22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年壬辰(先生六十三歲), 四月倭寇陷東萊.
- 221) 『惺齋日記』, 1592.1.23. 1.25.
- 222) 『惺齋日記』, 1592.3.18. 3.29. 『惺齋集』 권1, 「薪巖石上, 續前春之會」, 谷口清潭繞石臺, 憶曾三老共傾杯. 今春又作前春會. 祇恨安君病不來. 十日山中苦滯留. 沿溪出洞洗塵愁. 況逢三友論文處. 閒把情杯款款酬.(剛州志云鳳栖庵下五里許. 訓導安應奎築臺於梧溪邊薪巖下. 與安東具鳳齡, 禮安琴蘭秀, 同郡金功, 申克儉. 爲友善. 每佳辰令節. 相與提携爲樂. 稱以四友臺云.) 『惺齋集』 권1, 「申守約(克儉), 與二子來會, 戲呈二絕」. 驚喜吾君意外來. 相將清酌勸深杯. 狂歌莫向人間說. 只做雲林好笑開. 蘭玉盈庭總好文. 賀君能見振衰門. 高歌不是嘲君意. 百尺竿頭勸進云.
- 223) 『惺齋日記』, 1592.4.12. 4.13. 4.24. 4.26. 5.1.
- 224) 『惺齋日記』, 1592.5.4. 5.5. 5.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年壬辰(先生六十三歲), 五月聞京城失守.(鑾輿播越, 西望痛哭.)
- 225) 『惺齋日記』, 1592.5.22. 5.23. 5.24. 6.3.
- 226) 『惺齋日記』, 1592.5.24.
- 227) 『惺齋日記』, 1592.6.14. 6.16. 6.28. 7.1. 7.2. 7.3. 7.4. 7.7. 7.9. 7.10.
- 228) 『惺齋日記』, 1592.7.24. 7.28. 8.18. 9.3. 9.14. 9.2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年壬辰(先生六十三歲), 募鄉兵講武于大寺郊.(州郡連陷, 閭里奔遊. 先生貽書地主, 諭以不可空城之意, 與同志糾合義旅, 推近始金公垓統其事, 以子愷爲運糧軍官兼掌書記.)
- 229) 『惺齋日記』, 1592.8.12. 11.2.

있었고, 온 가족과 집안이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sup>231)</sup> 3월에는 집안이 안전하지 않아 피난을 나가 살았다.<sup>232)</sup> 그러다 성재의 아들과 며느리들, 손자 희생(喜生)도 병이 났고, 손자는 끝내 죽었다.<sup>233)</sup> 월천도 병이 나 문병하다가 성재는 이질에 걸려 다시 월천의 문병을 받았다.<sup>234)</sup> 부인도 7월부터 병에 걸려 문병을 받았다.<sup>235)</sup> 성재는 6월에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당시 경주에서 김해(金垓)가 죽자 향병이 흩어지고 주민이 동요될 것을 진정시키고, 방백이던 김수(金晔)에게 군대를 연습시키고 관아 창고를 열어 환자를 받기도 했으나, 이질이 심하여 병장(病狀)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8월에 다시 관아에 나가 진흙미 분배로 보고서를 썼다.<sup>236)</sup> 이 해 4월에는 김성일의 부음을 듣고 애도하였고, 8월에 안동에 가서 유성룡을 만나고 왔으며, 9월에 어가가 도성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월천 등과 서울에 올라가려 했으나 가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sup>237)</sup> 성재가 고향에서 의병 활동을 하며 지도자로서 방향을 찾으려 고심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65세 1월에는 예안 현감께 수성장을 사직한다는 뜻을 아뢰었다.<sup>238)</sup> 주변에 아픈 아들의 병에는 차도가 있었다.<sup>239)</sup> 그러나 왜적의 침입이 여전하였고 항복한 왜적 소식도 있었다.<sup>240)</sup> 그런 가운데 기제사를 지내고<sup>241)</sup>, 철이면 반군대에서 철쭉을 구경하고 천렵을 하거나, 국화를 심고 술을 빚는 등 일상을 이어갔다.<sup>242)</sup> 그리고 월천을 비롯해 병난으로 어려워진 지인을 도왔다.<sup>243)</sup> 부인과 며느리가 병세에 시달렸고<sup>244)</sup> 성재도 학질에 걸려 고생하였으나<sup>245)</sup> 병이 나아선 고기잡이배를 만들고 어소를 설치하였다.<sup>246)</sup> 이에 11월에는 계상에 들러 당시 전쟁 중에도 태평한 것에 감사하며 시를 지었고<sup>247)</sup> 그믐날 퇴계 선생의 시에 차운해 예안 현감에게 시를 올렸다.<sup>248)</sup> 또 같은 날 금응협에게도 지어준 시<sup>249)</sup>와 밤에 선학대(仙鶴臺)에서 홀로 지은 시<sup>250)</sup>, 그리고 퇴계의 편지를 보고 감회에 젖어 쓴 시<sup>251)</sup>, 월천의 시를 차운한 시<sup>252)</sup> 등이 일기에

230) 『惺齋日記』, 1593.1.6. 1.27. 11.6.

231) 『惺齋日記』, 1593.1.14. 2.25. 3.14. 4.6.

232) 『惺齋日記』, 1593.3.27. 3.29.

233) 『惺齋日記』, 1593.4.6. 4.7. 4.17. 4.22. 5.13. 5.14. 5.18. 5.19. 5.25. 10.7.

234) 『惺齋日記』, 1593.4.26. 4.27. 4.28. 5.1. 5.2. 5.3. 5.4. 5.7.

235) 『惺齋日記』, 1593.7.3. 8.25. 8.26. 8.27. 11.27.

236) 『惺齋日記』, 1593.6.5. 6.15. 6.25. 8.2. 8.3. 12.1.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一年癸巳(先生六十四歲), 六月受守城將帖.(時近始金公卒于慶州, 鄉兵散落, 闔境騷擾, 鄉人推先生有是帖.) 上狀金方伯(晔), 陳一邑事宜.(先生痛念敵愾, 所在致力, 籌畫於地主, 牒報于方伯, 鍊習軍務, 開倉和糶, 一郡賴以案堵.)

23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一年癸巳(先生六十四歲), 四月哭金鶴峯訃.(當列鎮瓦解之日, 江右保障, 倚而爲重, 長城遽壞, 痛切公私, 累形於言.) 八月往安東, 與假將安汝止(霽), 馳見體察使西厓柳相公. ○九月聞車駕還都.(先生與月川, 日休諸公會鼻巖, 議跋涉赴都而未果.)

238) 『惺齋日記』, 1594.1.6.

239) 『惺齋日記』, 1594.1.11. 2.16.

240) 『惺齋日記』, 1594.1.25. 7.15.

241) 『惺齋日記』, 1594.1.29.

242) 『惺齋日記』, 1594.3.21. 3.25. 5.4.

243) 『惺齋日記』, 1594.3.9. 4.6.

244) 『惺齋日記』, 1594.3.11.

245) 『惺齋日記』, 1594.6.28. 7.7. 7.9.

246) 『惺齋日記』, 1594.8.1. 8.21. 8.22. 8.30. 9.3. 9.18. 9.8.

24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二年甲午(先生六十五歲), 一月過溪上, 感賦一詩.(兵火連年, 昌平如故, 感慕深深, 有入洞當年惕若身之句.)

248) 『惺齋日記』, 1594.12.30. 『惺齋集』 권1, 「孤山亭, 用先師韻呈主倅申之悌」, 風流太守有來聲. 物外肯問山民否. 餐霞妙訣欲一陳. 青鶴臺前坐待久. 일기와 문집에 실린 시에 글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249) 『惺齋日記』, 1594.12.30. 『惺齋集』 권1, 「奉呈琴夾之(應夾)」, 佩酒來江榭. 題詩戀玉人. 山深江路險. 誰肯好尋眞.

250) 『惺齋日記』, 1594.12.30. 『惺齋集』 권1, 「仙鶴臺月夜」, 月白沙逾白. 山青水轉青. 幽人臺上詠. 誰會此時情.

251) 『惺齋集』 권1, 「奉閱先師手簡, 感賦一絕」, 不讀孤山無益事. 師門提誨儘非輕. 老來悔悟工難着. 汨沒深慙負一

실려 있으나 이때 지은 시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66세에는 성재의 생일잔치를 비롯해 지인들의 생신연에 참석하였다.<sup>253)</sup> 그리고 2월에는 도산서원에 가서 춘향대제를 지내고<sup>254)</sup> 예안 현감께 시를 올렸다.<sup>255)</sup> 그 외에는 왜적의 침입 소식도 없고, 큰 병치레 등 없이, 향사와 향서당에 참석하고<sup>256)</sup> 김부륵 등과 부용정사를 유람하며, 가을에는 고산정에 가서 시를 주고 받는 등<sup>257)</sup> 일상의 교유가 이어졌다. 다만 10월에 이교의 부고를 들었다.<sup>258)</sup>

67세에 정월에 백동서당에 갔고, 2월에 성주 판관이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sup>259)</sup> 김부륵의 사마시 입격 모임에 참석하며 일상의 일과 교유가 이어졌다.<sup>260)</sup> 5월에 월천이 왜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고<sup>261)</sup> 성재의 부인이 아프자 월천이 보러 왔다.<sup>262)</sup> 윤8월에 퇴계 선생의 지식을 묻는 일로 동암(東巖)에 가서 묘지(墓誌)를 물었다.<sup>263)</sup> 11월에 평해의 스님이 찾아오자 그들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sup>264)</sup> 벼슬을 그만 두고 가는 예안 현감 신지제(申之悌, 1562~1624)에게 퇴계가 모은 잠명인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을 써서 주었다.<sup>265)</sup>

68세에는 정월에 영지회(靈芝會)를 만들고<sup>266)</sup>, 2월에 강신(講信) 모임<sup>267)</sup>, 3월에 봉사 동회에 참석하였다.<sup>268)</sup> 당시 왜군의 침략이 심해져 관재우가 의병을 모집하자 첫째 아들을 화왕산성으로 보내 참여하게 하였고<sup>269)</sup> 4월에는 체찰사 이원익과 천연대에서 모였다.<sup>270)</sup> 그러나 5월에 성재는 가래가 끊고 숨이 차 초정약수에 가서 목욕을 한 후 향교에서 조리하고 지인들의 문병을 받으면서도<sup>271)</sup> 수성장 직을 다시 받아 지인들과 군량(軍糧)을 모으고 의병 활동을 지지하였다.<sup>272)</sup> 8월에 왜적이 한산도에서 우리 수군을 격파하고,

生。

252) 『惺齋集』 권1, 「次月川韻」, 七十今逢歲又逾。少年華佩已焉休。月川賴有高人住。衰暮追從慰 缺 愁。

253) 『惺齋日記』, 1595.1.23. 2.13. 3.23. 4.8.

254) 『惺齋日記』, 1595.2.14.

255) 『惺齋日記』, 1595.2.18. 『惺齋集』 권1, 「臘梅政開。吟成一絕。奉呈申明府」, 蘿菴山前一朶梅。山民兼把酒杯來。風流太守眞仙骨。酷愛清香不汝猜。

256) 『惺齋日記』, 1595.10.13.

25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三年乙未(先生六十六歲), 與琴勉進金雪月諸公遊芙蓉精舍。○秋復會孤山亭。(有感懷唱酬詩。)

258) 『惺齋日記』, 1595.10.1. 12.14.

259) 『惺齋日記』, 1596.1.1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四年丙申(先生六十七歲), 正月往柏洞書堂, 奉審集慶殿辟容。(先是參奉鄭芝軒士誠, 洪公汝栗, 自慶州奉安于柏洞。時巡察使洪公履祥以奉審事來到。先生與雪月金公, 迎接于書堂。)○洪公歷訪孤山亭。(有次壁上韻。)二月除星州判官不赴。

260) 『惺齋日記』, 1596.1.19.

261) 『惺齋日記』, 1596.5.18.

262) 『惺齋日記』, 1596.6.6. 6.7. 6.11.

263) 『惺齋日記』, 1596.윤8.1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四年丙申(先生六十七歲), 八月往東巖, 奉瘞先師墓誌。

264) 『惺齋日記』, 1596.11.17. 『惺齋集』, 권1, 「題海莊山人詩卷」, 獨坐寒齋日。欣逢物外人。悲歡談世事。半日暢精神。

26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四年丙申(先生六十七歲), 書古鏡重磨方贈申明府。(古鏡重磨方 退溪先生所哀集古今箴銘。申公數年爲宰, 從遊甚勤, 至是解歸, 書此以贈。)

26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五年丁酉(先生六十八歲), 正月作靈芝會。(李佐郎詠道, 金佐郎涌, 李光承, 金中淸諸公同參。)

267) 『惺齋日記』, 1597.2.7.

268) 『惺齋日記』, 1597.3.20.

269)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五年丁酉(先生六十八歲), 四月又會淸吟石, 送子憬赴火旺山城。(時倭寇再猖, 郭志憂再佑修築城堡, 興舉義旅, 先生送子應募。○有同盟錄。)

27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五年丁酉(先生六十八歲), 四月會體察使梧里李相公(元翼), 于天淵臺。

271) 『惺齋日記』, 1597.5.15. 5.19. 5.21. 5.24. 5.25. 5.26. 5.27. 5.28. 6.4. 6.5. 6.7. 6.8. 6.9. 6.11. 7.2. 7.10. 7.27. 8.1.

27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五年丁酉(先生六十八歲), 再受守城將帖。○差琴潔, 柳誼, 孫興孝, 李慶元收

9월에는 용궁과 예전을 노략질하였으며 상주 지역으로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었다.<sup>273)</sup> 그리고 11월에는 명나라 군사가 고향에 들어왔고 12월에 울산에서 전투를 벌여, 왜적을 격파하였다는 소식도 들었다.<sup>274)</sup> 이듬해에 69세 1월에 명나라 장군이 울산 전투에서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sup>275)</sup> 도산서원과 역동서원 사당에 참배하였고<sup>276)</sup> 한준겸이 일동정사에 와 시를 남겼다.<sup>277)</sup> 가을에는 향서당에서 향약을 강구해 시행하였다.<sup>278)</sup>

성재는 70세에 봉화현감이 되어<sup>279)</sup> 서울에 숙배를 하러 가느라 고향 지인들의 전별을 받는다.<sup>280)</sup> 서울 가는 길에 원주를 들렀는데 왜적의 침입으로 황폐한 모습을, 4월에 도착한 서울도 노략질을 당하고 터만 남은 참담한 모습을 보고<sup>281)</sup> 원주, 제전을 거쳐 봉화로 가서 출근하여<sup>282)</sup> 환곡을 나눠주는 일 등을 하고 작기하거나 향회를 행하였다.<sup>283)</sup> 5월에 고향의 어른들을 모아 향약을 시행하며 첩유(帖諭)한 글이 있다.<sup>284)</sup> 7월에는 종형 금오(琴梧)의 세거인 쌍송정에 모여 친척들과 돈독함을 나눴다. 이에 영천군수 이유성(李惟誠)의 서문이 있다.<sup>285)</sup> 이 해에 동문의 여러 글을 받아 퇴계의 문집을 교정하는 데 힘써<sup>286)</sup> 이듬해 5월에 도산서당에 퇴계 문집이 완성된 것을 고하였다.<sup>287)</sup>

71세에는 1월에 아들의 관직 제수 소식<sup>288)</sup>과 명나라 군사 소식을 들었다.<sup>289)</sup> 2월에 산동 안찰 부사(山東按察副使)인 두잠(杜潛)을 영접하고<sup>290)</sup> 옥연정에서 서애를 찾아왔다.<sup>291)</sup> 5월에 노인회를 열었으며<sup>292)</sup>, 8

募軍糧.(時饑饉荐至, 天兵南下, 蜚輓不繼. 先生先出若干斛, 通諭一邑, 隨力出穀, 多方拮据. 又條陳於體察使及調度使, 不疲民力而庶事以就. ○先生年老謝事, 孤城守禦, 不彈勞勩, 鍊軍募糧, 極有措畫, 常以膂力既衰, 未負羈絏爲恨.)

273) 『惺齋日記』, 1597.8.5. 9.22. 9.23.

274) 『惺齋日記』, 1597.11.22. 12.23. 12.28. 『宣祖實錄』, 선조 30년 11.28. 12.28. 이 울산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에 왜적이 대패하고 가등청정이 생포되었다.

275) 『惺齋日記』, 1598.1.1.

276) 『惺齋日記』, 1598.1.5.

27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六年戊戌(先生六十九歲), 韓柳川(浚謙), 來訪日洞精舍.(有次壁上詩.)

27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六年戊戌(先生六十九歲), 秋講修鄉約于鄉序堂, 刊揭先師約條.(有小識○先生又於洞中, 別立約條, 以爲變亂之餘, 人心淆薄, 不可以刑杖笞罰爲勸懲, 作歌詞五章, 諭以民彝厚善之義. 自是一方成教, 有所觀感.)

279) 『惺齋日記』, 1599.3.1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七年己亥(先生七十歲), 三月除奉化縣監.(去邠之餘, 宗國重恢, 感念獲麟宸陞, 奉化是梓鄉, 肅謝赴任.)

280) 『惺齋日記』, 1599.3.25.

281) 『惺齋日記』, 1599.3.30. 4.4. 4.5. 4.6.

282) 『惺齋日記』, 1599.4.12.

283) 『惺齋日記』, 1599.윤4.5. 윤4.2.

28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七年己亥(先生七十歲), 五月會鄉父老行鄉約.(其帖諭文畧曰退溪先生鄉立約條, 洞中族契, 豈但吾一鄉一里之敦睦乎. 傳布乎一國之鄉里而遵守施行, 則實邦家教化之一大幸也云云. ○李公時發尹慶州時, 傳寫一通取以爲法.) 이 첩유를 당시 경주부윤 이시발(李時發)이 베껴가 법으로 삼았다고 한다. 『惺齋集』 권2, 「揭付奉化鄉序堂小識」, 「族契立議後識」, 「洞中約條小識」, 「帖諭奉化鄉序堂文」에 약조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張仁鎭, 「『退溪先生洞中族契立議』의 문헌적 가치」, 『儒學과 現代』 제15집, 博約會大邱廣域支會, 2014, pp.59-81.

28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七年己亥(先生七十歲), 七月與約正南好禮, 直月郭浩然復會北村.(村在縣西, 有雙松亭, 卽宗兄竹窻公梧世居之地, 因會宗族, 講修敦睦. ○榮川守李公惟誠會序畧曰太守琴公, 以行義聞於世, 一朝下車, 愍然有淳風興化之志, 與鄉大夫若干人, 議舉鄉約, 一遵李先生所定, 而參以呂氏舊規, 頒及窮村, 使自興焉. 하략)

28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七年己亥(先生七十歲), 得同門諸公書.(以先師文集校刊之議, 會陶山, 聯書速會.)

28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八年庚子(先生七十一歲), 五月會陶山, 告成先師文集.

288) 『惺齋日記』, 1600.1.1. 1.13.

289) 『惺齋日記』, 1600.1.26.

29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八年庚子(先生七十一歲), 二月往龍宮迎接社副使. 時唐官迭相往來. 所經郡邑. 徵索苛刻. 先生謹於交際. 信義素著. 李國成玉將軍諸人或持刺納款. 信物相遺.

291)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八年庚子(先生七十一歲), 訪西厓柳相公于玉淵亭.(先生嘗有玉淵亭銘.)

월에 성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봉화 군수에서 파직되었다는 기별을 받고 사직서를 쓰고는 고향에 내려왔다.<sup>293)</sup>

72세 1월에 도산서원과 역동서원의 서당에 참배하고<sup>294)</sup> 퇴계의 『심경후론』을 읽은 후 시를 남겼다.<sup>295)</sup> 2월에 아들의 과거 참여 사연<sup>296)</sup> 과 서울에 올라간 아들의 학업에 성취가 있어 과거에 입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잔치를 열었다.<sup>297)</sup> 4월에 유향소에서 마련한 자리에 참석하고<sup>298)</sup> 11월에는 청량산에 월천 등과 유람을 갔다.<sup>299)</sup> 73세에는 기로회에 참석하고, 역동서원에 모였으며<sup>300)</sup>, 8월에 도산서당에서 석채례를 지냈다.<sup>301)</sup> 74세에는 2월에 퇴계의 손자 이영도가 찾아와 시를 지어주었다<sup>302)</sup> 3월에 강신회에 참석하고<sup>303)</sup> 8월에 월천 등과 모였다.<sup>304)</sup> 아들들이 관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sup>305)</sup> 이듬해 75세 2월 13일 성재 자신의 생일날 생을 마감한다.<sup>306)</sup>

이상 성재는 일상에서 시제, 기제사 등을 챙기고 많은 지인들과 크고 작은 연회를 통해 교류하는 등 이른바 ‘봉제사접빈객’을 평시뿐 아니라 임란 중에도 충실히 행해왔음을 볼 수 있었다. 성재가 50세 이후 마침내 서울에서 벼슬하게 된 직책도 능참봉으로, 이처럼 일상에서 체득한 ‘봉제사접빈객’의 일을 공적인 업무로도 수행하게 되면서, 사적인 일상과 공적인 업무가 거의 일치된 삶을 살았다고 보인다. 또한 서울에서 인척간의 모임인 ‘육촌계회’와 직장 동료 간의 모임인 ‘장흥고계회’ 등에 참여하며 교류 관계를 넓혀간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시 고향의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전쟁 후에는 성재가 고령의 나이에도 봉화 군수가 되어 자신의 벼슬 중 최고 관직에 오르며, 향약 시행 등을 통해 끊임없이 마을의 질서를 지키고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292) 『惺齋日記』, 1600.5.16.

293) 『惺齋日記』, 1600.8.2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八年庚子(先生七十一歲), 八月呈辭解歸.(朝廷念簿書之勤, 且以災傷, 特爲許遞.) 『宣祖實錄』, 선조 33년 8.12. 8.27.

294) 『惺齋日記』, 1601.1.5.

295)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九年辛丑(先生七十二歲), 春棲孤山亭.(讀先師心經後論, 有二絕詩. 其一曰舜禹相傳到孔文. 洋洋洙泗接流源. 始知妙契同羣聖. 主一關頭覓路門. ○先生自山頽之後. 益自奮勵. 老而不懈. 爲同門諸公所推重. 康竹礪復誠寄詩云陶山心法世無傳. 惟有侯芭守太玄. 禹秋淵性傳詩云末學真同上灘船. 陶山邈矣仰儒仙. 寸膠功力宜同勉. 衣鉢師門幾箇傳. 鄭寒岡詩云昏衢一燭知難炳. 潭洞同尋霧景輝. 이렇게 늦게까지 학문에 분발하는 성재에게 당시 강복성, 우성전, 정구 등이 시를 보내 준 것이 연보에 실려 있다.

296) 『惺齋日記』, 1601.2.11.

297) 『惺齋日記』, 1601.3.18. 5.13. 5.16. 7.23. 7.3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二十九年辛丑(先生七十二歲), 五月子僕. 愷並擢文科來榮.

298) 『惺齋日記』, 1601.4.18.

299) 『惺齋日記』, 1601.11.9. 11.10. 11.11. 11.12.

300)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年壬寅(先生七十三歲), 夏往愛日堂. 參耆老會.(與族兄應角, 應羽同參. ○先生祖考定畧公參龔巖先考癸巳九老會, 僉知公參己巳續九老會, 至是先生又參耆老會, 碧梧, 李公文樑挽僉知公詩曰終古吾鄉享永年. 先公擬設耆英筵, 里庸幸得追三世, 尊老當年壓一邊, 李公光承輓先生詩云鄙門三世耆英會, 圖繪公家祖子孫.) 與諸公會易東書院.

301)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年壬寅(先生七十三歲), 八月復會陶山書院, 行釋菜禮.(時同門諸賢次第論謝, 先生每誦朱先生朋友喪, 益勉學之語, 與月川勉進諸公, 累設院會, 講究師門旨訣, 俛焉傳習, 開示後學. 得鄭寒岡書, 時寒岡赴召在都貽書, 鳳覽書院儒生申智男來, 稟立享儀節.)

30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一年癸卯(先生七十四歲), 二月李聖與 詠道 來訪. 書贈一絕詩. 詩曰爲愛師門有此人. 病中相晤暢心神. 聲騰政理雖堪喜. 家業深思勉日新. 李公克勤家學聲聞早播. 先生深致勸勉之意.

303) 『惺齋日記』, 1603.3.8.

30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一年癸卯(先生七十四歲), 八月與趙月川會惺齋.(裴檢閱龍吉, 金寧越澤龍諸公同參.)

305) 『惺齋日記』, 1603.8.13. 9.12. 9.14. 9.15.

306) 『惺齋日記』, 1604.2.13.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二年甲辰(先生七十五歲), 二月寢疾.(先生自癸卯再嬰重疾, 猶夙興整衣冠, 危坐看書, 未嘗一日廢, 至是疾漸劇.) 十二日癸巳., 命行長孫冠禮.(先生曰重其禮, 不可以褻服見, 力疾具冠帶, 翊日甲午未時考終於寢, 卽先生以降之辰也, 平明命進盥水, 正席而終.) 八月十九日, 葬于白雲山向坤原.

### 3. 성재의 교유 양상

성재는 퇴계의 제자로, 퇴계 문인들과 두루 교유하였다. 특히 일기에는 성재가 만난 인물들의 이름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히 월천과는 학문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평생을 같이 하였고, 간재 이덕홍과도 학문적으로 깊이 사귀었다. 또한 퇴계의 아들, 손자들과, 퇴계의 문인인 배삼익, 퇴계와 남명의 문인이었던 정탁 등과 같은 인물의 이름도 자주 등장하여, 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남명의 문인들뿐 아니라 당대 쟁쟁한 인물들, 곧 김성일, 윤근수, 유성룡 등과도 교유한 흔적을 보여, 성재의 교유 관계는 매우 폭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성재가 만난 인물들을 하나씩 밝히는 것보다, 당대 성행한 계획과 유산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성재가 남긴 문학과 기록,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 1) 계획(契會)을 통한 교유

대표적으로 성재가 참여한 몇 개의 계획을 중심으로 그 교유 관계를 살펴보겠다. 우선 성재가 수학기에 고향의 벗들과 함께 결성한 현사사수계와 확연정강신회를 보자.

현사사수계는 성재가 23세 되던 1552년 11월에 결성하였다. 이때 참여한 인물은 성재를 포함해 월천(月川) 조목,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 1526~1586), 지산(芝山) 김팔원(金八元, 1524~1589), 인재(忍齋) 권대기(權大器, 1523~1587)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모두 퇴계의 문인으로, 현사사에서 수계하고 독서하는 모임을 갖고 서로 의논한 끝에, 벗들이 흩어졌다 모이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구는 산에 있고 누구는 절에 있다가 좋은 계절에는 각기 경서와 사서를 지니고 와서 모여서 읽어가자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sup>307)</sup> 이상 현사사수계에 대해서는 수계를 결성한 날, 인적 구성에 대한 소개 외에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이 문집이나 일기에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함께 수계한 이들의 문집에서도 한 번 정도 언급되었을 뿐이다. 다만 성재가 32세 되던 1561년 향시에 응시하려 가서 현풍에서 녹명할 때 두루 주변을 둘러보다 권대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sup>308)</sup>, 58세 되던 1587년에 현사사수계의 일원인 권대기의 부음을 들은 것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sup>309)</sup> 또 김팔원의 아들 김삼계(金三戒)의 부고를 들은 기록도 보인다.<sup>310)</sup> 그 외 월천은 성재와 평생을 같이 하였기에 기록이 많고, 예외적으로 구봉령은 일기에는 나오지 않으나 연보에 1586년 7월 그의 부고를 듣고 만시(挽詩)를 써준 기록이 보인다.<sup>311)</sup>

그리고 확연정강신회는 성재가 44세 되던 1573년 봄에 김부필, 숙부 금보(琴輔, 1521~1584), 이현보의 아들 이숙량(李叔樑, 1519~1592) 등과 확연정(廓然亭)에서 강신한 모임이다.<sup>312)</sup> 본래 강신회는 향약 등에서 마을 구성원들이 규약을 지키고 다짐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졌는데, 성재는 고향의 벗, 친척들과 모임을 결성하여 서로 교유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성재 51세에는 제릉 참봉으로 서울에서 지내다가 가을에 성묘하러 내려와 9월 25일 집에 도착해 동네 강신회(講信會)에 참석하였다. 이처럼 서울에서 벼슬을 하

307)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三十一年壬子.……十一月修契于玄沙寺.(趙月川, 具栢潭, 金芝山人元, 權忍齋大器 諸公皆與其會. 其立議畧曰凡我朋執, 乍分乍合, 殊無資益, 或山或社, 佳辰勝節, 各攜經史, 齊會通讀.) 이렇게 결성한 수계의 일원들은 훗날까지도 성재와 교유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조목과는 일찍이 그 누이동생과 혼인함으로써 사돈 관계를 맺었고, 퇴계를 스승으로 함께 모시며 제자 관계도 이어갔다.

308) 『惺齋日記』, 1561.3.10.

309) 『惺齋日記』, 1587.3.7.

310) 『惺齋日記』, 1577.6.20.

311)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四年丙戌(先生五十七歲), 七月哭具栢潭, 有挽詩. 그러나 이 작품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312)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神宗萬曆元年癸酉(先生四十四歲), 春與金後凋(富弼), 琴梅軒(輔), 李梅巖(叔樑)諸公講信于廓然亭.(在芙蓉山下洛江上.)

는 동안에도 고향의 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강신회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재는 향약과 동약 시행을 준수하며 퇴계의 학문을 실천한 면모가 발견된다.<sup>313)</sup>

다음 이원(李原, 1368~1429)을 증조로 하는 친인척 관계로 서울에서 참석하게 된 육촌회를 통해서도 성재는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이는 총 세 번 모임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때마다 참석한 공간과 인물들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단 첫 번째 모임에서만 참석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 육촌회는 성재가 61세 되던 1580년 3월 6일 장의동(藏義洞) 한의(韓誼)의 집에서 이루어졌다.<sup>314)</sup> 두 번째는 1583년 4월 18일 수각동(水閣洞) 권의(權誼) 집에서 열렸다. 이때 참석한 사람들은 이양원(李陽元), 권덕여(權德輿), 영천정(永川正), 의천 수령, 성천 수령, 춘천 수령, 권대성(權大成), 정복시(鄭復始), 한양(韓讓), 조감(趙堪), 봉사 조봉(趙鵬), 조종도(趙宗道), 한항(韓恒), 김협(金鞬), 안세득(安世得) 등이었다. 이 중 정복시(鄭復始)는 서경덕의 문인이면서, 성재가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기숙을 하는 등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다. 이때의 모임에 대해서는 그림이 전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성재 58세 되던 1587년 9월 20일 찰방 한항(韓恒)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참석한 이들은 이양원(李陽元), 영천정(永川正), 의천 수령 계옥(季玉), 성천 수령 숙옥(叔玉), 한의(韓誼), 춘천 수령 자옥(子玉), 이효원(李孝元), 이의원(李義元), 영제정(寧堤正) 등이었다.

또한 서울에서 성재는 직장 동료와도 계획을 만들었다. 57세 되는 1586년에 장흥고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 곧 조순빈(趙舜賓), 김시(金禔, 1524~1593), 백수종(白守琮) 등이 참여해 장흥고계획(長興庫契會)을 만든 것이 그것이다. 그 전 해에 성재는 장흥고 봉사가 되었다.<sup>315)</sup> 연보에 따르면 이때 참여한 이들의 관직과 품계, 이름을 나열하고 그림을 붙인 계첩(契帖)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계획도(契會圖)는 김시가 그렸고, 시는 이양원이 지었다고 하나, 따로 발견된 계첩이나 계획도가 없기에, 성재의 연보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sup>316)</sup>

그 외에도 성재가 서울과 경주 등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 참석한 크고 작은 연회들이 일기에 간혹 보인다. 그 중 집경전 참봉이 되었을 때 경주에서 열린 잔치가 성대하다. 성재 63세 되던 1582년 3월 4일에 의풍루(倚風樓)의 대(臺)에서 열린 잔치로, 부윤, 전임 첨사, 하양 수령, 기장 수령, 영일 수령, 이필(李必), 반자(半刺) 이하(李遐), 전임 선임관 이이(李邇), 정원충(鄭元忠) 등 10여 인이 모였다.

또 성재 70세 되던 1589년에 제관으로서 1월에 남산에서 제사를 지낸 후<sup>317)</sup> 계축을 만들기로 약속하였는데, 10여일 후 임정(任正)이 목멱산동고계의 술자리를 마련하자 그곳에 참석한 기록이 있다.<sup>318)</sup> 이때 함께 참석한 이들의 명단은 없고, 이후 모임의 기록도 없어 교류가 이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상 성재가 결성하고 활동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던 현사사수계와 장흥고계획에 대해서는 당대적인 의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현사사수계와 같은 당대 수계는 젊은 지식인들의 독서 모임 형태로, 고향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사가독서한 이들끼리도 활발히 결성한 기록을 볼 수 있

313) 이에 대해서는 박현순,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의 수학과 교류」, 『역사문화논총』 제4호, 신구문화사, 2008, pp.48-50.에서 자세히 다루었고, 본고에서는 성재의 교류를 살피는 과정에서 계획을 중심으로 본 것이므로 생략한다.

314) 『惺齋日記』, 1580.3.6. 이때는 사평 김문경(金文卿)을 찾아보았다는 기록만 덧붙여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315) 『惺齋日記』, 1585.12.26.

316)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十四年丙戌(先生五十七歲), 五月製進方物表。○與同僚設長興庫契會(令趙舜賓, 主簿金禔, 直長白守琮與焉。按契帖列書官階姓諱, 附以圖繪, 松蔭隱暎, 冠佩偉然。李鷺渚陽元題契會圖詩云松下開清樽, 齊顏氣像眞, 文華堪會友, 風采借傳神, 劇手開閒局, 高標似散人, 明時修契好, 行樂詔朝紳。金主簿畫, 以畫家名於世。) 시 또한 이양원의 문집에도 없고 오로지 성재 연보에만 수록되어 있으며, 그림도 찾지 못해 다만 그림에 대한 형용을 연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317) 『惺齋日記』, 1589.1.6.

318) 『惺齋日記』, 1589.1.7.

다. 특히 중앙의 독서당에서 사가독서하며 이루어진 수계는 그 명단인 좌목(座目)이 문집에 수록돼 있거나, 그 계획 장면을 그림으로 남긴 계획도가 박물관이나 개인에 소장되어 있다. 좌목이 남은 대표적인 예가 ‘호당수계(湖堂修契)’로, 이는 당시 대제학이던 성세창(成世昌) 아래 호당에서 사가독서하던 인물들, 곧 성재의 스승이기도 한 퇴계를 비롯해 당대 쟁쟁한 문인 학자였던 하서 김인후, 임당 정유길 등이 모인 것이었다.<sup>319)</sup> 당시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좌목으로, 이를 통해 계원 당사자들 사이에 동질감과 연대 의식이 형성되도록 하는 매개가 되었다.<sup>320)</sup> 실제로 이들은 단지 한때의 모임에 그치지 않고, 비록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지는 가운데도 평생을 지인시간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sup>321)</sup> 또 계획도로는 <독서당계획도>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sup>322)</sup>

성재가 57세에 결성한 장흥고계획의 경우는 계첩과 계획도가 남아 있다고 하였는데, 당시 계획도는 주로 관료 생활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많이 담고 있어, <추관계회도(秋官契會圖)>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예이고<sup>323)</sup> 장흥고계획도 이러한 당대 현상의 하나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계획도가 유행한 것은, 관료 문인들의 계획이 무수히 만들어진 16세기의 현상으로, 18세기로 들어가면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장르조차 미미해진다. 당시 선비들이 계획을 그림으로 그렸던 것은, 계획이 학문과 도덕을 권장하는 명분을 지키고 있어, 그 성대한 모임을 자손들에게 기억하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그 정도가 과해져 계획의 ‘회음(會飲)’에 대한 폐단이 보고된 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16세기 계획도 제작의 문화는 사림의 중앙 정계 진출과 그 정치 문화가 학문 풍토와 관련을 맺으면서 크게 성행하게 된 풍조로 파악되기도 한다.<sup>324)</sup>

실제 성재도 장흥고계획을 만든 뒤 장흥고에서 해야 하는 일, 곧 궁중의 물품을 관리하고 청대(請臺)하는 등의 본 업무 외에 동료들과 사적으로도 술자리 등 모임을 가지며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곧 제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천렵을 하거나<sup>325)</sup> 성재가 아팠던 것을 위로하여 장흥고의 상관이 남대문 밖에 차린 술자리에 당시 동료들이 참석하는 등의 모임이 그 예이다.<sup>326)</sup>

## 2) 유산(遊山)을 통한 교류

성재는 지리산, 청량산, 천마산 등을 유람하면서도 교류 관계를 가졌다. 먼저 성재의 지리산 기행은 1560년 11월에, 이듬해 2월에 합천에서 치러질 향시에 앞서, 지리산 유람을 할 요량으로 미리 출발하면서 이루어진다. 앞의 생애를 살피면서도 보았듯이, 가는 길에 성재는 성주 목사 황준량과 성주 교수 오건 등

319) 그 외에 송재 나세찬, 국간 윤현, 간재 최연, 십성당 엄훈, 추파 송기수, 호학재 민기, 죽애 임열, 우암 김주 등 총 13인이다. 이에 대해 기록이 남아 있다. 바로 「湖堂修契錄」으로, 이는 1541년에 東湖 讀書堂에서 사가독서하던 13인이 修契한 것에 대해, 2년 뒤 1543년에 成世昌이 修契者의 號와 姓名, 字, 本貫, 生年과 賜暇하고 급제한 시기, 수계할 당시의 官職, 끝으로 父親의 官職과 名 등을 기록해 놓은 좌목으로, 본래 『東湖修契圖』에 들어 있다가 修契圖는 임진왜란 때 유실되어 修契帖만 남았고, 동일한 契帖이 羅世績의 『松齋遺稿』(卷4), 金麟厚의 『河西全集』(續集附錄), 林亨秀의 『錦湖遺稿』(附錄), 崔演의 『良齋集』(卷12), 그리고 宋麒壽의 『秋坡集』(卷8) 등에 「湖堂修契錄」 또는 「湖堂修契錄」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 『松齋遺稿』의 초간본(1777年)과 『河西全集』, 『錦湖遺稿』의 附錄에는 細註에 「嘉靖癸卯成公世昌所記」라 하여 성세창이 癸卯年, 곧 1543년에 기록하였음을 알려준다. 정석태 편저,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1, 퇴계학연구원, 2001, pp.233~237. 참고.

320) 신영주, 「15, 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획 활동과 계획도축」, 『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pp.71~72.

321) 오항녕, 「같은 인연, 다른 길 : 호당수계(湖堂修契) 제현의 배경, 현실 그리고 기억」, 『동양한문학회연구』 제41집, 2015, pp.157-182. 이연순, 「죽애 임열의 습유작 고찰」, 『동양한문학회연구』 제41집, 2015, pp.215-242.

322) 작자 미상, 1572년,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돌베개, pp.162~163. 재인용.

323) 작자 미상, 1546년경, 개인 소장. 고연희, 위의 책, p.160. 재인용.

324) 고연희, 위의 책, pp.158~159

325) 『惺齋日記』, 1586.5.1.

326) 『惺齋日記』, 1588.6.24. 이때 참석한 이는 장흥고 영 조순빈(趙舜賓), 주부 송정국(宋定國), 봉사 박려(朴權) 등이었고, 사포 김제(金提)도 불러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뒤, 입직하였다고 하였다.

을 만났고, 성주에서 나와 가야산에 가려다 눈이 많이 내려 포기한 후, 고령, 합천, 삼가, 단계(丹溪)를 지나 단성(丹城)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명의 문인들과 만난다. 대표적으로 권문현(權文顯, 1524~1575)과는 시로 화운하였고, 그 외에도 권문저(權文著, 1526~?), 권문임(權文任, 1530~1576) 등 남명의 문인들과 교유한 모습이 보인다.<sup>327)</sup> 그리고 이듬해 32세 되던 1561년 1월에는 단성에서 퇴계 선생께 편지를 보내자 그에 차운한 퇴계의 시를 받았다. 퇴계는 시에서 성재가 본래 남으로 가면서 마음먹었던 ‘방장산 속의 숨은 선비’, 곧 남명 선생을 찾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성재는 퇴계의 시에 차운하여, 편안하던 스승 곁을 떠나와 객지에서 지내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다시 도산서당에 있는 천연대에서 은거할 것을 떠올리며 돌아갈 기약을 하였다.<sup>328)</sup>

이후 성재는 남명의 벗인 이원(李源, 1501~1568)을 뵈고, 퇴계 시의 운으로 차운하여 시를 주고받으며 교류하였다. 그 후 2월에 생원, 진사시를 치르고 4월에 배삼익, 도희령(都希齡, 1539~1566) 등과 남명을 뵈고 후 지리산에 들어간다.<sup>329)</sup> 이때 지은 『남정(南征)』이라는 장편의 지리산 기행시가 서와 함께 남아 있다.<sup>330)</sup>

성재는 지리산이 남명의 거처와 가까운 곳이어서 그곳으로 가는 길에 남명의 문인들이나 벗과도 교류하였고, 남명을 찾아뵈고 후, 다녀와서 남명의 자취를 기리며 시를 읊었다. 이처럼 특정 공간을 지나며 그와 관련된 인물을 떠올려 시문을 짓는 것은 당시 지리산 유산지에서 많이 발견되는 한 현상으로 보인다.<sup>331)</sup>

다음 성재의 청량산 유람은 세 번 있었다. 퇴계 생전에 선생과 그 문인들과 함께 한 번, 퇴계 사후 월천과 아들 등과, 또 벗들과 두 번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성재 35세 되던 1564년 4월 14일에 퇴계와 이문량(李文樑), 금보(琴輔), 김부의(金富儀), 김부륜, 권경룡(權景龍), 김사원(金士元), 유중엄(柳仲淹), 유용운(柳龍雲), 이덕홍(李德弘), 남치리, 퇴계의 조카 이교와 맏손자 이안도 등 13인과 함께 청량산을 유람하러 나서서 3일을 머물고 17일에 내려온 것이다. 그 전에 봄에 성재가 고산 보현암 벽에 「입산기(入山記)」를 써 놓았는데, 청량산에 들어갈 때 퇴계가 그 글을 보고 성재에게 시를 지어주자, 성재가 다시 그에 차운하여 시를 지은 것이 남아 있다.<sup>332)</sup>

퇴계 사후에는 성재 49세 되던 1578년 4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당시 봉화 수령이던 월천과 성재의 둘째 아들, 김시보(金施普), 김경룡(金景龍) 등과 청량산을 유람하였다. 이때는 주로 암자들을 오르내리며 다녔다. 성재가 먼저 자비암에서 월천을 기다리다 다음날 월천과 지장전에서 함께 자고, 그 다음날 문수사에 올라갔다가, 고산에서 온 둘째 아들과, 동곡에서 온 김시보, 김경룡 등과 모여 보현암, 몽상암, 원효암 등의 여러 암자를 둘러본 후 만월사에서 자고, 다음날 백운암, 연적봉, 만월암을 거닌 후 암자 벽에다 이날의 기록을 남기고, 월천은 시를 읊어 벽에 썼다. 마지막 날 비가 오고가, 김생·치원·극일·안중·나한 등의

327) 『惺齋日記』, 1560.11.~12.

328) 李滉, 『退溪集』 卷2, 「琴聞遠自丹城書來, 卻寄一絕」, 歲暮難堪憶故人, 平安書到雪溪濱. 南行莫負酬心事, 方丈山中訪隱淪.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年辛酉(先生三十二歲), 正月在丹城, 次呈退溪先生寄詩一絕.(詩曰, 奔走風波患失人, 安閒不似退溪濱. 何當遊歷還歸早, 更向天淵學隱淪. 연보에 실린 시와 같은 시가 『惺齋集』 권1에 「丹城客中, 伏次退溪先生寄詩一絕」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런데 성재가 퇴계 선생께 보낸 편지는 성재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329) 『惺齋日記』, 1561.2.~4.

330) 『惺齋集』 권1, 「南征(並小序)」.

331) 강정화, 「智異山 遊山詩에 나타난 名勝의 文學的 形象化」, 『동방한문학』 제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pp.363-410.

332) 『惺齋集』 권3, 「普賢菴壁上, 書前後入山記」.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四十三年甲子(先生三十五歲), 春棲普賢庵, 書入山記揭壁上.(先生讀書肄業, 必占靜處, 前後入清涼者十有三焉. ○退溪先生往來遊賞, 嘗於孤山石壁, 題絕句云, 日洞主人琴氏子, 隔水呼問今在否. 耕夫揮手語不聞, 悵望雲山獨坐久. 擬於杖履所憩之地立小亭, 扁以坐久, 而力絀未就. 李滉, 『退溪集』 卷3, 「普賢壁上, 見聞遠自敘前後遊山之語, 有感」, 少年攻苦此山中, 老作無成一病翁. 壁上看君興歎語, 此心何啻與君同. 『惺齋集』 권3, 「敬次退溪先生普賢菴壁上詩韻」, 函筵和氣一團中, 此世依歸有退翁. 何幸名山陪賞日, 詠歸真樂浴沂同. 原韻도 부기되어 있으나 퇴계 문집에 실린 것과 같으므로 생략.

암자를 걷다 쉬며 둘러보고 지장전으로 내려온다.<sup>333)</sup>

또 같은 해 8월에도 성재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경산에서 치러진 소과에 응시하고 돌아온 뒤, 25일부터 27일까지 청량산을 유람하였는데, 이때는 당시 영해 부사(寧海府使) 양사기(楊士奇)와 안동 현감(安東縣監) 서익(徐益), 그리고 월천 등과 함께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 첫날 청량산을 유람한 후 배를 타고 단사협(丹砂峽)과 풍월담(風月潭)으로 내려와 고산정사에서 자고, 다음날도 배를 타고 단사협으로 내려와 도산 서원에서 잤으며, 마지막 날 애일당에 갔다가 배를 타고 풍월담으로 내려와 월천서당, 확연정 등에 올라갔다 돌아간다.<sup>334)</sup>

천마산 유람은 성재 51세 되던 1580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둘째, 셋째 아들과 성흔의 문인인 김현도(金玄度, 1551~?) 등과 함께 하였다. 그 전 해에 성재는 제릉 참봉이 되어 도성에 머물다가 개성에 가서 경연(經筵)을 보고, 정몽주와 서경덕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문충공 서원에 김현도와 함께 참배한 후, 자하동에 놀러갔다가 천마산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마침 아들들이 성균관에서 과거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그들의 심신 수양과 학문 정진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3일은 개성 교수인 장문한(張文翰)이 영통사에 술을 보내주었고, 24일은 당시 영통사에 머물고 있던 윤근수, 심원해(沈源海), 신벌(申撥) 등과 만났으며, 25일에야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 지족당, 태흥, 박연, 관음굴 등을 두루 보고, 26일 황련·의상·청량, 차일암 등 굴과 암자를 구경한 후, 현화사에서 자고 27일 화장에서 개성으로 갔다. 다음날 성재는 재소로 돌아오고, 둘째 아들은 문충공 서원에 남아 공부하였다.<sup>335)</sup>

이상 성재의 생애 가운데 여러 차례 이루어진 유산 기록을 보면, 그 산과 관련한 주요 인물을 찾아뵙거나, 그를 기리는 일을 겸하여, 함께 한 이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지리산을 오를 때에는 근처에 거처하는 남명을 찾아뵙면서 그 문인들과도 교류하였고, 청량산을 노니면서는 퇴계와 그 문인들과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천마산을 오르면서는 성흔의 문인과 함께 개성에서 정몽주와 서경덕의 덕행을 기린 문충공 서원을 참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이처럼 당시 성재의 유산은 그 산 또는 주변의 지명과 관련된 학자들을 중심으로, 매우 폭넓게 교류 관계를 펼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 4. 결론

333) 『惺齋日記』, 1578.4.17.~21.

334)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六年戊寅(先生四十九歲), ○八月自孤山並流而下.(遊風月潭, 楊逍遙士奇徐靑霞益同遊, 而有孤山亭次贈詩.) 『惺齋日記』, 1578.8.25.~27.

335) 『惺齋日記』, 1580.3.15.~16. 3.23.~28. 『惺齋集』 권3, 「惺齋先生年譜」, 八年庚辰(先生五十一歲), 二月攜子僕, 恪遊天磨朴淵. 至崧陽謁圃隱鄭先生祠. 留二子讀書院中.

## 전후 염상섭의 세대의식과 민주주의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김영경(서강대)

### 1. 서론

이 글은 염상섭의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전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인식을 전후 세대의식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염상섭의 「젊은 세대」는 1955년 7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고, 「대를 물려서」는 1958년 12월부터 1959년 12월까지 『자유공론』에 연재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인물들의 구도나 주제적 측면에서 볼 때 ‘연작’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두 작품은 중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비 및 갈등을 다루고 인물들 간의 연애의 문제와 당대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수는 이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연속성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두 작품 속 젊은 세대의 연애담이 그들 부모 세대의 삶의 조건 내지는 결혼관과의 관계 속에서 규명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1)</sup> 염상섭 소설은 기본적으로 ‘연애소설의 문법’에 충실한 특징이 드러나며 그의 작품에서 ‘연애’는 주로 당대 현실의 비유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서 나타나는 중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연애의 문법을 당대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는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몇몇 연구들이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종현은 이 두 작품이 전후 사회의 풍경, 일상성의 생활묘사와 정치적 역사성을 배경에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sup>2)</sup> 특히 그는 이 작품들이 젊은 세대를 등장시켜 “타락한 정치현실과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sup>3)</sup> 최애순은 이 두 작품이 중산층 내부의 균열과 세대문제를 통해 가부장적 가치관과 민주주의의 충돌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 작품들에서 4·19혁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sup>4)</sup> 이처럼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두 작품이 전후의 사회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 나타난 젊은 세대를 단순히 ‘친미 엘리트’로 간주하거나, 그의 연애소설이 “사상 애념 관념의 편향성이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 시대인가를 증명한 것”으로 판단내리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다.<sup>5)</sup> 염상섭의 문학세계에서 ‘연애소설’은 단순히 인물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염상섭 소설에서 ‘연애’는 우리 사회가 서구적 근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개인의식과 개성의 자각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소설적으로 변용하는 과정에서 발견해낸 작가적 인식통로이자 여과기라 할 수 있다.<sup>6)</sup> 그의 작품에서 ‘연애’는 인물들의 주제적 선택과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 등의 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염상섭이 이 작품들에서 젊은 세대를 옹호하며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정종현의 주장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염상섭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해방 이후의 염상섭 작품들에서 많은 젊은 중심인물들은 남한 사회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우려하면서도 정작 본인들

1)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275쪽 참조

2) 정종현, 「195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정치와 윤리」, 『한국어문학연구 제62집』, 2014, 145쪽.

3) 정종현, 위의 글, 146쪽.

4) 최애순, 「1950년대 서울 종로 중산층 풍경 속 염상섭의 위치」, 『현대소설연구』 52호, 2013, 168~169쪽 참조.

5) 최애순, 위의 글, 174~181쪽 참조.

6) 김경수,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일조각, 2008, 50쪽

은 미국으로 떠나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자 열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글은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서 드러나는 서사구조와 인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염상섭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전쟁 이전의 작품들과는 차이가 난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염상섭은 동시대의 정치적 현실을 실시간에 가깝게 서사화하고자 했고, 이를 장편소설을 통해 그리고자 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염상섭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진단보다는 전후의 일상적인 삶을 단편을 통해 그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sup>7)</sup> 마치 풍속도를 보는 것 같은 그의 전후 단편소설들 세계에서 알 수 있듯, 전후에 쓴 이 두 작품은 전후의 현실을 오히려 리얼리즘적으로 세밀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애순은 이와 관련하여 그가 안방이야기에 주목한 이유를, 당시 불안과 부조리의 시대에 리얼리즘을 추구하고자 했던 기법상의 특징<sup>8)</sup>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한수영은 이를 ‘일상성’<sup>9)</sup>으로 특징지은 바 있다.

그렇지만 염상섭이 이 시기 정치적 현실을 외면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는 「문인의 한국언론과-비약을 약속하는 현상」(1957)이라는 글에서 당대 정치 현실을 은연중에 서술하면서 정치소설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과 문학에 있어 ‘자유분위기’를 강조한다. 특히 그는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서술하면서 민주발전과의 관련에 대해 언급했다.<sup>10)</sup> 「자기 완성위해 새출발하자」(1958)라는 글에서는 당대 과제로 “민주과업”에 대해 다시금 언급한다. 그는 이를 “민주주의의 국민적 연성(練成)”이 기본적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문맹상태에 가깝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과 국회는 모범을 보여야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민중은 정치를 하지는 않지만 정치를 알아야는 하겠고 또 알려야 하겠기 때문”이라고 했다.<sup>11)</sup> 당시 정치현실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우려는 곧이어 1959년 경향신문 폐간조치에서 현실화되고 만다. 이에 그는 「여론의 단일화나」(1959)라는 글에서 폐간조치는 상식적이지 않으며 비민주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하여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몇학년생이나 되었는지는 선진국이 평가해주어야 할 노릇이지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민이 원하고 또 정상적 민주정치의 제1보(步)가 양편 소사(訴事)를 듣자는 것이지 외작 송사(訟事)만 듣자는 것이 아닌 바에야 한쪽 입을 틀어막는다는 것은 강압적 함구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별할 것은 얼마든지 별하고 제약할 것은 제약하더라도 말문만은 터놓아야 민주국가의 형면(形面)만이라도 설 것이 아닌가 한다.<sup>12)</sup>

이 시기는 독재와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문제 등의 작가적 문제의식과의 관련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대를 물려서」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의 등장과 당시 선거의 이야기가 빈번하게 서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서 나타나는 염상섭의 시대인식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 나타난 전후 염상섭의 세대의식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작가적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 나타난 전후 현실과 세대 문제

7) 그의 전 생애에 걸쳐 150여편의 단편소설을 남겼는데, 60여편이 전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은 상당한 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방 이후 단편소설이 총 95편정도인데, 이중 전후의 시기에만 60여편이라는 점은 주목해볼만한 점이라 생각된다.

8) 최애순, 위의 글, 179~180쪽.

9) 한수영, 『소설과 일상성』,

10) 염상섭, 『염상섭 문장전집』3, 소명출판, 2014, 331~334쪽.

11) 염상섭, 『염상섭 문장전집』3, 소명출판, 2014, 437쪽.

12) 염상섭, 『염상섭 문장전집』3, 소명출판, 2014, 472쪽.

염상섭의 「젊은 세대」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중년인물들의 재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작품의 초반부는 화순과 동재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려지며 동재의 친구인 택규의 재혼을 주선하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화순은 택규의 재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명희와 희숙이라는 인물을 택규에게 소개하지만 좀처럼 잘 맺어지지 않는다. 작품의 중반부에는 택규가 동재의 전처인 선도와 우연히 맺어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의 연애에 장애가 된다. 택규의 아들 정진과 동재의 전처인 선도의 딸 영애가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후반부에 이야기의 축은 다시 젊은 세대들이 주가 되어 원룡, 수득, 상근, 인숙, 정진, 영애 등의 인물들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이리저리 얽히지만 작품은 완결되지 못한 채 중단된다.

「젊은 세대」에서 영애와 정진의 연애관계는 초반에 부모세대의 간섭과 연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도 연애관계가 잘 유지되는 듯하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 젊은 세대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특히 ‘인숙’과 ‘상옥’이라는 여성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정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들을 만나고 정진은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영애의 조선옷 입은 몸매를 다시한번 보며 격이 똑 떨어지는 것같이 보여서 불만”(379)을 갖는다. 부모세대의 간섭과 상관없이 이들 연애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비해 중년 세대는 이전 세대의 사고방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재혼과 새로운 연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일본 책에 ‘인생은 사십부터’란 것이 있대서 말이 아니라, 칠십까지만 사신다 해두 앞으로 삼십년 아니겠어요! 인제부터 사실 텐데 무슨 소리세요.”(36)

중년세대의 연애와 재혼은 이 작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동재는 자신의 친구인 택규가 전처인 선도와 인연을 맺기까지 한다. 그리고 택규의 아들 정진과 선도와 동재 사이의 딸 영애가 연인으로 설정되면서 중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연애는 이리저리 얽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정은 이후 <제 이세들>이라는 장에서 젊은 세대의 이야기로 이야기 축이 옮겨지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젊은 세대들의 대화에서 “이중호적”(341)과 “가호적(假戶籍)”(341)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군대와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중간 중간 전후 사회의 맥락에 놓여있다. 정진은 “작년 가을에 학병에 다녀”(47)왔으며 “전쟁미망인두 수두룩”(48)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그들은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한 현실을 언급하고 “전재민민 덕에 나일론 사태”(131)가 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은 전후 사회의 맥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전후 젊은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학생시대의 남녀들이 이렇게 모여 놀 자리도 기회도 없느니만치, 이것은 의외의 좋은 파티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낯 서투른 남녀들이 서로 마음 놓고 가정적으로 모인 것을 좋아들 하였다. (348)

“다방 아니구, 숨어다니는 댄스홀 아니구..... 그렇다구 집안에서 모여 놀면 변괴루 알구, 성이 가서 하는, 어디를 가나 내대는, 거리로나 헤매라는 신세가 우리 신세인데.....”(349)

이들은 “방랑시인 김삿갓”(355)노래가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듯이 듣기 좋”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런 니힐한 감정이나 무언지 모르게 ‘자유’를 모색하는 데서 공통하는 데가 있”(355)다고 한다. 이에 국문학자 집안의 국문학을 공부하는 ‘인숙’이라는 여성인물은 “현실도피적이요 어딘지 퇴패적 기분을 풍겨서 난 싫”(355)다고 이야기한다. 젊은 세대들도 남성과 여성들의 처지로 대비된다. 그러면서 남성인물들은 “저 아주먼넌 우리 기분을 아직 모르시는 거”(357)라고 한다. 그리고 이에 인숙은 다시 “준순방황(浚巡彷徨)하는 태도”가 안타깝고 싫다고 하면서 “지금 남학생들을 보면 답답”(357)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공산 오랑캐가 그렇게 만든 것”(358)이라 하면서 전쟁을 직접 겪은 젊은 남성들을 대변한다. 이들은 군대와 아르

바이트와 같은 현실적인 생활의 고민이 주를 이룬다.

“우리두 삼팔선이나 터져야, 공부도 제대루 하구 연애두 연애답게 하게 되려는지?” 정진이가 멍하니 무슨 생각에 팔렸다가 이런 탄식을 한다. 상근이는 그 말이 얼뜨고 어리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다시 말할 것 있느냐는 듯이

“아무렴! 우리 세대가 걸머진 짐인데 아무리 바당겨 보았자, 불행의 연장 아닌가요! 다음 세대나 기죽을 펴고 큰 소리치며 살게 해 주어야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받는다.

「젊은 세대」는 중단된 작품이어서 이후의 이야기를 추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염상섭이 전선에서 전쟁을 직접 겪고 여전히 군대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젊은 세대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연애를 하려 하면서도 미래에의 무기력과 암울함 등을 드러내면서 전후 세대의 정서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중년 세대들이 그 앞 세대와의 질서에서 벗어나 재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것 역시 과거의 세대와도 대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 역시 앞선 중년 세대들과 다시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전후 세대의 차이를 그려내고 있다. 한국전쟁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했고, 그것이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대 문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후 1958년 12월부터 연재된 「대를 물려서」에서는 과거에 인연이 있던 중년세대인 안도, 박옥주, 한동국 등의 인연이 자녀들 세대인 익수와 신성, 삼열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야기이다. 태동호텔 사장인 박옥주는 과거에 좋아했던 안도의 아들 안익수가 삼열이와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 신성과의 교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로 인해 익수와 삼열의 연애가 어긋나게 되고, 익수는 신성과 가까워진다. 즉 부모 세대의 인연이 자녀 세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물들의 관계는 모두 어긋나고 만다. 다만 익수와 신성이 부모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연애를 시작하려 하는 것에서 작품이 끝난다. 염상섭은 이 작품에 대해 “이것으로 完結된 것이 아닌 것은 아니나, 未洽한 생각이 없지 않아서 後日 健康이 허락하고 새 機會가 있으면 補足할지도 모른다.”<sup>13)</sup>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작가는 이 작품이 비록 완결된 것은 아니나 위의 언급을 통해 이후의 전개과정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암시한다. 즉 익수와 신성이 부모세대의 간섭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며 끝맺은 것에서 중년 세대로부터 분리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는 주로 젊은 세대가 중년 세대의 개입과 방해로 인해 그 관계가 좌지우지되는 양상이 그려진다. 익수와 삼열은 연애관계에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익수의 아버지인 안도의 아버지를 좋아했던 옥주는 익수를 자신의 딸인 신성과 맺어주려 한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익수와 삼열의 관계에 훼방을 놓는다. 그러면서 삼열과 익수는 멀어지게 되고, 옥주의 개입으로 인해 익수는 신성과 점차 가까워지게 된다. 그렇지만 삼열이는 “이 남자에게 올라미를 씌워 놓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쯤 되고 보니 자기 몸에 만일의 일이 있을까 봐서 애가 씌워서도” 약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옥주의 훼방으로 여러 차례 오해가 생기고 익수의 우유부단하고 모호한 태도에 삼열은 약혼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삼열이 약혼을 취소하자, 부모 세대는 체면을 중시하며 이를 말리려 한다. 그렇지만 삼열은 다음과 같이 익수에게 편지를 쓰고 약혼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목발로 걸으시는 선생님이시라면 말이 끄찍스럽습시다마나는, 선생님은 그 쌍지팽이를 거드랭이에 끼고 걷는 불편과 볼모 사나움을 느껴 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원광으로 뵈오면 선생님 등 뒤에는 버팀목까지 비스듬히 서 있는 것 같애요. 호호호……. 하지만 선생님은, 왜 나는 나대로 목바로 서서 으젓이 걷지 않느냐고 하실 거예요. 실례가 되는 이런 객설 다 취소합니다. 그러나 목발에 의지하시고 버팀목에 기대어 서 계시거던 과거는 얼른 다 집어

13) 염상섭, 『염상섭 문장전집』3, 소명출판, 2014, 445쪽.

치우시고 곳곳이 서서 곧장 걸어 보세요. 반드시 제 앞에까지 와 보시라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서 약혼을 익수가 “걸음마를 타실 때까지 연기”(232)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이는 부모세대의 개입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익수의 나약함을 삼열이 비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청년들의 나약한 태도를 지적했던 인숙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옥주가 “참 정말 젊은 것들이 어느 쪽이나 다잡아서 죽자 사자 연애라도 열렬히 하는 것을 봤으면”하는 말에서 젊은 청년 세대들의 무기력한 태도와 연애마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은 익수가 분명히 태도를 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왜 또박또박히 따질 건 따지구 할 말은 하구 하시질 못하느냐”(310)며 따진다. 그러나 익수는 여전히 이 두 여자를 두고 “자기중심으로만 두 여자를 달아보는 것”(313)이다. 그러다 신성과 열싸 안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는 것으로 작품이 끝난다. 삼열과 익수, 신성은 부모세대의 개입과 횡방으로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보다도 익수의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세 인물은 적극적인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를 물려서」는 자녀 세대의 연애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부모 세대와의 갈등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남성인물로 인한 적극적인 여성인물들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결국 이 작품의 젊은 세대인 청년 안익수는 “똑똑한 수재면서도 실제적인 인물”(18)로 등장하면 현실적인 삶에서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는 젊은 세대의 남성 인물로 그려지고 만다. 요컨대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 등장하는 젊은 남성인물들은 대부분 삶에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들이 이런 이유에는 전후 사회의 시대적 분위기와 젊은 남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 그리고자 하는 세대 갈등은 가부장제 질서나 연애로 인한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 작품은 자신들의 연애 혹은 과거의 연애에 대한 향의로 자녀들의 연애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중년세대와 적극적인 연애가 어려운 전후 젊은 청년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대비적으로 그리고 있다. 젊은 세대 남성인물들이 처한 현실적인 한계 상황이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전후의 전후파적 현실의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세대의 문제제기는 이 시기 염상섭과 이어령의 당시 논쟁에서도 잘 드러난다. 염상섭은 1958년 6월 11일~12일 2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문학도 함께 늙는가?」라는 글을 연재한다. 그는 “늙은이가 쓴 작품이라 하여 그 문학이 늙는 것은 아니다.”(419)라고 하면서 “문학적 연륜이 노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420)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소설에 대중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문학이 늙지 않는 실증으로 연애소설을 죽기 전에 한편 쓰고야 말지도 모를 일”(421)이라고 서술한다. 그러면서 전후 문학사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여두려는 것은, 실존주의가 들어오고, 불안이나 부조리니 하는 유행어가 범람하게 된 뒤로는 리얼리즘이라는 것에 곱팡이 슌 것처럼 일부에서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리얼리즘으로 일관한 나 같은 사람의 문학은 그야말로 늙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존주의철학이나 그 문학이라는 것을 좀 더-좀 더라기보다도 본격적으로 연구라도 해보고 싶지마는 불안과 부조리 속에서 살아오기로 말하면야 어제오늘일도 아니겠으니, 차라리 불안과 부조리에 휘둘리기 전에, 표현형식·표현방법으로만도 우선은 리얼리즘에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졸업하고 나서, 갱진일보(更進一步)하는 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기의 문학이 아직은 흰머리터럭과 얼굴의 주름살과 함께 늙지는 않았다는 자신이 생겨서 안심이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란서의 국민성이나 실정은 잘 모르되, 표면상으로만 보아도 흑독한 서리를 두 번이나 맞고 난 그네와 건국초에 앉은 우리와는 보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저절로 현수(懸殊)할 것이요, 또 달라야 할 것이다.(422~423)

염상섭은 작가적 노쇠함과 연륜을 구분하고, 전후에 유행하는 실존주의 사상에 대해 리얼리즘에 대한 충실한 이해 위에 실존주의의 연원과 맥락을 이해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이어령은 “젊음을 실증(實證)하기 위(爲)해서 굳이 연애소설(戀愛小說)을 쓸 필요(必要)는 없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젊음’과 오늘의 ‘젊음’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 입장(立場)이 너무나도 판이(判異)하다.”고 다소 과격한 비판적 자세를 취한다.

오늘의 “젊음”은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연애(戀愛)하는 열정(熱情)”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히(確實) 시대(時代)는 “젊음”까지도 변(變)하게 하였습니다. 연애(戀愛)를 못하는 젊음 젊음을 잃어버린 젊음 이것이 우리들의 젊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편의 연애소설(戀愛小說)을 쓰기에는 너무 서둘기만 합니다. 연애(戀愛)를 하여도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의욕(意欲)을 잃어버린 것이 또한 우리의 우리 젊은 작가(作家)들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인간(人間)을 사랑하기 전에 인간(人間)을 죽이는 방법(方法)을 배웠던 것입니다. 희망(希望)을 갖기도 전(前)에 생(生)에의 기대(期待)를 변변히 품어보기도 전(前)에 무수(無數)한 굴욕(屈辱)과 슬한 좌절(挫折)의 침몰(沈沒) 속에 익숙해야만 되었습니다. 포연(砲煙) 속에 타는 고향(故鄉)을 보았고 아직도 꿈이 있는 별판에서 무궤도(無軌道)가 굴러가는 소리와 죄(罪)없는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를 들어야했던 젊음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무력(無力)을 생각했습니다. 무지(無知)와 너무나도 가난한 우리의 정신(精神)을 느꼈습니다.<sup>14)</sup>

이 글은 염상섭 글의 취지와 다소 벗어난 듯하지만, 염상섭이 서술한 ‘젊음’에 대해 오늘날의 ‘젊음’은 그 이전과는 다르다는 세대의식의 변화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전쟁 이후 연애보다는 생존에 대해 고민하게 된 젊은 세대의 현실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당시 화제가 되었고 이무영 역시 이에 대해 “젊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발견한다.”고 했다.

염씨와 이군과의 사이에는 사반세기(四半世紀)의 연륜의 차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사반세기(四半世紀)는 과거의 몇 세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삼십대와 육십대의 ‘젊음’에 대한 해석의 차는 곧 삼십대문학과 노장파문학과 의 모랄의 차이 제네레송의 차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젊음’은 분해하므로써 우리는 2.30대와 5.60대 간에 수화(水火)처럼 상극되어있는 문학, 아니 회화, 음악 등 예술 전반에 걸친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오늘의 2.30대와 5.60대는 같은 하늘, 같은 지상, 아니 같은 서울안에 살면서도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세대를 따로 갖고 있고 또 생활하고 예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음에 대한 이념의 상반은 곧 정치이념의 차이요, 윤리의 차이요, 철학의 차이이다. 이 상반된 ‘젊음’을 해부, 분석하는데서 우리는 또한 해결은 짓지 않고는 넘길 수 없는 수많은 부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sup>15)</sup>

이무영은 염상섭의 견해에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도, 당시 “전쟁고 인간고를 육체로 체험한 이삼십대 청년들”과 “문학전선에 있어서도 청년문학도들은 실로 과감”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전쟁을 직접 참여한 젊은 청년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와의 확연한 격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염상섭의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서 그려지는 중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문제는 전후 사회 현실의 특수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 3. 다성적 인물구성과 민주주의에의 전망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는 각각 중년 여성인물인 화순과 옥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여성인물들은 다른 인물들의 연애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휘방을 놓는다. 그리고 그녀들의 태도는 다소 권위적이고 독선적으로 그려진다. 「젊은 세대」에 등장하는 화순은 동재의 후처로 태규의 재혼에 적극

14) 이어령, 「문학과 젊음 <문학도 함께 늙는가>를 읽고 (上,下)」, 《경향신문》, 1958.6.21.~22.

15) 이무영, 「오십대 문학의 향변(1),(2)」, 《동아일보》, 1958.7.5.

나서면서 명희와 택규의 교제를 부추기는 인물이다. 동시에 자신의 의붓딸 영애와 정진이 교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친딸인 순애와 정진을 맺어주려고 노력한다. 화순은 중년 세대와 젊은 세대 양쪽 모두의 연애에 있어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자신의 친딸과 정진을 적극적으로 맺어주려 하는 과정에서 의붓딸인 영애와 남편인 동재, 친딸이 순애와도 갈등을 빚는다.

자유주의 사상에서 그러는 것인지 낳은 에미를 모르고 자라난 딸자식이 계모에게 트집이나 잡히는 듯싶어서 그런지 동재는 그리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당신은 자식을 어떻게 길르시는 수작예요?” 아내, 자기의 의견에 따라 오지 않으니까 툭 쏘아 주었다. “뭐, 그리 걱정할 거 없어. 그저 호의있는 감독만 필요한 거지. 저의끼리 참말 좋아하는 새람녀 내년쯤 졸업을 한 뒤에 성취시키지, 무에 걱정야” 동재는 의외로 태평이다.(120)

“왜 이렇게 어머니는 괜한 일에 화를 내시구 강제적이세요?” 순애는 공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가지구 언니의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이 모친의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좀 맞섰다. “무슨 말대답야! 강제라구? 흥! 아니꼽게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구?.....” 소리를 뿅 지르며 코웃음을 쳤다.(권영민 121)

그런데 화순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 대해 묘사하는 단어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단어 들이다. 자유연애에 대한 화순의 이런 강경하고 강압적인 태도는 인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만, 뜻 대로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정진의 아버지인 택규는 자녀들의 연애에 대해 “애들이 속삭이게 내버려 둘 일”(231)이라 한다. 이에 동재는 “허! 자네 언제부터 그런 자유주의가 됐나?”(232)하고 대꾸한다. 이에 택규는 “방임주의”(232)는 아니냐, “서투른 삼등선장이랴도 첫 항로(航路)에 나서려는 젊은 것을 붙들어 쥐야”(232)한다고 한다. 이러한 택규의 태도는 젊은 세대에 대한 중년 세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대 간 화합을 모색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화순이 자신의 졸업앨범을 꺼내 택규에게 명희와 희숙을 소개 시켜 주는 장면에서 동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긴 보게마는, 사진 임자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사진 선을 봐다니, 이걸 인권유린이요 인격무시야” 동재가 한마디 웃음엿소리를 했다. “딴은 그래 하지만 그저 배관(拜觀)만 하지.”<sup>16)</sup>

화순은 이처럼 중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연애를 개입하고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해방 이후 염상섭의 소설에서 연애관계를 민주주의에 비유하는 장면은 적지 않게 등장한다. 특히 해방 이후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효풍』에서 베커에 의해 처음 언급된다. 그는 자신을 “민주주의 국가의 젠틀맨”이라고 한다. 『난류』에서는 덕희가 택진과 연애를 하려하자 덕희의 부친은 이들 연애를 반대하며 “애 그게 민주주의냐? 자유해방이란 그런거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취우』에서는 김학수 영감과 그의 부인의 대화에서 “허, 아직도 남녀동권, 민주주의를 모르는구먼!”이라는 장면에서 언급된다. 그러다 이후 「새울림」에서는 보다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시대”라는 말과 함께, “민주주의 가정의 실험대”, “민주주의 정신”이 순제가 영식과 구속이 없고 자유로운 부부 생활을 요구하면서 언급되는 것이다. 「미망인」에 이르러서는 미망인 명신과 미혼 총각인 흥식의 연애를 두고 그의 동생 준식이 “우리 집에도 민주주의가 확실히 들어왔군”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해방 이후 염상섭 소설에서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며 이를 연애관계에 비유하여 등장하게 된다.

「대를 물려서」에서 옥주는 화순보다 더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의 연애를 개입하고 훼방을 놓는다. 그녀는 익수가 삼열이와 이미 약혼을 전제로 교제중임에도, 익수를 신성이의 독일어 과외 선생으로 두고 생일을 함께 보내게 하거나 영화를 같이 보게 하는 등 이런 저런 자리를 마련하여 둘을 가까워지게 한다. 이런 과

16) 염상섭/권영민 편, 『염상섭 전집』8, 민음사, 1987, 39쪽.

정에서 익수는 점차 신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삼열이와 갈등을 빚게 된다. 그리고 옥주의 방해로 인해 약혼을 취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삼열이의 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가는 곳에 일부러 익수와 신성을 데리고 점심을 먹는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삼열이는 “자기의 인격이 익수나 옥주 모녀에게 짓밟힌 것”같은 감정이 들고 익수에게 크게 실망하여 약혼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옥주의 이같은 행동에 익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마님 수단에 논 것이 분하였고, 이 혼인에 희살을 놓고 삼열이와 싸움을 붙이려는 것 같은 야비한 수단”이라 생각한다. 옥주는 다만 “너희두 차차 나이 차 가면 내 마음을 알 것”이라는 구시대적인 입장을 취할 뿐이다. 이처럼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에서 등장하는 연애와 이를 둘러싼 갈등은 민주주의에 비유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는 그 서사적 구조에서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당시 지배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당시 유행어의 열망과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문물에 대한 욕구,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는 젊은 세대의 연애를 반대하고 탐탁지 않아 하는 화순이 권위적인 인물로 등장하여 젊은 주인공들과 갈등을 빚는다. 「대를 물려서」에서는 옥주가 자신의 과거의 인연을 자신의 딸을 통해 실현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연애가 갈등을 빚게 되고 그녀의 강압적이고 비열한 행동들로 인해 인물들은 자유롭게 연애하기 어려워진다. 작품에서 화순과 옥주가 다른 인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개입하려 하면서 드러나는 독단적이고 비열한, 강압적 행동들은 다른 인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언급하며 비난한다. 또한 이들 작품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과 선거의 문제도 새롭게 변화해가는 시대적 당면과제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를 통해 염상섭의 전쟁 이후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을 엿볼 수 있다.

「대를 물려서」에서는 중요 인물들이 다함께 D극장<sup>17)</sup>에서 “시집가는 날”(149)이라는 영화를 관람하게 된다. 이곳에서 신성과 함께 온 익수는 삼열과 마주치게 된다. 여기서 “시집가는 날”<sup>18)</sup>이라는 영화는 1956년 작품으로 원작은 ‘맹진사댁 경사’이다. 작품의 내용은 맹진사가 결혼할 사위가 세도가의 자식에 기대가 부풀었으나 절름발이라는 소문에 잔피를 내어 딸의 몸종을 대신 시집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혼인 날 보니, 그는 절름발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맹진사 집에 며칠 묵고자 하는 나그네가 등장하고, 그가 도라지골 사람이라는 것을 안 맹진사는 그를 극진히 대접한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그 사위가 될 미언이 절름발이라는 것을 은밀히 소문을 내는 것이다. 「대를 물려서」에서 옥주는 속물적인 맹진사의 역할이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익수가 결국 삼열과 헤어지게 하는 나그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당대 사회에서 문제시되었던 ‘네거티브 전략’의 비유로도 볼 수 있다.

옥주가 개입하는 것은 비단 젊은 세대의 연애 뿐만은 아니다. 그녀는 삼열의 아버지인 국회의원 한동국을 도우며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작품에서 한동국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박옥주는 한동국에게 자신의 호텔에 연락사무소를 차릴 수 있게 해준다. 옥주는 “한동국이를 사람으로도 좋아하고, 또 탄생각이 있어서 이용하려는 공공이 속”(87)이 있다고 서술된다. 그녀는 자신의 경제력으로 한동국을 도와주려 하면서 한동국을 지지하는 여성들 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안익수의 모친인 숙경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옥주는 “무슨 구락부라든가 정치연구회”(97)를 만들자는 의지를 내비치고 무소속인 한동국에게 “입당”(105)을 권유한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 동지회”를 만들어 한동국을 계속해서 여당인 XX당으로 갈

17) 이 영화가 상영된 극장은 수도극장인데 당시 단성사와 국도극장 이 세 곳이 큰 극장이었다.

18) 「맹진사댁 경사」가 최초로 영화화 된 것은 1956년 이병일에 의해서였다고 알려진다. 그는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사」를 「시집가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영화화하였다. 이 작품은 한국영화사에서 첫 해외영화 수상작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해외에 한국영화를 알리는데 일정한 공헌을 한 것으로 기록된다. 최승연, 『<맹진사댁 경사>의 각색 양상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1쪽 참조.

것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여성동지회는 “결의사항”(289)으로 “당적을 반드시 가지실 것”(289)과 “당적을 가지시는 데는 반드시 여당을 택하실 것”(289)을 이야기한다. 이에 한동국은 “딱 결단을 하기는 어려운 처지”(290)이고 이는 한동국을 “마지막으로 다루어보고 자기의 위세를 보이자는 옥주 여사의 농간에 지나지 않았다.”(290)고 서술된다. 결국 작품의 말미에서 한동국은 노정객인데다가, 여당 쪽에서 달가워하지 않아 당을 가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한동국은 작품 초반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어느 정당으로 갈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국회루 가지!”(68)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옥주의 재정적 지원과 옥주가 여성동지회를 꾸려 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당에 가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소신을 잃고 여당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노정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늙은 국회의원이 라는 설정도 그렇지만, 옥주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자신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한동국의 이런 국회의원의 설정과 옥주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부통령 선거”(289)의 언급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특히 작품 속 다음의 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신관이 구관만 못하랴고는 하지만.....해해해.”

“그러니 어쩡다구?”

신성이의 그 말이 또 한 걸음 다가서는 의사표시기에 익수는 귀가 번쩍하며 따졌다.

“그렇기는 하실 테지만, 내친걸음인데 어떡하실 테예요? 왜 분명히 태도를 정하시질 못 하시구.....지금두 세 마님이 법석이신데, 왜 또박또박히 따질 건 따지구 할 말은 하구 하시질 못하느냐, 말예요? 역시 신관이 구관만 못하죠? 또 혹은 우물쭈물하는 것이 여자를 다루는 수단인진 몰라두.”

신성과 익수의 위의 대화는 1956년 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의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구호에 대한 이승만의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구호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신익희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정권교체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과로로 사망했다고 알려진다.<sup>19)</sup> 결국 정권교체에는 실패하게 되고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에서 신성은 위의 표현을 빌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익수를 다그치고 있다. 옥주가 개입하는 가운데 젊은 세대에서의 ‘익수’와 중년 세대에서 ‘한동국’은 결국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무기력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두 남성인물들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특히 젊은 청년인 ‘익수’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삼열과 신성과 같은 여성인물들이 익수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즉 이 작품은 젊은 여성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당대 청년들의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어느 정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후 세대론의 문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는 「젊은 세대」(1955)와 「대를 물려서」(1959)에서는 독특한 서사적 구조를 드러낸다. 「젊은 세대」는 작품의 주인공을 상정하기가 어려우며 초점 인물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작품의 초반부는 동재의 가정을 중심으로 그려지다가 재혼을 하려는 택규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 축이 옮겨진다. 이렇게 중년 세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인물과 이야기 축은 계속해서 이동한다. 젊은 세대의 경우 처음에는 정진과 영애를 중심으로 그려지지만, 후반부에는 인숙을 중심으로 새로운 젊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주요 인물들이 변화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중심인물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서술자는 개입할 틈이 없게 된다.

「대를 물려서」는 중년 인물과 젊은 인물들이 비중이 비슷하게 되어있다. 중년 세대의 경우 옥주를 중심으로 하여 한동국과 그 주변인물들의 이야기의 한 축이 있고, 젊은 세대는 남성인물 익수를 둘러싼 삼열과

19) 「대통령후보 신익희 선생 급서」, 《동아일보》, 1956.5.6.

「백열화한 종반의 고비」, 《경향신문》, 1956.5.12.

신성의 이야기가 각각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두 세대의 이야기가 서로 대등하게 평행선을 이루며 서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서사적 특성은 두 세대 간의 이야기를 균형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두 세대 간의 이야기를 각각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특히 중년 세대와 구세대의 정치인을 대표하는 한동국의 모습과 젊은 세대의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익수의 이야기가 대등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각 세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은 둘 다 긍정적인 인물들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극적인 쪽은 여성인물들이다. 이처럼 「대를 물려서」는 중년과 젊음,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가 균형 있게 전개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통해 전후 민주주의의 시대적 분위기를 서사적으로 담고자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젊은 세대」에서 중심인물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구조와 「대를 물려서」에서 중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동등한 비중으로 그들의 연애가 그려지는 것을 다성적 인물구조로 볼 수 있다. 다성적이라는 것이 소리들의 '등가성'에서 비롯되었듯, 이들 작품에서 인물들은 어느 한쪽이 지배적이거나 부속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sup>20)</sup> 이 작품들은 중심인물에 서사적 비중이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며 '탈중심화'하는 원심적인 힘을 보여 준다.<sup>21)</sup>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다성적 인물구조는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된다. 다수의 인물들에게 동등하게 비중을 주는 이러한 서사적 구성은 일종의 민주주의적 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설은 민주주의와 유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이런 특징은 전쟁 이후 남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작가적 동조와 희망의 태도로 볼 수 있다. 선악을 막론하고 여러 다양한 세대에 골고루 발언권을 주어 다양한 목소리의 충돌과 공존을 이 두 연작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염상섭의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는 전후 남한사회의 현실을 주제적, 서사적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중년세대와 젊은세대의 대비 혹은 갈등을 통해 젊은 세대 연애의 불가능성과 젊은세대 연애에의 지나친 개입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문제를 연애의 문법을 차용하여 그리고 있으며, 작가가 전후 젊은세대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후 젊은세대가 처했던 현실적인 한계와 그들에 대한 전망을 중년 인물들 및 젊은 여성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 염상섭이 세대와 늙음/젊음의 문제에 주목한 것을 당대 현실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작품 속 연애 갈등의 문제는 독재와 강압, 인권 등의 용어와 함께 민주주의에 빚대어 그려진다. 이는 해방 이후 『효풍』과 『난류』, 『취우』, 『새울림』 등에서 연애의 문제가 종종 민주주의 혹은 자유의사와 관련하여 언급되어 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염상섭은 연애의 문제를 민주주의에 빚대으로써 당대 정치 및 역사적 현실과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그려왔기 때문이다. 「대를 물려서」는 특히 당대 선거 및 국회의원등 등장하여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당대 정치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젊은 세대」와 「대를 물려서」는 세대, 성별, 선악 등을 막론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다성적 인물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독특한 서사적 특성은 민주주의적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작품을 통해 작가는 전후 남한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작가적 동조와 전망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 밀란 쿤데라/권오룡 역, 『소설의 기술』, 민음사, 2009, 113쪽

21) 프랑코 모레티/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새물결, 2001, 99쪽 참조.

22) Fredric Jameson, *The antinomies of realism*, Verso, 2013, p.3

# 『소년세계』의 젠더 연구

허난희(한신대학교)

## 목차

1. 들어가며
2. 성별분업·이중노동 강요와 재생산노동에 대한 저평가
3. 아동의 긍정성 강조와 타락한 여성에 대한 경계
4. 고아들의 고난서사와 대리가장 아들의 역량 강조
5. 나가며

### 1. 들어가며

한국전쟁은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전쟁이다. 유엔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한의 전쟁피해자는 약 130만 명에 달하는데, 그 중 군인은 2만 9천명 사망, 10만 1천명 부상, 17만 명이 포로로 붙잡히거나 행방불명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납북되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5백만이 넘는 남한 인구가 집을 잃기도 했다. 이렇듯 한국전쟁은 피난생활, 가족이산, 전쟁고아, 경제파탄, 사회불안 등의 고통이 사회 전반을 뒤덮은 전쟁이었다.<sup>1)</sup>

그러나 이렇게도 힘든 시기에 여러 아동지가 발간되는데, 그 중 『소년세계』의 인기가 남달랐다. 『소년세계』는 피난지 대구에서 전쟁 중인 1952년 7월에 발간되어 1956년 9·10월 합본인 통권 40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 아동지이다. 그간의 평가에서 1950년대 아동문학계는 대중 통속문학의 시대로 여겨진다. 이 시기가 통속으로 흐른 이유는 전시체제에 출판사들의 요구와 작가들의 현실적인 생존 문제 때문<sup>2)</sup>이었는데, 이러한 아동지의 통속, 대중화 경향 속에서 발간된 『소년세계』는 순수문학의 아동지를 추구하며 아동들에게 읽을거리와 여러 깨달음을 전해준 잡지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소년세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경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이 아동지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소년세계』의 성격을 밝히는 연구이다.<sup>3)</sup> 두 번째로는 독자와의 소통이 강했던 이 잡지의 특성을 살려 독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이다.<sup>4)</sup> 셋째는 잡지에 실린 작품 중 일부

1) 정성호, 「한국전쟁과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2002.

2)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3) 김종현, 「《소년세계》지 연구-《소년세계》창간정신을 중심으로」, 『아동문학평론』 31권 2호, 아동문학평론사, 2006.

황혜순, 「《소년세계》지 연구: 효용론적 관점에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7.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피난문단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 연구」, 『한국문학논총』 37, 2004.

4) 장수경, 「1950년대 소년잡지에 나타난 문학 창작교육과 의의-『새벗』과 『소년세계』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0, 한민족문화학회, 2012.

박영기, 「한국 전쟁기 아동문학교육 연구-국어 교과서와 아동잡지 수록 문학교육 제재 분석을 중심으로-」,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4권 2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3.

황혜순, 「1950년대 아동잡지 《소년세계》에 나타난 의사소통전략 연구-〈응접실〉코너의 엽서응답을 중심으로-」, 『한국사교와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호, 한국사교와표현학회, 2016.

박종순, 「전쟁기 아동매체 『소년세계』의 독자 전략과 작문 교육의 의의」, 『한국아동문학연구』 30, 한국아동문학학회,

를 분석한 작품연구가 있다.<sup>5)</sup> 이러한 연구들은 척박한 아동문학연구 분야에서 소기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소년세계』를 소략하거나 표피적인 특성 연구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유아들이 남아나 여아로서 기본 성정체감을 형성하며 성역할을 획득하기 시작하고, 학령전기와 초기 초등학교 기간 동안 더 성에 적합한 장난감 활동 및 성취영역에 대해 배워가며 10-11세 경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sup>6)</sup>는 점을 고려하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세계』<sup>7)</sup>의 특성상 이 잡지의 젠더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전쟁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막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한 전쟁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지상과제로 던져주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아동지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게 반영되며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담지했다.

기존의 경제학은 남성들의 일은 생산 영역으로, 여성의 가정노동은 재생산영역으로 구분하며 후자의 영역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경제학에서는 여성주의를 중심에 두고 여성과 남성의 경제행위와 행위의 결과에 나타나는 차이와 차별에 주목한다. 그리고 여성주의 경제학은 돈의 논리 앞에 폄하되었던 돌봄, 보살핌, 배려 등의 가치를 부각하면서 이윤 추구에 급급한 경제 현실을 넘어 생명을 보살피고 생태계를 살리며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며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한 대안 경제학이 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이 집중한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여성과 많이 관계되지만 도외시된 재생산영역, 그리고 재생산영역과 생산영역의 관계까지 연구 범위로 한다.<sup>8)</sup>

본고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절실했던 한국전쟁 시기의 『소년세계』의 전반기에 속하는 작품<sup>9)</sup> 중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여성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문은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2,3,4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2. 성별분업·이중노동 강요와 재생산노동에 대한 저평가

『소년세계』는 매호에서 <편집을 마치며>라는 코너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잡지의 창간호에서 편집인은 이 잡지의 창간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맨손에 붓 한자루를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서와 달라 글 쓰시는 분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고 게다가 책을 읽은 어린이들은 전쟁통에 모두 책을 사볼 힘이 전보다도 더 적어진 것을 알면서 곤란한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갖은 짓을 다 해서 돈벌기에만 눈이 뒤집히는 세상에서 짠 값의 좋은 잡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은 밀지는 계획이요, 약바른 이들의 비웃음까지도 받는 짓입니다. (강조-필자)

2016.

박영기, 「1950년대 한국전쟁시기 아동잡지의 문학 교육적 양상과 의의-『아동구락부』,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5) 진선희, 「1950년대 《소년세계》지 수록 동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9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5.

박성애, 「《소년세계》에 나타나는 죄의식과 윤리적 주체의 연관성», 『아동청소년문학연구』 9,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6) 최경숙, 『아동발달심리학』, 교문사, 2007.

7) 『소년세계』 2호의 <소년세계 응접실>에서 중학생 2학년인 이종기라는 학생이 “중학 2학년 학생도 애독자가 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소년이나 소녀는 다 “소년세계”의 독자가 될 수 있지요. 우리 잡지가 중학교로 나가는 수효가 얼마나 많은데요?”라는 답이 달린다. 이 부분을 보면 『소년세계』에서는 중학생을 소년, 소녀로 보고 이들을 잡지의 독자로 상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홍태희, 『여성주의 경제학』, 한울, 2014, 5-18쪽.

9) 『소년세계』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기는 창간호부터 53년 6월호인 13호까지, 중반기는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3년 7월에 발간된 14호부터 18·19호 합본이 출간된 1954년 1월까지, 후기는 『소년세계』가 서울로 이전해서 발간되었던 20호부터 폐간될 때까지이다.

『소년세계』의 편집인이었던 이원수는 한국전쟁 시기가 ‘돈 벌기에만 눈이 뒤집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어린이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싼 값의 좋은 잡지’를 만들고자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잡지의 창간호부터 이 잡지가 당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을 속고해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편집인의 발언 외에도 문학은 당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당대의 경제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그저 반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알튀세르는 국가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생산 관계를 유지 재생산하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한다고 보았다. 하나는 정부, 행정, 군대, 경찰, 감옥과 같은 억압적 국가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교육, 가족, 언론, 문화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다. 전자는 폭력을 통해 유지된다면 후자는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강화하는 근본적 수단으로 개인은 이데올로기 장치 안에서 이데올로기에 지배력을 장악당하는 주체로 재생산된다. 곧 개인은 이데올로기의 호명을 통해 생산관계에 적합한 주체로 생산되는 것이다.<sup>10)</sup>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년세계』는 교육, 언론, 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이 잡지에 실린 작품을 여성주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소년세계』의 작품에서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부부가 전형적인 성별분업 노동을 따르는 경우와 한국전쟁 시기에 많이 발견되는 상징가장·모중심 가족의 형태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씨름」(1952.11), 「천사와 나무꾼」(1953.2~1953.6), 「자라나는 새싹」(1952.8) 등이 있다. 「씨름」의 은석과 대지는 “서로 마음에 맞는 씨름 동무” 사이로 “유달리 우정이 두터운 관계이다. 하지만 은석의 아버지는 농림부 국장이기에 은석이는 늘 다양한 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지만, 대지는 도시락이 없어 학교에서 굶으며 하교 후에는 공책을 팔러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은석은 대지를 보고 마음 아파하며 그의 공책을 사주려고 하지만 대지는 “쌀 배급을 주시도록 너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라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작품에서 은석의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고 은석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며, 은석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를 위하여 대야에 찬물을 떠 내놓”는 등의 돌봄노동<sup>11)</sup>을 수행하지만, 은석은 그런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요즘 몹시 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딱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와 맞물려 남성이 하는 노동은 아이들의 배고픔과 갈등을 일망타진하는 해결사 역할까지 하며 그 의의를 인정받는다. 은석의 아버지가 은석의 말에 용기를 내어 쌀 배급을 주장해서 장관의 결재를 얻어내 굶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만 챙기는 이기적이고 무능력한 존재로 비쳐지는 반면, 은석은 타인을 배려하는 인물로, 은석의 아버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sup>12)</sup>

10) 허석현, 「알튀세르와 이데올로기적 주체」, 『제3시대』 105,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2017.

11) 돌봄노동이 광의의 개념으로 돌봄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개념이라면, 가사노동은 가게를 꾸리면서 발생하는 육체노동은 물론 가게 경영 및 계획을 세우는 다양한 정신노동을 포함한다. 가사노동이 가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돌봄노동은 노동의 특성을 더 강조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홍태희, 앞의 책, 127쪽.

본고에서는 어머니의 애정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가사노동의 특성을 살려 여성의 재생산 영역에서의 노동을 돌봄노동으로 주로 칭하겠지만 때에 따라 가사노동이라는 용어도 병행한다.

12) 전후의 척박한 현실에서 ‘완전한 가족’의 꿈은 무사회적 상황의 모든 위기와 불안, 모순을 비판하는 기준이자 동시에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강한 주체, 또는 훼손된 주체를 복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완전한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죽음이 만연한 사회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개인의 생명과 재생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으로 상상된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이러한 상상은 가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를 요구한다.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4, 33-34쪽 참조.

「선녀와 나무꾼」은 박두진의 작품으로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생산노동을 하는 나무꾼 수돌이가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수돌은 ‘아내’ 역할을 해줄 여자를 얻기 위해 사슴의 조언대로 천사의 옷을 훔쳐 천사를 아내로 맞이한다. 이름도 없이 그저 ‘천사’로만 불리는 그녀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돌이의 아내로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며 해남이와 달남이를 낳는다. 이 작품에서 수돌이와 천사는 전형적인 성별분업 노동을 수행하며 집안을 이끌어가지만 천사가 옷을 되찾고 하늘나라로 돌아간 뒤 이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천사옷을 숨긴 수돌이의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행동, 목욕을 하는 천사들을 숨어서 엿보는 수돌이의 관음증적 시선, 몰개성적이고 비주체적인 천사의 결정 등이 문제가 되었기에 일어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이런 문제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아내를 갈구하고 어머니역할을 수행하는 수돌이의 어머니, 애정과 효를 두고 갈등하다 어쩔 수 없이 효의 측면에 남게 된 수돌이의 모습만이 강하게 보인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높은 물가를 경신했는데, 『소년세계』가 창간된 1952년에도 흉작으로 곡물의 가격이 폭등하여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된다.<sup>13)</sup> 이런 고된 현실은 「자라나는 새싹」에서 “참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돈은 벌기 힘들구, 쌀값, 나무값, 모두 물건이 비싸서 꼼짝 달싹할 수도 없다구...” 등의 대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자라나는 새싹」속 어머니는 남편이 전쟁터에 간 사이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수행하며 남매를 돌본다. 그녀는 “쌀이 떨어지면 보리를 구하시고, 보리가 떨어지면, 호박을, 수수를... 이렇게 죽물이라도 흠겨서 저희들 남매를 살려” 내고, 할머니와 함께 “조고마한 하꼬방”을 지어 “빈대떡 장수”를 시작한다. 서울에서 가족의 생계를 넉넉히 책임졌던 할아버지는 납북되고, 육군 소령인 아버지의 생사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인 어머니와 할머니의 노동은 남매를 살리는 생명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중노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로 여겨진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고된 노동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아버지를 상이군인이 되게 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부각시키는 데에도 이용된다. 아들은 양담배 파는 일을 하며 “어서 어서 한푼이라도 돈을 벌어 아버지를 병신을 만든 원수, 우리 집안을 망쳐논 원수, 우리 할머니 어머니를 고생시킨 놈들의 원수를 꼭 갚”겠다고 다짐하는데, 이때 여성들의 노동은 아들의 결심을 강화하는 동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국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국민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기능을 해온 최고의 국가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질서를 의문시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sup>14)</sup>이기도 했는데, 아들은 이러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공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모습도 보인다.

『소년세계』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부모의 모습은 아버지가 죽거나 사라져 상징가장으로 남고 어머니가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의 노동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이다.<sup>15)</sup> 「희망의 노래」(1952.7)는 글과 글의 내용을 반영한 실제 사진이 결합된 사진소설<sup>16)</sup>로서 작품의 의미가 사진을 통해 한층 부각된다. 작품 속 철수네는

이 작품은 비교적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헌신하는 어머니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하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

13) 이재은, 「1950년대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한국동서경제연구』 15권 2호, 한국동서경제학회, 2004, 221-227쪽.

14) 김동춘,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15)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다수의 전쟁미망인은 동정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특히 전쟁미망인의 성문제는 가족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전쟁미망인을 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제도 내의 구성원으로, 자식의 부양자로 위치시킴에 있어 모성이 자주 활용되었다.

김은경, 「1950년대 모성 담론과 현실」, 『여성학연구』 21권 1호, 2011.

미망인은 남편이 죽었으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차별적인 용어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당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6) 『소년세계』에서는 작중 인물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실제 인물들을 모아 야외 촬영 등을 한 뒤 사진을 글과 함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가며 아이들을 돌보지만, 어머니가 차에 치여 다치자 철수가 가장 역할을 이어간다. 이 작품에서 다치기 전의 어머니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 주오” 했던 남편의 유언을 지키며 “어느 하루 쉬는 날 없이 애를 써서” 아이들을 피난민 학교에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노동은 위의 구절로 간단하게 지나가고 이후의 서사는 여동생인 옥란의 밀린 후원회비를 내주는 옥란의 담임 박선생과 책방에서 책을 훔친 어느 중학생의 책값을 대신 내주는 철수의 미담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남성인 박선생은 어머니도 구하지 못한 후원회비를 내주며 남성의 경제적 역량을 드러내고, 철수는 상징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아 구두담이를 하러 다닌다. 철수는 길가의 빵을 보며 사먹고 싶어서 잠시 갈등을 벌이지만 “아버지의 유언”과 “아이들은 누구나 공부할 해야 한다던 박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책방으로 간다. 거기에서 철수는 책을 훔치려던 중학생의 책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하는데, 책방 주인은 그런 철수의 행동에 감화되어 철수네에게 “반찬가게”를 차려준다.

철수의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해도 아이들을 유복하게 건사하기가 힘들었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성차별적인 노동구조와 임금 지불 체계는 『소년세계』의 어디에서도 지적되고 있지 않다. 이 작품에서도 어머니의 노동보다는 철수의 생계 도모와 남성인 박선생과 책방 주인의 경제적 능력과 선행이 강조되며 성차별적인 남녀 노동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잃어버린 학급비」(1952.7~1952.9)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만으로 생계를 이어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슬픈 사건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인 귀옥은 “육학년 일반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이”이다. 귀옥이는 어머니가 “콩나물장사로 근근히 학교에 보내주는 형편”이어서 매번 기한이 훨씬 지나 학급비를 냈는데, 그 날은 첫날에 학급비를 가져오며 도둑으로 의심을 받는다. 학급비를 잃어버린 영희의 뒷책상에 앉는 데다가 가난한 집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옥의 어머니는 귀옥이의 상처를 헤아리며 귀옥이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며 귀옥이를 감싼다. 그녀의 돌봄노동은 귀옥이를 ‘살리는’ 행동이지만, 작품 전반에서는 선생님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선생님은 귀옥이의 결백을 믿어주며 아이들에게 귀옥이를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영희에게 집에 가서 돈을 잘 찾아보라고 하거나 영희의 돈이 발견되어 귀옥의 누명이 벗겨지자 학생들을 데리고 귀옥의 집으로 사과하러 간다. 이 작품의 선생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귀옥이를 의심했던 어리석은 ‘여학생들’과 대비되어 ‘합리적인 남성 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창길이의 꿈」(1953.2)에서 창길이의 아버지는 상이군인으로 다리를 잃어 병원에 입원 중이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호떡이나 과일 등을 팔며 생계를 이어간다. 창길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 나타난 노인은 상이라며 창길이에게 금잔을 준다. 집에 돌아온 창길이는 꿈 속 노인이 예언한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아버지는 창길이에게 “뿔보담두 창길이 학교엘 다시 보내줘야지. 내일이라도 수속을 하고”라고 말하며 집안의 큰 문제를 일소에 해결한다. 다리를 잃어 생산노동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작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며, 당당하게 집안 문제를 해결하는 창길이가 아버지의 능력만이 부각되고 있다. 창길이의 어머니는 집안 가족에게 인자하고,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며 살림노동을 살뜰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 당시에 강요되었던 모성이데올로기의 일면을 보여준다.

계재한 사진소설을 종종 실었다.

17) 여성의 임금 고용 형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핵심 특징에 의해 구분된다. 첫째, 여성은 특정 영역 및 직업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그들은 직업 위계의 하단 끝에 위치해 있는 경향이 있고, 셋째, 집단으로서 여성은 집단으로서의 남성보다 적게 번다. 심지어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형태의 일을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버는 경향이 있다.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한울아카데미, 2010

### 3. 아동의 긍정성 강조와 타락한 여성에 대한 경계

가장의 책임감과 권위가 남다른 한국사회에서 전쟁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가장이 부재하는 상황은 곧바로 가족의 위기로 인식되고, 가족의 위기는 다시 전사회, 국가의 위기로 여겨진다.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수난을 강조함으로써 다시는 수난이 없기 위해 권위적인 가장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가부장의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럽게 내면화될 수 있었던 한국현대사는 전쟁과 가장 신화가 상생하는 것임을 보여준다.<sup>18)</sup> 앞 장에서 살펴본 작품들에서 가장인 아버지들은 전쟁기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걱정하며 생산노동에 참여하거나, 상이군인이 되어서도 가족을 위해 생산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믿으며,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대리가장이 되기도 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여성인 어머니는 전형적인 모성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전업주부의 모습을 보이거나, 남편이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겸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소년세계』에는 위의 작품들 외에도 부정적인 부모가 존재하는 가정, 어머니마저 아프거나 죽는 가정, 타락하거나 변절해서 집을 떠나버린 어머니를 둔 가정까지 여러 형태의 가정이 등장한다.

「강희하고는」(1952.10), 「흰 돛단배」(1952.12), 「우정의 꽃」(1953.3)에는 부정적인 부모가 등장한다. 「강희하고는」에서 주인공 종무는 강희, 친구들과 현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이순신에 대한 연극을 준비하지만, 종무와 강희의 부모들은 긴 가뭄에 농사를 짓기 힘들어지자 몸싸움을 벌이며 사이가 틀어진다. 이 부모들은 전쟁기에 식량을 준비하고 돈을 버는 일의 버거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보다 더 긍정적인 가치를 담보한 아이들의 성품을 돋보이게 한다. 종무는 부모님들 싸움에 끼어들어 강희어머니의 허벅지를 깨물었기 때문에 강희를 보기가 불편했지만, 강희는 종무에게 강냉이를 내밀며 아무렇지 않은 듯 다가간다. 이 작품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충'(연극 이순신전)과 '우정과 배려' 등의 정서를 초점화하고자 이들과 대비되는 부정적인 부모상을 그려내었다.

「흰 돛단배」의 어머니는 형인 열이와 남동생인 광이를 차별하며, 동생인 광이(별명 돼지)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열이는 엄마 몰래 광이와 카스테라를 먹었지만, 광이가 혼자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열이의 말만 믿고 광이를 꾸짖는다.

언니 열이더러는 누구든지 칭찬만 했습니다. 동생 돼지더러는 누구든지 흉만 보았습니다. 학기말에 성적표를 받으면 받는 족족 열이는 백점이니 구십점이니 하는 것만 수두룩한데 돼지는 오십점이니 삼십점이니, 어떤 과목은 영점까지 받아옵니다. 열이는 별로 싸움도 하지 않지만 한번 성만 내면 애들이 모두 무서워하는데 돼지는 늘 싸움만 하면서도 그러는 족족 얻어터지고 울고만 들어옵니다. 열이는 밖에 나가 놀다가도 예쁜 꽃나무라든가 바둑돌이라든가를 보면 기를 쓰고 끌어들이는데 돼지는 끌어들이기는 커녕 무엇이든 반반한 것만 보면 기를 쓰고 끌어내다가 버리거나 애들에게 뺏기거나 합니다. 열이는 하얀 이마에 불그레한 뺨에 눈도 또렷또렷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돼지는 거무튀튀한 얼굴에 다 상구대가리고 넓적한 코에서는 누우런 콧물까지 노상 흘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백점 받는 언니 열이더러는 이담에 크면 대통령은 틀림없다고 하하지만 영점 받는 동생 돼지더러는 거지 밖에 못될 굴추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작품의 서두로서, 열이와 동생 광이가 성적, 성격, 살림 능력, 외모의 측면에서 상반되게 묘사되어 어머니가 두 형제를 차별하는 이유를 추리할 수 있게 해준다. 『소년세계』에서는 교육, 공부의 중요성을 등장인물의 발언이나 생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밝히는 작품이 많다. 이 작품에서도 두 아이의 성적 차이가 서두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는데, 이 작품에서 공부의 중요성은 따뜻한 돌봄노동을 행하지 않고 두 아들을 차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우회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18)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가장: '가족'과 '개인' 사이의 긴장과 균열-1950년대 박경리와 강신재 소설의 여성가장 형상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우정의 꽃」에서 영철이네는 이북에서 유엔군과 함께 피난을 와 인수네 건넌방을 빌려 기거한다. 영철의 아버지는 “짐승같은 인민군들이 북쪽으로 도망쳐 달아날 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영철이는 어머니와 단 둘이서 피난을 오게 된 것이다. 각박한 현실을 버티기 위해 영철의 어머니는 콩나물 기르는 일을 하는데 콩나물을 기르려면 물을 많이 쓰게 되고, 나물의 찌꺼기가 뜰을 더럽혀서 영철 어머니는 인수네 어머니와 종종 말다툼을 벌인다. 생산노동을 해야하는 영철 어머니와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인수 어머니의 가사노동이 부딪히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영철이는 인수와 사이 좋게 지내고 싶어하고, 인수는 영철이에게 자신의 어머니 대신 사과를 한다. 이 작품에서도 부정적인 어머니상은 아동의 긍정적인 면모를 교훈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의 긍정성은 교통사고를 당한 인수에게 선뜻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영철의 행동을 통해 극대화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

성별분업 노동은 분업이 아니라 여성의 이중 노동이 되기 쉽다. 대다수 여성들은 공/사 영역 전반에 걸쳐 일하지만, 모든 남성이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노동 시장에서 밀려난 남성들은 사적 영역에서 노동하지 않으려는 경향<sup>19)</sup>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꽃길로 가는 학교」(1953.4)와 「서낭당」(1952.9)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꽃길로 가는 학교」에서 동길의 어머니는 학교의 유일한 선생님이던 자신의 남편이 죽자 그 자리를 이어 학교 선생님이 된다. 동길의 어머니는 일을 하며 아들 동길이까지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약착같이 일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혼자서 학교의 모든 과목과 담임을 담당 하면서 방, 마루, 마당도 깨끗이 치우고, 솔에도 독에도 물을 가득 길어놓는 등의 살림노동도 수행했다. 그러나 “잠꾸러기 아저씨”로 불리는 동네 아저씨는 공적 노동도, 사적 노동도 하지 않으며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고만 한다. 온갖 일을 도맡아서 해야했던 동길의 어머니와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이 잠꾸러기 아저씨는 동길의 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져 죽자 학교 선생님이 되어 동길이의 환영을 받는다. 그에게는 힘과 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남성들이 사망, 실종되고 동원되었던 상황은 많은 모중심 가족을 양산한다. 모중심 가족은 협의로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로는 아버지가 생존해있지만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는 주로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상이군인, 실업자, 무직자, 처와 자식을 유기한 남성 등의 가족이 해당한다.<sup>20)</sup> 그런데 「서낭당」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함께 살고 있지만 생산노동을 하지 않고, 상징가장으로서의 기능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독특한 모중심 가족이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삼돌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약 먹는다구 다 낫나.”, “요샌 약 값이 여간 비싸야지.”라고 말할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반면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밥과 술을 해서 삼돌이의 회복을 빌려 서낭당으로 간다. 작품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삼돌이가 나온 후 몇 달이 지나 어머니가 죽게 된 이유도 아마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을 모두 해내야 했던 그녀의 힘겨운 삶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가장이 되는데 이런 양상은 「푸른 편지」(1952.10)에서 어머니를 꾸짖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아들이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형식의 작품으로서 어머니의 타락을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나’의 아버지는 전쟁 중 생사불명이 되고, ‘나’는 어머니 없이 혼자서 신문을 팔며 살아가다 길에서 우연히 어머니를 보게 된다. 그런데 “긴 치마에 고무신만을 신던 어머니가 입술을 빨갱게 하고, 양복에 뾰족 구두”를 신은데다가 댄스홀에 들어가 외국사람과 춤까지 춘다. ‘나’는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선생님의 집에 머물지만, “남에게 신세를 끼치지 않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살았다는 자랑”을 하고 싶어 부지런히 신문을 팔고, 공부도 하며,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자 한다.

19) 권김현영,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01.

20)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7.

이런 ‘나’였기에 어머니의 변절과 타락은 더욱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어머니의 속사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아들의 입장에서 대상화된 어머니의 모습만 보인다. 사실 어머니는 남편의 생사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미망인과 다름 없는 처지였다. 그러므로 그녀가 겪을 인간적인 고뇌나 여성으로서의 가슴 아픈 삶도 마땅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는 전쟁미망인에 대한 성 통제와 아동 부양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기 위해 모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다수의 전쟁미망인은 동정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21)</sup> 이 작품에서는 아들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던 어머니”라고 하며 어머니를 통제하고, 어머니에게 가족 부양의 책임을 환기하며 모성을 강요하고 있다.

「푸른 길」(1953.4)에서 명재는 아버지가 병환으로 죽고, 어머니도 심장병을 앓고 있어 곧 내야할 중학교 입학 수속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생존해 있기는 하나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요구되는 노동은 딸에게 전가된다. 생산, 재생산노동을 모두 감당하는 여성의 노동력은 한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는 근간으로서 꼭 필요하고, 이 노동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수록 남성과 분담되기보다는, 여성들 사이의 계급, 인종, 나이 등의 위계에 따라 여성들 내부에서 전가<sup>22)</sup>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여성들 내부의 노동 전가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이루어졌던 경제 형태이다. 집안의 대들보인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누이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희생했던 역사는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작품 속 명재의 누이도 명재의 수속금을 구하기 위해 홀로 서울로 떠나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누이에게 기별이 없자 명재는 누이를 찾으러 서울로 향하고 우여곡절 끝에 “입술에 빨간 철”을 하고 다방에서 일하는 누이를 발견한다. 누이는 이러한 직업이라도 있다는 것은 다행이며, 자신은 조금도 나쁜 생각이나 타락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명재는 입학할 하면 스스로 벌어서 공부할테니 그런데 있지말라고 말한다. 「푸른 편지」의 아들이 대리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단속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명재는 ‘누이’까지 단속하며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자 한다. 누이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생산노동까지 수행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4. 고아들의 고난서사와 대리가장 아들의 역량 강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부모가 없다면 아동들의 삶은 생존의 위협과 공포로 불안한 날들일 것이다. 「불쌍한 오누」(1952.12), 「달나라의 어머니」(1953.5), 「시계와 달밤」(1953.5)은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불쌍한 오누」는 오누이가 생계를 유지하며 겪는 고난서사가 중심이다.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피난 갈 때 잃어버려 오누이 둘만 남은 상황에서 영옥이는 담배장사를 하고, 오빠인 영규는 인쇄소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돌봄노동도 수행한다. 『소년세계』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한국전쟁 시기에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지만, 오누이는 부모가 부재하기에 더욱 큰 고통을 당하며 작품의 대부분도 이를 그려내는데 할애되고 있다. 영옥이는 담배를 많이 팔아 밀린 학급비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손님은 담배값을 500원이나 깎는다. 영옥이는 담배가 “좀처럼 팔리지 않”아 괴로워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오빠는 집에 먼저 돌아와 “저녁을 지어놓고 언제나 모양으로 영옥을 기다리며 희미한 등잔밑에서 <중학강의록>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영옥이는 “내일은 쌀도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 차마 오빠에게 학급비를 조를 수가 없어” 조용히 입을 다문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리가장인 영규는 영옥이의 학급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는 결국 인쇄소의 책을 도둑질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남아인 영규는 영옥이보다 두 살밖에 많지 않지만 공·사 영역의 노동을 모두 부담하며 동생에 대한 돌봄노동까지 수행하지만, 어린 그가 성인남성만큼의 수입을 벌어들이기는

21) 김은경, 「1950년대 모성 담론과 현실」, 130쪽.

22) 권김현영, 앞의 책, 30-31쪽.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규의 대리가장 역할은 또다른 남성인 이웃집 털보아저씨에게 분담될 수밖에 없다. 털보아저씨는 오누이에게 돈 오만원을 주며 영옥이가 담배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영규는 인쇄소에 취직시킨다. 그리고 영규가 도둑질을 해서 경찰서에 갇히자 영옥과 경찰서에 가고, 영규에게 사식을 넣어주도록 영옥에서 오천원을 주기도 한다. 이런 털보아저씨의 선행은 남성 어른의 경제적 능력을 돋보이게 하며 성인 남성에게 우월한 가치를 부여해 아동 독자들의 선망을 유발한다.

그러나 성인 남성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부족한 능력을 갖춘 영규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잃어버린 학급비」의 귀옥이는 학급비를 훔치지 않았는데도 가난한 집 아이여서 의심을 받았다. 「희망의 노래」에서 책방의 책을 훔쳤던 중학생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책이 갖고 싶어” 책을 훔친 안타까운 남아였다. 「불쌍한 오누이」의 영규는 ‘여동생의 학급비를 준비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데, 그의 도둑질은 잃어버린 엄마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영규의 도둑질은 영옥에게 “오빠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도 하늘의 지시였던 것만 같게” 여겨지며 미화된다. 가난한 여아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의심을 받으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과 대비되게, 가난한 남아들은 도둑질을 해도 쉽게 용서되거나 가족과의 재회까지 유발하며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한다.

「시계와 달밤」에서도 남아가 도둑질을 하는 부분이 나온다. 주인공 준호의 아버지는 납북되고 어머니는 서울 용산 폭격 당시 파편을 맞아 죽는다. 대리가장 역할을 수행해야 할 형은 군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생산, 재생산노동은 형수의 몫으로 남겨진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도 여성 노동의 가치나 고됨은 준호가 스스로 돈을 벌고자 결심하는 ‘대견한 대목’에서 잠시 언급될 뿐이다. 형수의 고된 노동보다는 돈을 벌고자 하는 준호의 행동이 더욱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준호는 군대에 있는 형이 보내준 시계를 팔아 양담배장사를 시작하며 형수를 대신해 대리가장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준호의 욕망은 친구 윤식이 준호의 시계를 훔치게 되자 일그러져 버린다. 그러나 윤식의 도둑질은 준호의 용서로 해결되고 둘은 “박선생님의 사랑에 찬 훈화를 듣고 머릿속에 몽클한 것이 짝” 차 집으로 돌아온다. 박선생님은 좌절된 준호의 대리가장 역할을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남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달나라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죽어서 따뜻한 돌봄노동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겪는 슬픔과 외로움을 판타지 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영이와 동생 훈이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러 하늘나라로 간다.

“어머니,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가슴에 손을 대고 이런 소리를 빌고 있노라니까 어머니 그리운 마음이 몇곱절 더 일어나면서 몸이 후끈후끈 해지고 추운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태까지 피곤하던 몸에 기운이 솟아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따스 가슴 속에 꼬옥 안아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중략) 영이와 훈이는 웃으며 그 화살을 주워서 주검의 신에게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은 귀신의 가슴에 가서 딱 박히며 주검의 신은 이상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영이와 훈이의 가슴에 가득찬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랑이 불덩이 같이 타고 있어서 주검의 신이 쏘는 화살도 아무 힘 없이 꺾어져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이와 훈이가 하늘나라에 가서 겪은 사건의 일부분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위험에 빠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동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성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 5. 나가며

전쟁에서는 중립의 범주는 완전히 소멸되고, 적과 나만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는 모든 형태의 회의주의와 상대주의가 정형화된 문구로 통일되고, 그 통일된 구호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전쟁기의 모든 담화는 획일화되고 단순화된다.<sup>23)</sup> 『소년세계』도 여성주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

펴보면 획일화되고 단순화된 젠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생산노동에서 뛰어난 역량을 펼치고 있는 경우 어머니는 사적 영역의 노동에만 머물며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남편이 없거나 무능력한 경우, 아내는 생산, 재생산노동을 완수하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중노동은 딸, 아들에게 전가되기도 했는데, 아들에게 전가된 경우에는 아들의 변화 과정과 고생이 강조되며 아들은 독자력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되었다. 부모가 노동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인물로 비쳐지는 경우에는 아들의 선행이나 윤리적 덕목이 강조되는 효과를 낳았다. 고된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어머니가 아프거나 죽는 모습이 담긴 작품들에서도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자리매김이나 재평가는 부재했다.

삶의 생산과 재생산에서 여성의 몫은 흔히 여성의 생물학적 혹은 자연적 기능으로 규정되어 왔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은 여성의 생리활동의 연장선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sup>24)</sup> 『소년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생산노동, 재생산노동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했고,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은 여자라면, 어머니라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행해야 할 가치로 묘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머니역할을 하지 않고 ‘타락’해 갈 때 아들은 어머니를 계도하며 여성의 삶을 어머니의 삶과 가족을 위한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에 머물도록 강요한 것이다. 부모가 없거나 특히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의 고통을 다룬 작품들도 모성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시기의 여성들은 지금보다 더한 성차별을 당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삶은 문학작품에서 재생산되며 남아와 여아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이전의 작품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소년세계』의 이후 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

23) 김동춘, 앞의 논문, 152쪽.

24)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6, 121-122쪽.

## 『소년세계』의 젠더 연구- 토론문

한 혜 진 (덕성여대)

허난희 선생님의 흥미로운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덕분에 아동 문학 연구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저의 경우처럼 처음의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 편의 소설, 한 편의 시가 큰 영향을 미치기 쉬운데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아동 문학의 젠더 양상을 연구하고 아동기나 청소년기부터 젠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 시대적으로도 유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선생님께서는 여성주의 경제학을 토대로 『소년세계』의 전반기 작품 중 경제적 측면이 드러나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셨는데, 선생님의 글에서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기존의 경제학은 남성들의 일은 생산 영역으로, 여성의 가정보동은 재생산 영역으로 구분’하며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하여 제대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소년세계』에 실린 작품들에서도 여성의 노동은 평가절하되고 정당한 자리매김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은 여자이거나 어머니라면 자연스럽게 감당해야 할 가치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재생산’이라는 분석적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재생산 개념과 관련된 연구들의 목적은 불평등한 노동분업 체제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L.C.Johnson)은 재생산이라는 개념이 여성을 재생산 주체로 가정하며, 이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 역할을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sup>1)</sup> 이는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범주 모두 백인 부르주아의 젠더화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생산 개념이 백인 부르주아 이상, 즉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를 이상적으로 보는 부르주아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 및 비판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가정에서의 삶은 재생산 과정에서 노동능력의 재충전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삶은 산업생활, 즉 ‘생산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S. Mackenzie & D. Rose). 이는 재생산이 가부장제나 자본주의 생산 양식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관점인데요. 이러한 연구들은 가사노동과 자본주의의 상호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생산과 재생산 간의 간극을 거부합니다. 이는 육체적, 물리적, 이데올로기적인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당연히 ‘분리’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사적 가정영역과 공적 노동영역이 실제로는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주제를 사회적·경제적 삶에 대한 학문 담론에 끌어들이는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연구의 토대가 되는 여성주의 경제학이 ‘돈의 논리 앞에 폄하되었던 돌봄, 보살핌, 배려 등의 가치를 부각’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고의 『소년세계』에 나타난 여성의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선생님의 연구 시각과 의도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관점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 질리언 로즈, 정현주 역, 『페미니즘과 지리학』, 한길사, 2011, 290쪽 참조.



# 김명화 작품에 나타난 전쟁 기억의 재현 양상

- 「침향」, 「냉면」을 중심으로

백소연(가톨릭대)

## 목차

1. 들어가며
2. 기억의 복원과 치유의 모색
  - 1) 억압된 과거의 귀환과 복원
  - 2) 화해와 치유의 가능성
3. 연루의 자각과 기억의 분유
  - 1) 이질적 기억의 접합과 연루의 자각
  - 2) 다시 읽는/쓰는 과거와 기억의 분유
4. 나가며

## 1. 들어가며

‘한국전쟁’<sup>1)</sup>을 소재로 한 연극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편적 휴머니즘에 기반을 두어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경우조차 반공의 프레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반공과 관련된 역사의 기억은 국가에 의해 전유되었고 그 결과 문학과 예술은 그 탁월한 반사경의 역할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는 수정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공적 기억 속에서 제거되기도 하였다.<sup>2)</sup> 한국사회·문화전반에서의 전쟁 기억이란 곧 “반공의 자기재현(self representation)”형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sup>3)</sup> 전쟁 직후만이 아니라, 1960~70년대 국립극단에서 공연되었던 일련의 작품들의 경우, 대부분 관제연극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정권이 공표했던 지배이데올로기에 철저히 부합되는 방향에서 제작되었다.<sup>4)</sup>

김용수의 지적처럼 ‘6.25’를 다룬 작품들은 유사한 스토리와 인물, 플롯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산 하면서 한국 고유의 “장르”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남과 북의 관계를, 단순히 선악의 구도에서가 아닌, 다른 시선

---

1) 동족의 피침을 기념하는 ‘6.25’라는 명칭의 이례성이 보여주듯이(박명림, 「한국전쟁 6.25를 기억하는 방식: 역사용어와 사유체계의 문제」,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엮음,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006, 183면) ‘6.25’라는 용어는 반공주의의 프레임 안에서 특정의 의미를 생산해 왔다. 물론 김동춘의 지적처럼 ‘한국전쟁’이라는 용어 역시 전쟁 당사자의 관점에서 오히려 전쟁을 타자화 하는 한계를 지니지만 보다 적절한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로서의 ‘한국전쟁’을 본고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65~66면)

2) 남원진, 「역사를 문학으로 번역하기 그리고 반공 내셔널리즘-반공내셔널리즘을 묻다」, 『상허학보』 21, 2007, 3면.

3) 신형기, 「6.25와 이야기 경험-전쟁 수기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1, 2011, 215면.

4) 김승옥, 「전쟁 기억과 재현-대한민국연극제 한국전쟁 소재극을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 34, 2011, 92~93면.

에서 조망하고자 했던 노력이 전무한 것만은 아니었다. 차범석의 「산불」(1962)은 전쟁의 상황을 극의 중심에 끌어들이면서도 인간의 근원적 욕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근삼의 「아벨만의 재판」(1975)은 알레고리를 통해 전후에 자행된 전범 재판의 모습을 환기하며 권력자의 입장에서 역사가 날조되는 과정을 비판하였다. 또한 1980년대 연우무대(황석영 원작)의 「한씨연대기」(1985)에 이르러서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폭력성이 보다 적나라한 방식으로 폭로되기도 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2000년대를 전후해 등장한 연극들은 분단 체제가 생산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주목하였으며 그들의 치유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갈등과 대립을 용서와 화해로 전환하려는 가능성 등을 보다 다양한 상상력의 기반 위에서 펼쳐내기도 하였다.<sup>5)</sup>

최정은 한국 희곡이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 다시 쓰기의 문화적 실천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동시대의 문화적 기억을 재구성 하는 데에 기여해 왔음을 밝힌 바 있다.<sup>6)</sup> 지배 이데올로기에 전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1960~70년대에도 획일화된 기억을 벗어나 억압된 기억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나마 존재해 왔으며 현재화된 상처를 대면하고 치유함으로써 훼손된 공동체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 모색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면화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를 전후해서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미체험 세대들의 작품이 등장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 인식과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즉 점차 공동체 내에서 망각되어 가는 한국전쟁의 원 체험을 어떻게 공유하며 문화적 기억으로 전승할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sup>7)</sup>

2007년 차범석희곡상 제1회 수상작이기도 한 김명화의 「침향」은 이처럼 달라진 시대적 변화 안에 존재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전쟁 이후 개인의 삶 안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겨진 전쟁의 상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개인사의 비극을 넘어 그 의미를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8년 권리장전에 참가한 연극 「냉면-침향외전(沈香外傳)」은 작품의 부제가 설명하듯 10년 전 공연되었던 「침향」을 전제하면서도 전쟁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미체험 세대의 입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서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넓은 범주에서의 기억, 체험 등을 다양하게 다룬다.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현재화 하는 하나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sup>8)</sup>

본고는 김명화의 <침향>과 <냉면>이 한국전쟁의 역사를 연극 안에서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그 기억의 재현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두 작품의 차이가 갖는 연극사 내에서의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자 한다.

## 2. 기억의 복원과 치유의 모색

### 1) 억압된 과거의 귀환과 복원

5) 권순대, 「분단희곡 <침향>의 선동적 사건과 장소성」, 『통일인문학』제71집, 2017.9, 76~77면.

6) 최정은 연극이 한국전쟁의 기억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전승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전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이라는 ‘기억의 공간’에서 재현되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역사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 기억과 같은 형태로 공유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관객과 직접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실천의 장이 되며, 관객들은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시간을 추체험하고 ‘환기·되씹음’하는 일종의 사회적 의식을 통해 ‘고통의 기억을 연대’함으로써 문화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최정, 「한국희곡에 표상된 한국전쟁의 ‘기억’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17, 2면)

7) 최정, 앞의 책, 2017.

8) 일라이다 아스만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적 기억과 구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적 기억을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일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수 옮김, 그린비, 2011, 13~15면.)

연극 「침향」은 강수의 귀환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를 다룬 작품이다. 전쟁 당시 좌익 활동을 했던 강수는 수세에 몰리자 훗날을 기약하며 가족과 이별한 채 홀로 월북한다. 하지만 곧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그의 막연한 기대는 결국 56년이 흐른 후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이, 강수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다 이미 십여 년 전 세상을 떠났으며 아내 애숙은 치매로 정신을 놓고 있고 자식인 영범은 중년의 나이가 되어 버렸다.

강수가 부재한 긴 세월 동안 그는 고향 마을에서 금기시 된 인물이었다. 국가가 용인한 제도화된 공식기억 안에서 “빨갱이”로 낙인 찍혔을 강수는 부정하거나 망각되어야 마땅할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랐던 영범이 강수의 귀환을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범은 “생과부로 평생” 살아온 홀어머니 밑에서 “애비 없이” “빨갱이 새끼”로 살아야 했다. 더구나 한 마을에 사는 강수의 친구 택성은 일제 순사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 중 잔인하게 살해당한 후, 평생을 강수에 대한 원한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따라서 마을 내 공동체 안에서 강수를 기억하거나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일이 그저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강수의 귀환은 잊혀진 그에 대해 비로소 다시 생각하며 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극은 과거의 무거운 사건들을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가족들은 마당에 모여 음식을 준비하며 강수의 음식 취향과 같은 소소한 과거의 일화를 나눈다. “빨갱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 안에서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담담하게 회고될 뿐이다. 집으로 돌아온 강수가 달라진 고향의 낯선 모습 속에서 읽어내는 것 역시 과거의 일상에 대한 담담한 기억들이다. “이제 강수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줄 옛 장소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풍경이 아닌 기억을 끄집어내야”만 한다.<sup>9)</sup>

강수 : ...여도 마이 변했습네다.

재동 : 동네 초입부터 몰라보겠다 카네요. 탕주나무만 여전하다고. 그것만 없으면 우리 동넨 줄 문 알아보겠답니다.<sup>10)</sup>

강수 : (그 방향으로 걸어가 본다) 기러티요. 이짜이디요. 이래 대문을 들어오만 여게 우물이 있었는데, 기것도 없어졌구만요. 여 모괴나무도 있었고, 감낭구. ...뒤안에 닭장도 있었고 비만 오만 닭 냄새래 지독시럽았는데. 장독대만 그대로구만. 성님, 여가 꿈에 그래 나오데요. 어무이가 우물가에 앉아서 쌀을 씻고, 아니만 장독대에서 장을 퍼 담아 갖고 내리오고. 거기 삼삼하게 꿈에도 나오고...어!<sup>11)</sup>

강수의 귀환으로 유령인 노모의 존재는 무대 위에 가시화 된다. 매우 사실주의적인 설정 안에서 종종 극 중간에 출몰하는 이 유령의 존재는 다른 인물들에게는 확인되거나 인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모가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모습은 망각의 이면에도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기억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연극의 첫 장면부터 강수의 노모는 장독대 부근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 공간은 강수가 변해 버린 고향의 풍경 안에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변하지 않은 공간이며 어머니에 대한 추억,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이끌어내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노모의 유령은 장독대 사이를 오가며 된장의 상태를 능숙하게 살핀다. 익숙한 듯 이어지는 행동은 마치 그녀가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오기는 올란갑다”라는 대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노모는 오랜 세월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집을 맴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권순대, 「분단희곡 <침향>의 선동적 사건과 장소성」, 『통일인문학』제71집, 2017, 85면.

10) 김명화, 앞의 책, 26면

11) 김명화, 앞의 책, 27면.

노모 : 던장 맛은 여전하구만. 사람도 여전할랑가. 어허 아직 장마도 시작을 안 했는데 여는 까치가 뽀얏네. 아가. 이것 좀 간충하이 치와야겠다. 왜 대답이 없나. (다시 까치 소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마이도 울어 쌓는다. 까치가 저래 울어 쌓는 걸 보이, 오기는 올란갑다...까치야, 더 크게 울거래이.<sup>12)</sup>

“가장 확실하고 냉정한 부정은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즉 ‘비존재’로 만드는 것이다”<sup>13)</sup> ‘없는 사람’처럼 취급 받아야 했지만 강수의 존재는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 곁에 존재하는 노모의 유령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수의 귀환으로 강수에 대한 깊은 원한에 사로잡힌 친구 택성이나 아버지에게 대해 침묵해 온 아들 영범 등, 모두는 과거의 기억과 직면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생강굴도 이러한 맥락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표현된다. 원래 강수 집안의 땅이었던 생강밭은 일제시대 택수 아버지가 순사로 있던 시절 택수네에 헐값으로 빼앗겼다가 다시 전쟁 중 강수 집안으로 되돌아온 공간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곳은 강수와 애숙이 신혼 시절 가족의 눈을 피해 밀회를 나누며 사랑을 속삭이던 공간이자, 훗날의 재회를 약속한 채 마지막 인사를 나눈 이별의 공간이기도 하다.

애숙 : 이상해요, 어무이. 아직도 굴 안에서 생강냄새가 납디데이. 생강이 한 톨 눈에 안 비는데, 우찌된 일이고. 이래 냄새가 남아 있는 걸 보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없는 기 아이구만요. 어무이, 향기가 깊어서 숨이 턱턱 찹니데이. 상긋하고 달달한 냄새가 코를 쏘면서, 온몸이 달떠서 맥을 못추겠어요.<sup>14)</sup>

애숙 : 우리 서방님 거다. 아무한테도 주지 말라 겠다.

강수 : 임자, 내, 여 왔다. 내가 니를 왜 안 찾겠노. 하루라도 잊은 날이 없었데이. (중략)

애숙 : (멸절한 사람처럼 손에 있던 문서를 강수 손에 쥐여 준다)

강수 : 이기 뭐고.

애숙 : 당신 올 때까지 잘 갖고 있으라 캬잡아<sup>15)</sup>

평생을 기다림으로 보냈지만 돌아온 남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애숙이지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그녀가 그러했듯 생강굴로 또 다시 숨어든다. 강수와 함께 했던 시절, 그곳에서 그녀는 생강이 한 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흐른, 이미 지나버린 시간과 마주한다. 그 과거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냄새처럼 “우리 안의 과거”로 엄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애숙에게 강수는 “상긋하고 달달한” 상대이자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괴로운, 모순된 존재였을 것이다. 가족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을 기억임에도 그 과거의 고통이란 누구와도 쉽게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과거 안에 갇혀 있던 애숙은 마침내, 강수를 마주하며 그 생강굴에서 평생을 품고 있던 노트를 건넌으로써 기다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억압되었던 과거와 직면하면서 비로소 그녀의 기억은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 2) 화해와 치유의 가능성

전쟁에서의 주체적 선택이란 근원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는 체험이다.<sup>16)</sup> 훗날의 공식자료나 회고록 등에서도 많이 언급된 것처럼 한국전쟁 당시 민중들은 전선이 이동하면서 국가 혹은 지배세력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 양쪽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

12) 김명화, 『침향』,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5면. (앞으로의 인용은 페이지 수만 기재)

13) 이나미, 『이념과 학살: 한국전쟁 시기 좌익에 대하여』, 선인 2013, 7면.

14) 김명화, 앞의 책, 78~79면.

15) 김명화, 앞의 책, 90~91면.

16) 오카 마리, 『기억, 서사』, 김병구 옮김, 소명출판, 2004, 3면.

다.<sup>17)</sup> 특성의 이념을 선택한 이들 역시 전쟁 중 벌어진 상황들이 개인의 의도대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택성의 아버지를 죽이는 데에 적극 가담했던 강수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와의 우정, 신의를 배신해야만 했다. 그러나 택성의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순사를 지냈다는 이력과 추격을 피해 생강굴에 숨어 있던 중 목숨을 잃었다는 독립군의 사연은 결국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살육의 과정이 특성의, 특정 세대에 국한된 가해-피해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어데 거만 죽었겠나”라는 말처럼,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명백히 가리기 어려운 “시절”의 문제, 시대의 비극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택성은 비명횡사한 아버지에 대한 원한에 평생 사로잡혀 있었으며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오로지 강수 개인에게만 돌려왔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잔뜩 술에 취한 택성은 낮을 휘두르며 회한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낸다. 극단으로 치닫는 듯 보이는 두 사람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재동 : 아이 안에 들리겠데이. 그때사 시절이 안 그랬나. 좌고 우고 피 뿌리느라 정신 없었은께, 어데 거만 죽었겠나.<sup>18)</sup>

택성 : 니가 내 손에 죽고 싶어 이 동네를 지 발로 걸어들어왔재. 나와라, 박강수. 피를 봤으면 끝까지 피를 봐야재. 우리 아버지를 그래 죽이 놓고 뻘뻘시럽게 여를 살아 왔단 말이야.<sup>19)</sup>

그러나 택성은 낮을 든 채 강수를 기다리면서도 그와 함께 했던 씨름판에서의 과거를 떠올리자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기도 한다. 힘이 좋았던 강수는 일부러 친구를 위해 씨름에서 져 주곤 했었다. 이러한 뜻했던 추억은 분명 현재 그가 갖는 원한의 감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택성과 제대로 마주한 강수는 택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도망치던 그 날, 요란스레 팽과리를 치며 잡으러 왔던 택성의 행동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택성의 도움으로 강수는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가 도망갈 수 있었다. 원수가 되어서조차 친구를 향한 마지막 우정을 내려놓지 못했던 택성의 마음에 강수는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한평생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사죄를 청하게 된다. “그기 옳은 일인 줄 알았”던 과거,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줄” 알았던 과거를 진심으로 사죄한다.

강수의 진심어린 사과에 택성은 대꾸 없이 씨름을 청하는데 달밤 아래 벌어지는 두 사람의 씨름 대결은 함께 했던 아름다웠던 시간으로의 회귀를 보여주며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서를 통해 한국 현대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수 : 평생 궁금했재. 너, 내가 도망치던 날 기억하나. 거기 이상했데이. 어째서 메구를 찾을꼬. 그냥 와서 잡아가만 댘을 낀데, 온 동네가 알도록 왜 그리 떠들썩했더노.

택성 : ....

강수 : 내 도망 가라고 니 일부로 그랬제. ...일이 그래 번질 줄 그때사 우째 알았겠노. 그때는 거기 옳은 일인 줄 알았데이.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줄 알았재. ...미안하다, 택성아. 이 말 한마디 하는데 한평생이 걸릴 줄 몰랐다.

택성 : ...강수야...이복에도 씨름 있더나. 거도 여맨치로 씨름하는가 가끔 가다 궁금해지데.

---

17) 김동춘, 앞의 책, 77-78면.

18) 김명화, 앞의 책, 38면.

19) 김명화, 앞의 책, 34면.

갑자기 택성이 곰처럼 무릎을 구부리고 손뼉을 친다.

오랜만에 한 판 붙어 볼래. 수십 년 묵은 원수끼리 황소 내기 한 판 하자, 이 문디 새끼야!<sup>20)</sup>

작품의 제목에 사용된 “침향”은 나무를 천년 동안 땅에 파 묻어 그 향기로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제의를 가리킨다. 강수의 손주뻘인 꼭지는 학교에서 침향제 행사로 땅에 묻을 타임캡슐에 넣을 “역사”가 될 만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극의 초반부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꼭지는 자신이 찍은 강수의 사진과 더불어 강수가 애숙에게 과거에 남기고 갔던 낡은 수첩을 함께 묻기로 결심한다. 수첩에는 당시 강수의 좌익 활동에 필요했던 중요한 정보들이 남겨져 있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는 완전하게 퇴색되고 말았다. 한 개인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문제는 “일장춘몽”과도 같은 덧없는 과거로 남겨져 버린 것이다.

꼭지 : 사진 보실래요.

강수 : 쪼만해서 보이도 않는다. 다 늙은 영감, 사진은 찍으면 뭐하나.

꼭지 : 역사잖아요. 내중에 이것도 타임캡슐 안에 넣을 거라요.

강수 : 캐슐이 뭐라?

꼭지 : 그런 기 있어요. 내중에 후세 사람한테 기록으로 뭐 남기는 거라요. 할아버지도 뭐 남기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넣어 드릴까요.<sup>21)</sup>

꼭지 : 그 공책은 타임 캡슐 안에 잘 넣었어요. 선생님이 오늘 학교에서 몽땅 파묻는다 그랬어요.

강수 : 그라만 이제 천 년 동안 아무도 안 열어 보는가.

꼭지 : 예. 그런데 너무 낡아서, 천 년 뒤에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장이 다 떨어져 갖고 내가 색종이 붙었는데, 빨간색 괜찮지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잖아요.

강수 : (꼭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고맙데이.<sup>22)</sup>

“너무 낡아서, 천년 뒤에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한 개인의 사연이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름 없는 그들이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생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낸 의미는 꼭지로 상징되는 후속 세대의 손에 남겨져 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의 표지를 색종이로 정성껏 보수하여 간직하려는 꼭지의 행동은 마치 시대의 비극을 위로하며 조금이라도 치유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하나의 “역사”로 기록하여 남기고자 하는 의지야말로 엄혹한 시대를 살아냈을 이들을 향해 건네는 위로이기도 하다. 땅에 오랫동안 묻은 나무가 향기롭게 재탄생 하며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게 되듯이, 후손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역사 역시 우리 시대 안에서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극에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꼭지는 이 극에서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완성하는 주체로서 기여”<sup>23)</sup>하고 있는 것이다.

### 3. 연루의 자각과 기억의 분류

#### 1) 이질적 기억의 접합과 연루의 자각

20) 김명화, 앞의 책, 96~97면.

21) 김명화, 앞의 책, 53면.

22) 김명화, 앞의 책, 101면.

23) 최정, 앞의 논문, 209면.

「냉면-침향 외전」(이하 「냉면」)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10여 년 전 발표된 「침향」과의 깊은 연관성을 시사한다. 「침향」은 전쟁 미체험 세대의 작가가 전쟁을 체험한 이들의 경험을 가까이 지켜보며 과거와 현재를 좀 더 객관화된 시선에서 조망하며 상흔의 치유와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의미는 이 작품이 발표된 이후 십여 년의 세월동안, 그 시간만큼 의미 역시 빠르게 퇴색되었다. '6.25'를 체험하지도 못했거니와 그러한 체험 세대로부터도 일정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전쟁이란 영화 속 전투 장면의 스펙타클로 소비되는 볼거리 혹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종북 프레임의 일부로 이해될 뿐이다. 체험하지 못한 과거란 본질적으로 현재보다는 강렬할 수 없다.<sup>24)</sup>

달라진 시대의 분위기를 감지한 작가는 연극이 전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진다. 「냉면」의 첫 장면은 다다이스트들이 시를 썼던 것처럼 “우연과 연상”에 기대어 전쟁과 관련된 자유로운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배우는 물론 실제 관객들에게까지 받은 쪽지의 구체적 내용은 극의 말미에 공개되는데 각각의 이질적 단어들은 그 의미를 즉석에서 연결, 구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무대 위 사건이 아닌,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 안에서 전쟁과 관련된 기억, 의미를 고민하도록 유도된다. 그리고 작품 내에 파편적으로 제시되는 작가의 자전적 체험과 기억은 물론, 동시대의 관객이 지닌 여러 생각들은 이러한 극적 설계 안에서 공유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배우 2: 자, 우리는 지금부터 다다이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생각나는 대로. 연상에 의지하여, 과정을 즐겨봅시다. 분단. 뭐가 떠오르죠?

(..중략...)

배우 2: 좋은데. 아님 생각 안남. 무관심, 이런 것도 좋고... 분단.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쓰세요. 다 쓴 쪽지는 실크햇에 넣어주시구요. 그리고 마술의 모자 속에서 단어들이 무엇으로 변하나 수업 끝나기 전에 확인하기로 합시다.<sup>25)</sup>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역사적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보다 폭넓은 개념에서, 과거와의 “연루(implication)” 문제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나 개념 등은 결국 과거로부터 형성된 역사의 산물이므로 결국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과거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 역사적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투로서는 완결되었을지 모르나, 한국전쟁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제도화를 통해 여전히 우리 안에 강렬한 현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루(implication)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와는 맺는 관계가 통상 ‘역사적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 또는 ‘역사적 책임’ 보다 더욱 폭넓은 관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고안해낸 개념이다.”<sup>26)</sup>

“더구나 우리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과거와 ‘연루’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꼭 뒤집어쓰고 있는 구조나 제도, 개념의 그물은 과거의 상상력과 용기, 관용, 탐욕, 잔학행위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구조나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어 존재하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sup>27)</sup>

연극 「냉면」은 한국전쟁으로부터 멀어진 세대를 향해 과거와의 연루 문제를 환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24) 백소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들에게 건네는 연극의 위로」, 『공연과 이론』가을 통권 71, 2018.

25) 2018년 권리장전 대본 참조.

26) 테사 모리스-스즈키, 김경원 역, 『우리 안의 과거』, 휴머니스트, 2010, 44면.

27) 테사 앞의 책, 45면

이에 대한 자각은 교조적, 계몽적 언어 혹은 거대담론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8년 4월, 11년 만에 재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분단사의 아픔이나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업처럼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당시 회담의 만찬메뉴였던 옥류관의 평양냉면을 둘러싼 관심이 뜨거웠던 것이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단순히 먹거리에 대한 호기심만이 자극적으로 오고 가는 언론의 보도 행태는 사실 문제적이다. 그러나 연극은 2018년, 정치 상황으로 과열된 관심을 통해 냉면을 매개로 그에 얽힌 과거의 여러 사연들을 끄집어내면서 관객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한다. 작가는 토론의 자리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분단으로 인해 느낀 고통을 관객들에게 공감시키는 데 주력”했다며 작중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즉 어느 세대의 누구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냉면의 “습습한 맛”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이어 나가며 그 안에서 공감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 것이다.

더불어 작가를 대리하는 서사적 화자를 내세워 연극 「침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접근 역시 미체험 세대로서 전쟁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여 연루의 문제를 고심하게 될지 보여 준다. 이를테면 냉면을 먹고 임진각에 방문하게 된 작가는 여전히 제3 땅굴을 지키고 있는 젊은 보초병들의 모습을 조망하며 잔존하는 분단의 현실을 읽어내고자 한다. 또한 땅굴을 지키는 보초병들의 안전을 위해 대신 그곳에 남겨지는 카나리아에 주목하기도 한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카나리아의 모습에서, 한평생을 이어져 왔던 「침향」 속 애숙의 기다림을 떠올리기 위함이다.

배우 5: 누가 되었던 그의 옷을 벗기고 살냄새를 맡고 싶어요. 물강하고 부드러운 살, 그것이 내 무덤이 되면 좋겠어요. 그 푸근한 살 속에 내 얼굴을 내 몸을 파묻고 싶습니다. ...누구야? ...아, 교대병이구나. (퇴장하려다) 자 우리 이쁜 카나리아 아가씨. 난 이제 휴가야. 안전하게 땅굴 잘 지키고 있어.

군인 5 떠난다. 카나리아 혼자 남겨진다. 애숙의 테마곡

배우 3 : 꼭 ..돌아올거지? 사랑하는 당신, 내가 이 땅굴을 잘 지키고 있으면 정말 꼭 돌아올거지? ...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어디 있지? 아무도 모르게 잘 감차라.

배우 2 : 제 3 땅굴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문득 침향의 생강굴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처럼 「냉면-침향외전」은 이질적 사건들을 결합하거나, 그 사건들 사이의 연결 고리에 주목하면서 극의 곳곳에서 한국전쟁의 문제가 동시대의 문제임을 관객에게 환기한다. 이는 결국 미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연루”의 문제를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공감과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2) 다시 읽는/쓰는 과거와 기억의 분유

히비 케이의 표현처럼 “기억은 경험과 투쟁뿐만 아니라 희망 자체를 상기시킨다. 즉 염원, 이상, 그리고 꿈까지도 상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은 “현존 질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그 대안을 모색”<sup>28)</sup>하는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 있기에 힘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타자의 기억들을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오카 마리는 사건의 기억을 나누어 갖는 것, 기억의 “분유”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28) 히비 케이, 오인영 역, 『과거의 힘-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삼인, 2008, 226면.

“‘사건’의 기억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가 .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나누어 갖기 위해서 ‘사건’은 우선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전달되어야만 한다.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29)</sup>

연극 「침향」은 비교적 뚜렷한 하나의 중심 서사를 통해 전쟁이라는 참혹했던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여 화해와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냉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시대의 관객들과 이 기억의 의미를 나누어 갖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다. 우선 작가의 분신이며 극의 의미를 적절히 정리해 나가는 ‘배우 2’는 서사적 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녀는 특정 장면이나 상황에 대해 비교적 명징한 언어들로써 그 의미를 설명해 나간다. 특정 사건을 재현하다가도 불현듯 개입하며 관객의 감정 몰입을 차단하고 전쟁의 상황에 대해 고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배우 2 :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 전쟁은 1953년의 휴전 선언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한반도 인구의 십분의 일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열 명 중 한 명이 죽은 꼴이죠. 간혹 역사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함석헌 선생의 말처럼 이 끔찍한 전쟁이 도둑처럼 우연하게 찾아온 해방과 분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역사란 그저 신들의 장난, 우연한 사건의 결과물인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만들어낸 필연의 결과물일까요. 앞에서 보신 장면은 <침향>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극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듯한 이러한 계몽적 언사와는 대조적으로 극은 대한제국 말기의 고종 황제부터 임시정부 핵심인사였던 김구 선생, 재일동포 1세대 양용철, 월북한 시인 백석 등 냉면과 관련된 잡다한 일화들을 규칙성 없이 연결해 놓기도 한다. 극 전체를 관통하는 전쟁, 분단의 문제와는 언뜻 보아 도무지 상관없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남과 북의 “대립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라고 묻던, 극 초반의 배우 2의 물음과 연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원의 시기에 존재했던 이들의 일상을 끌어냄으로써 거대 담론에 접근할 가벼운 시작이 마련되는 것이다. 냉면이라는, 누구라도 먹어봤으며 그 맛을 쉽게 연상하여 편안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음식, 그에 연결된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출발함으로써 관객은 과거사의 비극을 스스로 다시 읽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작가는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 것은 물론 이름 없는 이들의 삶을 다시 쓰고자 한다. 연극 「침향」의 모델이었던 이모와 이모부는 분단으로 영영 이별한 후,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홀로 남겨진 이모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으나 그 삶의 흔적은 이제 현실 안에서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허구의 힘을 빌려 역사 속에 이름 없이 흘러가 버린 두 사람의 모습을 구현한다. “무더운 여름의 눈부신 햇살, 어디선가 들려올 듯한 매미의 울음, 그 가운데 한 줄기 불어올 것만 같은 잔잔한 바람, 거리를 다정히 거닐고 있는 남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수수하고 심심한” 냉면.....그 이후의 평온함은 역사가, 정치가, 전쟁이 앗아간 한 개인의 삶을 상상력으로써 아름답게 복원해 내고”<sup>30)</sup> 있다.

배우 1 퇴장한다.

매미소리

무대가 환해진다.

더운 여름날이다.

양산을 쓴 이모 등장하고 뒤로 이모부가 등장한다.

29) 오카 마리, 앞의 책, 39면.

30) 백소연, 앞의 글, 41면.

배우 5 : 오래 기다렸어요? .. 얼마만의 데이트지?

배우 3 : 아이 저 매미소리. 날씨 참 무덥다.

배우 5 : 난 그래도 여름이 좋아.

배우 3 : 여보 날씨 더운데 냉면 드실래요?

배우 5 : 좋지.

배우 3 : 여기 물 냉면 두 그릇이요.

배우 4가 냉면을 배달하고 벤치에 앉는다.

배우 3 : 여보 저 아주머니, 우리 경숙이 닮지 않았어요?

배우 5 : 그런가.

배우 3 : 다음엔 우리 경숙이도 꼭 같이 데리고 와요.

배우 5 : 그럼시다 ..자, 시원하게 냉면 국물부터 들이켜요.

둘이 냉면 국물을 마시고 젓가락을 들어 먹는다.

배우 4: (백석의 냉면을 노래한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스무레하고 수수하고 심심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쫄하니 익은 동치미국물 얼얼한 땁추가루 싱싱한 산쟁고기. 수육 삶는 육수국 냄새가 자욱한 샷방. 찹찹 끓는 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작가 김명화는 “연극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60년 전의 그들에게 소박하게,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게 이 연극의 주제라면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sup>31)</sup>다고 밝힌 바 있다. 타인의 삶을 상상력을 통해 위로하는 것. 이러한 아름다운 불가능한 상상은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동시에 그 기억을 통해 현 세대가 추구해야 할 역사의 방향 역시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야말로 누구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길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에게 놓인 역사의 당위이자 현재의 과업일 것이다.

#### 4. 나가며

---

31) 「토론 : 냉면」, 『공연과 이론』, 2018, 54면.